차 례

책을 내면서 …… (4)

성거산 …… (6)
천마산 …… (12)
문종왕과 섬바위 …… (28)
박 연 …… (33)
대흥폭포 …… (40)
청량폭포 …… (48)
마 담 …… (55)
룡 담 …… (59)
구 담 …… (66)
기 담 …… (74)
천수대 …… (83)
관음사와 목공층각 …… (90)
천마충진 …… (97)
대흥산성 북문과 정돌소년 …… (106)
창바위와 부아봉 …… (112)
원수천 …… (121)
범사정 …… (127)
박연폭포와 황진이 …… (132)

고래바위 (135)
스님의 《룡궁구경》 (142)
계절폭포 (147)
박연등산놀이 (156)
기가 꺾인 한양부자 (163)
명산에 명필체 (172)
인달봉전설 (179)
자라봉전설 (183)
마시령 (191)
두모바위 (195)
며느리떡덩이 (202)
까마귀바위 (211)
참개구리바위 (219)
과녀바위와 하늘문 (225)
천마산의 삼표동 (232)
오관산 (239)
천마장수와 쌍북바위 (249)
령통사와 대각국사 의천 (257)
오관산 목계가 (269)
시루봉 (273)
장수바위 (280)
극락봉 (287)
중미정이야기 (298)
현화사이야기 (307)
할딱고개 (315)

《신증동국여지승람》 …………………………………………… (27)
《송도유람기》 ……………………………………………………… (47)
《송도속지》 ………………………………………………………… (54)
《송경지》 …………………………………………………………… (65)
《중경지》 …………………………………………………………… (82)
《개성지》 …………………………………………………………… (96)
인달봉의 어원적의미 ……………………………………………… (105)
《대동수경》 ………………………………………………………… (120)
대흥산성 석각문 …………………………………………………… (141)
관음사 7층석탑 ……………………………………………………… (155)
대흥산성 북문 ……………………………………………………… (171)
령통사 대각국사비 ………………………………………………… (190)
천마산 관음사중건비 ……………………………………………… (201)
관음사 ………………………………………………………………… (218)
박연4담 ……………………………………………………………… (224)
천마산과 리규보 …………………………………………………… (231)
개성암유적 …………………………………………………………… (238)
범사정 ………………………………………………………………… (248)
송도8경 ……………………………………………………………… (256)
황진이 ………………………………………………………………… (268)
의 천 ………………………………………………………………… (272)
대흥산성 ……………………………………………………………… (279)
우리 나라 3대명폭 ………………………………………………… (286)
령통사 ………………………………………………………………… (297)
서도민요 《박연폭포》 …………………………………………… (306)

책을 내면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는 주체101(2012)년에 인민의 명승 박연지구에 유람도로가 훌륭히 건설되여 우리 인민모두를 기쁘게 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박연폭포를 비롯한 박연지구의 력사유적들과 명소들을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할수 있도록 더 잘 꾸릴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박연명승지 유람도로를 훌륭히 건설하도록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박연폭포를 찾으실 때마다 명승지들에는 재미나는 전설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수행한 일군들과 력사학자들에게 전설들도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이야기와 전설들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인것만큼 널리 발굴수집하여야 합니다.》

개성시안의 작가들과 대학 및 중학교 교원들 그리고 고려박물관 연구사들과 문학통신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려주신 전설들을 비롯하여 박연유람도로주변의 명소마다에 깃들어있는 전설들과 력사이야기들을 발굴수집정리하여 마침내 태양절을 맞으며 내놓게 되였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옛 문헌들과 자료들을 참고로 리용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려사 지리지》, 《택리지》, 《대동수경》, 《송도유람기》, 《전등사 본말사지》 등의 력대지리관계 문헌들과 《송도속지》, 《송경지》, 《중경지》, 《개성지》를 비롯한 개성의 읍지들 그리고 여러차례에 걸치는 현지답사자료 및 박연지구에 많이 남아있는 금석문자료들을 참고하였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장식하며 강성국가의 위용을 누

리에 떨치게 될 2012년의 태양절을 맞으며 충정의 일념으로 마음은 앞섰지만 재능과 능력이 미처 따라서지 못하고 또 자료의 부족으로 하여 적지 않은 애로도 겪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박연지구를 인민의 명승, 세계의 명승으로 훌륭히 꾸려주시려는 어버이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그대로 창작의 자양분이 되고 정열의 분화구가 되여 오늘과 같은 날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신 박연지구의 전설들을 미흡하게나마 지금에 와서야 묶어내놓게 된 마음속 자책감과 함께 박연지구뿐아니라 개성의 모든 력사유적유물들과 명소들을 더더욱 사랑하고 작품창작으로 빛내일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우리들이다.

성 거 산

리 성 덕

먼 옛날 부소산(송악산의 옛 이름)왼쪽골짜기에 호경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호경은 체격이 장대하고 힘꼴이나 쓰는데다가 령리하게 생긴 사나이로 스스로 《성골장군》이라고 하면서 동네사람들속에서 인망을 모으고있었다.

집살림이 그리 구차하지 않아 인심도 후하게 베푸는데다가 성격이 또한 호방하고 생김새도 장군으로 떠받들리울만 하게 들썩하니 크고 잘생기였다.

들리는 말에는 그가 백두산쪽에서 온 사람으로서 산천을 두루 구경하다가 이곳 산천이 살만 하기에 자리를 잡았다는것이였다.

남모르는 큰 꿈을 안고 이곳에 와서 자릴 잡은 사람은 아닌지. …

활을 잘 쏘는 성골장군 호경은 한가한 때면 어깨에 활을 메고 가죽토시를 낀 팔우에 매를 앉혀가지고 매사냥을 자주 나가군 하였다.

한번은 마을사람 아홉명과 함께 평나산(성거산)으로 매사냥을 나갔다.

평나산은 오관산을 에돌아 북동쪽 멀리에 있는 산으로서 산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있었다.

그 개울이 흘러내리다가 서른길 잘되는 벼랑으로 날아떨어지며 폭포를 이루는것은 참으로 혼자서 보기는 아까운 그야말로 절경이 아닐수 없었다.

하늘에서 흰 비단필이 풀려 쏟아지는듯싶은 그 모양도 장쾌하지만 우뢰울듯 하는 그 소리 또한 웅장하였다.

그리고 폭포주변(박연폭포)이 온통 물안개로 자욱한 속에 밝은 해빛과 함께 칠색무지개가 다리를 놓을 때면 더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안겨오군 하였다.

호경의 일행은 모두 끌끌하고 사냥에는 제노라는 사람들인지라 온종일 매를 날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꿩과 토끼를 비롯한 많은 짐

승을 잡았다.
사냥하는 정신에 팔려 날이 저무는줄도 모르고있던 그들은 산우에 있는 어떤 바위굴을 의지삼아 무인지경 산중에서 하루밤 자기로 의논을 모았다.
바위로 둘러막힌 굴안은 락엽이 쌓이고 아늑하고 넓어서 열사람이 들어앉아도 그리 좁지 않았다.
출출하다못해 허기까지 진 배들을 달래려고 사람들이 가지고온 음식들을 꺼내놓고 토끼며 꿩까지 구워서 맛나게 한창 요기를 하고있을때 굴밖에서 웬 짐승이 안을 들여다보며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대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의 굴에 들어왔음을 알게 되였다.
《범일세!》
호경이 먼저 소리쳤다.
《우리가 범의 굴에 잘못 들어왔네그려.》
벌써부터 담이 약한 사람들은 우들우들 떨면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무서워들 하지 말게. 아무리 맹수라 하지만 범은 한마리이고 우리는 열사람이 되니 념려할것 없네. 범이 제 굴을 남에게 빼앗겼으니 으르렁거릴뿐이지 별도리 없으면 다른데로 갈거네. 어서 먹기나 하세.》
호경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지만 범은 굴앞을 막아서서 이발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갈 잡도리가 아니였다.
《아니, 저놈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는 그저 갈 잡도리가 아닌것 같네.》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 몸둘바를 몰라하며 안절부절해하였다.
배포유하게 앉아있던 호경도 그제야 굴앞에서 갈개며 사납게 돌아치는 범을 살펴보았다.
범은 침입자들에게 앙갚음을 하여 성을 삭이기 전에는 굴밖에서 물러설 잡도리가 아니였다.
《허, 저놈 성풀이를 하기 전에는 물러설 잡도리가 아닐세.》
《저놈이 밤새껏 굴밖에 저렇게 지켜서있으면 오도가도 못하고 야단이 아닌가.》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나. 무슨 묘한 수를 내놓게나.》

사람들은 호경에게 눈길을 모으며 은근히 구원을 청하였다.
한동안 범을 살펴보며 생각을 굴리던 호경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별수 없네. 저놈이 기어이 성풀이를 하려고 하니 우리들중 누군가가 일을 당해야 할것 같은데 내가 한번 나가보겠네. 자네들은 꿈쩍말고 앉아있게.》
호경이 팔을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섰다.
《가만있게. 성골장군은 우리 일행의 주장인데 주장을 먼저 내세우는 법이 어데 있나. 옛적부터 단병접전때는 주장이 나중에 나가 결판을 보는 법일세. 그러니 우리모두 쓰고있는것들을 굴밖으로 내던져서 범이 무는것의 임자가 나가서 대적해보는것이 어떤가?》
《그럴듯하네. 그렇게 하세.》
모두가 호응하였다.
그러나 호경이 칼을 꺼내들며 모두를 말렸다.
《임자네들이 나를 따라 사냥에 나섰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응당 내가 나가서 일을 처리하는것이 옳네. 또 우리중에 범을 당할만한 사람이 나를 내놓고 더 없지 않은가.》
호경이 막 굴밖으로 나서려는데 아까 모자를 굴밖으로 던지자던 사람이 앞을 막았다.
《내 말은 말이 아닌가. 만사가 운수에 달렸으니 자네가 나가든 누가 나가든 다 운수에 맡기세.》
《정 그렇다면 운수에 맡겨보세만 힘이 딸리면 내가 뒤따라 나갈터이니 범한테 목숨을 바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게.》
호경은 칼을 거머쥐고 제일 먼저 모자를 벗어 굴밖으로 내던졌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모자와 머리수건따위를 벗어 굴밖으로 내던지였다.
성난 범은 굴밖으로 내던져지는 모자들을 두발로 왈칵 덮치더니 다른 사람들의 모자는 보지도 않고 호경의 절풍(고구려식모자)을 물고 일어서며 으르렁거리였다.
《헛, 저놈이 성골장군의 모자를 물었네그려.》
《하, 이런 변이 있나. 하필이면…》
《아닐세, 마침일세.》
호경은 흔연한 낯빛으로 일어섰다.
《범이 맹수이기는 하나 사람은 못 당하네. 임자네들은 움쩍말고 가

만있게. 내 저놈을 요정내고야말겠네. 나말고 누가 그 일을 해낼터인가.》

하기는 용력으로 보나 담력으로 보나 일행중에 성골장군 호경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

호경은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나서 서슴없이 굴밖으로 썩 나섰다.

그가 호랑이와 맞서려고 하는 찰나에 와르릉! 산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바위굴이 왈칵 무너져내렸다.

호경이 먼지에 휩싸인채 형체도 없이 무너진 굴을 살펴보는 사이에 범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무너진 길우에 산벼랑까지 허물어져내리여 굴속에 묻힌 아홉사람은 혼자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었다.

호경은 망연히 앉아있다가 그길로 평나군으로 가서 그곳 관청에 보고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다시 산으로 와서 아홉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장례를 마치고나서 산신령제를 드릴 준비를 하였다.

격식대로 짐승을 잡아 피를 보인 후 제상을 차리고 평나군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산신령께 아홉사람의 명복을 빌며 술을 붓고 절을 하는데 웬 녀인이 제상을 마주하고 서있는것이 보이였다.

녀자산신령이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경도 산신령은 보기가 처음인지라 황공하고 겁도 나고해서 엎드린채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산신령이 말하였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으로서 산의 일을 주관하고있노라. 나는 원래 과부였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성골장군을 만나게 되였으니 장차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산신의 일을 함께 보려고 하노라. 성골장군은 그만 일어서서 이리로 가까이 오라.》

호경은 일어서서 녀신의 앞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녀신은 호경의 름름한 체구와 얼굴을 한동안 살펴보고나서 《우선 당신을 이 산의 대왕으로 봉하노라. 모두들 그리 알고 대왕을 잘 받들어모셔야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말을 마치자 한가닥의 회오리바람이 불어지나면서 호경과 녀신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였다.

엎드려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으

나 제상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호경을 대왕으로 봉한다는 산신의 엄한 령을 들었던지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절을 하면서 《대왕님, 대왕부인님, 부디 평나군사람들을 잘 보살펴주시옵소서.》하고 빌었다.

그후에 평나군사람들은 산신이 된 성골장군을 산신대왕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사당을 세우고 철따라 제사를 지냈다.

성골장군의 동료 아홉사람이 이 산에서 함께 죽었으므로 《구룡산》이라고도 불렀고 성인이 사는 산이라는 뜻에서 《성거산》이라고도 불렀다.

호경은 개성지방에 처음으로 정착한 고려태조 왕건의 조상이였다.

고려 의종때의 사람인 김관의의 《편년통력》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여있었는데 고려사(권1, 고려왕실세계)를 통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다.

호경이 백두산에서 왔다고 한것은 그가 고구려출신의 인물이였음을 말해주는것이며 성골장군이라고 자칭하였다는것은 그가 왕족이거나 그에 맞먹는 높은 문벌출신이라는것을 암시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당시는 고구려유민들의 고구려재건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던 때였다.

고구려유민들이 670년에 안승을 국왕으로 하는 고구려국을 개건하고 684년에 진국을 세운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그리고 고구려유민들은 황금서당, 흑금서당이라는 중앙군부대를 편성하고 력량을 묶어세워 684년에 금마저(보덕성－익산사이)를 비롯한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고구려유민들의 이러한 폭동에 의거하여 대조영이 698년에 고구려계승국인 발해국을 세운것 등은 모두 이 시기에 있은 력사적사실들이였다.

지금도 성거산중턱에는 대흥동 동문골 왼쪽으로 약 300여메터정도 오르면 《개성암》(열 개, 성스러울 성, 암자 암)이라는 암자자리와 그 뒤벼랑에는 옛적에 허물어졌던 구룡굴과 성거산의 성인(산신)들에게 제를 드리던 제단의 흔적 그리고 가파로운 이곳으로 오르던 옛 계단돌들도 뚜렷이 남아있으며 바위벽에는 《개성암》이라는 글자까지 새겨져있다.

개성암이 어느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성거산의 옛 성인들을 숭배하던 유습은 그후에도 상당히 오래 남아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산신이 된 호경은 집에 두고온 안해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길없어 밤이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나타나서 안해와 함께 자고가군 하였다고 한다.(고려사 권1, 고려왕실세계)

그후 안해에게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강충이였다.

강충은 생김생김이 단정하고 근엄하며 재주가 많았는데 서강(례성강하구) 영안촌 부자집딸인 구치의에게 장가들어 오관산 마가갑에서 살면서 수천금의 재산을 모았다고 하였다.

산신령이 되였던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화하여 아들까지 보았다는것과 그 아들이 부소산 북쪽 마가갑산골에 살면서 무슨 수로 수천금을 모은 부자가 되였겠는가 하는것 역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고려 왕실세계를 신성하게 그리려고 한탓에 고려사의 기록에도 산신이 되였던 사람이 환생한것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환상적인 외피를 벗기고보면 력사의 진실을 알수 있게 된다.

성골장군으로 불리운 호경이 이 고장에 있던 고구려재건세력들과 혈연적련합을 이룩하고 남모르는 어떤 곳에 가서 활동하면서 때때로 옛집에도 다녀갔으며 아들까지 본것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이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강충이 마가갑에서 살았는데 마가갑이 예로부터 인삼포가 많은 삼포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것으로 미루어보면 강충이 서강 영안촌의 부자집딸 구치의에게 장가를 들고 그의 처가집이 송나라와의 인삼무역을 하였기때문에 수천금의 재산을 모았다는것 역시 근거없는 소리라고만 할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작제건이라는 왕건의 조부되는 사람이 룡녀를 데리고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 역시 영안성 근방인데 당시 정조벼슬을 살던 백주(배천)사람 류상희가 개주, 정주, 염주, 백주의 4개 주와 강화, 교동, 하음 등 3개의 현 사람들을 동원하여 궁실을 짓고 토성을 쌓았다고 기록되여있는데 그때의 그 영안토성이 지금도 개성시 남포리에 뚜렷이 남아있는것이다.

이 모든 유적들에 대해 당시의 력사기록들에는 과장과 환상이 일부 섞여있지만 그것을 벗기고보면 력사의 진실이 반영되여있음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박연과 그 주변의 산천초목들도 이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력사의 풍운을 함께 헤쳐왔으며 더구나 고려왕실의 뿌리가 바로 박연과 그 주변의 력사가 오랜 산들인 성거산(구룡산 또는 평나산), 천마산, 오관산, 마가갑일대에서 발족되여 근 500년간 동방일각에 번성해온 봉건국가로 존재하였던것은 엄연한 력사적사실인것이다.

그러므로 박연일대야말로 명승으로만 자랑할 곳이 아니라 고조선, 고구려, 고려로 연연히 이어져온 우리 겨레의 빛나는 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져야 할 자랑높은 고장이 아니겠는가!

천 마 산

리 성 덕

천마산은 박연폭포를 끼고있는 대흥산성의 여러 산봉우리들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해발고가 7 600여메터로서 온 산이 뾰족한 봉우리들과 바위들로 창을 꽂아세운듯 하여 험준하기로 유명한 천마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는 두개로 나뉘여 구름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치솟아있다.

천마산과 관련한 전설들은 허다하다. 그 전설들은 오랜 기간 전해지는 과정에 와전윤색되여서 그 내용이 비슷한것이 있는가 하면 서로 판이하게 다른것들도 있다.

예로부터 천마산에는 숯구이막들이 많았다.

천마산중턱 높은 곳에 자리잡은 한 숯구이막에서 외태머리를 베수건으로 둘러감은 총각이 살고있었다.

집도 없고 부모도 없는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던 외할아버지도 나이들어 돌아가고 이제는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별로 없는 총각은 일년내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숯구이막에서 살면서 숯을 구워서 송도장에 내다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고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천마산총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하루는 천마산총각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이라는것을 아예 모르고 밤이면 등잔조차 없는 숯막에서 아무 시름없이 곤히 자군 하였는데 이날은 웬 백발로인이 앞에 나타나더니 《네가 나를 알겠느냐?》하고 묻는것이였다.

《모르겠소이다.》

《허허… 오래전 사람이여서 그럴수도 있으니 놀라지는 말어라. 내가 옛적 이곳 성거산에서 살던 성거산 산신령대왕인 성골장군 호경이로다.》

총각은 어렸을 때부터 성골장군 호경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은 기억이 나서 《호경대왕님을 뵙고도 몰라보아 정말 죄송하옵나이다.》 하며 공손히 무릎을 꿇고앉았다.

《내가 몇해째 살펴보니 네가 근실하고 마음이 대바른데다 꾸밈새도 없고 모든 일에 성실하며 생업에만 힘을 쓰는고로 가히 중한 일을 맡길만 하다고 여겨왔기에 찾아왔노라.》

《나같이 천한 몸을 그토록 믿어주니 황공하오이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옵시면 힘자라는껏 해내겠소이다.》

《오냐, 내 그럴줄 알았다.》

호경대왕은 한동안 흰수염을 내리쓸며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잘생긴 천마산총각의 얼굴과 힘살이 울뚝불뚝한 온몸을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다.

《네가 살고있는 천마산은 매우 높고 험한 산인데다가 창날같은 바위가 하늘높이 솟아있는고로 오가는 구름이 언제나 그곳에 걸리군 하느니라. 그런 까닭에 비가 때맞춰 내리지 못하여 천마산과 그 주변 몇십리가 산천은 끝없이 아름다우나 해마다 오곡백과가 주렁지는 무릉도원이 펼쳐지지를 못하고있구나.》

《예, 소인은 그런줄도 모르고 그저 숯이나 구워먹고 살 생각만 하였소이다. 하오니 그 화를 어찌하면 면할수 있겠소이까?》

《오냐, 명심해듣거라. 그것은 저 천마산 제일 높은 봉을 몇십척만 깎아내려 오가는 구름이 걸리지 않게 하면 되느니라.》

《그 산봉우리를 무슨 힘으로 깎아내리란 말이오이까? 혼자힘으로 몇십년이 걸릴지, 한생이 걸릴지…》

《그것은 네가 하기에 달렸느니라. 있는 용력과 지혜와 정성을 다 바치면 끝끝내 이루어질 일이로되 만약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이 아름다운 산천은 영원히 무릉도원으로 되지 못하고말것이니 어찌 아쉬

운 일이 아니겠느냐. 내 말을 잘 새겨듣거라.》
《예, 한생으로 모자라면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이루어놓겠소이다.》
《그러면 나는 너를 믿고 간다.》
이 말을 남기자 호경대왕은 구름속으로 멀리 사라져갔다. …
총각이 잠에서 깨고보니 꿈이였다. 꿈이라도 그저 꿈이 아니였다.
이 아름다운 산천이 무릉도원이 되여 꽃피고 열매가 주렁지는 땅으로 된다는데 무엇을 주저하며 무엇을 아끼랴!
꿈을 꾸고난 천마산총각은 이런 생각으로 가슴을 끓이였다.
다음날 천마산총각은 신들메를 든든히 하고 천마산 제일 높은 봉으로 올라갔다.
처음 한동안은 골짜기를 따라 올랐지만 점차 산세가 높아지며 큰 바위와 칼벼랑이 앞을 막아섰다. 발디딜 곳이 정 없을 때에는 허리에 차고간 모지랑칼로 바위에 홈을 파면서 끝없이 오르고 오르고 또 올랐다.
드디여 천마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오르니 눈앞이 훤히 트이는데 발밑의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산줄기를 이루어 동쪽에서 서로 주런이 흘러간것이 보이였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오관산이 발아래로 마주 보이고 멀리 서쪽으로 펼쳐진 서강(례성강)줄기와 서해우에 떠있는 크고 작은 여러 섬들도 내려다보이였다.
그러나 천마산총각은 황홀하고 아름다운 산천의 경치에만 눈을 팔고있을수가 없었다.
저 바위산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허물어낼것인가?
쇠망치로 깨여서 하나씩 져나를가 아니면 긴 철장으로 바위를 든장질하여 산아래로 굴려내릴가？…
천마산총각은 구름이 걸린다는 제일 높은 두 봉우리주위를 몇번씩 돌아보면서 생각을 굴려보았다. 숯막으로 내려와서도 온밤 그 생각만을 하였다.
마침내 동리어른들과 의논해보리라 마음먹고 아침일찍 산을 내려 몇십리밖에 있는 마을을 찾아갔다.
좌상로인을 만나자 오가는 구름이 산에 걸려서 이 땅이 오곡백과 무르익는 땅이 되지 못한다는데 그것을 이루자면 천마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가만 있게,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말하게. 그래, 누가 그러던가？》
《꿈을 꾸었소이다.》

《꿈을?》
《예, 꿈에 웬 로인이 나타나서…》
《허허, 임자는 젊은이라 꿈도 많네그려. 그런 꿈이야 많을수록 좋지. 헌데 사람이 꿈에서 보고 듣고 하고싶었던것을 다 할수는 없는 법이라네. 그래서 이룰수 없는것을 꿈이라고 하는게 아닌가. 그러니 임자는 그런 생각일랑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잘살 생각이나 하게.》
할수없이 천마산총각은 성거산 호경대왕이 꿈에 나타나서 한 부탁이라는것을 말해주었다.
《성거산 호경대왕이？…》
좌상로인은 천마산총각의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그렇다면 소홀히 대할수 없으니 내 사람들과 좀 의논해보겠네.》
며칠후 좌상로인의 집에 동네사람들이 한구들 모여앉아 천마산총각을 찾았다.
《그래, 호경대왕이 뭐라고 하던가？》
누군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천마산총각은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무릉도원으로 만들려면 천마산 높은 봉을 몇십척 낮추어 구름이 걸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한 호경대왕이 꿈에 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일리가 있는 말일세. 옛적에도 천마산에 오가는 구름이 걸리여 앓는 사람도 생기고 이 땅에 오곡백과도 주렁지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던가보네. 하지만 무슨 수로 산을 낮춘단 말인가?》
《어쨌든 그것은 꿈이야기니 꼭 그대로 된다고는 할수 없지 않는가. 그 일이 어지간한 일일세 말이지, 산을 인력으로 어떻게 낮춘단 말인가. 임자가 아무리 힘장사라 해도 그 바위산을 허물자면 한생을 바쳐도 되지 않을거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입을 모아 천마산총각을 말리였다.
《나살이나 먹은 우리들이 임자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못한다고 말하기는 안되였네만 이제껏 하지 못하던 일을 자네가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그리 알고 그만두는게 어떤가?》
《옳으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지 않나.》
사람들이 모두 헤여져가고 좌상로인만 남았을 때 천마산총각이 말하였다.

《아름다운 이 땅이 더더욱 살기 좋고 훌륭한 고장으로 된다는데야 어찌 가만있겠소이까. 저는 호경대왕이 꿈에서 한 말을 믿어서라기보다 이 땅을 더 잘 가꾸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든 해보고싶나이다.》

《임자생각이 정 그렇다면 내 막지는 않겠네. 이 늙은 몸이 말을 들어주면 나도 임자와 함께 한번 해보고싶네그려. 사람이 밥만 축내다가 가면 그게 무슨 보람있는 한생이겠나. 그렇게 하게. 나두 짬을 내여 산으로 자주 올라가보겠네.》

《좌상어른, 고맙소이다. 내 꼭 소원을 이루어내겠소이다.》

천마산총각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숯막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쇠장대며 큰 망치며 우선 생각되는 쟁기들을 두루 마련해가지고 천마산으로 올랐다.

떨어져내릴듯이 보이는 바위를 골라 큰 망치로 때렸더니 벙긋벙긋 불찌만 일어날뿐 한쪼각도 떨어지지 않았다.

바위틈바구니에 쇠장대를 들이밀고 듣장질을 해보니 이번에는 쇠장대가 휘여나갔다.

(어떻게 할것인가?)

총각은 생각을 굴리면서 우선 매일 오르고 내려야 할 길부터 닦아나갔다.

벼랑이면 발디딜 홈을 파고 가파로운 곳에는 돌을 파묻어 미끄러지지 않게 길을 내놓았다.

그럭저럭 한뜸두뜸 바위가 뜯어졌고 어떤 때는 큰 돌이 떨어지기도 하였다.

그것을 산밑으로 굴려내릴 때는 혼자서 환성을 지르기도 하였다.

천마산총각은 비가 오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거나 관계치 않고 순간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

이때 한양대궐에서는 임금이 총애하는 후궁인 희비가 외동딸을 데리고 살고있었다.

희비는 드문히 원인 모를 병때문에 때때로 심하게 앓군 하였다.

그때마다 배가 몹시 아프면서 온몸이 견딜수없이 저리다가도 모든 아픔이 순간에 씻은듯이 사라지군 하였는데 의술에 능하다는 수많은 궁중어의들을 다 보였으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여러가지 좋다는 약들도 별로 효험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한 외동딸이 어머니병때문에 늘 마음을 쓰

고있다가 하루는 대궐밖에서 웬 늙은이를 몰래 데리고 들어왔다.
일흔을 훨씬 넘긴듯싶은 로인인데 관상도 잘 보고 점성술과 풍수지리에도 남달리 밝은것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것이였다.
사랑하는 외동딸이 부디 이런 늙은이를 골라온것을 보면 그럴만한 리유가 있으리라고 짐작은 하면서도 희비는 대궐밖에서 들어온 외간남자에게 맥을 보이고 관상도 보게 할수는 없다고 하면서 전혀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마마마, 저의 오랜 소원이오니 제발 병을 보이시옵소서. 저는 어마마마께서 앓으시는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면서 내가 크면 꼭 어머니병을 고쳐드리겠다고 속다짐해왔소이다.
이 로인에게 부디 병을 보이옵소서. 비옵나이다.》
외동딸의 간곡한 요청에 희비는 주렴을 드리우고 그 밖에서 진맥도 하고 관상도 보도록 허락하지 않을수 없었다.
희비가 그렇듯 어렵게 허락했다는 말을 듣자 로인은 의미깊은 웃음을 짓고나서 주렴앞에 나아가 깍듯이 엎드려 아뢰였다.
《소인은 이미 칠순을 넘긴 늙은 몸이라 주렴너머로 진맥이나 하고 관상을 보인다 하여 희비마마께 허물이 될것은 없을것이오니 부디 안심하시고 병을 보이시옵소서.》
혼자 중얼거리며 무슨 주문같은것을 외우며 눈을 감고 그린듯이 앉아있던 로인이 드디여 조용히 입을 열었다.
《희비마마의 병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어떤 산모양의 화를 입어서 생긴 병이오이다.
그 산은 험준하고 너무 높아 오가는 비구름이 언제나 거기에 걸려 감도는데 그때마다 마마는 어떤 약이나 침으로도 멈출수 없는 심한 배아픔을 느낄것이고 그 산에 비가 오면 온몸은 참을수없이 저려들것이오이다.》
옆에서 로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있던 옹주가 하도 신통한지라 다급하게 물었다.
《그것이 정말이오이까? 그런데 왜 그 먼곳에 있다는 그 산의 화를 우리 어마마마께서 입게 되였나이까?》
《그것은 마마의 인물이 하도 절색이여서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것을 시샘하는자들이 더러 있는데 그자들이 그곳 산천에 남모르게 그런 조화를 부리도록 제를 드리고 제물을 많이 바쳤던 까닭에 그

렇게 된것이옵니다만 어렵기는 해도 그 액운은 능히 풀수가 있소이다.》
《그게 정말이오이까? 하오면 내 한몸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그 액운을 꼭 풀어보겠소이다》
《허허허, 그 효성은 기특하오나 아녀자의 힘으로는 쉽게 이룰 일이 아니니 그쯤 알아두소이다.》
《아니옵니다. 방도만 대주시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액운을 풀겠소이다.》
로인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왕자분은 없소이까?》하고 물었다.
로인의 그 물음에 옹주는 어마마마에게는 자기외에 더 다른 자식이 없다고 맥없이 대답하였다.
《허, 이런 난사라구야. 그 산의 높이를 수십척 낮추어 걸려드는 구름이 거침없이 오가게 되면 마마의 병세는 씻은듯이 나을것이고 왕실과 조정의 일도 잘되여갈터인데…》
《로인님, 그 산이 어디 있는 무슨 산이오이까? 그것만 대주시오면 제 아녀자의 몸이나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 일을 꼭 해내고야말겠소이다.》
《그렇게 되면 이 늙은이가 젊디젊은 옹주마마에게 한생 큰 고생을 짊어지우는 사람으로 될것이니… 그것은 못할 일이옵니다.》
로인이 더 다른 말이 없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옹주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빌었다.
어머니를 위한 딸의 그 절절한 효성에 깊이 감동된 로인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 산은 송도땅에 있는 천마산 제일 높은 봉이오이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르오니 그리 알고있다가 마침한 때가 오면 그 일을 이루어보시옵소서. 소인은 그만 물러가겠소이다.》
《로인님, 정말 고맙소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소이다.》
옹주는 감사의 눈물을 뿌리며 로인을 멀리 대궐밖까지 바래주었다.
다음날부터 옹주가 송도로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졸랐으나 희비는 자기의 병때문에 자식의 한생을 망치게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절대로 승낙하지 않았다.
그러자 옹주는 임금을 찾아갔다. 옹주에게서 사연을 다 듣고난 임

금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곳 대흥산성의 군사들에게 령을 내리면 산봉우리를 허물어내는 일쯤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느니라.》라고 선선히 대답하였다.

《아바마마, 그런게 아니오라 친자식의 정성이 깃들어야만 그 액운을 막을수 있다고 하오니 소녀가 아니면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수 없사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하는 옹주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되여서인지 왕은 희비와 의논하고 옹주를 송도땅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떠날 때 희비는 옹주의 품에 많은 금은패옥을 안겨주었다.

드디여 떠날 준비가 다된 어느날 옹주는 남복차림으로 난생처음 궁궐에서 나와 송도의 천마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

천마산총각은 날이 어둡기 전에 저녁을 지어먹으려고 여느때보다 조금 일찌기 숯구이막으로 내려왔다.

조금 남아있던 보리와 조도 다 떨어지고 콩만 몇줌 남아있어 마른 가랑잎밑에 묻혀있는 묵은 도토리를 주어다가 콩에 섞어 그 범벅으로 끼니를 에우며 매일 산으로 올랐었다.

돌을 까고 져나르고 하는 힘든 일을 하는 까닭에 배를 채울 식량이 제일 큰 걱정이였다.

입고있는 옷이 땀에 삭고 돌에 찢기여 살이 다 드러났지만 그것이 혼자 사는 산속에서는 별로 흠이 되지 않았다.

천마산총각이 숯막 아궁에 불을 지피고 저녁끼니를 끓일 준비를 서두르고있을 때 갑자기 천마산꼭대기에서 크지 않은 바위돌들이 와르르 굴러내리며 숯막 뒤벽에 탕탕 부딪치는것이였다.

숯막이 다 드릉드릉 울리고 벽에는 구멍까지 펑 뚫리였다.

(이게 웬일이야? 누가 산마루에 올라갔나? 아니면 어떤 짐승이…)

이리저리 생각을 굴려보던 천마산총각이 발씨 익은 길인지라 잠간새에 산봉우리에 이르러 살펴보니 웬 몸집이 자그마한 사람이 힘들게 호미로 바위를 뚜져내고있었다.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천마산총각은 성난 소리를 질러댔다.

《야, 넌 누구냐?》

《어마나!》

새된 소리를 지르며 뒤로 벌렁 자빠져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있는것을 보니 귀신은 아니고 사람이 분명하였다.

《누구요? 여긴 왜 왔소?》

아무리 물어도 얼이 나간듯 그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그저 떨기만하였다.

《흥!》

하기야 내 몰골이 사람같지 않을테지, 수염은 더부룩한데 제대로 씻지도 않은 내 옷은 또 어떠할라구, 게다가 다 째진 옷사이로 맨 살이 드러나보이니 도깨비 한가지라 놀랄수밖에. …

《놀라지 마우. 난 예서 사는 사람이요. 이 산의 숯구이군이란 말이요. 헌데 거긴 어데서 왔소?》

한동안 안심을 시키면서 이말저말 걸어서야 혼이 나간듯 하던 그 사람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똑바로 일어나앉으며 한양서 왔다고 했다. 말하는것을 자세히 보니 애어린 총각이였다.

천마산총각이 친숙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한양서? 그 먼데서 이 산에는 왜 온단 말이냐?》

그러자 애어린 총각은 어머니가 앓는 일이며 풍수쟁이로인의 말을 듣고 산을 낮추러 왔다는것을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네 힘으로 산을 낮춘다구? 어떻게 낮춘다는거냐?》

《호미로 파고 긁어내서라도 꼭 낮추겠어요.》

《하하… 좌우간 좋구나, 말동무가 생겼으니… 나도 너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날이 어두워지자 두사람은 숯막으로 내려왔다.

도토리콩범벅을 먹고 등잔도 없는 비좁은 방에 쪼그리고 누웠다.

《그런데 네 이름은 뭐냐?》

한양에서 왔다는 그 총각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왜서인지 수집음을 타는듯 했다.

《이름이 없니?》

《없어요. 그저 한양총각이라고 불러주세요.》

《허허, 별난 애를 다 보는군. …》

《그런데 그쪽은 어떻게 부르나요?》

《나 말이야? 나도 뭐 특별한 이름은 없고 그저 다들 천마산총각이라고 부른다.》

잠시후 천마산총각은 드렁드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들었다.
그러나 한양총각은 난생처음 보는 숯구이막도 낯설고 사람도 낯설은데다 앞으로 살아갈 일을 두루 궁리하느라 궁싯거리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이튿날부터 아침 일찌기 일어난 두 총각은 또 콩범벅으로 대강 끼를 에우고 산으로 올랐다.
천마산총각이 땀을 철철 흘리며 쇠장대로 바위를 뜯어내서는 등으로 져날라 산아래로 굴려내릴 때면 한양총각은 호미로 돌부스레기를 긁어모아서 산아래로 날라다가 쏟아버리군 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쉴참에 한양총각이 물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산을 왜 낮추나요?》
천마산총각은 이 산에 구름이 걸리면 너의 어머니가 앓는것처럼 이 고장은 농사도 잘 안되고 꽃피고 열매 주렁진 땅으로도 못된다고 하기에 모든 사람이 잘사는 무릉도원을 여기에 꾸리려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잘사는 무릉도원을?…》
한양총각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듯 했다.
《그리고 이 산을 낮추면 나라에는 충신이 많이 나고 조정의 정사도 펴인다고 하니 사내로 나서 그런 일에 한생을 바치는것도 떳떳한 일이 아니겠니?》
한양총각은 아무말없이 고개만 끄떡이였다.
그런데 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있는 또 한사람이 있었다.
《어험!》 큰 기침소리를 내며 이들쪽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다름아닌 마을의 좌상로인이였다.
《여보게 천마산총각, 그동안 잘 지냈나? 내 자주 나와본다 하면서도 늙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오늘 산에 오르면서 보니 난 송장이 다된 사람이야. 길이 나있는데 통 오르지 못하겠더란 말이네.》
《좌상어른, 힘들게 나오셨는데 이리 와 편히 앉으소이다.》
천마산총각이 좌상로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내 임자네들이 주고받는 말을 다 들었네. 헌데 이 총각은 누군가?》
천마산총각이 한양총각에 대해 다 말하자 좌상로인은 고개를 끄떡이며 무슨 생각에 잠겨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천마산에 구름이 끼면 앓는 사람이 생긴다더니 그것이 사실이였

군. … 때로는 대궐에서도 그런 원인 모를 병때문에 고생들 한다더군. 언젠가는 저기 먼 중원에 있는 나라의 왕후가 병이 나서 그 왕자들이 천마산을 낮추겠다고 했다는 말까지 더러 나돌았었네.

그러니 혹시 한양에서 왔다는 저 총각도 그런 왕자는 아닌가? 허허허…》

좌상로인은 웃음의 소리로 말하였지만 한양총각은 낯빛이 굳어지며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런 말은 없었소이다. 홀로 계신 어머니 한분을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앓는다고 하오이다.》

《음… 그럴테지. 어쨌든 저 한양총각은 사연이 있는 부자집도련님이 분명하니 잘 보살펴주게.》

좌상로인은 어느새 한양총각의 용모며 살결을 다 살펴본 모양이였다.

《그리고 임자네들이 일하는것을 보니 틀렸어. 사람의 힘이란 합칠수록 커지는것이야. 그래서 혼자서는 들지 못하는 돌도 두셋이면 능히 들수 있게 되는것일세.》

이날 좌상로인은 젊은이들에게 이것저것 도움이 될 조언을 많이 이야기해주었다.

《첫술에 배가 부르겠나. 시작이 절반이라고 차차 요령이 생기면 일자리가 푹푹 나게 될걸세. 시작이 있었으니 꼭 끝이 있는 법이 아닌가. 그저 마음만 약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무언들 못할텐가.》

《좌상어른, 정말 고마운 말씀을 많이 해주어 힘이 나오이다.》

좌상로인이 다녀간 다음부터 천마산총각은 둘이서 힘을 합쳐 일하기로 했다. 자기가 큰 바위를 든장질해낼 때 한양총각은 날렵하게 든장질로 벌어진 짬에 작은 바위돌을 끼워넣어 그것을 손쉽게 굴려내게 했고 그다음에는 둘이서 함께 산벼랑밑으로 굴려떨어뜨리였다.

그러니 일에서는 성수가 났고 그속에서 서로의 정도 더 깊어져갔다.

눈치빠른 한양총각이 앞으로 할일까지 미리미리 선손을 써서 해치우군 하니 일은 마냥 흥겹기만 하였다.

그렇게 두석달의 나날이 흘러간 어느날 저녁이였다.

컴컴하고 좁은 숯막안에 두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천마산총각이 갑자기 볼부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뭔가 나를 속이고있지?》

한양총각은 무엇인가 짚이는것이 있는지 흠칫 놀라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다.

《말해봐, 날 속이고있지?》

더는 변명할 여지도 없는 무슨 흠을 잡혔다는것을 깨달은 한양총각은 드디여 모든것을 다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미안하오이다. 저는 사내가 아니예요. 이제 더는 숨길 필요도 없으니 제 말을 들어주사이다.》

어머니는 임금의 후궁이며 자기는 왕궁에서 호강하며 지내던 그의 딸인 옹주라는것을 다 말하고 이렇게 계속하였다.

《제가 몇달을 함께 지내보니 거기서는 정말 장한 사나이라는것을 알게 되였어요. 이제부터 거기를 오라버님으로 따르겠어요.

나는 어머니병을 고쳐드리자는것이 고작이였는데 오라버님은 이 고장을 모든 사람들이 잘사는 고장으로 꾸리는데 한생을 바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장한 일인가요.

오라버님께선 저를 녀자라고 절대로 쫓아내거나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오라버님과 떨어져서는 살지 못할것 같아요. 어머님의 병을 고쳐드리려 해도 제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터이니 죽어도 살아도 오라버님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몸이예요.》

사랑과 진정에 넘친 말을 듣고나자 천마산총각은 처녀의 뜨거운 속마음을 짐작하게 되였으며 그렇게 되자 처녀를 대하기가 이전과는 달리 매우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졌다.

잘 때도 좁은 숯막안에서 서로 등을 돌려대고 누워자게 되였다.

그러나 처녀는 스스로 주부가 되여 깊이 간수해두고있던 어머니가 준 금은패옥을 조금씩 팔아서 쌀을 구해다가 부엌일을 맡아하였다.

점차 컴컴하던 숯막이 신혼살림을 편듯싶은 알뜰한 초막으로 변하였고 밤이면 등잔불도 켜놓아 제법 사람사는 집같아졌다.

정이 들대로 든 처녀, 총각은 그만에야 다정한 부부가 되고말았다.

그런데 천마산총각에게는 한가지 풀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

처녀는 누구나 함부로 쳐다볼수 없는 왕족의 신분인데 자기는 고작 숯구이총각으로 천하디천한 상놈이기에 품에 와 안기는 처녀를 늘 가벼운 마음으로 다룰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티없이 어진 마음을 짐작한 녀인은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여러가지로 마음을 썼다.

말 한마디라도 공손히 하면서도 허물없고 간격없이 하였고 옷 한가지라도 알뜰히 마련해입히고 음식 한가지라도 힘든 일을 하는 남편에게 더 차례지게 하려고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였다.

두사람의 마음이 맞으니 일에서도 성수가 났고 그러니 자연히 바위산을 헐어내는 일은 푹푹 자리가 나기 시작했다.

우뢰가 꽈르릉— 꽈르릉— 울며 산이 움씰움씰 진동하던 어느날이였다.

폭우와 세찬 바람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고 천마산총각이 바위를 큰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치니 이상하게도 한번을 쳤는데도 집채같은 바위가 쩍쩍 갈라져나가는것이였다.

어쩌다 그렇게 되였을가 하여 다시 쳐보니 바위는 여전히 쩍쩍 갈라져 잠시동안에 큰 봉우리 하나를 헐어내였다.

그다음부터는 우정 번개치고 온 산이 드렁드렁 울리는 그런 날을 골라서 산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천마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들을 몇달사이에 허물어내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어떤 낯선 젊은이들이 천마산마루우로 올라왔다.

《누구시우?》

《예, 한양대궐에서 온 사람들이오이다.》

《대궐에서요?》

천마산총각은 그 사람들의 곁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시오이까?》

《예, 여기에 대궐에서 나온 옹주 한분이 있다기에 찾다가 마을의 좌상어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보니 짐작되는바가 있어 이렇게 오게 되였소이다.》

이때 한발 뒤늦게 산으로 올라온 좌상로인이 가쁜숨을 헐썩이며 대궐에서 왔다는 젊은이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이 산의 주인인 천마산총각일세. 서로 인사들을 하게.》

한양대궐에서 온 젊은이들이 깍듯이 례의를 차리자 좌상로인은 천마산총각에게 말하였다.

《일인즉 이 사람들이 천마산에 나와있다는 한양대궐의 옹주를 찾는다네. 내가 짚이는바가 있어 우선 사람을 데리고왔네. 전에 내가 산

에 왔을 때 자네와 함께 일하던 한양총각이 아무래도 내 눈에는 그저 보이지 않더란 말일세.》

좌상로인은 저쪽 무너진 바위우에 걸터앉아 쉬고있는 옹주를 가리키며 《그때도 내가 보아하니 어느 부자집도련님같으니 잘 돌보아주라고 하지 않던가. 내 눈은 못 속이네. 저 한양총각이 대궐에서 찾는 옹주가 분명하네.》라고 말하였다.

(끝내 올것이 왔구나.)

대궐에서 옹주를 찾아가려고 왔다고 믿고있는 천마산총각이였다.

《좌상로인님 짐작이 틀림없소이다. 그때의 한양총각이 대궐에서 찾는 옹주가 맞소이다.》

《그렇소이까?》

대궐에서 온 두 젊은이가 오래동안 찾던 옹주를 찾은 기쁨에 들떠서 한달음에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그앞에 엎드려 인사를 올렸다.

《옹주마마! 문안드리오이다. 희비마마께서 보내서 온 별감들이오이다.》

옹주는 와뜰 놀라 일어섰다. 내가 대궐에서 나온 옹주라는것은 랑군님밖에 모르는데 그이가 말했을가?…

《옹주마마, 희비마마께서 보내신 서찰이옵니다.》

별감들은 허리춤에 고이 간직했던 밀봉한 편지를 옹주에게 두손으로 받들어올렸다.

그때까지 아무말없이 놀란 눈길로 사람들을 살피고있던 옹주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다.

천마산총각이며, 좌상로인, 별감들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묵묵히 서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난 옹주가 기쁨에 넘쳐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쳤다.

《어마마마의 병이 다 나았다 하오이다!》

옹주는 천마산총각앞에 다가가 엎어지듯 주저앉아 절을 하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산봉에 걸리던 구름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정말… 정말 고마와요. 이젠 랑군께서 그렇게도 바라던 무릉도원도 이룩될것이오이다.》

흐느껴우는 옹주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천마산총각은 허물어져내린 바위산을 휘둘러보았다.

놀라움과 기쁨에 가득찬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가득 넘쳐나 해볕에 탄 두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였다.

(이걸 정말 우리 두사람이 해냈단 말인가?! 아니, 아니야. 좌상로인과 마을사람들모두의 소원과 소원이 합쳐지고 힘을 냈기에 해낼수 있은거야. 아무렴, 우리 둘이서야 어림도 없지.)

천마산총각은 둘러선 사람들을 보며 말하였다.

《나머지 일은 내가 마저 뒤거둠질을 해놓을터이니 마을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알려줄겸 대궐에서 온 손님들도 대접할겸 우리 집으로들 모두 내려가시오이다.》

모두들 산을 내릴 때 천마산총각이 한없이 서글픈 어조로 말하였다.

《이제는 그대와 헤여질 때가 왔나보오.》

《헤여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오이까? 우리들의 바라던바가 이루어진 이때에 갑자기 그건…》

놀라움에 차서 옹주가 물었다.

《왕비마마의 돌아오라는 지엄한 분부가 계신터에 그대가 그것을 감히 거역하려오?》

《아니, 아니, 난 싫소이다. 난 랑군님곁을 떠나지 않겠소이다. 이제 우리 두사람의 행복도 꽃피고 무릉도원이 될 이 천마산에서 랑군님과 영원히 살겠소이다. 이런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사람들속에서 한생을 살고싶어하는 마음을 어마마마도, 아바마마도 다 알아주실것이오이다.》

《아,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구만. 아까 산으로 오를 때 옹노에 노루 한마리가 걸린것을 보았는데 그걸 지금 벗겨가지고 내려가겠소. 손님들에게 대접합시다.》

이리하여 이날 저녁 숯구이막마당에 멍석을 펴고 사람들이 모여앉았는데 동네사람들도 여럿이 오고 한양대궐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거나해져서 천마산총각과 옹주를 축하해주었다.

이날 저녁 천마산총각은 뜻이 깊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끝내 힘을 합쳐 천마산을 다스렸소이다. 우리가 다스려낸 이 아름답고 풍요한 강산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이 살아야 하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길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옵니다.》

숯막마당에 지펴놓은 한무지의 우등불은 세차게 타오르면서 이곳 천마산사람들모두를 축복해주는듯 하였다.

아름다운 이 땅을 가꾸는 길에 한생을 다 바칠 각오를 안고 부귀와 안락과 권세도 바람없이 제힘으로 자기들의 사랑도 가꾸고 고향산천도 가꾸어온 두 청춘남녀의 티없이 깨끗한 사랑과 불굴의 의지를 담은 이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는 천마산전설중의 한 전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16세기초에 완성된 우리 나라 지리에 관한 책이다. 리조봉건통치배들은 봉건적수탈원천을 확보하고 왕권유지를 위하여 행정지역별로 되는 정확한 지리지를 편찬하는 사업을 진행하여왔다. 그리하여 1432년에 《8도지리지》가 편찬되였고 1454년에 수정보충된 《세종실록》의 《지리지》가 편찬되였다. 1468년에 제2차로 진행된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1477년에 《신찬지리지》가 편찬되였는데 이해 《동문선》이 편찬되자 《동문선》의 시문들과 《신찬지리지》의 항목들을 덧붙여 1481년에 일단 완성한것이 《동국여지승람》(50권)이다.

그후 리행 등이 그동안의 변천된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여 완성한것이 곧 《신증동국여지승람》이다.

이 책은 1531년에 출판되여 그 일부가 전해지고있으며 1611년에 수정보충되여 출판된 판본도 전해진다. 1905년과 1930년대에 양장본으로 출판된 일이 있었고 1959년에 과학원출판사에서 4책으로 묶어서 출판하였다.

책의 체계는 각 도별로 총론적인 서술을 준 다음 군, 현별로 설치연혁, 군명, 성씨, 풍속, 경치, 토산, 성곽, 봉수, 학교, 궁실, 역원, 절간, 사당, 고적, 이름난 관리와 인물, 효자, 렬녀, 제영(시와 글) 등 20여개의 항목들을 설정하여 해당한 내용을 주었다. 이 책은 적지 않은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가지고있으나 선행시기의 지리학의 성과들을 종합하고 총화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에서 지리학뿐아니라 우리 나라 문화사전반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고전문헌유산에 속한다.

문종왕과 섬바위

리 성 덕

고려11대왕 문종(1019－1083년)은 37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학문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젊어서는 활도 잘 쏘았다고 한다.

특히 당시의 국교였던 불교의 발전에 힘을 기울여 고려최대의 불교사원인 흥왕사를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고 불교경전들을 수많이 간행하였다.

또한 교육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송나라와 거란, 녀진, 왜 등 주변나라들과의 대외무역도 발전시켜 고려의 국력을 널리 과시하기도 하였다.

자신이 시짓기를 즐기기도 했지만 신하들에게 시짓기를 자주 시킨것을 보면 풍류도 어지간히 즐기던 사람이였던듯 하니 멀지도 않은 개경도읍지에 궁궐을 두고 사는 그가 사람들이 그토록 찬탄해마지 않는 박연폭포를 찾지 않았을리는 없는것이다.

하루는 신하들을 이끌고 풍악을 울리며 문종왕이 박연유람길을 떠났다.

행차가 박연에 이르자 왕은 련에서 내려 주변의 경치를 살펴보았다.

왕을 따라온 리령간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박연폭포엔 우와 아래에 두개의 못이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으며 여기서 기우제를 지내면 못속에 사는 룡이 감응하여 즉시 비가 온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리령간은 모양이 바가지같이 생겼다고 하여 못의 이름을 박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룡이 산다고 하여 《룡추》,《룡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룡이 사는지 어쩌는지는 누구도 보지 못했으니 그것은 알수 없는 말이다만 못이 신통히도 바가지같이 생겼는데 그 바가지안에 거북같이 잔등이 넙적하고 둥그런 바위가 담겨져있으니 그 모양 또한 신기하도다.》

《예, 그 바위를 섬처럼 생겼다 해서 도암이라고 부르옵나이다.》

《저 널직한 바위우에 차일을 치고 올라가 놀만 하겠구나!》

《네, 분부대로 하오리다.》

문종왕은 그래도 무엇이 이상스럽게 느껴졌던지 못의 밑바닥과 주변을 세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 섬바위가 이상스럽구나.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분명하다. 돌의 색갈이 다르지 않느냐. 유독 이 돌만 검스레한것이 이 개울에서는 볼수 없는 돌이로다.》

왕은 북문쪽에 키높이 우뚝 솟은 바위벼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바위벼랑 한귀퉁이가 쪼개져서 굴러내리다가 못에 빠진것이 아니냐?》

신하들도 그때에야 섬바위의 색갈이 개울에 있는 돌들과 다른것을 발견하고 그럼직하게 여기며 머리를 끄떡이였다.

《분명 그런것 같다. 저 바위가 쪼개진 자리를 살펴보아라. 이 섬바위와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아보인다.》

《그것 참, 명철한 판단이옵나이다. 옛적부터 이속에 있었으니 원래부터 있었던 돌인가부다 했지 천지조화가 그토록 변화무쌍한줄을 정말 알지 못했사옵니다.》

《허허… 그렇기때문에 천지조화라 하지. 그렇지 않다면야 어떻게 어디에나 흔히 있는 돌과 물을 가지고 이같은 천고의 명승을 만들어 낼수 있겠느냐.》

신하들은 왕의 행차를 따라 뒤늦게 도착한 부담짐들을 부리우고 평평한 섬바위우로 건너다닐 나무다리를 매고 차일을 치느라 한동안 분주탕을 피웠다. 그동안 왕은 련을 불러타고 몇몇 신하들과 함께 아래 못으로 내려가 폭포구경을 하였다.

(문종왕이 박연을 찾았을 때는 박진사가 룡녀와 함께 룡궁으로 들어갔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전인듯 하다.

《고려사 지리지》에서도 문종이 섬바위우에 올랐던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박연이라는 이름이 박진사와 룡녀에 대한 이야기와 결부된것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다.

박진사의 전설을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7살때부터 개경에서 살면서 젊은 시절을 박연에서 보냈던 고려시인 리규보(1169−1241년)인데 그도 문종왕보다 근 한세기후의 사람이였다.)

문종왕은 폭포를 구경하고 대흥산성 북문으로 돌아들어와 다시 박연못가에 이르렀다.

그동안에 섬바위로 건너갈 나무다리도 놓아졌고 바위우에 정으로 구멍을 뚫고 황금빛차일도 시원스레 쳐놓았는데 평평한 바위우에는 두터운 주단이 넓게 펼쳐져있었다.

문종왕은 측근 신하들과 함께 섬바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앉아 즐거운 주연을 벌리기 시작하였다.

못가에서는 울긋불긋한 옷을 입은 악공들이 앉거니서거니하고 주악을 울리는데 개울옆 너럭바위에서는 궁중의 수라간 내인들이 음식들을 조리하느라 분주스러웠다.

이윽고 술상이 섬바위우로 올라오고 술잔이 오고가고하는데 왕과 신하들의 손에 들린 청자술잔마다에는 술과 함께 푸른 하늘과 절승의 산천이 비껴 찰랑이고있었다.

왕은 경치가 좋은데다가 날씨 또한 화창하고 기분도 좋은지라 만월대 왕궁에서 치르는 연회들보다 박연의 섬바위우에서 하는 주연이 더 좋았던지 여느때보다 말도 퍼그나 많이 하였다.

《참, 박연폭포가 과연 절승이로다. 물이 처음에는 절벽을 따라 쏟아져내려오는듯 하더니 조금 더 내려와서는 허공중에 매달려 곧바로 떨어지는게 옥구슬이 쏟아져내리는것 같기도 하고 무지개가 드리운것 같기도 하고… 그 기이하고 장쾌함을 무어라 형용할수가 없구나.

우에서 내려다보면 그치는데가 보이지 않고 올려다보면 그 근원이 보이지 않는구나.

서른길이나 되는데서 거꾸로 매달려 쏟아지는 소리가 우뢰소리같이 요란하고 물방울은 한겨울 싸락눈이 휘뿌리는것 같도다.

경들은 모두 좋은 글귀를 지어볼지어다. 산천경개에 취하고보니 술에는 취코자 해도 아니 취할것이니 짐은 상관말고 어서들 많이 마시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한창 시상을 고루고 시흥을 돋구느라 애썼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화창하던 날씨가 흐려지면서 비바람이 크게 몰아치기 시작하였다.

돌개바람이 일더니 하늘이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섬바위우에 쳤던 비단차일이 찢어져날리고 너럭바위에 앉아있던 악공들도 어쩔바를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어디선가에선 그릇이 깨여지는 소리, 깁을 찢는듯싶은 녀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개울물이 넘쳐나더니 섬바위가 물살에 밀려 좌우로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어이쿠, 이게 무슨 변이냐?》

왕을 호종하고있던 신하들도 어쩔바를 모르고있었다.

바위가 통으로 진동하는 바람에 상우에 놓였던 술잔들이 엎어지고 깨지고 왕도 엉거주춤 일어선채 얼굴이 해쓱해서 몸만 떨뿐 입을 벌리지 못하고있었다.

리령간의 머리에는 아까 박연물속에 룡이 사는지 어쩌는지 하는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으니 알수 없노라고 하던 왕의 말이 생각나서 그 말에 못속에 숨어살던 룡이 성내며 이렇게 장난을 하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다.

리령간이 비칠거리는 왕을 넘어지지 않게 부축하면서 말하였다.

《상감마마, 놀라지 마옵소서. 못속에 숨어있던 룡이 잠시 장난을 하는듯 하오니 이제 죄를 꾸짖으면 이내 멈추어질듯싶사옵나이다. 어서 비바람을 피하시와 보련쪽으로 가시옵소서.》

신하들 여럿이 왕을 부축하며 나무다리를 건너갔다.

그동안 리령간은 룡을 꾸짖는 글을 급히 써서 못에 던지였다.

박연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섬바위를 막 굴려내릴듯 소용돌이를 치고있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리령간은 숨어있는 룡은 빨리 잔등을 드러내놓고 죄를 받으라고 큰소리로 웨치면서 내시들에게 어서 채찍을 구해오라고 하였다.

리령간은 채찍을 받아들자 룡의 잔등을 내려치는 시늉을 하며 섬바위와 물면을 여러번 힘껏 내리쳤다. 물속에 드러난 룡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리령간의 묘술때문인지 아니면 개일 때가 되여서인지 어쨌든 룡의 장난은 한동안 지나서 진정이 되였다.

문종은 바람과 폭우는 어지간히 그치였지만 더는 유람할 기분이 나지 않아 함뿍 젖은 룡포를 걸치고 흥심없이 개경으로 움직여가는 보련안의 휘장사이로 생각깊은 얼굴을 하고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산천경개는 여전히 아름답고 유정한데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룡의 장난에 걸려들어 아름다운 산천을 뒤에 두고 쫓겨가는 신세가 된것이 분하였던것이다.

풍운조화를 제마음대로 한다는 룡은 신령스러운 존재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할수 없다지만 그러나 산천은 고려의 산천이요 룡도 고려의 산천을 지키는 룡이거늘 어찌 고려의 임금을 몰라볼수 있단 말인가?

신하는 룡의 죄를 꾸짖으면서 그 잔등에 채찍질을 하여 장난을 멈추게 하였는데 어찌하여 이 임금은 그럴수 없었던고?

바위가 뒤흔들리고 술상이 엎어지는 창황중이여서 채찍에 맞아 피터지는 룡의 잔등을 살펴볼 경황은 없었지만 신하가 능히 하는 일을 임금인 나는 왜 못한단 말이냐?

리령간에게는 룡을 부리는 신묘한 술수라도 있었더란 말인가?

하여간 이상하게 생각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왕은 보련뒤를 따라오는 리령간을 옆으로 불렀다.

그도 관복이 휘주근히 젖어서 주제가 볼꼴없이 되였으나 얼른 보련곁에 붙어섰다.

《상감마마, 부르셨사오이까?》

《오냐, 네가 아까 룡의 잔등을 채찍으로 무수히 쳤다더니 룡이란 놈은 신령스럽기가 그지없다던데 그래, 너에게 룡을 부리는 무슨 술수라도 있었더냐?

룡이 너의 꾸짖는 글뜻은 알아들었지만 과인의 뜻은 몰라보았으니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순간 리령간의 얼굴에는 당황해하는 빛이 스쳐지나갔다.

《황송하옵나이다. 상감마마의 위엄이 아니라면 소인이 어찌 룡을 꾸짖으며 채찍질할수 있었겠소이까. 소인이 룡의 죄책을 급히 써서 물에 던지니 그제서야 룡도 상감마마를 알아뵙지 못한 제 죄를 깨달은것이옵지 소인에게 무슨 룡을 부리는 신통한 술수가 있은것은 아니옵니다.》

문종왕은 그때에야 납득이 되였는지 고개를 끄덕이였다.

《장차 이 나라가 박연을 잃고서는 고려일수 없으니 아무쪼록 박연을 지키는 룡을 소홀히 하지 말고 너그러이 다루어 감동시켜야 하겠노라.

태조대왕께서 가물이 들 때면 언제나 박연에서 기우제를 드리게 한것만 봐도 그것을 알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과인도 오늘은 그냥 가지만 꼭 후날에는 박연을 자주 찾아와 룡신으로 하여금 산천만 지킬것이 아니라 고려를 빛내이고 고려의 뜻에 순응하여 령험을 내리도록 할 생각이다. 룡신도 박연과 같은 천하명승의 힘을 입어 그러한 령험과 신통력을 나타내는것이 아니겠느냐.》

《지당한 말씀이옵나이다.》

리령간을 비롯한 신하들은 왕의 이 말을 들으면서 박연과 같은 천하절승이 있어 고려의 강산은 어디 가나 절경이고 사람들은 굳세지고 아름다와지는것이라는것을 더더욱 깊이 느끼였다.

봉변을 당했지만 임금이 너그러이 생각하고 너그러이 처신하자 자연히 행차에 무겁게 드리웠던 우울한 분위기는 점차 사라져갔다.

날씨는 아직도 쾌청하게 들리우지 않았으나 산천은 예전 그대로 말

쑥하고 아름다우니 사람들의 마음도 즐거워지는것이였다.

고려사와 그밖의 력사기록들에서 룡이 잔등을 드러냈소, 채찍으로 치니 물이 피빛으로 붉어졌소, 그때 떨어진 룡의 비늘을 왕궁에 보관하였더니 왕궁이 불탈 때 함께 없어졌소 하는 기록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섬바위가 흔들렸다는것은 사실이였다.

문종왕이 섬바위에 올랐던 때로부터 900여년이 지난 후인 1965년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고 산사태가 무너져내리는 속에서 섬바위가 물살에 밀려 뒤번져진 일이 있었다.

지금 우리들이 보게 되는 섬바위는 고려 문종왕이 올라가 놀던 그때의 평평한 바위웃면이 옆으로 놓여 절반이상 물속에 잠긴 상태이다.

장차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구도 단언할수 없다.

《대동수경》이라는 옛 문헌에는 《박연은 천마산과 성거산사이에 있다. 그 중심에 넓고 평평한 돌이 불쑥 솟아나온것이 있는데 이것을 도암(섬바위)이라고 한다.》라고 기록되여있다.

그 바위를 옛적부터 《섬바위》라고 부르기도 했고 룡의 전설과 결부시켜 《룡바위》라고 부르기도 했다.

박 연

리 용 일

먼 옛날 개성 천마산기슭에서 박진사라는 사람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가난한 살림이였지만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차넘치였다.

아들은 어머니를 효성을 다해 받들어모시였고 어머니는 아들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였다.

어른이 된 아들이였건만 어머니는 언제나 걸음마를 떼던 그때처럼 마음을 놓지 못해하였다.

겨울에 집을 나설 때면 《얘야, 날씨가 찬데 두툼히 입고 나가거라.》하며 헌옷가지라도 더 입히려 했고 여름이면 《더위를 조심해라.》, 《찬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린다.》, 《산에서 돌이 굴러내릴수 있으니 잘 살피며 다니거라.》 이렇게 늘 일러주군 하였다.

이럴 때면 아들은 어머니의 두손을 꼭 잡고 《네, 어머님분부대로

하겠나이다.》하고 공손히 대답을 하군 하였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남편도 없고 다른 자식도 없는 어머니였으니 아들에게로 쏠리는 사랑은 남달리 클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강보에 싸여 자랄 때의 일이였다.
그해에도 왕가물이 든데다가 정사를 하는 량반들은 자리다툼만 일삼고있었던지라 이곳저곳에서 백성들은 굶주려 쓰러졌다.
농민들은 들고일어나 관가의 쌀창고를 들부시였으며 악정을 일삼던 량반들을 지경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때 관가의 창고지기를 하고있던 박진사의 아버지는 굶주린 농민들이 달려오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있는 쌀을 모조리 내주었다.
그 일로 하여 박진사의 아버지는 도적무리들과 내통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를 들쓰게 되였다.
형장에서 머리없는 귀신이 될번 하다가 남해의 작은 섬으로 정배살이를 갔던 남편이 살아돌아오지 못하자 박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천마산기슭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살아오는터였다.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공수가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찌 어머니가 바친 공을 여기에만 비길수 있으랴. 어머니는 하루종일 무명도 짜고 본가에서 보태주는 쌀말로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머리가 남달리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 백을 알았다. 옛글도 막히는데 없이 읽었고 천문지리에도 밝았으며 서예와 음률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고을에서 보는 향시에도 급제하여 진사는 되였지만 아무리 뛰여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죄아닌 죄인의 자식이라 벼슬길에는 도저히 들어설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 몰래 눈물로 치마자락을 적시였고 아들은 어머니 몰래 한숨을 짓군 하였다.
그러다가도 박진사는 어머니가 슬픔에 잠길세라 벙글벙글 웃는 얼굴로 익살을 피우면서 울적해지는 마음을 달래였고 밤이면 하늘중천에 뜬 달을 벗삼아 퉁소를 불군 하였다.
그의 퉁소소리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여물어지자 사람들은 애간장을 녹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깨춤 들썩 흥취를 돋구기도 하였다. 박진사의 퉁소솜씨가 이쯤 된데는 그가 남달리 음률이 밝은데도 있지만 보다는 풍치수려한 천마산의 자연경치가 늘 그를 그윽한 감정세계로 이끌어주고 키워준데도 있었다.
천마산일경에 그의 퉁소소리가 없으면 사람들은 쓸쓸해하였고 퉁소

소리가 울리면 기묘한 바위를 감돌아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며 꽃이 만발한 푸른 숲도 한결 생기가 흘러넘치는듯 하였다.
퉁소소리가 울리면 한숨짓던 사람들도 웃고 아이들은 손벽을 치며 좋아하였다.
퉁소소리는 박진사에게는 생활의 유일한 락으로 되였고 그곳 사람들에게는 천마산, 성거산의 자연경치와 함께 그것이 큰 자랑으로 되였다.
나무가지에 앉은 새들도 울리고 산짐승들도 귀를 기울이게 한다는 박진사의 퉁소재간 소문은 어느새 날개를 달고 온 나라에 퍼져갔다.
어느해 봄날 천마산골짜기에 진달래, 철쭉꽃이 붉게 피였다.
푸르싱싱한 소나무, 잣나무사이에로 단풍나무의 진록색애기잎들이 빠금히 얼굴을 내미는데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에서는 따뜻한 해빛이 골짜기로 흐르는 구슬같이 맑은 물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있었다.
온종일 밭에서 씨붙임을 한 마을장정 몇이 저녁녘에 술병을 차고와서 박진사를 이끌었다.
천마산기슭의 폭포로 놀러가자는것이였다.
박진사가 품속에 퉁소를 지니고 집을 나서자 어머니는 너무 늦지 말고 돌아오라고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였다.
박진사는 어머니에게 선선히 대답을 하고는 산으로 올랐다.
맑은 물이 바위짬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폭포에 이르렀다.
며칠전에 내린 봄비에 불어난 폭포물이 아찔하게 높은 벼랑가에서 하얀 비단띠를 드리운듯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지는 모습도 볼만 했지만 골짜기를 뒤흔드는 물소리 또한 장쾌하기 그지없었다.
마을사람들은 폭포가에 앉아 가지고온 술을 나누며 저녁을 즐기였다.
서로의 가슴속에 얽히고 서려있던 근심과 걱정들을 잊어버리고싶은듯 사람들은 박진사에게 어서 퉁소를 불라고 한결같이 재촉하였다.
어지간히 취기가 올라 기분이 좋아진 박진사는 퉁소를 입에 가져다 대고 은은하게 불기 시작하였다.
퉁소소리는 차츰 높아졌다.
조그마한 나무대속에서 어쩌면 그리도 신비로운 소리가 흘러나오는지 산들산들 불어지나는 봄바람소리며 우뢰치는것 같은 폭포소리도 다 녹아버리는듯 온 천마산골짜기는 퉁소소리로 가득찼다. 그 소리는 거센 바람에 바다물이 뒤설레이는듯, 집채같은 바위가 하늘중천에서 우람찬 소리를 내며 굴러내리는듯, 용맹한 장수가 삼척검을 비껴들고 백만진중을 종횡무진으로 내달리는듯싶은 씩씩한 기상을 비껴담고 거침

없이 울려퍼지였다.
어느덧 밤은 깊어 나무들사이로 천마산봉우리에 둥근달이 솟아오르더니 뒤미처 하늘중천으로 높이 떠올랐다.
은은하면서도 구수한 퉁소소리에 취해있던 마을사람들은 하루일의 피곤을 풀고 하나, 둘 마을로 내려갔다.
박진사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주섬주섬 차비를 하고 일어섰다.
휘영청 밝은 달빛을 안고 은구슬, 금구슬이 되여 쏟아지는 폭포수며 봄의 향기를 담뿍 실어주는 아름다운 밤경치는 이날따라 왜 그런지 그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없이 고생스럽게 자라온 지난날, 재능을 지니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 자기를 위해 한뉘를 고생속에서 늙으신 어머니. …
그는 저도 모르게 쓸쓸한 마음으로 다시 앉아 퉁소를 불고 또 불었다.
퉁소소리는 시름많은 이 세상을 원망하는듯, 한탄하는듯, 설음많은 사연을 하소연하는듯 마디마디 울음으로 가득차있었다.
끊어질듯 자지러진 곡조는 목이 메여 우는 소리같고 은은하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소리는 북받치는 오열을 터치는 소리같았다.
이때였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깊은 못가운데서 물기둥이 불쑥 솟아오르더니 한 아릿다운 처녀가 나타나 물우로 사뿐사뿐 걸어오는것이였다.
박진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퉁소만 불고있었다.
그의 량볼로는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하얀 소복단장을 한 어여쁜 처녀는 박진사앞으로 조용히 다가와 퉁소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그러는 처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소리없이 흘러내리고있었다.
흑흑 소리내며 흐느끼던 처녀는 마침내 그 자리에 푹 어푸러지고말았다.
박진사는 눈이 휘둥그래서 퉁소 불던것을 멈추었다.
《규방처녀가 이게 무슨 일인고?》
그의 말에 처녀는 눈물을 씻으며 고개를 들었다.
함박꽃같은 얼굴에 앵두같은 붉은 입술이며 아침이슬을 머금은듯 머루알같이 반짝이는 맑은 두눈, 마치도 그림속의 선녀인듯싶었다.
《용서하세요. 녀자로서 몸가짐을 바로하지 못함이 부끄러운 일이오나 퉁소소리에 마음이 끌리여 억제할 길이 없사오니 실로 부끄럽기 그지없소이다.》
《그대는 뉘인고?》
《소녀는 서해룡왕의 딸이옵니다. 우리 부모가 저를 손바닥우의 구

슬알처럼 어루만지며 사랑하시였는데 한해전에 어머니가 몹쓸 병을 만나 돌아가셨나이다.

눈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천마산의 폭포와 이곳 자연경치가 절경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번 오려고 벼르다가 오늘 놀라운 퉁소소리를 듣고 이렇게 발길을 옮겼나이다.》

처녀의 목소리 또한 어찌나 청아한지 화창한 봄날에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듯 하였다.

《랑군님은 뉘신데 그렇듯 슬픔에 잠기셨나이까?…》

처녀는 살포시 눈을 내리뜬채 나직이 물었다.

박진사는 그에게 자신의 지나온 경력을 간단히 이야기해주었다.

《놀랍소이다. 그처럼 뛰여나신 천품을 지닌이에게도 그리도 슬픈 일이 있사옴은…》

처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백옥같고 준수한 얼굴, 신선같은 풍채, 처녀의 마음은 저절로 박진사에게 이끌렸다.

《소견없는 녀자의 청이라고 나무람마시고 부디 한곡조 더 들려주시오이다.》

《이 퉁소소리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내 어찌 아니 불리오.》

박진사는 다시 퉁소를 불기 시작하였다.

산천초목도 생기를 되찾은듯 설레이고 하늘중천에 솟은 달도 벙실벙실 웃는듯 하였다.

이윽해서 새벽닭이 울 때가 되자 박진사는 퉁소불기를 그치였다.

《마음같아서는 언제까지라도 그대와 함께 앉아있고싶지만 어찌겠소. 날이 밝아오니 이제는 서로 헤여질 때가 되였나보오.》

《오늘의 인연이 결코 쉬이 있을 일이 아니오니 랑군님, 저와 함께 잠간만이라도 더 정담을 나누심이 어떠하오이까?》

달빛을 받은 처녀의 얼굴은 딸기빛으로 물들여졌다.

마디마디에 애원어린 처녀의 구슬같은 목소리에 엉거주춤하던 박진사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진사의 모습에서 힘을 얻은듯 갑자르던 처녀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람의 정은 하루밤사이에 만리성을 쌓는다고 우리가 밤새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었으니 인간의 재능을 귀중히 여기는 룡궁으로 아예 가시여 한생을 빛내이는것이 어떠하온지. …》

박진사는 마음이 끌리였다.

(아, 재능을 귀중히 여겨주는 그런 세상도 있단 말인가! 내 소원이 풀린다면 더 바랄것이 무엇이랴.)

그러나 박진사는 룡궁으로 아예 가자는 처녀의 말에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에게는 자기를 기다리고계실 늙은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즐겨 찾군 하는 이 폭포가며 아름답기 그지없는 천마산의 푸른 숲, 기묘한 바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박진사의 가슴은 미여지는것만 같았다.

《그대의 말은 고맙소만 집에서 늙은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계시오. 이 아름다운 산천을 두고 내가 가긴 어델 간단 말이요.》

《전들 왜 어머니생각을 하지 않겠나이까. 오늘은 우리가 먼저 룡궁에 가고 어머니는 차차 모시고 가시옵소서. 우리 룡궁도 여기 못지않게 아름답소이다.》

처녀의 거듭되는 간절한 청을 박진사는 차마 뿌리칠수가 없었다.

재능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에 대한 유혹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것이다.

(한번만이라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보자… 세상에 예보다 아름다운 곳도 있단 말인가… 며칠만이라도 가보자. 되돌아오면 되지 않겠는가!)

결심한 박진사는 신발을 벗어놓고 처녀를 따라나섰다.

《우리가 이젠 남이 아니오니 저의 손을 잡으시오이다.》

박진사는 처녀의 옥같이 아름다운 손을 잡고 물속에 첨벙 발을 들여놓았다.

밤이 깊도록 박진사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나갔던 이웃들을 찾아 집을 나섰다.

폭포에서 퉁소를 불고있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폭포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박진사가 벗어놓은 신발 두짝이 나란히 놓여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부르며 슬피 울었다.

《얘야, 이 에밀 혼자 두고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어머니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천마산골짜기로 메아리쳐갔다.

그날 밤이였다.

잠자리에 누운 어머니가 도저히 잠을 이룰수 없어 뒤척거리기만 하는데 어슴푸레한 의식속에 아들이 나타나더니 《어머니, 나는 잘 지내고있으니 아무 념려마십시오. 래일 아침에는 어머니를 모시러 가겠으니 기다려주십시오.》라고 하는것이였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깨여보니 꿈이였다.

어머니의 귀에는 아들의 퉁소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듯 했다.
《어이구, 정말 이 애가 날 부르네.》
어머니는 허둥지둥 그 퉁소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였다.
맨발이 돌부리에 채여서 피가 흐르는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퉁소소리를 찾아서 자꾸만 걸어갔다.
못기슭에 이르렀을 때 못가운데서 웃으며 반겨맞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듯 하였다.
《애야!》 어머니는 허둥지둥 아들을 얼싸안으려고 못속으로 뛰여들었다.
못속에서 어머니와 박진사가 어떻게 만났으며 그후에 어떻게 되였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후세사람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찾아 몸을 던진 못이라 하여 그 못을 《고모담》, 《로구담》이라 불렀으며 또한 박진사가 룡녀를 따라들어간 못이라 하여 《박연》이라고도 불렀다.
그때부터 폭포이름도 박연폭포로 되였다.
옛 시인 리규보는 자기의 시에서 이렇게 썼다.

저 퉁소소리에 반한 룡의 딸
박진사에게 시집갔으니
백년이 하루같이 뜻맞아
정답게 서로 즐기리

박연폭포는 오늘도 박진사이야기를 전하며 사시절 쉬임없이 흘러내리고있다.
봄이면 꽃속에서, 여름이면 천마산, 성거산의 수려한 수림속에서, 가을이면 붉게 타는 단풍속에서, 겨울이면 장엄한 얼음기둥속에서 폭포는 명승의 이 강산을 소리높이 노래하며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박연폭포를 찾아주신 때로부터 박연의 새 력사가 시작되였으니 오늘 폭포는 아름다운 자연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를 더더욱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다.
오늘 박연은 명승의 박연, 전설많은 박연, 사랑의 해빛넘치는 인민의 박연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있다.

대 흥 폭 포

전 철 호

고려 말엽 천마산의 대흥골안에서 있은 일이다.

석양녘에 대흥골의 청량폭포를 돌아보는 한우물마을(개성시 연강리) 좌상은 감개무량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올해도 농계를 잘 휘동하여 모내기를 선참으로 마치고 써레씻이를 즐긴 기쁨을 안고 온 마을이 박연놀이를 왔으니 말이다.

이게 다 뉘덕이냐.

독실하게 불교를 믿는 한우물마을 좌상로인은 그게 다 부처의 덕이라고 믿고있었다.

그가 부처를 지성껏 섬기는데는 태조대왕이 유언으로 남긴 열가지 훈요중에서 고려의 왕업은 반드시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여서였다.

태조대왕이 어떤 임금이였던가. 동방의 강국으로 만방에 위용을 떨쳤던 고구려를 이어 3국을 통일한 고려의 시조일뿐아니라 동족의 나라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불공대천으로 여긴 명철한 임금이 아니였던가.

더우기 태조대왕의 할머니가 한우물마을 사람이고보면 건국시조의 뜻을 더더욱 따르고싶어지는 좌상로인이였다.

태조대왕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니였다면 한우물마을은 그때 벌써 존재를 끝마쳤을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분네들이 샘물이 말라버려 망조에 든 마을의 한복판에다 천년 가도 마르지 않는 큰 샘줄기를 찾아내여 우물을 만들어냈기에 마을은 다시 흥할수 있었고 하여 고장이름도 한우물마을이라 하였던것이다. 이런 남다른 자랑을 안은 고장에서 사는 좌상로인이였기에 태조대왕의 훈요대로 부처를 믿는 그였다.

부처를 지극히도 섬기는 그는 해마다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온 마을을 거느리고 박연놀이를 오면서 천마산의 대흥사에 시주짐을 한바리 가득 실어다 바쳤다.

한우물마을좌상로인이 천마산의 여러 절간들중에서 대흥사에 남달리 더 많은 시주를 하는것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였다.

대흥사는 천마산에서 제일 큰 절간일뿐더러 만대토록 고려의 흥성을 소원하여 세워진 절간이였다. 그래서 절이름도 나라가 크게 흥하길 바라는 사원이라는 뜻에서 대흥사라 한것이였다.

그러니 고려의 흥성을 바라서 부처를 믿고있는 그로서는 대흥사의 시주를 소홀히 할수 없었다.

청량폭포앞의 평퍼짐한 자리를 골라 차일을 쳐서 마련한 잠자리에 누운 좌상로인은 낮에 본 일들이 새록새록 안겨와 도무지 잠들수 없었다.

거의 해마다 박연을 찾아오지만 이곳 명소들을 보면 볼수록 새롭고 멋들어져서 이 멋을 즐기는 보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오늘 낮에 대흥사를 찾아서 시주를 드렸는데 만나보는 스님들이 한결같이 점잖고 의젓하여 과시 불문의 제자라는 탄복이 저절로 나갔다.

더우기 대흥사의 주지라는 라옹대사는 어찌나도 불경에 해박한지 살아있는 부처를 뵙는듯 한 느낌이였다.

지금껏 적지 않은 절간들에 시주를 하다보니 불도에 도통했다는 고승들을 만나보았지만 행동거지도 그렇고 설교에서도 감복이 되는 스님은 라옹대사가 제일이였다.

하긴 범상치 않은 경력을 가진 라옹대사였다.

대흥사 중들의 말에 의하면 라옹은 어려서 량친부모들을 다 잃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밥을 빌다가 문경땅의 대승사란 절간에서 중이 되였다. 거기서 불경을 읽은 그는 보다 심오하게 불학을 깨치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 드넓은 원나라를 메주밟듯 하면서 생불이라 자처하는 여러 고승들과 교제한 뒤 귀국하여 대흥사의 주지로 천거되였다고 한다.

그 절 중들이 쉬쉬하며 하는 말이 올초에 경효대왕(공민왕)이 라옹을 편전으로 불러들여 만나주었는데 장차 그가 임금을 도와 불교에 관한 일을 주관하는 왕사로까지 출세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고려의 만대흥성을 바라는 대흥사에서 왕사가 나온다면 마땅한 일일것이다.

이런 생각에 묻혀있던 좌상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아무리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밤이래도 한번 대흥사의 부처를 찾아가 고려의 수명이 천년만년 무궁해지도록 빌고싶었다.

오늘 낮에도 그렇게 빌었지만 래일 마을로 돌아가면 언제 또 여길 찾아올수 있겠는지…

이제는 나이도 어지간히 많아서 나날이 기력이 쇠진해지고있는데 이밤 대흥사의 불당에는 들어가지 못한대도 절밖의 마당에서라도 조용히 빌테다.

남들을 깨울세라 조심히 차일밖으로 나오니 대흥골안에 울리는 물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왔다.

때마침 휘영청 밝은 달이 중천에 걸려있었다. 쟁반같은 둥근달이 불타는듯 환한 빛을 뿜으니 야광명월이 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좋은 밤에 깊은 산중의 내물에 비쳐진 달구경도 참 볼만 할것이였다.

좌상로인은 스적스적 걸음을 옮겨 대흥사로 향했다.

청량폭포에서 조금 거슬러올라가면 통채로 구들인양 반듯한 억년반석으로 마당을 이룬 대흥사가 나진다.

사방에서 풀벌레들이 저마끔 울어대는 이밤 며칠전에 내린 큰 비로하여 불어난 벅찬 골물이 기기괴괴한 바위들을 치받으며 나떨어지는 물소리는 제아무리 목석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흥그럽게 흔들어주는듯싶었다.

좌상로인은 밝은 달밤의 골물구경이 신비로운지라 시흥이 절로 나서 흥얼흥얼 글귀를 더듬으며 우로 올라갔다.

얼마쯤 걷던 그는 그만에야 화들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원, 이런 깊은 밤에 저게 무얼고? 이크, 사람이 분명한데…)

분명 사람의 형체가 골물이 두길쯤 되는 비스듬한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대흥폭포에서 얼씬거리고있었다. 그것도 두사람의 형체였다.

목욕을 하는 모양이였다.

본의든 아니든 남의 알몸뚱이를 엿보았다는 무안감으로 하여 얼굴이 붉어진 좌상로인이 지나쳐가려는데 이런 말이 들려왔다.

《참말이지 우리 대흥사는 명당자리에 들었어. 뒤로는 천마산의 한봉우리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좌우엔 멋스런 산등성이를 낀데다 절앞으로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내물까지 있으니 이런 명당자리는 대흥사가 아니면 어림도 없지, 나무아미타불.》

말을 들어보니 대흥사의 중들이 틀림없었다.
좌상로인은 대흥사를 치하하는 중들의 말에 마음이 끌려들어 그 자리에 그냥 서서 계속 귀를 기울이였다.
《나무아미타불, 천마산의 명당자리에 절이 든 덕으로 우린 날마다 배를 두드리며 먹고사니 정말 좋구만. 날마다 찾아드는 시주군들로 하여 절당문턱이 불이 날 지경이니 여윈살이를 하는 다른 절에서라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야.》
좌상로인은 중들이 주고받는 말이 귀에 거슬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 중들이 대흥사의 중들이 옳긴 옳은가. 나라의 흥성을 비는 중임때문에서가 아니라 배부른 재미에 산다는게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
《이보게 삼보!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배가 부르니 말일세, 자꾸만 그리워지는게 있구만.》
《그게 뭔데?》
《내인일세. 그네들속에서 한바탕 뼈를 녹여보았으면 한이 없을걸세.》
좌상로인은 속이 불끈하였다.
반두라면 절에서 밥짓는 일을 맡아보는 중이요 삼보는 시주군들을 맞아들이고 바래우는 스님이 아닌가. 절에서 한다하는 소임을 맡아보는 중들이 어쩜 저런 험한 말을 주고받을수가 있단 말인가.
좌상로인의 마음을 훔쳐보기라도 한듯 삼보가 짜증투로 언성을 높였다.
《이보게 반두! 자네 실성하지 않았나? 불문에 나선 몸이 내인을 그리워한다니 그런 괴이한 일이 어데 있나?》
반두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흥! 뭘 묻은 개가 누구를 흉본다더니 자네가 날 꾸중해? 지금 자네에 대해서 무슨 흉흉한 소문이 돌기나 하는지 알고나 그래?》
《무슨 소문인데?》
《흥! 밤이면 삼보 자네가 딴장을 본다는거야. 죽은 불목하니의 내인과 배꼽을 맞추느라고 삼보가 절당의 재물을 정신없이 빼낸대.》
반두가 삼보를 향해 물을 뿌리며 대들었다.
《제발이지 혀아래 도끼가 든 그런 말을 듣지 말게. 그러다 생보살 잡아.》
《흥! 고쯤에 떨긴. 나한테두 그렇게 헌것이래두 있었으면 좋겠다. 석가불은 무슨 억하심정으로 녀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률을 지어

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괴롭히는것인지.》
좌상로인은 중들의 음란한 수작질에 눈살이 꼿꼿해졌다.
저 중들이 진정 낮이면 절을 찾아드는 시주군들에게 점잔을 빼보이며 부처의 제자로 행세하던 그들이 옳긴 옳은가.
좌상로인은 들려오는 그 다음소리에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석가불은 심술이 사납단 말이요. 자기는 기껏 왕자랍시고 부귀영화도 실컷 누려보고 주지육림속에 고운 계집들도 진이 나도록 맛보고는 왕궁을 뛰쳐나와 불교를 만들어냈으면 됐지 너인을 멀리하라는 계률을 지어낼건 뭔가.》
삼보의 역정소리에 반두가 맞장구를 쳤다.
《이제라도 자비로운 부처가 나타나서 우리 불승들도 유학의 선비들처럼 장가도 들고 자식을 거느릴수 있도록 계률을 다시 정해야 돼.》
《그래야 하구말구.》
좌상로인은 당장 벼락을 치고싶었다.
《이보게 삼보, 듣자니 어떤 중들은 남몰래 계집을 두고 자식까지 낳아기른다며?》
삼보가 반두의 말을 제꺽 받아주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었네. 남몰래 아이를 만들어놓고는 그 아이가 사내자식이면 동정이나 옷고름을 누런 천으로 지어입힌다나. 그리고 그 애가 똑똑하면 열살안팎에 절에 데려다 길러서 자기의 뒤를 잇게 한다누만.》
좌상로인은 들을수록 구린내나는 소리뿐이여서 불끈거렸다.
어쩜 다른 절도 아닌 대흥사의 중들이 저럴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큰 우물이래도 물 한모금을 맛보면 그 물의 물맛을 다 알수 있다고 저 중들의 수작이면 대흥사를 알만 하다. 라옹대사이자 그의 제자들일것이다.
좌상로인은 속으로 탄식해마지않았다.
내 지금껏 겉과 속이 다른 저런 중들에게 속혀온것이 아닌가, 저런 중들이 부처를 믿으면 얼마나 잘 믿고 나라의 흥성을 빌었다면 얼마나 잘 빌었겠는가.
가만, 부처의 제자들인 저것들이 석가불을 욕하는건 그도 잘못한게 있다는게 아닌가?!

좌상로인은 갑자기 부처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허물어지면서 그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였다.
과연 오늘 이때껏 부처를 독실하게 섬겨서 무엇을 얻었던가?
해마다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서 부처에게 알알이 고른 공양미를 바치며 잘살게 해달라고 빌고빌었지만 자기가 지은 선행에 따르는 갚음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인과응보는커녕 살림살이는 나날이 쪼들려만 갔다.
나라 일도 매일반이다. 무슨 놈의 탐관오리들은 날로 성행하는지 도처의 논밭들은 량반부자들의 차지가 되여버리고 국고는 점점 거덜이 나고있다질 않는가.
때로는 사람이 한순간에 세상리치를 깨닫게 될수 있다더니 좌상로인이 바로 그러했다.
그는 지금 자기가 하늘처럼 믿어왔던 부처가 나라에도 백성살이에도 아무런 도움을 준게 없으며 도리여 해를 끼치고있음을 부지불식간에 깨달은것이였다.
좌상로인은 대흥사의 부처를 찾아뵙자던 생각을 싹 걷어치우고 돌아서버렸다.
거처지로 내려오느라니 한생 부처에게 속혀살아온게 분하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부처를 턱대고 백성들을 등쳐먹는 중들이 명산의 맑은 물을 어지럽히고있다는 울분이 치밀어올라 참을수가 없었다.
가만, 그놈들을 혼내울수는 없을가.
좌상로인은 곧 그럴듯한 생각이 나서 거처지로 들어서기 바쁘게 잠에 곯아떨어진 두 젊은이를 깨웠다. 그는 대담하고 기지가 있는 그들을 밖으로 불러내여 이리이리하라고 분부하였다.
두 젊은이는 대바람 사기가 나서 빈 항아리를 하나씩 찾아들고 대흥폭포로 달음박질을 놓았다.
인차 대흥폭포에 다달은 그들은 아직도 목욕을 하는 중들의 옷을 집어들었다.
대흥폭포옆의 길넘는 숲속에 몸을 숨긴 젊은이들은 입에 항아리를 가져다댔다.
먼저 키 큰 젊은이가 입을 열었다.
《어허 고현지고, 속인도 아닌 부처의 제자란것들이 알몸뚱이로 폭포에 뛰여들어 이게 무슨짓이뇨?》

음담패설을 주고받던 중들은 깜짝 놀라 벌떡 몸을 솟구쳤다.
이번에는 보통키의 다부진 젊은이가 빈 항아리에 입을 대고 다불러댔다.
《보기 싫은 흉칙한걸 왜 버티고 섰느뇨? 당장 꿇어앉지 못할가?》
두 중은 마른벼락을 맞은듯 몸을 와들와들 떨며 물속에 주저앉았다.
키 큰 젊은이가 더 크게 빈 항아리를 울렸다.
《뭐뭐, 석가불이 녀인을 멀리하라는 계률을 정한게 잘못이라고? 에끼, 지옥의 기름가마에나 던져질것들!》
다부진 젊은이가 그에 질세라 목청을 돋구었다.
《반두, 이놈! 뭐 헌계집이래두 있었으면 좋겠다구? 삼보, 이놈! 죽은 불목하니의 내인과 간통하고서는 아닌보살할테냐?》
두 중은 사시나무 떨듯 하며 몸서리를 쳤다.
태고적부터 여기 천마산에 산신이 산다더니만 령험하신 산신이 내려왔는가.
산신이 아니고서야 둘이서만 지껄인 말을 어떻게 알수 있으랴.
키 큰 젊은이가 한수 더 떠서 과장된 말로 을러멨다.
《너희 절의 주지가 남몰래 계집을 두고 누런 동정을 단 자식까지 낳아기른다며?》
그 말에 두 중은 아우성을 쳤다.
《아이구, 소승들은 그렇게 말한적이 없소이다.》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도 못 보이고…》
키 큰 젊은이가 버럭소리를 질렀다.
《너희 절의 주지를 끌어내다 무릎맞춤을 시켜야지 안되겠다.》
두 중은 싹싹 손을 빌며 애원했다.
《신령님! 제발 용서해주옵소서.》
《용서를 해달라? 네놈들뿐아니라 네 절의 중놈들을 모두 물볼기를 쳐서 지옥사자에게 보내주어야겠다.》
《아이구, 신령님! 다시는 나쁜짓을 하지 않겠으니 한번만 살려주시오이다.》
다부진 젊은이가 따지듯 물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지?》
두 중은 다시는 녀인들을 넘보지 않겠다면서 살려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키 큰 젊은이가 발을 탕 굴렀다.

《그 죄 말고 또 있다. 그걸 아직도 모르겠는고?》

두 중은 눈들이 떼꾼해져서 웅글은 소리가 울리는 숲속을 쳐다보았다.

다부진 젊은이가 소리쳤다.

《그건 바로 네놈들의 더러운 몸뚱이가 나라가 크게 흥하길 바라서 대흥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이 폭포에 뛰여들어 감히 맑은 물을 어지럽히는 죄다. 네놈들의 구린내나는 몸뚱이가 대흥폭포를 더럽혔으니 어찌 나라가 흥할수 있단 말이냐. 이게 죽을 죄가 아니란 말이냐?》

그제야 진짜잘못을 알아차린 중들은 더 싹싹 두손을 비비며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키 큰 젊은이가 중들의 옷을 그들에게 내던지며 으름장을 놓았다.

《너희 절에 가서 일러라. 다시한번 대흥폭포에 얼씬하는 놈이 있다면 몽땅 불속에 내던지겠다고 말이다.》

중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거라며 정신없이 되뇌이고있을 때 두 젊은이는 소리없이 수풀속에서 나와 거처지로 향했다.

다음날로 간밤의 이 일이 온 대흥골에 전해졌고 며칠 지나서는 온 송도땅에 쫙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중들이 대흥폭포에 기여들어 목욕을 하는 일이 없어졌고 이 일화가 후세에 전해지면서 대흥폭포는 더더욱 유명한 박연의 명소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송도유람기》

《송도유람기》는 김창협(1651－1708년)이 개성지방을 돌아보고 쓴 기행글이다. 김창협의 자는 화중이고 호는 농암이다. 그는 벼슬이 성균관 대사성까지 이르렀으나 겸허하고 언제나 후배들을 가르치기 좋아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농암집》이 남아있다.

《송도유람기》는 김창협이 청년기에 쓴것으로서 승천포에서부터 림진강까지 개성의 명승고적들을 돌아보며 보고 느낀바를 그대로 적은 송도기행기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밖에도 리조시기 봉건관료들인 채수, 남효온, 류호인 등이 쓴 기행기도 있다.

청 량 폭 포

전 철 호

5세기 초엽, 그러니 고구려 광개토대왕때의 어느해 여름날이였다.

고구려군의 장수 중리도독 명림지군은 복더위가 한창인 때 수하장수들을 거느리고 천마산마루에 올랐다.

천마산으로 오르며 사방을 둘러보니 골안을 뒤흔드는 물사태인양 쾅! 쾅! 지심을 치며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천척폭포의 모습도 볼만 하고 산세를 이룬 바위돌이며 메부리들도 하나같이 기기묘묘한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명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나 몹시 드바쁜 군사일에 묶이운 몸이다보니 아름다운 명산의 황홀한 절경에 잠시나마 취해볼 새가 없었다.

묵묵히 천마산의 제일봉마루에 올라선 명림지군은 호랑이눈섭을 쫑긋하며 남쪽을 둘러보았다.

맑게 개인 날이여서인지 사방 백리일판이 손금처럼 굽어보였다.

명림지군이 남쪽땅이 종이우에 그려놓은 산천마냥 한눈에 안겨오는것이 신통하여 속으로 감탄해마지않는데 수하장수인 말객(중랑장급의 장수)이 손을 들어 앞을 가리켰다.

《도독어른! 저기 저쪽 곧바로 남쪽으로 제일 높게 바라보이는 큰산이 백제의 부아악(삼각산)인줄 아오이다.》

명림지군은 말없이 고개를 끄떡이였다.

부아악이라면 백제가 도읍한 한성의 진산중의 주산이였다. 잠시라도 손을 내뻗치면 손에 닿을듯말듯 갈씬거리는 백제의 도성은 너무도 지척에 있었다.

명림지군은 거친 숨을 길게 내뿜었다.

임금이 하사한 준마우에 앉아 채찍질을 하면 불과 한나절길도 안될 저 부아악을 빤히 바라다보면서 군사를 진격시킬수 없으니 속이 타들대로 타들었다.

한생 전장에서 늙어온 백전로장 명림지군으로서 사실 부아악을 차지하는것은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명림지군은 손부채질을 하며 영락대왕(광개토대왕)으로부터 남진하라는 어명을 직접 받던 그날을 떠올려보았다.

그날은 몇달전 이른 봄날이였다.

전해에 붕어한 부왕의 뒤를 이어 18살의 애젊은이로 보위에 오른 홍안의 영락대왕은 왕궁의 호위군사들을 관할하는 중임을 맡은 중리도독 명림지군을 누구보다 믿고있었다.

명림지군은 젊어서는 고구려의 서북방을 지키는 싸움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늙어서는 임금을 호위하는 일에서 충정을 바친것으로 하여 으뜸가는 공신으로 알려진 사람이였다.

궁성안의 숙위군을 통솔하는 명림지군을 불러들인 영락대왕은 하나의 조상을 같이하는 한강토, 한겨레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를 통합해내여 무모한 동족상쟁을 하루빨리 끝장내는것이 자기의 뜻임을 밝히였다. 그러면서 서로 세 나라의 임금들이 마주앉아 겨레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화친하여 강토를 하나로 합치면 좋겠지만 그것은 쉽게 이룰수 없는것이니 먼저 백제군부터 치라는 어명을 내리였다.

바로 그 중임을 60고개의 명림지군이 떠맡은것이였다.

임금은 1만군사로 무어진 큰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는 명림지군에게 백제군이 동족이니만치 될수록이면 피를 적게 흘리고 항복을 받아내되 추호도 백성들의 인명재산은 범하지 말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임금을 하직한 명림지군은 질풍같은 공세를 취하여 10여개의 백제성들을 항복시켰다.

이 천마산도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차지한 산이였다.

허나 고구려군의 공세는 천마산에서 남쪽으로 20리가량 떨어져있는 청목산(송악산)에서 좌절되고말았다.

청목산에서 백제의 수천군사가 견고한 목책에 의거해서 완강하게 버티고있었던것이다.

그가 외적이라면 벌써 세상에 이름 떨치는 고구려의 천하무적 철기군을 풀어놓아 청목산을 쑥대밭으로 짓뭉개놓았을것이였다.

하지만 백제군은 외적이 아니라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였다. 동족을 전멸시키면서까지 강토를 합쳐낸다면 그런 싸움이 누구에게 유익하단 말인가.

지금까지의 싸움들에서는 큰길을 꿰질러서 백제의 고을들을 에워싸

면 그들은 달게 항복하였는데 그 계책을 알아차렸는지 청목산의 백제군은 길목들을 봉쇄하고 발붙일 틈을 주지 않고있었다.

명림지군은 발치아래의 청목산을 굽어보며 한숨을 지었다.

군령을 기다리는 철기군에게 한번 손을 들어 저 산을 가리킨다면 삽시에 청목산은 무너져버릴것이였다.

아, 어떻게 해야 끔짝 못하고 백제군이 스스로 무릎을 꿇을수 있을가.

종시 이렇다할 방책을 걷어쥐지 못한 명림지군은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고저 서늘한 그늘쪽으로 내려섰다.

천마산은 산세가 험하고 웅장하여 그 골안도 자못 깊었다.

명림지군은 으슥진 골안으로 흘러내리는 개울을 따라 걸음을 옮기였다.

그는 며칠전 내린 큰비로 하여 불어난 골물이 두길바위벼랑을 타고 떨어지는 작은 폭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폭포가 물보라를 일으켜서인지 서늘했다.

《예서 좀 쉬여갈가.》

명림지군은 폭포아래의 바위에 기대앉아 머리에서 책(높은 벼슬아치들이 쓰는 머리쓰개)을 벗어들었다.

이내 더위에 푹 절었던 몸이 시원해졌다.

하지만 좀처럼 남진하지 못하고 앉아뭉개는 자책감으로 하여 달아오른 가슴은 조금도 개운해지지 않았다.

수하장수들은 명림지군의 휴식에 방해가 될세라 멀찍이 물러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음달진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명림지군이 소르르 밀려드는 잠에 두눈을 감고있는데 사람의 형체가 얼씬얼씬거렸다.

치마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녀인이 폭포수가 떨어져내리는 담소에서 표주박으로 물을 뜨고있었다.

이윽고 녀인은 이쪽으로 다가오더니 나부시 절을 했다.

《로인님, 물을 드시겠나이까?》

표주박을 내미는 녀인은 외태머리를 드리운 랑자인데 그의 자태에 절로 눈길이 끌렸다.

아름다운 달과 같은 두눈섭아래의 영채가 비낀 두눈, 오뚝하게 날

선 코, 앵두알같은 입…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내려왔나?…)
명림지군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하나 랭수로는 내 마음을 식혀줄수 없네.》
랑자는 웃음을 짓는데 그 웃는 모양새가 또한 어찌나 고운지 정이 쏙쏙 끌렸다.
《로인님! 이 폭포의 물은 근심병에 특효가 있어 얼마든지 번거로운 마음을 식혀줄수 있나이다.》
명림지군은 랑자의 말에 귀맛이 동했다.
《내가 근심병에 들었다는데 그 근심거리가 무엇인지도 알아맞출수 있느뇨?》
랑자는 살풋이 두눈을 내리깔며 초랑초랑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로인님의 근심거리는 국사때문인줄로 아나이다.》
랑자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본 명림지군은 그에게 마음이 끌려들었다.
《옳게 보았네. 그럼 나의 근심거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으니 그 근심병을 다스릴수 있는 비방까지 내놓을수 있느뇨?》
랑자는 표주박을 더 바투 내밀었다.
《이 물을 마시면 반드시 알도리가 있을줄로 아나이다.》
명림지군은 랑자가 어쩌는지 두고볼 심산으로 표주박을 받아들었다.
《그렇다면 마셔야지.》
물은 시원하고 감칠맛도 있었다.
단숨에 표주박을 바닥낸 명림지군은 수염을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어디 알도리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가?》
표주박을 받아든 랑자가 입을 열었다.
《자고로 정사하는 묘술은 믿음에 있고 싸움하는 묘술은 적을 속이는데 있다고 하였나이다. 적군과 싸워이기려면 싸움에서 우세한 지형을 먼저 취하는것이 첫째이고 그다음은 신묘한 계책을 쓰는것이라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아군은 피를 적게 흘리면서도 승전을 이룰수 있사옵니다. 오랜 세월 우리 삼한땅에서는 동족간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나이다.》

명림지군은 경탄의 눈길로 랑자를 지켜보았다.

《다행히 고구려가 서북변방을 평정하고 드디여 남진을 국책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삼한의 홍운이 아닐수 없나이다. 백제나 신라의 조정은 력대로 조상의 강토를 하나로 합쳐내려는 큰뜻도 또 그럴만한 힘도 없는줄 아나이다.》

명림지군은 랑자의 말이 고마와 가슴을 들먹이였다.

《동족간의 싸움은 오랑캐군과는 달라서 피를 흘리지 않고 싸워이겨야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대단히 어려운 일인줄 아나이다. 그래서 로인님은 그것때문에 근심하는데… 지금 고구려군이 우세한 지형을 차지하고있으니 신묘한 책략만 바로 쓴다면 그 근심병은 저절로 낫게 되오리다.》

명림지군의 가슴이 후두둑 높뛰였다.

랑자에게 신묘한 책략이 무엇인지 따져묻고싶었지만 차마 말이 나가지 않았다.

《로인님이 자기 군사를 보존하면서도 승전을 이루자면…》하더니 랑자는 표주박에 다시 물을 찰랑찰랑 떠들었다.

그는 자기를 간절한 눈길로 지켜보는 명림지군을 쳐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뭍으로가 아니라 강으로 진격해야 할줄로 아나이다. 패수(례성강)와 동강(림진강)으로 수군을 파하여 관미성(한강과 림진강하류의 합수목인 개성시 림한리에 있었음.)을 협공하여 차지한다면 청목산의 백제군은 독안에 든 신세라 영장맹졸의 고구려군앞에 저절로 항복하고말것이 아니겠나이까?》

명림지군은 너무 기뻐 바위를 내리쳤다.

《바로 그거요, 그것!》

바위에서 움썰 몸을 일으킨 명림지군은 어리둥절해졌다. 방금까지 말을 주고받던 랑자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폭포만 보였다.

그렇다면 꿈을 꾸었다는것인가?!

지금껏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꿈도 많이 꾸었지만 아름다운 산중의 폭포에 마주앉아 이런 꿈을 꾼적은 한번도 없었다.

천마산에 산을 지키는 령험한 산신이 있다더니 그가 잠결에 찾아든 모양이였다.

산신이 가르쳐준 책략을 곰곰히 따져보니 그렇게만 하면 청목산의

백제군을 꼼짝못하게 굴복시킬수 있을것 같았다.
봄철의 밤이 아주 귀해서 춘소천금이라고 하는데 명꿈을 안겨준 이런 낮은 뭐라고 불러야 할가.
《암, 이런 여름낮의 명꿈은 천금맞잡이라고 해야지…》하며 흐뭇한 웃음을 짓던 명림지군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방금 꾼 명꿈은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의 령험이 어려서도 아니고 낮이 또한 좋아서 찾아든것은 더욱 아닐것이다. 명실공히 이 산은 박달겨레의 명산이라 할수 있고 바로 이곳의 폭포는 명폭이라 할만 하기에 그 정기가 꿈에 어려들어 피를 흘리지 않고서도 겨레의 강토를 하나로 합쳐낼수 있는 묘안을 틔워준것이 아니겠는가.
명림지군은 반석을 깊이 파고든 물이 시퍼런 담소에 쾅쾅 쏟아져내리는 폭포로 다가갔다.
그는 두손바닥에 폭포물을 받으며 기쁨에 겨워 부르짖었다.
《이 명폭이 실로 나로 하여금 번거롭게 달아오른 가슴을 후련케 해주는구나.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도 한지맥인 선조의 땅을 합칠수 있도록 일깨워주다니…》
이윽고 명림지군은 이 일대의 지형에 밝은 말객을 가까이로 불러 물었다.
《이 폭포에 이름이 있소?》
말객은 자신있는 어조로 대꾸했다.
《아직 이름이 없는줄로 아오이다.》
명림지군은 고개를 끄떡였다.
인가와 멀리 떨어져있는 깊은 산속의 폭포이니 이름이 없을수도 있을것이다.
명림지군은 폭포와 제일 가깝게 잇닿아서 아스라하게 높이 솟아있는 서쪽의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저 산도 이름이 없나?》
말객이 기운차게 대답했다.
《그 산은 청량봉이라 부르오이다.》
《청량봉?》
《예, 바로 저 산의 골안에서 여름철이면 류다르게 서늘한 기운이 아래로 서려온다고 하여 서늘할 청자에 서늘할 량자를 붙였다고 하오이다.》

명림지군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 폭포의 골안이 별나게 서늘해서 달아오른 몸과 마음까지도 식혀준다고 생각했는데 옛적부터 그러했었구나.

명림지군은 자기를 둘러싼 수하장수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런 좋은 폭포에 이름이 없다면야 안되지. 내 생각엔 저 산의 이름을 따서 이 폭포를 청량폭포라고 부르면 좋겠구만.》

그 말에 수하장수들이 저저마다《그게 참 좋겠소이다.》하고 응수했다.

명림지군은 유쾌한 기분으로 다시한번 폭포를 둘러보며 말했다.

《자네들이 다들 좋다고 하니 청량폭포라고 불러도 무방할거네.》

두달후 중리도독 명림지군이 거느린 고구려군은 감쪽같이 수군전을 벌려 관미성을 항복시켰다.

한성으로 통하는 보급로가 막혀버린 청목산의 백제군은 목책을 허물고나와 두손을 들었다. 그야말로 무혈승전이였다.

하여 고구려는 한성의 남쪽일대에로 국토를 넓혀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후 중리도독 명림지군이 천마산을 찾아와 꾼 명꿈이야기가 자자해지면서 청량폭포는 명소라 이름이 났고 명산에 명꿈이란 말도 생겨나게 되였다.

《송도속지》

《송도속지》는 개성지방의 지리지인 《송도지》를 수정보충할 목적으로 1802년 개성류수 김문순에 의하여 출판된 지방지이다. 《송도속지》는 2책으로 편찬되였으며 나무활자로 인쇄한 참지선장본이다. 《송도속지》는 《송도폭원도》와 국조기사, 연혁, 방리, 호구, 풍속, 산천, 학교, 궁전, 교량, 릉묘, 고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하고있으며 충신, 효자, 렬녀 등 인물들도 수록하고있다. 《송도속지》는 《송도지》에 없는 내용을 수정보충하였다.

《송도속지》는 일련의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개성지방지의 편찬력사와 개성의 력사와 문화를 밝히는데서 사료적가치를 가지는 문헌이다.

마 담

리 성 덕

대흥골계곡을 따라 벽계수를 거슬러 굽이굽이 오르느라면 청량폭포 아래쪽에 맑고 푸르고 깊은 못이 있으니 이 못을 마담이라고 부른다.

네댓길이나 되는 석벽에서 떨어져내리는 폭포의 물확이 말의 구유처럼 생겼다고 하여 《마담》또는 《룡마담》이라고 부르는데 나무그늘을 헤치며 못가로 들어서는 입구의 큰 바위에는 《룡마담》이라는 글자가 새겨져있다.

언제 누가 새겨놓았는지도 모르는 그 글씨, 이끼덮인 희미한 그 글의 획속에도 내 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자랑하려는 이 나라 사람들의 그 산천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도 새겨져있으리라 생각하면 마음은 저도 모르게 후더워진다.

파릇한 마담의 청옥같은 푸른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데 맑기는 또한 얼마나 맑은지 그 밑바닥까지 환히 들여다보인다.

사람들은 흔히 마담이라고도 부르지만 왜 못가의 바위에는 룡마담이라고 새겨놓았는지…

병자호란(1636년, 청나라와의 전쟁)전에 당시 명장으로 널리 알려진 림경업이 대흥산성 방호험관으로 한동안 이곳에 와있으면서 무너진 산성도 수축하고 내외군창들도 관리하면서 이곳의 력사유적들과 산천의 아름다움에 사랑을 기울이였던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마담에도 새겨져 오래도록 전해져오게 된것이였다.

림경업은 어려서부터 무술을 련마하여 1618년에 무과에 급제한 후 1636년 병자호란때에는 의주부윤으로서 청나라침략자들을 막아 백마산성을 굳게 지키였다.

1642년 청나라의 비위를 거슬리고 붙들려가다가 호송도중 탈출하였으나 다시 체포되게 되였다.

하여 청나라에 끌려가있던 림경업은 청나라에 투항한 마홍주를 비

롯한 명나라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비굴하게도 청나라식으로 머리를 깎을 때에도 저만 홀로 청나라군졸들을 큰소리로 꾸짖으며 그에 조금도 응하지 않았다.

당시는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효와 대의명분을 기초로 하는 유교로 교육하였던탓에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몸에 난 털 한오리도 부모가 주지 않은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머리털과 수염도 깎지 않고 상투를 틀었으며 부모와 나라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과 지조를 머리꾸밈새로 표현하고있던 때였다.

청나라군졸들이 가위를 들고 자기의 머리를 깎으려고 전립을 벗기려들자 림경업은 호되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들아, 내 비록 네놈들에게 잡혀와있는 몸이다만 어찌 조선사람의 근본까지야 잊겠느냐. 내 목을 자르기 전에는 머리칼 한오리도 절대로 다치지 못한다. 이 오랑캐놈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가.》

그의 기상이 투항해온 명나라장수들과는 달리 너무도 견결하고 도고한데 감동된 청나라군졸들은 그만 물러가고말았다.

림경업은 그후 몇해동안 형틀에 매여있으면서도 끝까지 조선사람의 자존심과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청나라관리들도 그가 의지가 굳고 지닌 뜻이 고상하며 갖추고있는 기품이 도고하다는것을 알고 함부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후 병술년인 1646년 3월 리조봉건정부의 사신들과 함께 압송되여왔다.

온몸을 꽁꽁 묶이운채 수레우에 결박된 림경업이 평양성을 지날 때 평양성사람들은 모두가 거리에 떨쳐나와서 울며불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림경업이 평안도절도사로 오래 있었던때문이기도 했지만 더우기는 나라의 존엄을 지켜 피흘리며 싸워온 그를 죄인취급하는 조정의 사대역신들이 원망스러웠기때문이였다.

림경업은 압송되여오자마자 당시 조정의 정사를 좌지우지하던 사대역신 김자점일당의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였다.

김자점은 림경업의 충의와 기개를 시기질투하여 개인적으로도 그와 오래전부터 척을 지고있었는데 형틀에 매여서도 그 기개를 조금도 꺾지 않자 사정없이 고문을 들이대게 하였다.

림경업은 형틀에 매여서도 《네 이놈 자점아, 내게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듯 사납게 물어뜯는거냐. 네놈이 사사로운 악의로 나를 이렇듯 욕보이니 너의 죄는 더욱 용서할수 없다. 네놈의 역적모의를 내다 알고있거늘 하늘이 반드시 네놈에게 큰 벌을 내릴것이다.

나를 상감님앞에 데려다달라. 상감님께 내 마음속에 품은 뜻을 아뢰이겠다. 네놈이 나를 남몰래 죽여 네 죄를 숨기려 하지만 결코 그렇게는 안될것이다.》

김자점의 얼굴에 살기가 번뜩하였다.

림경업은 굴함없이 역신들의 고문을 견디여내다가 너무도 혹독한 고문에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형틀에 묶이운채 절명하고말았다.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한 민심이 수많은 이야기와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가 죽던 날 산천초목도 서리를 맞은듯이 시들면서 충신의 죽음을 슬퍼하였다는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림경업의 룡마에 대한 전설도 그렇게 전해진 이야기들중의 하나였다.

일찌기 그에게는 늘 타고다니며 애용하던 준마 한필이 있었는데 그 준마는 하루에 500리를 능히 달리였고 몇길이나 되는 아무리 험한 벼랑도 나는 호랑이처럼 단숨에 뛰여넘는 그야말로 날랜 룡마였다.

인조왕때 령남 청도군에 사는 김경문이라는 사람이 집가까이에 있는 룡소에서 물고기를 낚다가 못가에서 그만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였다.

꿈에서 도사가 나타나서 《과남하나 룡마는 그대만이 길들일수 있고 보검은 룡마를 가진 사람만이 찾을수 있도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후 김경문은 룡소에 잠겨있다가 가끔씩 머리를 내밀군 하는 룡마를 발견하고 애써서 기어이 길들여냈다.

그리고 동쪽너럭바위밑에서 석자길이의 보검도 찾아냈는데 그 광채는 번개가 이는듯 번쩍번쩍하였다.

그는 그 칼을 보물로 여기고 함속에 깊이 간수하였다.

그런데 얼마후에 그는 향군(지방군)에 뽑히여 번을 들려고 수자리 살러 가게 되였는데 갈 때 룡마를 타고 보검도 가지고 갔다.

그곳에서 장수다운 풍채를 지닌 림경업을 만나본 김경문은 룡마와 보검의 주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넘겨주었다고 한다.

하여 림경업의 룡마와 보검에 대한 전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던 것이다.

림경업이 청나라로 끌려가던 날 애용하던 룡마를 어루만져주면서 《아, 지금 나에게 룡마가 무슨 소용이랴!》라고 한탄하던 끝에 말의 굴레를 벗겨주면서 너 갈데로 가라고 놓아주자 말은 목을 늘여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서있었다고 한다. 림경업이 머나먼 이역땅에서 역경을 헤치고있을 때 주인을 잃은 룡마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궁중에서 말을 관리하는 사복시의 관리들에게 끌려가 궁중말로 보충되였다.

림경업이 사대역신들의 손에 억울하게 옥사한것을 알게 된 사복시 말관리공이 룡마가 알아듣지 못하는줄 뻔히 알면서도 그의 운명이 하도 기구하고 원통한지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너의 옛 주인이 역신들에 의해 원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는구나. 이 나라의 충신이고 장수인 그런 인물을 형틀에 매여놓고 형장으로 쳐죽이는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아, 절통한 일이로구나!》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룡마는 구유에 담긴 여물을 먹다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세번 길게 울부짖더니 그만 자리에 쓰러져 죽고말았다.

이렇게 당대명장으로 이름난 림경업이 쓰러지자 그의 룡마도 영영 가버리고말았던것이다.

18세기에 나온 홍량호의 《해동명장전》에 실려있는 림경업의 전기에는 이런 내용이 씌여져있다.

그러나 중세국문소설 《림경업전》과 그에 기초한 한문본 《림경업전》(수산욕인 씀)에서는 림경업이 사망하자 룡마는 룡소에 풍덩 뛰여들어 다시 나오지 않고 보검도 간곳없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연폭포가 있는 대흥골 마담에서 우리는 그 룡마전설과 뜨겁게 접촉하게 된다.

당시에 이런 시가 개성지방에 널리 전해졌다고 한다.

> 림장군 떠나신 뒤
> 룡마 어이 홀로 살리
> 대흥산성을 울부짖어 헤매다가
> 지금은 늪속에 몸을 던져
> 웅장히도 앉았어라

저 푸른 늪속의
울부짖는 저 마신(말의 넋)아
이 좋은 풍광을
너만 홀로 즐기단 말가
불러도 아무 대답없이
옥굴레만 흔들러라

(《고려시보》 1937년 9월 1일부, 박아지)

림경업의 전기에는 그가 대흥산성의 방호험관으로 와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박연지구사람들이 박연의 마담에 림경업의 룡마전설을 옮겨놓고 룡마담이라고 부른것이라고 보인다.

전설속의 전설이 또 전설을 낳아 오늘도 이곳 명승의 박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새겨주고있다.

룡 담

전 성 심

박연폭포의 절승경개에 넋을 잃은 유람객들이 굽이굽이 골짜기를 따라오르느라면 청옥같은 물줄기들이 모여 흐르는 룡담이 나진다.

박연지역의 기담, 마담, 구담과 더불어 명소의 하나로 일러주는 룡담.

박연폭포가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들었다.

박연의 산세도 장관이거니와 아담한 담소들의 물소리 또한 유정하여 찾아오는 사람마다 찬사가 그칠줄 몰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슬같고 청옥같던 박연폭포의 물이 흐리여지고 검붉은 흙탕물이 쏟아져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천마산이 솟아 수천년, 여기에 폭포가 흘러내려 수수백년이 되거늘 천하절승으로 일컫는 박연의 물줄기가 흙빛이라니?!

굽이굽이 천마산골짜기를 흐르고흐르던 물줄기가 흙빛으로 된다

니 이를 어찌할것인가. …
그런데 천하의 절승도 사람다음이라 박연폭포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는것보다 더 급박한것은 박연의 물줄기를 생명수로 받아마시며 살아가던 박연마을의 생명들이였다.
산천이 좋으면 영걸이 난다 했거늘 산도 그 산이요 사람도 그 사람이나 흐르는 물을 보면 기가 막히고 영걸은커녕 사람들은 날로 쇠약해지고 온 마을이 맑은 물에 주리여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물때문인지 이듬해부터 마을에 전염병까지 돌아 생때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 쓰러져갔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박연의 물줄기가 흐리여지고 인명이 화를 입는것은 하늘의 조화라 탄식만 하였을뿐 누구도 바로잡을 생각을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임금의 령을 받고 천마산을 지나 북방으로 말을 몰아가던 선봉군사들의 한 부대가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였다.
마을에 들어설 때는 이미 땅거미가 깃들무렵이라 선봉장은 마을어구에 군막을 치게 하고 호젓한 마을길에 들어섰다.
아름다운 경치에 끌려서인지 아니면 누구를 목메여 부르는듯싶은 산새의 울음소리에 끌려서인지 말이 가는대로 산자락까지 올라갔다.
(사람사는 곳이 왜 이리 괴괴할가?)
이때 어디선가 흑흑 느끼는 웬 녀인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속에 홀로 울고있는 녀인의 사연도 궁금하거니와 그 소리가 하도 애를 끓게 하는지라 저벅저벅 다가서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녀인의 되알진 목소리가 울려왔다.
《누구세요? 거기 서시오이다. 다가오지 마소이다.》
목소리로 보아 애되고 짜랑짜랑한것이 그리고 어둠속에나마 소곳이 앉아있던 희미한 자태가 틀림없는 처녀였다.
《나는 군사를 이끌고 마을을 지나던 선봉장인데 웬일로 그대는 어둠속에서 이처럼 홀로 울고있는거요?》
그제서야 처녀는 옹크렸던 몸을 서서히 일으키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채 말을 이었다.
《저의 이름은 슬기이옵고 제 집은 바로 이 마을 끝에 서있는 작은

초가이옵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는 몹쓸병에 걸린 아버지, 어머니가 경각을 다투고있는데다가 이제 저 역시 부모님들의 뒤를 따를수밖에 없는 몸이기에 하도 서러워 그러하옵니다.》

《아니, 몹쓸병이라니… 이토록 아름다운 산과 골짜기에 무슨 병이 돈단 말이요?》

선봉장이 놀라움에 겨워 처녀에게 다가서며 다우쳐물었다.

《원래 이 박연마을은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이고 물 또한 맑고 달아 여기 사는 사람모두가 건강하여 장수하였다 하오이다. 그런데 몇해전에 저 서해룡왕의 아들 해룡이 여기에 놀러 왔다가 청량폭포 웃쪽에 아주 둥지를 틀고 눌러앉은 후로 제멋대로 날치며 물을 흐려놓고 제 세상처럼 돌아치면서 가축들을 모조리 잡아가고 어린 아이들까지 잡아먹는다 하더니 요즈음엔 이상한 병까지 돌게 되였나이다.》

격분한 마을청장년 여럿이 해룡과 싸우러 올라갔지만 여러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겨있다는것이였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영영 돌아올수 없는 길로 보내야 하니 자식으로서 가슴이 갈가리 찢기우는것만 같아 생명이 꺼져가는 부모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맑은 물을 드리고싶어 아침저녁으로 여기 솔숲에서 이슬을 털고 또 털어 받아내고있다는것이였다.

이렇듯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처녀가 부모를 잃고 또 꽃다운 목숨을 기약할수 없다는 사실에 선봉장은 금시 애간장이 다 녹는것 같았다.

《도대체 바다의 룡이라는것은 본시 여기가 제 있을 곳이 아니거늘 수수천년 이어오는 박연의 순결함에 흙칠을 하였으니 어찌 벌을 받지 않으리오. 나라를 지키는것이 곧 이 나라의 산과 물,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지키는것이기에 내 기어이 그 흉악한 해룡을 징벌하겠소.》

슬기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해룡이 워낙 포악하고 횡포한데다 또 어떤 조화를 부릴지 알수 없는지라 선봉장의 신변이 몹시 걱정되였다.

하지만 슬기는 곧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다.

《하늘이 결코 무심하지 않아 박연에 귀인을 보낸것이오니 어찌 이 한몸을 아끼겠나이까. 제 비록 아녀자의 몸이오나 힘껏 돕겠

나이다.》
  슬기는 선봉장과 함께 놈을 쳐없앨 방도를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이 단번에 쳐들어가 묵살냈으면 좋겠지만 흉축하고 음흉스런 그놈이 못속으로 더 깊숙이 틀고앉아 더욱 횡포를 부릴수 있었기때문에 반드시 땅우에서 없애야만 했던것이다.
  날이 푸름해지자 선봉장과 슬기는 길을 떠났다.
  박연폭포를 지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청량폭포에 이르러 이들은 멈추어섰다.
  맑고 푸른 물보라를 일으키며 두줄기로 쏟아지던 청량폭포가 빛을 잃고 구슬프게 호소하듯 간신히 바위벽을 타고 흘러내리고있었다.
  잠시 말없이 서있다가 무엇인가를 결심한듯 결연한 기색으로 옷매무시를 바로잡는 슬기를 바라보는 선봉장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거운 련민의 정이 흐르고있었다.
  《몸을 조심하오.》
  슬기는 호수같이 맑은 커다란 눈을 내리깔며 나직이 말했다.
  《제 걱정은 말고 해룡을 꼭 한칼에 베여주소이다.》
  슬기는 말을 마치고 나는듯이 바위뒤를 돌아 해룡이 숨어있는 담소로 향했다.
  가슴은 쿵쿵 방아질을 하고 다리는 떨려났지만 부모님들과 마을사람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고 또 뒤에 있는 선봉장의 억센 눈길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더더욱 억세여지는것이였다.
  담소에 도착한 슬기는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담소옆의 평퍼짐한 바위우에 가지고온 술방구리와 안주들을 펴놓고 한옆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소리에 이끌려 해룡이 나오기를 바라서였다.

산수가 수려해 내 여기 왔나
때마침 꽃철이라 봄바람도 따스해
어디에 계신가 바다속 룡왕님
한잔 술 찰랑 즐거움을 나누자요

봄종다리소리인듯 청아하게 울리는 슬기의 노래소리는 아닌게아니라 해룡의 귀가를 마구 간지럽혔다.
그러지 않아도 제멋대로 놀아대는 자기를 마땅치 않게 여긴 룡왕이 보낸 당장 대궐로 입궐하라는 전갈을 받은 뒤라 심사가 뒤틀려 몸이 근질근질해하고있던 해룡은 뜻밖에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움쭉 몸을 일으켜 물우로 머리를 내밀었다.
(히야, 박연에 저런 미인도 있었는가!)
해룡은 휙 몸을 날려 닁큼 바위우에 올라 슬기앞에 다가갔다.
슬기는 옷자락을 스치는 물보라와 해룡의 몸에서 풍기는 물비린내에 온몸이 오싹해났지만 간신히 참으며 놀란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급히 절을 하였다.
《소녀가 울적한 마음도 달래고 기분도 돌릴겸 심심풀이로 노래를 한것이온데 이렇게 룡왕님께서 직접 행차하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나이다.》
해룡은 룡왕님이란 말에 기분이 붕 떠서 흉한 입귀가 귀밑까지 올라갔다.
《박연경치가 아름답다지만 네 자태 또한 어여쁘구나. 어서 가까이 와서 술을 쳐라.》
슬기는 방긋 웃으며 한잔, 두잔 연송 술을 권하였다.
술방구리가 비여갈무렵 해룡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그러쥐였다.
슬기가 부어준것이 그저 술이 아니라 독주였던것이다.
핵— 휘파람소리와 함께 슬기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배를 그러쥐고 딩굴던 해룡이 한발이나마 되는 꼬리로 슬기를 사정없이 내리쳤기때문이였다.
슬기가 부어준 독주도 해룡에게서는 별로 큰 효력을 내지 못하였던것이다.
《흐흐, 네가 나를 죽이려고? 어림도 없다. 난 산 사람을 삼키면 얼마든지 살아나니까… 내가 널 잡아먹어주마.》
가까스로 눈을 뜬 슬기앞으로 징그러운 낯짝이 한치한치 다가들었다.
《아, 선봉장님! 꼭 원쑤를 갚아주소이다.》
해룡이 슬기의 머리채를 거머쥐려는 순간 시퍼런 칼날이 해룡의 몸

뚱이를 내리찍었다.
선봉장이 위기의 순간에 몸을 날렸던것이다.
그러나 해룡의 기둥통같은 몸뚱이에 덮여있는 검붉은 비늘은 그대로 방패 한가지여서 칼날은 곧 튕겨났다.
《음, 네놈은 또 뭐야? 어디 덤벼들어봐라. 두 년놈 다 삼켜버릴테다.》
선봉장은 해룡이 솟구쳐오르며 꼬리를 휘두르려는 순간 날쌔게 다시한번 꼬리를 겨누어 칼을 휘둘렀다.
그러자 꼬리가 뭉청 잘리우더니 물우에 첨벙 떨어져버렸다.
꼬리를 잃은 해룡은 이제 더이상 날아오를수 없게 되자 시뻘건 아가리를 쩍 벌리고 금시라도 선봉장을 삼킬듯 혀를 널름거리였다.
이때 쓰러져있던 슬기가 온몸의 힘을 모아 해룡의 퉁방울같은 눈을 향해 옷섶에 감추었던 매운재를 뿌리였다.
《아이쿠! 내 눈…》
이 순간 선봉장이 서슬푸른 칼날을 휘둘러 그놈의 목을 썩뚝 베버렸다.
그러자 해룡은 천둥소리같은 요란한 괴성을 지르며 피를 토하더니 물우에서 몇번 요동치다가 뻐드러지고말았다.
《슬기, 눈을 뜨오.》
선봉장은 쓰러져있는 슬기를 안아일으켰다.
선봉장과 슬기는 말없이 서로의 맑은 눈을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이 다 말해주거늘…
목숨을 걸고 처녀의 부모와 마을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미더운 사내대장부, 한낱 연약한 처녀의 몸으로 그 징그럽고 흉악한 룡과 맞서싸운 기특하고 용감한 박연의 딸!
박연은 자기의 모습을 다시 찾았다.
굽이굽이 골짜기마다 옥구슬같은 맑은 물이 찰랑이고 깃들일 곳을 찾아떠났던 온갖 새들이 자기들의 정든 보금자리로 다시 날아들었다.
박연폭포를 비롯한 온갖 폭포들이 우렁차고 장쾌한 물줄기를 뿜어날리고 병마가 사라진 박연마을엔 또다시 생명수가 흘러들었다.

선봉장은 슬기를 안해로 맞았으며 슬기는 그후에도 그를 따라 나라를 지키는 싸움터마다에서 뛰여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다 바쳐 적극 뒤받침해주었다.

마을사람들은 박연을 지켜내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해낸 이름모를 선봉장과 슬기에 대해 오래도록 잊지 못하며 박연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군 하였다.

세월은 흘러 그때 선봉장의 칼에 동강이 난 룡의 몸뚱이는 돌로 굳어져 담소를 가로지른 돌다리가 되였고 커다란 머리는 슬기의 매운재에 눈도 뜨지 못한채 오늘도 담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죄를 빌듯 고개를 숙인채 굳어져있다.

사람들은 천지조화를 일으킨다던 룡도 아름다운 고향산천과 정다운 부모처자를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은 이길수 없었다는 뜻깊은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가며 이 담소를 가리켜 룡이 항복한 곳이라는 뜻을 담아 엎드릴 복, 룡 룡, 못 담자를 써서 《복룡담》이라고도 불렀다.

《송 경 지》

《송경지》는 1824년에 개성류수 김리재가 이전에 출판된《송도지》와 《송도속지》를 종합정리하여 완성한 개성의 지방지이다.《송경지》(전 1책)는 서문과 《송도폭원도》로부터 고려시기와 리조시기에 걸쳐 개성에서 일어난 사건, 사실들과 함께 연혁, 성곽, 풍속, 산천, 명승, 고적, 토산, 학교, 궁전, 관방, 릉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충신, 효자, 렬녀를 비롯하여 무과, 문과, 류수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인물들에 대하여서도 여러 항목을 주어 서술하였다. 《송경지》는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결함들과 부족점이 있으나 읍지전반의 내용서술이 아주 자세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있는 점과 개성이 오래동안 고려의 수도로서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개성의 향토와 지리연구에서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의 중세기 각 부문의 력사연구에서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된다.

구 담

리 선 복

박연폭포에서 우로 한 2천여걸음 올라가면 구담이라고 부르는 깊고 아름다운 못이 있다.

구담이란 이름은 몇백년을 살았는지 몇천년을 살았는지 알수 없는 집채같이 큰 거부기 한마리가 천마산절경에 취하여 긴 목을 빼들고 푸른 물 출렁이는 못가운데 바위로 굳어져 우뚝 솟아있기때문에 생긴것이라 한다.

…

아득히 먼 옛날 깊고깊은 서해룡궁속에는 300여살이나 먹은 귀벌주라는 거부기가 살고있었다.

그는 원래부터 룡궁의 귀족출신인데다가 300여년을 살다보니 벼슬은 더이상 오를수 없는 그야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령상이라는 최고관직에 이르고있었다.

한생에 그는 우리 나라의 금강산이나 묘향산은 물론 이웃나라의 이름난 명산, 명소들도 수많이 다녀보았기에 바다속 물정은 물론이요 온세상 물정까지도 모르는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룡궁의 원로중의 원로였다.

어느날 귀벌주를 비롯한 룡궁의 원로대신들과 뭇신하들이 모여 룡왕의 생일잔치를 즐겁게 치르고난 뒤에 뜻밖의 일이 생겨났다.

생일을 맞는 룡왕의 만년장수를 위해 천마산 깊은 골에만 있는 산삼을 구하러 갔던 룡궁에서 어약을 담당한 자라가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있다가 즐거운 기분으로 생일연을 마치고 룡왕이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즈음에 불쑥 나타나 난데없이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청하였기때문이였다.

《상감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소신들이 불충불효하여 산삼은 보지도 못한채 하나는 잃고말았사오니 목을 길게 늘여 죄를 청하는바이옵나이다.》

죄를 청하는 자라의 모습은 실로 가긍하기 짝이 없었다.

룡왕은 즐거운 날의 기분을 잡친 불쾌감으로 하여 곤두선 속눈섭을 씰룩거리다가 애써 아량을 베풀었다.

《으－음! 사실이 그러하다면 너의 불충불효는 더 말할나위가 없느니라. 이번 일에 성공만 하면 마땅히 그 공적을 죽백에 아로새기고 특등공신으로 봉하려 했거늘 오히려 룡궁의 큰일을 망쳐놓았으니 응당한 처분이 있으려니와 우선 그 사유부터 자세히 아뢰도록 하라.》

룡왕의 아량에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힌 자라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룡궁을 떠나 사천강을 거슬러올라 천하명산 천마산을 바라보며 오관산앞 령통골에 이른 소신들은 아무래도 천마산 깊은 골로 가자면 오관산을 넘어야 하므로 천마, 성거 두 산이 접해있는 산마루에 올랐사옵니다.

올라보니 일광봉, 옥녀봉, 태왕봉, 금신봉 등 기기묘묘한 산봉우리들이 마치도 록부용을 다듬어 꽂아놓은듯 다투어 늘어섰는데 그 아름답고 신비함을 소신의 입으로는 다 이르기가 정녕코 어렵사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울렁이는 가슴을 애써 가라앉히고 금신봉에 달려있는 산봉우리까지는 겨우 올라섰사온데 그앞에 펼쳐진 절경을 보고는 소신도 너무 황홀하여 정신이 아찔해지고말았사옵니다.

얼마후에 소신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보니 글쎄 같이 갔던 자라가 갑자기 〈아－앗!〉하고 한소리 크게 부르짖으며 정신을 잃더니 곧 굳어지고마는것이 아니겠소이까. …》

자라가 그날의 그 절경에 또다시 취한듯 아찔해하며 하던 말을 잠시 멈추자 령상인 귀벌주가 큰소리로 그를 꾸짖으며 룡왕에게 아뢰는것이였다.

《어허－ 괘씸하도다. 네 여기가 어딘줄 알고 감히 그따위 허튼수작을 꺼리낌없이 내뱉는단 말인고. 천마산, 성거산인즉 그 높이가 3천척도 차지 못하거니와 그 이름은 들었어도 온 천하에 달통한 내 아직 가보지 못한 산이거늘 그 무슨 경치가 그토록 황홀하여 졸경까지 한단 말이냐?

상감마마, 저 자라야말로 불충불효가 막심하기 그지없사오니 릉지처참을 해도 오히려 그 죄가 남을줄로 아뢰옵나이다.》

귀벌주는 이렇듯 룡왕의 기색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탄없이 마구 뇌까리였지만 자라의 말에 크게 감취된 룡왕의 대답은 실로 천만

뜻밖이였다.

《해동국이 지극히 아름답다는 말은 족히 들어왔거니와 령상경도 가보지 못한 그런 명산이 아직도 있다 하니 과시 신비한 곳이 틀림없도다.

령상경이 300년이 넘도록 일찌기 이 룡궁속은 물론이요 세상의 명산대천 그 어디나 가보지 못한 곳이 없다고 자부해왔거늘 그처럼 아름답고 황홀한 천마산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 아닐수 없노라.》

룡왕은 언제나 제노라고 으시대며 뽐내던 령상이 룡궁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천마산도 아직 가보지 못했다는 말에 일종의 야유를 담아 그의 속마음을 슬쩍 건드려놓았다.

룡왕의 이 속내를 모르지 않는 귀별주는 심사가 몹시 뒤틀렸으나 감히 내색은 할수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척 할수도 없어 두려운 생각과 함께 더 큰 명예와 부귀를 누리고싶은 생각이 갈마드는 속에서도 머리를 조아리며 또다시 입을 열었다.

《지당합신 말씀이옵나이다. 천마산산삼이온즉 장생불로, 불사약으로 그 효험이 룡궁에서는 물론이요 지상세계나 천상의 황궁안에서도 으뜸으로 일러주는것이거늘 신이 비록 몸은 로둔하오나 상감마마의 만년장수를 축수하여 충정을 다해볼가 하옵나이다.》

귀별주령상의 말은 자못 정중하고 절절하게 울리였다. 그 말에 잠시 언짢았던 룡왕의 기분도 스르르 풀리더니 눈언저리에는 느슨한 웃음까지 비껴돌았다.

《령상경이야말로 과시 충의지심이 가득찬 원로대신이로다. 하지만 경의 나이가 300여수가 넘었은즉 매사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하되 백관중에서 가장 날래고 영특한자를 골라 이번 거사와 경의 신변에도 이상이 없도록 만전지책을 다하도록 하라.》

룡왕은 보기 좋게 다스려진 코밑의 희슥희슥한 팔자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고도 위엄있게 말을 내였다.

일이 이쯤 되자 귀별주는 이번 일만 성공하면 더 큰 명예와 부귀영화가 차례지겠은즉 그것을 남에게 양보할것이 무엇이겠냐고 여기며 공부에서 랑중벼슬을 하고있는 자기의 손자벌되는 거부기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먼저 왔던 자라가 이미 굳어져버린 령통골의 그 봉우리에 올라서고

보니 과연 신선들만이 산다는 하늘의 절경이 그대로 펼쳐진듯 금강산이나 묘향산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기기묘묘한 절승절경에 혼이 날아나고 정신이 흩어져 어쩔바를 모를 지경이였다.

그제서야 귀벌주는 천마산이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천하명산이라는 말이 과연 거짓이 아니였음을 절감하고 이미 굳어진 자라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자기의 손자거부기에게만은 그런 불행이 절대로 차례지지 않기를 하느님께 빌고 또 빌었다.

다음봉우리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북쪽으로는 성거산의 최절승인 인달봉이 허리에 실구름을 휘감고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았는데 그 아름다움은 극락세계가 아니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절승중의 절승이라 또다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미 극락세계에 들어선듯 룡궁으로 다시 돌아가고싶은 마음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것이였다.

이때 뒤에서 손자거부기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귀아프게 들려왔다.

《아… 아! 하… 할아버…지!》

간신히 이렇게 부르짖고난 손자거부기는 더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쓰러졌다.

명산중의 명산, 절승중의 절승에서 아름다움과 황홀함에 세상에 둘도 없을 즐거움까지 더해지고보니 자기의 넋을 완전히 잃고만것이였다.

귀벌주는 그래도 300여년을 산 제나름대로의 담이 있는지라 안깐힘을 다하여 정신을 가다듬고 쓰러진 손자거부기를 일으켜세우려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귀벌주는 온몸의 힘을 다해 손자거부기의 몸을 주무르고 또 주물렀다. 이렇게 하기를 그 얼마인지. …

그러다가 갑자기 한옆을 바라보니 아찔한 바위짬에서 맑은 물이 똘랑똘랑 떨어지는데 그 드맑은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귀벌주는 부리나케 기여가 그 물을 두손에 받아들고와서 손자거부기의 목안으로 흘러넘기였다.

그랬더니 손자거부기가 간신히 정신을 차린듯 눈을 가까스로 뜨면서 빙긋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애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곧 천마산 깊은 골이 나질테니 그 유명한 산삼을 가져다가 룡왕님께 드리고 우리

도 크게 이름을 떨치고 더 잘살아야 할게 아니냐?》
귀별주는 이번 일만 잘 치르면 손자거부기가 공부상서자리를 따는 것은 물론 자기도 남부럽지 않은 보다 큰 부귀영화를 누릴것이라는 생각에 옴해빠져 손자거부기의 온몸을 더 세차게 주물러대며 이렇게 주절거렸다.
《하…하…할아버지, 난 공부상서가 아니라 그 어떤 벼슬자리를 다 준대도 룡…룡궁으로는 다시는 가지 않겠사와요. 이… 이 아름다운 땅, 천마산에서 영… 영원히…》
손자거부기는 이런 말을 겨우 남기고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손자거부기의 몸은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더니 인차 굳어지고말았다.
(손자거부기가 굳어진 산봉우리를 구봉이라 부르는데 지금도 금신봉옆에 자라봉과 나란히 서있다.)
손자거부기를 잃은 귀별주는 온몸의 힘이 싹 빠지며 정신이 혼미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더이상 움직일수도 또 움직이고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룡왕과 만조백관들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떠나왔는데 이대로 찾아들자니 참말로 기가 막히였다.
그리고 300여년 살아온 자기 행적이 이렇듯 아무런 자취도 없이 졸지에 사라지리라는 허무한 생각에 귀별주는 다시 힘을 내여 개울가로 내려가 흐르는 물에 그대로 몸을 맡기고말았다.
얼마쯤 내려왔는지는 알수 없으나 깊은 물에 몸이 잠기는 순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뒤덮으며 어느 정도 힘도 솟고 정신도 맑아지는듯싶었다.
물속에서 새힘을 가다듬고 얼마간 내려오다가 바라보니 맑고 싱그러운 냄새가 풍기는 샘물이 퐁퐁 솟아나고 거기에 엎드리여 정신없이 들이마시는듯싶은 룡의 모습이 완연한 맑은 못이 나타났다.
(물맛이 얼마나 좋으면 저 룡은 저렇듯 미친듯이 마실가?)
이런 생각이 불쑥 치밀어오르자 귀별주는 자기도 내려가 목을 길게 늘이고 한모금 쭉 들이켰다.
순간 귀별주는 온몸에 힘이 북받치고 이미 100여년전에 사그라진 풍정이 저도 모르게 되살아남을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그는 손자거부기며 산삼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고말았다.

어서빨리 은하수가 흘러내리는듯싶은 폭포가로 가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온다는 선녀들과 한번 마음껏 즐겨보려는 엉뚱한 생각까지 품게 되였던것이다.

귀벌주는 그 비둔한 몸을 제법 잽싸게 놀려가며 흐르는 물결을 타고 헤염까지 하면서 살같이 내려왔다.

한동안 내려오느라니 맑은 물이 폭포쳐 떨어지는 밑에 큼직한 못이 펼쳐져있는데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청동빛물결이 출렁이고있었다.

귀벌주가 얼른 못가운데 풍덩 들어가 물속을 들여다보니 이게 웬일이냐?!

깊은 물속에선 수중궁궐같이 깎아세운 수정기둥들과 진주보석들이 반짝이는데 끝없이 맑고 푸른 하늘을 치뚫으며 높이 솟은 기암괴석들마다에는 새빨간 열매들이 아롱진 산삼들이 출렁이는 물결을 타고 춤추듯 설레이고있지 않는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바다의 세 경치가 한눈에 안겨오는 절승절경의 최고인지라 다시 머리를 들어보니 신비로운 향내를 풍기며 바위짬기슭을 따라 울긋불긋 돋아난것은 그처럼 찾고찾던 산삼이 분명하였다.

견물생심이라고 무엇을 하나 보기만 해도 제 손에 쥐고싶어하는것이 세상사에 흔한 일이라 귀벌주는 그 산삼을 뜯어다가 룡왕에게 바치려는 생각보다는 제가 먼저 마음껏 먹고 300년만이 아니라 3천년, 3만년을 더 살고싶은 욕심이 불끈불끈 솟는것을 억제할수 없었다.

그런즉 저 많은 산삼들을 다 뜯어먹자면 몸을 더 식혀야겠다고 생각한 귀벌주는 머리까지 물속에 푹 잠그고말았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깊은 물속에 몸을 잠그었더니 마치도 룡궁세상에 들어간듯 온몸이 편안해지며 스르르 잠에 들게 되였다.

…큰 바위문이 저절로 열리였다. 귀벌주가 성큼 들어서보니 온통 거부기세상이였다. 크고작은 거부기들이 선녀같은 아름다운 미녀들을 옆에 끼고 쌍쌍이 거닐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귀벌주는 이 아름다운 거북세상에 눈이 뒤집혀 그중 가장 애어린듯싶은 거부기에게 말을 걸었다.

《여봐라! 나는 저 서해룡궁의 300여년 묵은 재상이온데 너희들은 어느 나라 거부기들이냐?》

그러자 그 애어린 거부기가 금시 눈알을 부라리며 된욕을 퍼부었다.

《네 이놈, 괘씸하기 그지없도다. 이곳인즉 1 000살이상의 거부기 원로들만이 모여사는 명산밑의 거부기나라이고 내 나이도 이제는 1 300살이 넘었은즉 네 이놈, 그래 수십대 조상도 몰라보고 어찌 말투가 상스러우냐?》

자세히 보니 과연 나이를 알리는 이마의 무수한 잔주름이 거미줄같이 엉켜있었다.

귀별주는 급히 두손을 무릎우에 얹고 꿇어앉아 죄를 청하며 절절히 애원하였다.

《황공하오이다. 제 미처 이 명산밑에 이런 오랜 거북나라가 있는줄은 몰랐사오니 바라건대 죄는 천만가지로 달게 받겠사와 부디 이 나라의 신하가 되도록 깊이 헤아려주시옵소서.》

《음, 알만 하노라. 네 나이도 이젠 300여살에 이르렀고 관직도 룡궁의 재상이 되였은즉 우리 거북나라에 들어올만도 하노라. 허나 이 나라에 들어오자면 우리 대왕님의 어명이 있어야 하거늘 네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귀별주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거북나라의 풍치가 룡궁과는 대비도 할수없이 아름다울뿐더러 가장 애어린듯싶은 거부기도 나이가 1 300살을 넘었으니 이 황홀하고 희한한 거북세상에 들어와 1 300년이 아니라 13 000년 아니, 그이상 더 오래오래 살고싶은 욕망이 차넘쳤다.

그래서 귀별주는 수정지붕을 한 왕궁속으로 따라들어갔다.

거북대왕은 나이가 3만여살인데 머리와 수염은 비록 세여졌으나 얼굴에는 홍조가 연연히 어린것이 풍채가 뛰여남은 룡궁의 룡과는 견줄바없이 훌륭하였다.

귀별주는 몸이 떨리고 황송하여 감히 그앞으로 다가갈수가 없어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린채 아뢰였다.

《서해룡궁의 귀별주 상감마마께 감히 아뢰옵건대 제 비록 천한 몸이오나 여생을 상감마마께 의탁하고 충정을 다하고저 하오니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거북대왕이 보기에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말투와 행동거지는 그리 상스러운편이 아니였다.

《과시 짐의 수천대 손자가 틀림없도다. 그래, 네가 룡궁을 떠나 수고로이 이곳까지 짐을 찾아왔은즉 그 소원은 무엇인고?》

《예, 소신은 그저 상감마마를 모시고 충정을 다하고저 할뿐 다른

소원은 더 없사옵니다.》
《짐을 따르려는 너의 뜻인즉 실로 갸륵하도다. 하지만 이 나라의 충신이 되자면 적어도 1 000살이상을 살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거늘 네가 가히 그럴 힘이 있겠느냐?》
《소신이 이제 겨우 300여살에 불과한즉 아직은 이렇다할 묘안을 알지 못하오니 바라옵기 황송하오나 그 묘안을 밝히 헤아려주시옵소서.》
귀벌주는 감히 거짓말을 할수 없어 사실대로 아뢰며 애원하였다.
《알만 하도다. 지금 짐의 나이 3만이 넘었은즉 1 000년이상 살게 하는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노라. 저 궁문밖을 나서면 천마산이라는 천하명산이 있고 그 깊은 계곡에는 장생불사약으로 이름높은 산삼이 있느니라. 이 명약 한뿌리만 먹어도 3천년은 가능커니 과히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두뿌리만 캐먹고 들어올지어다.》
《상감마마, 황공무지로소이다.》
귀벌주는 이미 새빨간 열매까지 맺혀있는 산삼을 직접 보고 왔는지라 지체없이 궁문밖을 나오며 엉큼한 생각으로 새까만 눈을 이리저리 굴리였다.
(한뿌리만 먹어도 3천년을 산다면 내 무엇때문에 저 거북대왕의 말을 그대로 따르랴. 한두뿌리가 아니라 있는대로 다 캐먹고 3만년이 아니라 수천만년을 장수하면서 장차 이 나라의 대왕자리를 타고앉으리라.)
생각을 가다듬으니 온몸은 날듯이 가벼워져 귀벌주는 드바삐 달려나와 산삼 수백뿌리를 정신없이 캐먹었다.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가 하늘도 땅도 그리고 땅속의 거북나라도 모두가 눈아래서 맴돌며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귀벌주는 마치도 자기가 벌써 거북나라의 대왕자리에나 올라앉은듯 득의양양하여 다시 거북나라 궁중으로 들어갔다.
이미 귀벌주의 행실을 다 알고있는 거북대왕은 크게 노하여 심한 벌을 내리리라 마음먹고있었다.
그러나 거북대왕이 아무것도 모르는줄만 알고있는 귀벌주는 그앞에 꿇어엎드려 꺼리낌없이 거짓말을 하였다.
《대왕마마의 어명대로 산삼 두뿌리를 캐먹고 왔사옵니다.》
거북대왕은 귀벌주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더더욱 분했으나 모르는

척 하고 시치미를 떼며 입을 열었다.

《으흠! 그런즉 5～6천년은 문제없을것이로다. 허나 즐거움의 절정이 결코 장생만이 아니거늘 다시 궁중밖으로 나가 천상선녀와 짝을 뭇고 오도록 하라. 내 이미 옥황께 아뢰여 너의 배필로 될 선녀를 천마, 성거 두 봉가운데로 보내도록 하였으니 그곳에 나가 두 봉우리와 하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되 잠시도 헛눈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도 기쁜김에 빨리 나가 천상선녀를 만나보려고 벌떡 일어나보니 한마당의 허황한 꿈이였다.

그래서 서해룡궁의 령상 귀벌주—늙은 거부기는 룡궁이 아닌 천마산중의 못가운데 우뚝 서서 하늘의 선녀가 내려오기만을 고대하며 그때로부터 아직까지도 하늘만 쳐다보며 까딱하지 않고있으니 그 나이가 300살이 아니라 3천년일지 아니, 3만년일지 어이 알랴!

욕심스레 산삼을 너무 많이 먹은 덕에 하도 오래 살다보니 귀벌주의 살은 돌처럼 딴딴하게 굳어졌고 선녀를 배필로 삼을 기쁨에 너무 좋아 춤을 추는지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 선녀를 기다리며 너무도 안타까와 몸부림치는지 머리는 하늘높이 쳐들었으나 몸통과 목은 약간 뒤틀린채 지금도 못가운데 둥실 솟아있는 룡궁의 령상을 바라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된다.

기 담

전 철 호

리조 중엽 어느해 여름 박연폭포가 있는 대흥골에서 있은 일이다.

대흥사의 젊은 중 혜명은 시주받을 일감을 받아가지고 며칠간 북문밖의 여러 마을들을 차례로 돌아본 후 귀로에 올랐다.

혜명은 한창 혈기방장한 20대의 젊은이인데 키도 크고 눈도 억실억실하게 잘생겨서 남의 눈길을 끄는 호남아였다.

한낮무렵에 비지땀을 흘리며 박연폭포를 지나고 북문에 들어선 그는 대흥사가 가까와질수록 걸음을 더욱 재우쳤다. 어서빨리 가서 주지에게 속세의 형편을 아뢰고싶어서였던것이다.

그만하면 시주받을 일은 잘된셈이라고 할수 있었다.
마을들에서는 올해에도 대흥사의 부처에게 드릴 공양미를 례년에 못지 않게 마련해놓겠다고 하였는데 주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 못내 기뻐할것이였다.
주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가슴이 뿌듯해졌다.
날마다 주지에게 기쁨드릴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혜명에게 있어서 대흥사의 주지는 스승이자 부모와 다를바 없는 은인이였다.
어린 나이에 량친부모를 다 잃고 이웃집에 얹혀살던 그를 대흥사로 데려다 키워준 사람이 바로 주지였다.
주지는 부모잃은 설음을 안고사는 그를 입혀주고 먹여주었을뿐아니라 마음속의 그늘까지 가셔주었다.
주지가 아니였다면 마음속의 고통을 이겨낼수 있는 굳센 의지도 가질수 없었을것이였다.
불도를 열심히 닦아서 불쌍한 중생들을 극락세상에로 이끌어주는 부처의 제자가 되여라. 이것이 바로 스승이 심어준 뜻이였고 그 뜻을 마음의 의지로 받아들인 혜명이였다.
스승은 혜명이 어른이 된 오늘날에도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애쓰고있었다.
이런 은사에게 갚음이 없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내 재주가 박하여 스승께 현세의 보답이 없다면 래세에 가서는 반드시 자식이 되여서라도 효도를 다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걸음을 재우치는 혜명의 머리우로 꾀꼬리가 날아예며 지저귀였다.
객— 객— 하는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나니 갈증이 느껴졌다.
벌써 관음사의 앞을 지나치고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대흥골안에서 으뜸가는 샘물로 소문난 원수천의 샘터가 나질것이였다.
원수천에 이른 혜명은 잠시 샘터를 굽어보았다.
이슬같은 샘물이 퐁퐁 솟구치는 샘터는 거북만 한 바위돌에 의지했는데 거기에 《원수천》이란 세 글자가 애기손바닥만 한 크기로 새겨져있었다.

무더위에 급히 길을 오느라 땀을 쏟은 혜명으로서는 샘물을 통채로 들여마셔도 성찰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불승이라는 생각이 들어 공손히 꿇어앉아 두손으로 물을 떠들었다.

몇번 두손바닥으로 떠든 물을 거퍼 마셔서야 기갈이 쭉 가셔지고 땀발도 시원하게 걷혀지는것 같았다.

혜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샘터를 향해 합장배례를 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더위를 가셔주고 기갈을 면케 해주니 그 은혜 한량없소이다. 나무아미타불.》

원수천에서 물러선 혜명은 또다시 걸음을 다그쳤다.

대흥사로 올라가는 길은 갈수록 가파롭고 험했다.

대흥산성의 남문 아래쪽의 깊은 골안에서 시작되여 제승당앞쪽을 거쳐 대흥사앞으로 쭉 빠져 흘러내려오는 개울을 끼고 나있는 오솔길이 아무리 험해도 산중에서 잔뼈를 굳힌 혜명에게는 실로 평지길이나 다름없었다.

허나 삼복철의 더위만은 참기 어려웠다. 원수천의 샘물덕으로 시원했던 몸은 어느새 불돌처럼 달아올라 땀이 비오듯 쏟아져내렸다.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내리는 개울에 첨벙 뛰여들고싶었지만 불문의 제자로서 아무데서나 그렇게도 할수 없고 보다는 스승이 기다리고있다는 생각으로 연송 눈굽을 닦으며 가파로운 오솔길을 톺아올라갔다.

그러던 혜명에게는 불쑥 음지쪽의 산비탈을 타면 서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쪽으로는 길이 나있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발을 붙일수 있었던것이다.

(진작 그랬을걸…)

개울에 널려진 아름드리돌들을 징검징검 디뎌 내물을 건너 음지쪽에 붙으니 생각대로 서늘했다. 게다가 골바람까지 내리불어와 단박에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다.

《어― 시원하다.》

얼마쯤 개울을 끼고 길없는 산비탈을 톺아가는데 맞은편의 오솔길로 한떼의 녀인들이 웃고 떠들며 내려가고있었다.

박연을 구경하려고 남문을 넘어온 모양인데 화려한 치마저고리에 몸

치장을 잘한듯싶은것이 송도에 사는 기생들이거나 부자집의 안댁들 같았다.

또 얼마쯤 올라갔는데 흐르는 개울소리와는 달리 참방참방하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유심히 개울로 눈길을 돌리던 혜명은 와뜰 놀라 돌부처처럼 굳어졌다.

(?!)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광경이 그의 눈앞을 꽉 채운것이였다.

두개의 둥실한 큰 바위돌이 지붕처럼 포개져있어서 저쪽의 오솔길에서는 잘 들여다볼수 없는 으슥진 물웅뎅이에서 상반신을 드러낸 녀인이 물장구소리를 내며 미역을 감고있었던것이다.

혜명의 온 정신이 어찌나도 녀인한테 쏠렸던지 그의 두눈은 모들뜨기처럼 되였다.

그의 눈길은 녀인의 자태를 파고들었다.

그는 아녀자의 몸이 이렇듯 곱게 생긴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것이 놀랍기만 했다.

혜명의 넋은 이미 녀인의 상큼한 목아래의 박속같이 희디흰 두 봉우리에서 녹아버리고말았다.

허나 그것은 아직 약과였다. 물속에다 아래도리를 잠그고있던 녀인이 쭉 일어선것이였다.

그의 알몸을 한눈에 지켜보는 혜명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아, 저 내인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윽고 물가로 나온 그 녀인이 병풍처럼 둘러친 바위돌을 등지고 서서 옷을 차려입는데 가만 보니 칠흑같은 머리태를 허리에 길게 드리운 처녀였다.

잇다홍치마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처녀의 자태는 또 그것대로 혜명의 애간장을 말리려들었다.

시원하게 미역을 감고나서인지 처녀는 춤을 추는듯 내리막길로 나푼나푼 잰걸음을 놓았다.

(저 랑자는 누구일가?)

혜명은 그 처녀가 송도의 기생인줄은 알수 없었다.

남문으로 넘어온 송도기생들은 대체로 대흥골안에서 제일 시원하기로 소문난 청량폭포골에 이르러 폭포아래의 으슥진 못에서 미역을 감

군 하였는데 젊은 혜명이 그것을 알리 없었던것이다.
처녀가 사라져버리자 그동안 돌부처처럼 굳어져있던 혜명은 온몸을 사로잡는 허탈감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의 혼을 송도기생이 깡그리 걷어안고 사라져버린것이였다.
허울만 남은 혜명은 신기루마냥 잠시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가버린 처녀를 그려보며 연방 한숨을 몰아쉬였다.
얼죽음을 당했단들 그의 행색보다는 나을것이였다. 이글이글 정기를 내뿜던 두눈은 실련의 쓴 술을 들이킨듯 뿌예졌고 혈기가 넘치던 몸은 된서리를 맞은 호박잎모양으로 후줄근해졌다.
《아, 그 랑자를 다시 볼수는 없을가?》
그는 두팔로 가슴을 붙안고 턱을 떨었다.
혜명은 급작스레 상사병에 걸리고말았다. 한창 왕성한 그의 젊음이 미역을 감는 처녀의 자태를 보고서 그런 병을 몰아온것이였다.
혜명이 얼빠진듯 처녀가 사라진 대흥골아래쪽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있는데 그의 앞에서 클락새가 나무우듬지사이로 날아예며 클락— 클락— 하고 울어댔다.
하건만 얼쳐버린 그의 눈에는 클락새의 아름다운 자태가 안겨들지 않았다.
혜명은 정오가 지나서야 어슬비슬 비틀거리며 대흥사의 문턱을 넘어섰다.
간신히 승방에 들어선 그는 털썩 쓰러졌다.
심상치 않은 그의 거동에 놀란 동료중들이 주지를 청해왔다.
혜명은 주지가 곁에 와앉은줄도 모르고 물끄러미 천정만 쳐다보았다.
주지는 술에 취한듯 개개풀려있는 혜명의 눈을 보고 그의 신상에 상서롭지 못한 어떤 일이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의술에도 조예가 깊은 주지는 혜명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다. 그러나 안색과 달리 혜명의 맥에서는 이렇다할 병증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혜명이 정신적인 그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것이 아닌가.
파란많은 인생고초를 상당히 겪어본 주지는 이런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젊은 중들에게 눈짓했다.
젊은 중들은 주지의 뜻을 알아차리고 조심히 밖으로 나갔다.

방안에는 주지와 혜명이만이 남았다.
《애, 혜명아!》
거듭 울리는 어버이다운 자애로운 부름소리에 주지를 알아본 혜명은 그제서야 몸을 부시시 일으켰다.
혜명은 주지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앉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보는데 자상히 듣고싶구나.》
《…》
좀 동안이 흘러서야 제정신을 차린 혜명은 자초지종 아뢰였다.
그의 말을 다 듣고난 주지는 내심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제자의 일신상에 생겨난 뜻밖의 변이라면 이보다 더한 변은 없을것이였다.
세상에 녀인의 알몸을 한번 보고 혼맹이가 빠지는 경우는 몹시 드물것이였다.
주지는 턱을 고이고앉아 제자의 신상에 들이닥친 불행을 어떻게 하면 막아줄것인가를 곰곰히 따져보았다.
(상사병이란 말이지, 상사병이라…)
세상을 둘러보면 상사병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다른 고장 이야기는 두고라도 송도3절로 이름난 황진이의 눈부신 자태를 보고 상사병에 든 총각도 불귀의 몸이 되였다고 하지 않는가.
주지는 총애하는 제자를 잃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도리머리를 하였다.
아니, 혜명을 잃어서는 안된다, 어린것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운정도 그렇고 장차 주지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제자인데 상사병따위로 쓰러지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데 있으랴.
절에 혜명이만큼 똑똑한 제자는 없다. 배워주는대로 불학을 깨치기에 총명한 제자라는 뜻에서 혜명이란 법호를 지어주지 않았던가. 하다면 상사병에는 약이 없다는데 무슨 수를 써야 하는가.
제 방으로 돌아온 주지는 모든 일을 덮어놓고 그 한생각에만 골몰했다.
허나 신통한 궁냥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주지가 혹시나 해서 혜명이 있는 승방문을 열어보니 그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도로 방문을 닫아버린 주지는 한숨을 꺼지게 내쉬며 취사실로 향했다.
절에서 밥짓는 일을 맡은 반두에게 혜명이의 입에 맞는 음식을 지어주라는 분부를 하려고 취사실의 문을 열던 그는 불길이 이글거리는

아궁을 띄여보았다.

그 순간 《이열치열》이라는 문구가 불쑥 머리속에 떠올랐다.

《음, 그렇지. 열은 열로 다스리라 했거늘…》하고 중얼거리는 주지의 얼굴에 희색이 어려들었다.

혜명이의 상사병을 뚝 떼버리려면 그 병을 들게 한 랑자를 찾아내여 만나게 해주면 될것 같았다.

바로 청량폭포아래의 으슥진 물웅뎅이에서 천마산을 찾아온 기생들이 즐겨 미역을 감군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주지였다.

제자를 구해낼수만 있다면 체면이고 뭐고 있는가.

주지는 헌헌한 기분에 싸여 대흥사를 나섰다.

틀림없이 어제 미역을 감은 그 랑자는 송도기생일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북문밖의 민가에서 하루밤을 묵었을것이였다. 대체로 천마산을 찾는 송도기생들은 일박이틀을 묵으면서 박연폭포를 구경하군 하였으니 그 기생도 하루밤을 묵었으면 지금쯤은 박연폭포를 구경하고 있을것이였다.

부리나케 산길을 내려 북문밖의 범사정에 이르니 정말로 박연폭포아래 고모담의 너럭바위우에 기생임즉한 녀인들이 모여있었다. 송도3절 황진이가 바위우에 머리태로 썼다는 시를 들여다보는 모양이였다.

그 바위우에 오른 주지가 점잖게 합장배례를 하며 물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분들이 기녀가 옳다면 행수님을 만나볼수 있겠는지요?》

백발수염을 가슴에 드리운 풍채좋은 주지를 본 기생들중에서 나이든 행수기생이 깍듯이 례의를 차렸다.

그를 불러 바위에서 물러선 주지는 찾아온 사연을 털어놓았다.

주지의 말을 듣고난 행수기생은 잠시 너럭바위우로 올라가더니 인차 다시 내려와 그 당사자가 자기 수하의 기생임을 알려주었다.

주지는 행수기생에게 그와 혜명을 만날수 있도록 도와줄것을 청했다.

행수기생은 쾌히 그의 청을 받아주었다.

대흥사로 돌아온 주지는 혜명을 일으켜세우고 급히 청량폭포아래에 내려가면 어제 본 그 랑자를 만날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말에 그렇게도 초점이 흐려있던 혜명의 눈이 금시 생기를 띠였다.

《혜명은 그 랑자를 만나보되 자기가 불문의 몸임을 잊지 말고 처신을 바로해야 하네. 나무아미타불.》

혜명은 신바람이 나서 승방을 나섰다.
자기를 되찾은듯싶은 제자의 씩씩한 모습을 여겨보면서 주지는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혜명은 총명한 제자이니 기생을 만나보면 어이없이 들었던 상사병임을 곧 알아차릴것이고 그러면 독실한 불승의 자세로 돌아갈것이다.
주지가 흠흠해서 자기 방을 거닌지 얼마쯤 지났는데 기척이 나더니 혜명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빙그레 웃음을 지은 혜명을 보는 순간 주지는 일이 자기뜻대로 되였음을 믿어마지 않았다.
《정말 고맙소이다.》
두손을 모아잡고 절을 차리는 혜명이를 굽어보며 주지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고맙기야 뭘, 그래, 랑자와 헤여지기 섭섭하지 않나?》
《원, 섭섭할리가 있겠소이까. 대사님의 덕으로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하더니 혜명은 밖에다 대고 소리쳤다.
《이보게 랑자! 우리 대사님이 부르시오.》
주지가 몹시 놀라 두눈을 치뜨는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미모의 기녀가 향내를 풍기며 들어와 나부시 큰절을 하는것이였다.
《대사님! 제자를 파계시켜 소녀와 인연을 맺게 해준 그 은혜를 이몸이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주지는 낮도깨비한테 홀린듯싶어 정신이 흐리마리해졌다.
한참만에야 그는 자기의 의도가 패하였음을 깨달았다.
상사병에 든 사내를 녀인의 품으로 떠미는거야 그와 인연을 맺으라는것밖에 더 있는가.
그래서 혜명은 마음놓고 파계라는 엄청난 용단을 내렸을것이였다.
이것도 뜻밖의 사변이라면 두말없는 잔소리가 틀림없었다.
(아, 호미난방이라더니… 이 일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고.)
이제와서 부부인연을 맺은 그들을 갈라놓는다는것은 불도의 고승일지라도 못할노릇이였다.
주지는 쓴입을 다시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백년해로하시오, 나무아미타불.》
혜명이 처녀를 따라 절을 내려가니 주지는 너무도 마음이 쓸쓸하여 눈물이 솟구쳤다.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안돼!)

다음날 주지는 온 절안에 기생들이 미역을 감는 곳을 멀리 에돌아 다니라는 엄한 령을 내렸다.

그날로 대흥사의 중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청량폭포아래서 개울을 멀리 에도는 오솔길을 새로 닦아놓았다.

허나 주지는 그것이 오히려 제자중들로 하여금 개울에서 미역을 감는 기생들을 훔쳐보도록 하는 부채질이 될줄은 꿈에도 알수 없었다.

때로는 하지 말라고 말리면 말릴수록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일이 그러했다.

대흥사의 중들은 기생들이 미역을 감는 못을 가리켜 기담(기생못)이라고 하면서 주지 몰래 그곳을 가까이하였고 혜명이처럼 파계하는 뜻밖의 일도 드문히 벌어졌다고 한다.

못이름의 유래는 어찌 되였든지간에 기담은 오늘도 박연폭포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명소로 많은 유람객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중 경 지》

《중경지》는 개성읍지이다.

《중경지》는 이전시기의 개성읍지에 있던 여러 자료들을 수정보충하여 1855년에 전 11권 6책으로 편찬하였다. 《중경지》에는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에 관한 력사적사실들이 풍부하게 반영되여있으며 일반 력사책에서는 볼수 없는 귀중한 자료들도 많이 들어있다. 더우기 《중경지》는 고려 500년간의 수도였고 리조시기에도 한양 다음가는 정치, 경제, 군사의 중심위치에 있은 개성의 력사뿐아니라 고려이후의 일반력사를 알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들을 수록하고있다. 《중경지》는 왕대별 력사적사실을 기록한 국조기사와 함께 위치, 연혁, 성곽, 산천, 명승, 고적들을 상세히 서술하고있을뿐아니라 고려왕릉을 비롯하여 옛 무덤들과 서원, 사찰, 교량, 풍속과 함께 인물들도 종합서술하였다. 《중경지》는 일련의 시대계급적제한성을 내포하고있으나 지방지연구와 력사연구에 가치있는 우리 나라의 귀중한 민족고전문헌유산의 하나이다.

천 수 대

리 흥 복

리조말 어느해 여름날이였다.

해가 성거산마루를 지나 한기장쯤 거슬러오른무렵에 시중군들을 한무리 거느린 덩지 큰 행차가 박연골안에 나타났다.

쌀고장으로 소문난 풍덕고을에서 재산이 많기로 첫손가락에 꼽히는 김부자의 박연구경 행차였다.

《쉬이 물렀께라, 비꼈께라 량반님 행차시다!》

벽제소리를 기운차게 내지르는 전배, 후배하인들과 기생들까지 거느린 람여를 타고 나타난 김부자의 행차에 삼삼오오 떼를 지은 구경군들이 황황히 길옆으로 비켜 허리를 굽히였다.

풍덕벌의 만석군인 김부자로 말하면 그 고을에 사는 안동 김씨문중의 장손으로서 조상대대로 량반가문인데다 조부는 어느때인지 좌의정까지 지냈고 지금도 그의 집안사람들은 조정의 6조에서 참의요, 참판이요, 정랑이요 하는 벼슬들을 하고있었다.

하기에 김부자 본인은 벼슬없는 진사라지만 송도부중에서 왕노릇을 하는 개성류수조차 그와는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정도였다.

이윽고 김부자의 행차는 박연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폭포골안에 이르렀다.

전배, 후배하인들이 재빨리 좌우로 벌려서자 람여가 멈춰서고 거드름을 피우며 비단으로 몸을 감싼 김부자가 땅에 내려섰다.

그만 거만스레 하인들을 둘러보고는 기생들쪽을 바라보았다.

이번에 한번 마음을 크게 먹고 박연구경을 온 김부자인지라 며칠간 산좋고 물좋고 경치좋은 박연골에 묵으면서 기생놀이까지 즐길 심산이였다.

잇다홍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산뜻하게 차려입은 기생들을 일일이 여겨보고난 김부자는 대단히 흡족해하였다.

《좋아! 아주 좋아!》

김부자가 걸음을 짚으려 하자 기생들이 나비마냥 나풀나풀 달려와

량쪽팔을 붙잡아 부축해주었다.
《진사나리! 어데로 가시오리까?》
김부자는 고모담 한옆에 자리잡은 커다란 바위를 턱으로 가리켰다.
박연폭포가 쏟아져내리는 모습은 아무데서나 보아도 장쾌하다지만 김부자에겐 폭포가 가까운 바위우에서의 멋이 제일일것 같았다.
한것은 송도3절로 유명짜한 황진이의 달필이 새겨져있는 그 바위우에서 그의 체취를 느끼면서 폭포를 보는것도 유별날것 같아서였다.
기생들의 부축을 받으며 바위우에 오른 김부자는 먼저 황진이가 썼다는 《비류직하 삼천척…》의 7언시부터 굽어보고서야 폭포에로 눈길을 들었다.
폭포로 눈길을 옮긴 순간 김부자의 입이 하 벌어졌다.
하늘나라의 강물이 곧추 떨어져내리는듯싶은 박연폭포는 보면 볼수록 장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과연 이 박연폭포는 세상에 다시 없을 명폭이로다. 허－10년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온게 진실로 유감이로다, 유감이야.》
김부자는 방금 제 입으로 탄식해마지않은것처럼 흘러간 10년세월이 아깝기만 하였다.
아이적에 아버지를 따라 몇번 그리고 20대에 친구들과 또 몇번, 서른살에 안해와 동부인해서 한번 박연구경을 한 뒤로는 거의 10년세월 천마산을 감감 잊고 살았다.
그게 다 자기 집 재산을 늘이느라 동분서주하며 드바빴던탓이였다.
풍덕고을의 제일가는 부자인 그는 벼농사로는 송도일판에서 갑부가 될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그동안 인삼포를 독차지하는데 올리뛰고 내리뛰였다.
10년을 고스란히 바쳐서야 그는 개성땅에서 명실공히 으뜸가는 삼포의 주인으로 될수 있었다.
(이제라도 지금껏 누리지 못한 락을 몇곱으로 봉창하리라. …)
이런 생각으로 뿌듯해진 가슴을 부여안고 폭포를 쳐다보던 김부자의 두눈이 차츰차츰 휘둥그래지기 시작하였다.
폭포가 떨어지는 삼천척절벽우에 새겨진 대문짝만 한 글발들이 느닷없이 그의 가슴을 허벼놓은것이였다.
이전에 찾아왔을 때에는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불쾌한 감정이 김부자의 머리꼭뒤에까지 치밀어올랐던것이다.

그는 폭포절벽에 한자리씩 차지한 홍 아무개, 김 아무개, 윤 아무개, 리 아무개라는 이름자들이 자기를 숙보며 비웃어대는것만 같이 여겨져 화가 울컥 동하는것과 함께 발을 탕 굴렀다.

《고현지고!…》

김부자는 바위절벽에 한자리씩 차지해버린 이름자들을 쏘아보았다.

송도의 지나온 래력과 문물에 밝다고 자부하는 그로서는 그 이름자의 주인들이 명인재사라고 내세울만 한 그런 인물들이 결코 못된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재력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자기보다 썩 못한 사람들이 먼저 태여난것으로 해서 기막히게 경치좋은 명소의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다고 생각하니 김부자로서는 이가 갈리고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저자들의 이름을 몽땅 긁어버렸으면 속이 후련하련만. …

속이 막 뒤틀려진 김부자는 산천구경이나 기생놀이를 즐기고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다.

그의 가슴에는 내가 저자들보다 뭐가 모자라서 이런 명소에다 이름자 하나 남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울분만이 차넘쳤다.

허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폭포벼랑에는 크고작은 이름들이 여기저기에 자리잡고있어 제 이름 석자를 두드러지게 새겨넣을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흥! 같잖은게 갓쓰고 장보러 간다더니 저것들이 꼴사납게스리 명당자릴 다 차지했구나.》

김부자는 주먹을 불끈 쥐였다.

이번 걸음에 보란듯이 송도의 손꼽히는 갑부인 내 이름자를 멋들어지게 새겨넣지 못한다면 성을 갈고말테다.

이를 사려문 김부자는 람여를 대령케 했다.

갑자기 성이 나서 기생들을 물리치고 람여에 오른 김부자를 보고 시중군들과 기생들모두는 영문을 몰라 쩔쩔맸다.

김부자는 어서 빨리 대흥산성의 북문으로 들어가자는듯 그쪽으로 턱짓을 했다.

하인들은 급기야 람여채를 둘러메고 앞으로 내달렸다.

가파로운 오솔길을 따라 둥둥 떠가는 람여우에 무겁게 앉아있는 김부자는 가면 갈수록 밸이 꼴려서 이를 갈았다.

길옆의 좌우로 이 바위, 저 바위들에도 온통 맨 이름투성이였던것이다.
그 많은 이름자들중에서 제가 그래도 알만 한 인물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던것이다.
《흥, 알건달, 잡놈들뿐이로구나.》
북문안에 들어가면서 보니 거기는 더했다.
멋스럽다고 할만 한 바위들에는 온통 바늘귀 하나 박을 틈없이 형형색색의 이름들이 빼곡하였고 하다못해 연자방아돌만 한 작은 바위에도 국문으로 된 이름들이 새겨져있었다.
국문으로 새긴 글을 보니 겨우 제 이름 석자나 깨친 사람 그러니 김부자로서는 천하디천한 불상놈이라고 여길 그런 사람이 이름의 주인인것이 분명했다.
《허— 불상놈들까지 한자리씩 차지했구나. …》
김부자는 점점 더 화가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도대체 이 넓은 박연골안에 내 이름 석자를 크게 새겨볼만 하게 잘생긴 바위가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두눈에 초롱불이 아니라 홰자루를 매단대도 혼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김부자는 람여를 뒤따르느라고 숨을 헐썩거리는 사환군에게 꽥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도 맹탕 뛰여다니지 말고 글이 없이 반반한 벼랑이든 바위든 빨리 찾아보거라.》
그제야 깨도가 된 사환군도 하인들도 사방을 둘러보며 눈에 쌍심지를 켰다.
관음사를 좀 지나니 람여의 앞채를 멘 하인총각이 탄성을 내질렀다.
《주인님! 저길… 저길 좀 보시오이다.》
수십쌍의 눈길이 일시에 총각이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산속의 깊은 골안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바위투성이의 넓은 개울건너의 성거산쪽에 깎아지른 바위벼랑이 하나 보이였다.
그것을 띄여보는 순간 김부자의 가슴은 저도 모르게 쿵! 쿵! 울렁이였다.
어림짐작으로 보아도 박연폭포절벽의 절반은 실히 되고도 남을것 같았다.

그쯤하면 이름 석자는 여봐란듯이 흐드러지게 새길만 하였다.
《내려라!》
람여가 멎어서자 훌쩍 뛰여내려 개울을 건너가려던 김부자가 왜서인지 뚝 멈춰섰다.
(혹시 저것보다 더 좋은 명당자리가 있지 않을가?)
김부자는 엉거주춤 서있는 하인들에게 분부했다.
《내 좀 예서 기다릴테니 너희들은 좀더 올라가면서 저것보다 더 알맞춤한 바위벼랑이 있나 살펴들 보아라.》
《예잇!―》
하인들은 종주먹을 쥐고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얼마쯤 지나 하인들이 도루 달려내려왔다.
더 맞춤한 바위벼랑이 없다는 하인들의 아뢰임에 김부자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무렴, 그럴테지. 좋아, 좋아. 그럼 저기로 건너가볼가.》
람여를 타고 개울을 건너간 김부자는 혀를 빼물었다.
마치도 큰 쇠칼로 뚝 내리찍어 두부모를 잘라놓은듯싶은 병풍바위는 고래등만 한데 그우로 다박솔이 층층으로 뒤덮여있어 더더욱 볼만했다.
이런 멋스런 자리가 아직껏 비여있었다는것이 놀랍기 그지없었다.
김부자는 공손히 두손을 모아잡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야말로 하늘이 나를 알아보고 점지해준 명당자리로다.》
기분이 좋아진 김부자는 개울가의 너럭바위우에 술상을 차리게 하였다.
한상 잘 차려먹은 다음 박연의 일등가는 석수쟁이를 데려다 병풍바위에 이름을 새길테다.
왜 내 이름만 새겨넣겠는가. 좌의정을 지낸 조부님의 함자며 부친의 함자, 자식들의 이름도 다 새겨넣고 여기를 《김부자대》라고 부르게 할터이다.
감미로운 인삼술과 만반진수로 배를 불린 김부자는 차일을 친 시원한 그늘아래 벌렁 드러누워 낮잠을 청했다.
한잠 푹 자고나서 이름을 새기는 일을 크게 벌려야지. …
김부자는 곧 골안이 떠나갈듯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함지같이 큰 배를 오르내리며 얼마쯤 잤는지. …

흥이 난 김부자가 커다란 황모붓을 휘둘러 병풍바위에다 글을 쓰려 하는데 난데없이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후려갈기는것이였다.

김부자가 화들짝 놀라서 황모붓을 떨구었더니 한바탕 불어치던 바람이 뚝 멎어버리고 뿌연 안개가 밀려오는것이였다.

그 안개우에서는 백발로인이 어쩔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헤덤벼치는 김부자를 향해 노성을 터뜨리고있었다.

《너 이놈! 네놈이 도대체 웬놈이기에 감히 천수대를 어지럽히려 드는거냐?

예끼, 이 괘씸한 놈같으니. 당장 물러서지 못할고.》

혼비백산하여 너럭바위우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도 김부자는 대대로 세습해온 당당한 량반가문이고 제 또한 송도일판에서는 손꼽히는 갑부라는 제나름의 우월감이 있는지라 네발걸음으로 벌렁벌렁 기여가 백발로인에게 대들었다.

《거긴 대체 뉘시길래 생면부지의 날 보고 이놈, 저놈 하시우?》

백발로인이 가슴에 길게 드리운 은실같은 허연 수염을 어루쓸며 껄껄 웃었다.

김부자가 무안해할 정도로 한바탕 웃고난 백발로인은 하늘을 가리켰다.

《나로 말하면 하늘나라 천궁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관으로서 여기 성거산의 일도 돌보는 소임을 맡았느니라.》

김부자는 선관이면 선관이지 무슨 억하심정으로 남의 일까지 방해할수 있느냐 하는 심정으로 볼부은 소리를 질렀다.

《다른 사람들이 이름을 써놓은건 그냥 내버려두면서도 굳이 나에게만 못살게 구는 까닭이 뭐요?》

선관의 부리부리한 두눈에서 시퍼런 기운이 빛발쳤다.

《보아하니 네가 소인이 분명쿠나. 그럼 내 말해주마. 내가 옥황상제의 어지를 받고 봉명사신으로 이웃나라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이 산이 온통 뭇사람들의 이름투성이가 되고말았더구나.

하늘나라에서의 하루는 땅나라에서 백년 맞잡이인데 내가 봉명사신으로 천궁을 떠날 때 이 땅에 고려국이 있어가지구 왕우(고려32대임금)라는 사람이 임금노릇을 하고있었느니라.

그때에는 이 산에 아무나 함부로 이름을 새기지 못했다. 그건 내가

임금일지라도 나라와 백성앞에 대대손손 무궁할 큰 공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름을 새기지 못하도록 엄하게 신칙했기때문이니라.》
선관은 조소어린 눈길로 김부자를 굽어보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내가 며칠 산을 비운 사이에 왕씨의 고려국을 리씨네가 찬탈하고 어중이떠중이들이 명산에 올라 제 이름을 어지러이 새겨놓는 놀음을 벌렸느니라. 지어는 박연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 천척벼랑에까지 말이다.》
그제야 김부자는 선관앞에서 두무릎을 꿇고엎드려 두손을 싹싹 비벼댔다.
《자비하신 선관님! 제발이지 은총을 베푸시여 이 병풍바위를 제 차지로 되게 해주소이다. 그럼 제 가산을 다 기울여서라도 꼭 갚음을 하겠소이다.》
선관은 어이가 없는지 허구픈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 병풍바위는 하늘나라에서 이 나라에 대통운을 안아올 성인이 나타날 그때 그분의 함자를 크게 새겨놓자고 남겨놓은 자리이다.
그래서 이 병풍바위를 가리켜 〈천수대〉라고 부르는것이다.
만일 그 어떤 무뢰배가 있어 이름높은 천수대를 감히 어지럽힌다면 그놈은 하늘나라의 뜻을 범한 무거운 죄로 하여 릉지처참형을 받는것은 물론 구족까지도 멸문지화의 변을 면치 못하리로다.
다시한번 깨우쳐 이르는바이지만 명산에는 마땅히 성인, 재사만이 성함을 남길수 있고 명소에는 명인만이 이름자를 크게 새길수 있느니라. 내 말을 알아들었느뇨?》
우뢰소리같이 울리는 선관의 호령에 김부자는 기절초풍을 하며 《악!─》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며 벌떡 솟구쳐일어나앉은 김부자는 어쩔줄을 몰라했다.
금시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가 했는데 다행히도 꿈이 아닌가.
《후유─》
김부자는 거듭거듭 길게 맥빠진 한숨을 내쉬였다.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꿈은 꿈이로되 상서롭지 못한 흉몽이 틀림없었다.
꿈에 호랑이만 보아도 액운이 서린다는데 하늘나라의 선관이 나타나서 천수대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불호령을 내렸으니 그를 거역하다

가는 무서운 큰 재앙을 당할수 있었다.

《명산에는 성인의 성함이 있고 명소에는 명인의 존함이란 말이지.》 하고 쑤얼거리던 김부자는 벌떡 자리를 차고일어섰다. 가문에 닥쳐오는 멸문지화의 재변을 피하자면 선관의 분부를 따라야 하리로다.

그는 곧 석수쟁이를 불러들여 병풍바위의 한 가녁에 《천수대》란 세글자만 쪼아박게 하였다.

이 이야기가 백여년나마 쫘하게 소문이 나서 온 송도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감히 천수대에만은 손을 댈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천수대의 주인이 될 그런 성인이 태여나기만을 학수고대하였다.

류수와 같이 흐르는 세월속에 이 땅에 대통운을 안아올 위대한 성인이 탄생하였으며 하여 천수대는 오랜 세월 품어온 자기의 소망을 드디여 성취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였던것이다.

관음사와 목공총각

김 홍 안

박연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 해종일 굽이굽이 내려가느라면 개울가에 소나무가 무성한 마을이 나진다.

그 마을에 이목구비가 멀끔하고 남다른 손재간을 가진 운나라는 한 소년이 살고있었다.

그의 부모들은 대를 이어가며 나무를 다루며 일하는 목공의 집안이였다.

운나는 어려서부터 손재간이 뛰여나 주변에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운나의 아버지는 생전에 나무타발하는 법을 몰랐다.

나무함지, 나막신으로부터 량반집들에서 쓰는 화려한 가구들인 장농, 옷장, 경대함, 탁자는 말할것 없고 관청에서 쓰는 서류함과 대궐에서 쓰는 나무평상, 망건통 등을 만들어 진상품으로 올렸는데 중상서(궁궐에서 쓰는 각종 가구들을 만드는 일을 맡은 관청)에서 나온

물건보다 낫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운나는 아버지를 도와 가구도 짜고 장식도 하군 하였다.
그가 수, 복, 장생불로, 만년영화를 뜻하는 소나무, 참대, 불로초, 학, 거부기 등을 조각해넣으면 보는 사람마다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운나는 철이나 백동, 주석, 시우쇠로 된 얇은 판을 뚫거나 쪼아서 가구에 붙이는 금속장식에서도 막히는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운나의 집에 불행이 덮쳐들었다.
왜적이 침노했다는 급보를 받고 마을사람들과 함께 배를 무어가지고 전장터로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것이였다.
운나는 집살림을 한어깨에 떠메고 강심을 먹고 일어섰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억척같이 일했다.
목수솜씨도 이제는 놀랄 정도로 늘어났다.
어느덧 발없는 소문은 날개가 돋쳐 멀리로 날아갔다.
집으로는 가구를 주문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관가에서는 원님이 쓸 오동나무다층장을 만들어라, 탁자장을 짜라 하는 령이 떨어지는가 하면 대궐에 올릴 진상품을 만들라고 불러가기도 하였다.
초겨울 어느날,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가는 어머니의 가슴앓이병때문에 해종일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온 운나가 움막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여봐라, 게 섰거라.》
뒤에서 누가 대장간 풀무소리같은 쉰 목소리로 꽥 소리를 질렀다.
《?》
돌아보니 빼빼마른 관가 호장이 말잔등에 앉아 거들먹거리며 다가오고있는것이였다.
《네가 목수쟁이 운나냐?》
《그렇소이다.》
운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엉거주춤 서서 수세미오이같은 호장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불같은 세월에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바쁜 걸음을 두번이나 시켜? 고현놈.》
《나리님, 무슨 일인데요?》
《네 에미한테도 이미 말했다만 래일부터 관가일에 나와야겠다.》

운나는 흠칫 놀랐다.
무슨 감투끈인지 알수가 없었다.
《나라에서 산좋고 물좋은 저 박연폭포 웃쪽에 큰 절을 짓는데 네가 이 골짜기에 살면서 관가의 부역을 면할가싶었더냐? 원님께서는 목수재간이 좋은 너를 특별히 나오게 하라고 분부를 내리셨으니 어서 떠날 차비를 하거라.》
운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몹시 앓고계신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떻게 집을 떠난단 말인가.
《황송하오나 소인에게 무슨 재간이 있다구 그런 큰일에 나서겠나이까. 원님께 여쭈어서 그만두게 하여주옵소서.》
《어랍쇼, 이런 깜찍한 놈 봤나. 무지렁이같은 상놈이 관가부역에 나오라는데 어디다 대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거냐. 원님의 령인데 네놈이 감히 거역을 해? 이놈—》
호장은 황새같은 긴 목을 뽑으며 소리를 질렀다.
《제가 가면 앓고계시는 어머니를 누가 봉양하겠나이까.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다시 조처해주기 바라옵니다.》
《이놈, 관가에 끌려가서 주릴 틀어봐야 알겠느냐?》
호장은 말잔등에서 뛰여내리더니 오라를 풀어 들었다.
(아! 하늘도 무심하구나. 어머니,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운나야, 이 에미걱정은 말고 떠나거라.》
방안에서 신음하고있던 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거적문을 들치고 나왔다.
《어머니—》
운나는 락엽처럼 황이 들고 여윈 어머니를 부여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운나는 어머니에게 작별인사를 올리고 주먹으로 눈물을 씻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무겁게 떼였다.
해가 떨어진 동구밖으로 끌려가는 그의 앞길에 락엽을 굴리며 찬바람이 지겹게 불어왔다. …
운나가 박연폭포 깊은 골안으로 끌려와서 부역에 시달린지도 어느덧 한해가 지나고 다음해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왔다.

수천명의 부역군들이 덤여 바글거리던 천마산골짜기에는 새 절간 관음사가 번듯하게 일어섰다.

운나는 절간안 천정에 매다는 닷집과 문짝, 나무조각장식을 맡아서 하고있었다.

그의 조각솜씨는 놀랄만 한것이였다.

운나의 손이 가닿자마자 통나무문짝에 꽃과 새가 살아움직이는것처럼 새겨졌다.

관음사 중들과 개경에서 나온 관리들은 복덩이가 굴러왔다고 좋아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시키였다.

운나는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도 집생각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은 좀 어떠한지?)

오늘도 노고지리 우짖는 봄날의 하루가 지나고 땅거미가 지자 운나는 내가에 앉아 휘영청 밝은 달을 쳐다보았다.

계수나무 서있는 둥근 달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듯 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

아, 어머니! 불효막심한 이 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소쩍— 소쩍—》

우중충한 잣나무숲속에서 소쩍새가 애절하게 울어댔다.

어느날 밤 운나는 꿈을 꾸었다.

어데선가 청아한 피리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을 보니 꽃구름을 탄 웬 신선이 백발수염을 날리며 천마산으로 내려오고있었다.

운나는 신선이 내린 곳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병을 고쳐달라고 청하였다.

《네 효성이 지극하거늘 듣거라. 어머니병을 고치려면 범바위골에 들어가 백년묵은 산삼을 캐야 되느니라. 범바위골로 날아가는 까마귀를 쫓아가면 알도리가 있을것이다.》

운나가 너무 기뻐서 소리치다가 잠에서 깨여보니 꿈이였다.

꿈이라도 너무 이상한 꿈이여서 운나는 다음날 아침 문짝들을 짜는데 쓸 정향나무와 오동나무를 찍어올겸 우정 범바위골로 향하였다.

바위앞에 앉아 쉬고있는데 마침 까마귀 한마리가 잣나무숲속으로 날아들어가는것이 보이였다.

운나는 까마귀를 쫓아가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마주보이는 아아한 절벽중턱에 있는 로송밑에 내려앉았다.
운나는 절벽을 톺아오르기 시작했다.
한발자국… 두발자국…
간난신고끝에 로송이 서있는 중턱으로 기여오르니 새빨간 삼달이 탐스럽게 달린 산삼 한뿌리가 눈에 뜨이였다.
운나는 그 산삼을 뿌리 하나 다칠세라 정성껏 캤다.
(이제는 어머니 병이 낫게 되였구나!)
운나는 너무도 기쁜김에 어느새 산에서 내렸는지도 몰랐다.
관음사에 이르자 앓는 어머니에게 산에서 방금 캔 산삼도 가져다드릴겸 한번 집에 다녀오겠다고 주지에게도 말하고 관청에서 나온 관리에게도 간청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감독하는 그 관리는 안된다고 딱 자르면서 오히려 그 산삼은 이 천마산에서 캔것이니 부처님에게 드려 공양을 해야 한다고 을러메였다.
주지 역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이 산에서 캔 산삼은 예로부터 관음사 부처에게 공양하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고 맞장구를 쳤다.
운나는 산삼을 꽉 부둥켜안고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관리는 나어린 운나의 품에서 그 산삼을 강제로 빼앗아냈다.
산삼을 빼앗긴 운나가 울면서 절밖으로 나오니 마을에서 온 어떤 사람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있었다.
도목수령감이 운나를 보더니 그의 두손을 꽉 잡으며 말하였다.
《진정하라구. 자네의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누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운나의 몸은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니 그만 그 자리에 풀썩 꺼꾸러지고말았다.
사람들이 코밑을 비벼주고 팔다리를 주물러주어서야 그는 겨우 눈을 떴다.
초점없는 눈으로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던 운나는 갑자기 아—악! 소리를 치더니 불에 덴 갈범처럼 몸을 떨었다.
《어느놈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느냐?》
운나는 도끼를 집어들고 벌떡 일어섰다.
부릅뜬 눈에서는 시퍼런 불찌가 튀여나오는듯 했다.

《여보게, 진정하라구.》
도목수령감이 눈물이 글썽한 눈길로 운나를 보며 달래였다.
운나는 도끼를 휘둘러 어느 놈을 쳐죽일지 몰라 허둥거리고있었다.
《이 불칙한 놈, 이게 무슨 망동이냐?》
어느새 나타난 관가에서 나온 관리가 왜가리청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뒤따라나온 주지가 도끼를 들고 서있는 운나를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삿대질을 했다.
《무엄하도다. 불전을 꾸미던 손으로 감히 살생을 하려든단 말이냐? 손재간때문에 이제껏 네놈을 긴히 써온것인데 어미가 죽은게 그래 뉘탓이기에 그리 날뛰는거냐?》
(뭐, 내 손재간때문에?…)
운나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을 눈앞으로 가져다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성을 다하려고 부지런히 놀리던 손이였고 정신없이 산삼을 캐던 손이였다.
하다면 이 손이 어머니를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 손이 없었다면, 이 손재간이 없었다면 이곳에 끌려오지도 않았을것이다. 그 손재간이 무엇이고 그 손으로 캔 산삼이 다 어느놈의것으로 되였느냐?
이 손때문에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보냈으니…
운나는 후들거리는 자기의 손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도끼를 쳐들어 손목을 쾅― 하고 내리찍었다.
그러자 어머니를 가보게도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하게 하던 놈들의 목이 떨어져나가는것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였다.
운나는 도끼를 틀어쥔채 그 자리에 쓰러졌다.
잘리운 팔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나왔다.
도목수령감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안아일으키고 옷을 찢어 손목을 싸매주었다.
《여보게 운나, 정신차리게. 어머니를 잃은것이 어찌 자네 손재간탓이겠나. 세상을 잘못 만난탓이지.》
정신을 차린 운나는 다음날 아침 관음사부역장을 떠나갔다.
누구도 그가 가는 길을 막지 못했다.

손이 없는 그가 더는 목수일을 할수 없기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기상이 하도 무서웠기에 관가에서 나온 관리들과 주지도 모두 자리를 피하고말았던것이다.

《내 기어이 원쑤를 갚겠소이다.》

그가 도목수령감에게 남긴 말이였다.

운나는 피묻은 도끼를 다시 찾아들고 천마산고개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 고개너머에 의적단(농민폭동군)이 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분연히 그곳을 찾아가는 운나를 말없이 바래워주었다.

지금도 개성시 박연골에 있는 관음사 대웅전뒤벽에 있는 두짝의 지게문중에서 왼쪽문짝을 눈여겨 살펴보면 조각을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뚜렷이 보인다.

그것이 운나가 새기다가 만 문짝이라고 한다.

《개 성 지》

《개성지》는 주체24(1935)년에 개성지방의 유지들에 의하여 출판된 지방지이다. 《개성지》는 일제강점시기 이전에 출판된 개성과 관련한 읍지들을 다시 종합하여 그 내용을 풍부히 하면서 개성지방의 력사자료들을 서술하였다.

《개성지》는 2책으로 나누어져있으며 권수는 8권이고 양지선장본이다. 《개성지》에는 군, 면의 위치와 연혁, 성곽, 산천, 명승, 고적들을 상세히 서술하고 고려시기와 리조시기의 왕릉, 무덤, 서원, 사찰, 교량, 풍속과 함께 충신, 효자, 렬녀 등 인물들을 종합서술하였다.

《개성지》는 그 포괄범위에 있어서 방대하며 시대의 변천과 함께 새로 보충되는 자료들을 서술하고있다. 특히 다른 개성읍지들과는 달리 개성지방의 특산물인 인삼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개성지》는 력사적제한성으로 일련의 부족점은 있으나 개성의 력사적변천과정을 잘 알수 있게 서술한것으로 하여 그 사료적가치가 풍부한 읍지이다.

천 마 중 진

엄 창 도

박연의 대흥산성에는 옛적 성수비군사들의 지휘처인 제승당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천마중진 관리보장》(천마산을 중히 지키고 관리보존을 잘하라)이라는 글발이 뚜렷이 새겨진 문루의 기둥돌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천마중진! 이 네글자에는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고려군사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새겨져있다.

섣달바람은 류달리 사나왔다.

활짝 열려진 들창으로 찬바람에 몰려오는 검은구름을 추연히 바라보는 대흥산성 수성장은 지금 신은현(신계)에 진을 친 중군에게 보낸 파발을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굳어진듯 움직일줄 몰랐다.

압록강이북의 고구려 옛땅을 타고앉은 거란이 10여년전의 패전을 앙갚음할 심산인지 이번에는 왕 성종이 직접 4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고있으니 어찌 산천초목인들 비분에 떨지 않겠는가.

놈들은 기세를 돋구며 파죽지세로 개경을 향하여 남하해 내려오고 있었다.

늦어도 어제까지는 돌아왔어야 할 파발이 새벽이 되였건만 왜서 늦어지는것일가?

(에익… 그 거란놈들을 이번에는 영영 이 땅을 넘겨보지 못하게 해놓아야 할텐데…)

수성장은 욱 치미는 분노로 하여 주먹을 불끈 쥐였다.

《수성장님께 아뢰오.》

벼락같이 울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신은현에 보냈던 파발군사가 부복하며 웨치는 소리였다.

《거란군이 마탄(승호구역)을 함락하고 수안에 이르렀다고 하오이다.》

수성장은 파발이 도착한것이 반가왔지만 그가 전한 소식을 들으니

놀랍기도 하였다.
《적들이 어디까지 왔다구?》
숙였던 머리를 추켜들고 수성장을 지켜보던 파발이 대답했다.
《수안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하루이틀이면 신은현에 들이닥칠것이라 하오이다.》
《음…》
수성장이 무거운 마음으로 방안을 오락가락하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번쩍이는 은갑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몸집이 뚱뚱한 사람이 들어왔다. 조정에서 대흥산성에 파견한 병부랑중이였다.
개기름이 번지르한 그는 얼굴을 무섭게 이그러뜨리며 파발병을 쏘아보다가 호통을 쳤다.
《네놈이 감히 그따위 허튼 수작으로 군심을 흐려놓으려는게 아니냐?》
매사에 군사들을 자기 집 종보다 못하게 여기며 호령과 욕설을 일삼는자였다.
이때 《어지를 받으라!》하는 목소리가 대문밖에서 들려왔다.
곧 조정의 벼슬아치가 융복차림을 한 무관 두명을 달고 들어섰다.
그는 중추원(왕에게 올리는 문건을 접수하고 왕명을 전달하며 왕을 호위하고 군사일을 맡아보는 관청)의 승선(중추원의 정3품벼슬)이였다.
병부랑중도 수성장도 다같이 그앞에 꿇어엎드리였다.
이윽고 어지를 펴든 승선의 갈린 음성이 울려나왔다.
《…오만방자한 거란 성종이 대군을 내몰아 남하해오고있다니 대흥산성의 군사들은 요지부동으로 성을 반드시 지켜낼지어다.》
어지를 다 읽은 승선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다.
《일어들 나거라.》
먼저 몸을 일으킨 병부랑중이 《성상께서는 무고하시오이까?》라고 물었다.
그 물음에 침통하게 굳어진 얼굴로 입을 여는 승선의 목소리는 떨리기까지 하였다.
《성상께서는 간밤에 개경을 뜨시였소.》
병부랑중이 벌에 쏘인것처럼 와뜰 놀라 두눈을 치뜨며 물었다.
《떠나시다니요?》

《강감찬장군의 건의에 따라 잠시 남쪽으로 옮겨앉으시였소.》
병부랑중의 불안에 찬 눈빛과 행동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던지 승선은 그를 지그시 노려보며 다짐을 두었다.
《그대는 조정의 중임을 맡고 파견된 신하로서 나라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놓여있는 때에 군심을 다잡아 반드시 이 성을 지켜야하겠소. 대흥산성만 지켜내면 적군이 개경에 기여든다 해도 뒤통수에 비수가 박힌 형국이니 오래 배겨있지 못할게요.》
승선의 일행을 지휘처 뜨락에까지 나가 바래고난 병부랑중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이미 다 가라앉은 배를 구원하라는듯싶은 임금의 어명을 받은 두사람은 얼어붙은듯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같이 넘어져도 아픈데는 서로 다르다고 각기 제 속구구로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는 속에 병부랑중이 서슴서슴 먼저 입을 열었다.
《수성장… 나는 아무래도 개경으로 가야 할가보오. 어명도 극히 중하나 폐하의 신상이 더 걱정되오니 여기 일은 수성장이 감당해야겠소.》
수성장은 병부랑중의 뜻밖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나라의 형세가 경각에 이른 때에 폐하의 어명을 어찌 가벼이 대할수 있겠소이까? 생각을 고쳐주시오이다.》
병부랑중은 자기의 속을 말짱 들여다본것 같은 수성장의 례의있는 질책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건 다 목숨이 붙어있을 때 가지는 마음이고 생마갈기 외로 질지 바로 질지 모르는 이 판국에 내 어찌 뒤일을 내다보며 사지판에 그냥 남아있을수 있단 말인가?…
병부랑중은 조정의 신하라는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년장자인체 하면서 어성을 높이였다.
《무우뿌리같은 네가 뉘덕에 이 성의 주인이 되였느냐? 폐하의 은총을 입었으면 이런 때에 응당 보답해야 마땅하거늘 보답을 어찌 입으로 하려는고?》
병부랑중의 희벗한 상판에는 지어 음험한 빛까지 어리였다.
《랑중어른, 폐하의 그 은총 백골난망이오나 어명을 받드는데서 충정과 의리를 지키는것이 신하의 첫째가는 도리인줄로 저는 아옵니다. 이런 때 군영을 떠나가시면 군심이 흔들릴가 걱정이오니 결심을 다시

해주소이다.》
진정에 넘쳐 말하는 수성장을 납득시킬수 없음을 느낀 병부랑중은 치째진 갈구리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내뱉았다.
《강물이 차고 더워지는건 오리가 먼저 아는 법이야. 네가 조정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훈시질이냐, 훈시질이… 페하께서 있구서야 나라도 백성도 군사도 있거늘 네 어찌 모른단 말이냐?》
말을 마친 병부랑중은 자기의 군영으로 사라졌다.
언제나 어명이요, 군령이요 하는것을 전면에 내흔들며 군사들을 들볶던자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한 때에 과연 이렇게 처신할수 있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그의 배신적인 행위에 격분을 누를길 없었던 수성장은 수하군사들을 데리고 개경으로 떠나려는 병부랑중의 앞을 결연히 막아나섰다.
《랑중어른, 부디 뒤일을 깊이 헤아려주소이다.》
검붉어진 두볼을 부들부들 떨고있는 수성장을 쏘아보던 병부랑중은 《네가 감히 내앞을 막아? 주제넘게… 쥐가 아무리 커두 고양이는 못잡아, 흥!》하며 쓰거운 웃음을 남긴채 말에 채찍을 안기였다.
막아선 수성장을 에돌며 랑중일행은 성문을 빠져나갔다.
병부랑중이 떠나간 서문으로 차디찬 바람이 쓸어들었다.
량반놈들이란 언제나 그러했거늘 천한 놈이라 당하는 모욕쯤은 참고 견딜수 있으나 기울어진 군심은 어떻게 바로잡는단 말인가?
안타까움에 모대기는 수성장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군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면 천만대적도 절대로 두렵지 않다. 군사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면 두려울게 그 무엇이랴.
그것을 이미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오랜 싸움군인 수성장의 눈앞에는 10여년전 안융진에서 있었던 거란놈들과의 싸움이 어제런듯 삼삼히 떠올랐다.
안융진은 안북부(안주)에서 서북쪽으로 50여리 떨어져있는 크지 않은 토성이였다.
500여명이 지키는 이 토성으로 수천의 거란대군이 얼어붙은 청천강의 얼음을 타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안융진을 타고앉아야 안북부를 무너뜨릴수 있으며 나아가서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가는 길을 열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 적장

소손녕은 수천의 대군으로 성을 둘러싸고 파도처럼 공격을 들이대였다.

안융진은 그야말로 횡포한 파도앞에 놓인 외로운 쪽배 한가지였다.

엄청난 병력앞에 신심을 가지지 못하고있던 군사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 사기가 저락되여가는 때에 토성의 한모퉁이가 뭉청 내려앉았다.

오장으로 이 전투에 참가했던 수성장은 위기일발의 이 순간에 《군사들, 나를 따르라!》, 《개경으로 가는 길을 절대로 내주지 말자!》라고 웨치고는 주저없이 무리지어 쓸어드는 놈들속에 뛰여들어 좌충우돌 놈들을 찍어넘겨 적의 기세를 꺾어놓았다.

하여 장수이하 군사들모두가 개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수 없다는 한마음으로 굴함없이 싸웠기에 마침내 안융진싸움에서 승리를 이룩할수가 있었다.

안융진싸움은 군심만 굳건히 묶어세우고 장수가 앞장에 선다면 그 어떤 대적과도 능히 싸워이길수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바로 이것이다. 군심만 불러일으킨다면 또 내가 앞장에 선다면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다.

운명의 답이라도 찾은듯 수성장은 지휘처마당으로 달려갔다.

랭기를 머금은 대기가 쩡하니 달아오른 그의 머리를 식혀주었다.

지휘처 문루의 웅건한 자태를 한동안 바라보던 수성장의 눈길은 문루의 기둥에 가서 멎었다. 지휘처의 문루를 이고 힘겹게 서있는듯싶은 기둥이 어찌 보면 지금의 제 모습처럼 안겨와 저도 모르게 가벼운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나 수성장의 얼굴에는 인차 비장한 빛이 어리였다.

이 한몸도 나라를 받드는 기둥돌이 되리라. 여기에 내 마음을 쪼아새겨 군심을 다잡으리라.

그는 급히 방안으로 들어가 붓과 벼루를 가지고나와 문루의 기둥돌에 다가섰다.

정작 붓을 들자니 군심을 다잡을만 한 뜻있는 글귀가 인차 떠오르지 않았다.

땅바닥에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다시 쓰기를 그 몇번…

하지만 마음에 드는 글귀를 끝끝내 찾지 못한채 새벽을 맞았다.

새벽의 대기를 찢으며 군사들의 모임을 알리는 주라소리가 대흥산성에 랑랑히 울려퍼졌다.
삽시에 수백의 군사들이 문루앞으로 모여들었다.
갑옷우에 붉은 융복을 껴입은 수성장이 근엄한 안색으로 문루우에 나섰다.
군사들의 시선이 일시에 그의 한몸우에 쏠리였다.
엄엄한 얼굴로 묵묵히 군사들을 바라보던 수성장이 불쑥 장검을 뽑아 높이 쳐들었다.
《군사들! 난 긴 말을 좋아하지 않소. 조정은 이미 개경을 내놓고 남쪽으로 자리를 옮겼소. 조정에서 산성에 파했던 랑중도 이미 떠나갔소. 이제 곧 거란의 대군이 들이닥칠것은 불보듯 뻔한데 난 죽더라도 이 대흥산성에서 죽을것이고 싸워이기더라도 바로 여기서 싸워이길테요. 나와 함께 나라를 위해 이 대흥산성을 위해 목숨바쳐 싸울 군사들은 남고 그럴 마음이 없는 군사는 돌아가도 되오.》
불이 펄펄 이는듯싶은 부리부리한 수성장의 눈길이 군사들을 훑고 있었다.
웅성대던 군사들이 물을 뿌린듯 조용한 속에 숨가쁜 침묵이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이때 대오를 헤치며 나오는 한 군사가 있었다.
군사들속에서 좌상으로 불리우는 문지기군사였다.
등굽은 그의 손에는 긴창이 들려져있었다.
수성장은 의아한 눈으로 문지기군사를 바라보며 《자넨가?》라고 간격없이 말하였다.
한고향내기로서 안융진싸움때부터 두몸이 한몸되여 생사를 같이 해온 오랜 전우이고 죽마고우였다.
수성장을 믿음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문지기군사가 결연히 군사들을 향하여 돌아서며 웨치였다.
《군사들! 난 손자손녀들을 거느린 할애빌세. 허나 사랑스런 그 애들을 위해 난 군사가 되였네. 그대들도 부모처자를 위해 병쟁기를 잡고 군사가 되였을테지. 적들의 대군이 밀려온다고 두려울게 없네. 오늘의 싸움판이 우리 매 군사들의 애국의 마음을 가늠해줄거네.
단군성왕께서 물려주신 이 땅을 그래 뉘가 지켜왔나? 나라를 다스

린다는 량반들인가? 아닐세. 처자를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해온 우리 같은 백성들, 군사들이 피로써 지켜왔네, 앞으로두 지킬게구. 여보게들! 난 수성장님과 같이 이 대흥산성에서 생사를 같이하겠다는것을 자네들앞에서 맹약하네, 어험!》

그 말에 정숙했던 군사들이 죽가마끓듯 했다.

군사들은 너도나도 창검을 높이 추켜들고 웨쳐대기 시작했다.

《나도 수성장님과 함께 있겠소!》

《나도 대흥산성을 지켜 끝까지 싸우겠소!》

《대흥산성을 끝까지 지키자! 끝까지 지키자!》

합창하듯 웨치는 군사들의 함성소리는 대흥산성을 따라 천마산, 성거산으로 멀리멀리 울려퍼져갔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군사들을 대견히 바라보던 수성장은 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가 펼쳐놓은 종이우에 힘있게 붓길을 달렸다.

써놓은 글발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던 수성장은 문루의 앞면에 펼쳐붙이였다.

글뜻을 제대로 읽지도, 해석도 못하는 군사들이 서로서로 묻는듯 마주 바라보기만 했다.

이때 늙은 문지기군사가 창을 높이 추켜들며 소리쳤다.

《조용들 하게. 여보게들, 조용하라구.》

소란하던 대오가 다시 조용해졌다.

문지기군사는 문루에 써붙여놓은 글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읽어나갔다.

《천…마…중…진… 음, 그러니 천마중진이란 말이지?! 수성장님, 내 생각을 얘기해도 좋겠소이까? 여기 천마산 대흥산성을 나라의 보루로 무겁게 여기고 굳게 지키라는 이 뜻이 아니오이까. 여보게들! 수성장님의 뜻이자 우리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그러니 우리모두 천마중진이라는 뜻을 가슴에 깊이 다지고 이 대흥산성을 끝까지 지키세.》

군사들이 여기에 호응하여 창칼을 높이 추켜흔들며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그 함성은 대흥골안을 쩡쩡 울리며 오래동안 메아리쳐갔다.

대오가 정숙되기를 기다리던 수성장이 한참동안이나 군사들을 미덥

게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군사들, 고맙소! 나는 우리모두의 마음이 담긴 이 글을 이 문루의 기둥에 새길 결심이오.》

수성장은 자기의 결심을 확인하려는듯 군사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이때 대오의 좌측에 정렬해서있던 기마대의 행수가 한걸음 나서며 물음을 던졌다.

《수성장님, 하필이면 부디 이 좁다란 기둥돌에다 새기려 하오이까? 새길바엔 저 뒤의 아달봉 흰바위에다 죽백에 길이 남게 새기면 어떠하오이까?》

십분 옳은 의견이라 머리를 가볍게 끄떡여보이던 수성장이 《군사들, 기마대행수의 의견이 어떻소?》라고 군사들을 향해 되물었다.

《그게 좋겠소이다.》

군사들이 힘차게 대답하였다.

수성장은 응당한 일이라는듯 머리를 끄떡이고는 호기있게 문루를 내리여 기둥돌앞에 멈추어섰다.

《군사들! 이 기둥돌을 보라. 문루를 떠이고선 이 기둥돌이 없다면 문루는 무너지오. 문루가 무너지면 대흥산성이 무너지고 이 성이 무너지면 나라를 빼앗기게 되오. 군사들! 문루를 받들고있는 이 기둥돌에 나라의 운명을 걸머진 우리모두의 심정을 쪼아새기자는것이 나의 뜻이요.》

수성장은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로 기마대행수를 쳐다보았다.

자기를 응시하는 수성장을 알아본 기마대행수는 안길듯 달려나와 수성장앞에 한무릎을 꺾어앉으며 절절히 아뢰였다.

《수성장님.… 난 수성장님의 그 깊은 뜻을 미처 모르고… 내 생각이 짧았소이다.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자는 수성장님의 그 뜻을 나도 적극 따르겠소이다. 군사들! 그렇지 않소?》

또다시 전대오에서는 우뢰와 같은 만세의 합성이 울려퍼졌다.

다음날부터 대흥산성에서는 글자를 새기는 일이 모든 군사들의 관심속에서 밤낮이 따로없이 진행되였다.

석공의 지휘밑에 련 3일간 대흥산성의 군사가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떨쳐나 한번씩 정질을 하는것으로 자기들의 심장에도 천마중진을 쪼아새기고 굳게 다지였다.

군사들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이런 강한 군사들이 있는데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려울게 뭐냐. 안융진에서처럼 고려군사들의 본때를 보여주리라!

대흥산성은 벌써 이긴 싸움을 하고있었다.

어떻게 하나 대흥산성을 허물어보려던 거란군은 맹렬한 기세로 반격하는 대흥산성의 군사들에 의하여 열흘만에는 총퇴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때 대흥산성의 군사들은 수성장의 지휘밑에 맹렬한 추격전을 벌리였다.

적들은 선불맞은 승냥이 피흘리며 달아나듯 개성으로부터 압록강에 이르는 천여리의 길에 수많은 시체를 남기며 쫓겨가고말았다.

그후 고려에 이어 리조시기에도 대흥산성의 군사들은 천마중진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외적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치였으니 넉자밖에 안되는 그 글발을 우리 어찌 무심히 대할수 있으리오.

천마중진! 바다로 흘러든 작은 시내물마냥 력사에 남긴 흔적 비록 크지 않아도 침략자들을 쳐부시는 싸움터에서 태여나 그 싸움의 승리를 가져온 천마중진!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이 땅, 이 제도를 목숨처럼 중히 지키고 무궁토록 빛내이라고 천여년을 지나오면서 피로써 체험한 귀중한 삶의 진리를 말없이 전해주는 천마중진!

인달봉의 어원적의미

인달이란 고대인디아어인 범어로 제석이란 뜻이다. 제석은 불교에서 중생을 인도한다는 주신 즉 부처이다. 따라서 인달봉은 주변의 여러 불교사찰들과 중생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전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우봉현조에는 성거산에 인달사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대흥산성 북문과 정돌소년

오 일 권

천마산과 성거산사이에는 우리 나라 3대명폭의 하나인 박연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져내리는데 이 박연폭포의 웃쪽에는 천연의 요새로 병풍처럼 둘러싸여있는 대흥산성과 그 북문이 력사의 증견자인양 하늘높이 솟아있다.

대흥산성의 북문은 대흥산성의 여러 문들에 비해 매우 정교하게 축조되였을뿐아니라 홍예문(무지개문)에 스며있는 정돌이라는 석공소년의 애국의 넋도 깃들어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고있다.

정돌이가 13살 잡히던 해 나라에서는 수도 개경의 북쪽방위성인 대흥산성을 쌓는 공사를 벌렸는데 놀라울 정도로 돌을 맵시있게 가공할줄 아는 유능한 석공인 정돌이의 아버지를 여기에 보내여 북문건설을 맡아보게 하였다.

일찌기 어머니를 여읜 정돌이는 석공인 아버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성쌓는 일에 잔뼈를 굳혔으며 특히는 원산석(대문짝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운데 박는 돌)과 추석(돌쩌귀를 설치하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는것)을 가공하는 기술은 어른들도 따를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다.

이마가 널직하고 쩍 벌어진 어깨며 장알진 그의 손은 어린 나이라고 볼수 없으리만치 어른다와보였으며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고있는 애국의 넋은 그대로 성돌에 심어져 나라방위에 적으나마 이바지하고있었으니 북문건설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보배돌》이라고 사랑을 담아 불렀다.

특히 《보배돌! 보배돌!》 하며 정돌이를 누구보다도 입에 침이 발리도록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북쪽지방에서 살다가 가족을 다 잃고 얼마전에 개경으로 와 자리를 잡은 누구진이라는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성깔이 사나와 일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으며 종종

눈알을 부라리며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는 며칠씩 일도 나오지 않고 어데론가 갔다가 채석장에 나타나군 하였다.

그때마다 정돌이 아버지는 누구진을 엄하게 질책하였으나 며칠 가지 못하여 그 성격이 또 살아나군 하였다.

채석장에서는 임금의 어명을 받들어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일을 하였으며 다듬은 돌은 북문을 세울 자리까지 사람들이 메여날라 쌓아놓군 하였다.

정돌이 역시 나라에서 북문건설을 책임지게 해준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림이 없이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하였다.

어느날 저녁 아들과 마주앉아 저녁밥을 먹을 때 아버지는 다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입술이 부르튼것을 보니 일이 몹시 힘에 부친 모양이구나. 좀 쉬염쉬염 하려무나.》

아버지를 위해 어린 나이에 어른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석공일을 억척같이 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목구멍에 뜨거운것이 솟구쳐올라 아버지는 말끝을 흐리였다.

제 에미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도 모질게 일을 시키랴. 그래도 이 아비가 가는 곳이라면 달다쓰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며 거들어주고 살펴주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거니…

《아버지, 일없어요. 이제 축대가 완성되면 북문쌓는 일이 시작되겠는데 빨리 완성해야지요. 아버지도 몸을 좀 돌보면서 일하세요.》

자기는 일없다는듯 피로가 겹쌓인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으며 하는 진정어린 말은 더더욱 아버지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하기야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위하는 자식의 도리는 밥상에서 나타난다 하였거늘 이들부자의 서로 위해주는것이 이와 같았으니 아버지와 아들사이의 정은 날에 날마다 더욱 두터워만졌고 정돌이의 효성은 사립문을 넘어 나라방위에 충정할 마음으로 더욱더 끓어번졌다.

때는 한여름이라 따거운 해별이 내리쬐이는 채석장은 온통 벌거숭이들의 천지였다.

웃통을 벗어제끼고 팥죽같은 땀방울을 뚝뚝 떨구며 일하던 정돌이는 너무 더워 견딜수가 없어 또다시 폭포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쾅! 쾅! 절벽을 울리며 떨어져 소용돌이치는 저 폭포수에 한번 몸

을 잠그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정돌이가 보기만 해도 시원스러운 폭포쪽으로 자주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주르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진이였다.
《보배돌, 바라만 보지 말고 잠간 몸을 식히라구.》
역시 자식을 잃은 사람의 애틋한 정이 넘치는 살뜰한 말이였다.
《저…》
《하, 일없다니깐. 어린 네가 몸을 좀 식힌다고 누가 탓하겠니. 자, 어서…》
정돌이는 누구진의 진정에 못이겨 축대돌을 가공하던 정과 마치를 놓고 폭포수에 몸을 잠그었다.
얼마 안있어 여러 사람들이 또 좋아라 물에 뛰여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몸을 식힌 정돌이는 다시 축대돌을 가공하려고 정과 망치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방금전에 있었던 망치와 정이 온데간데 없어진것이였다.
어데 갔을가, 누가 집어갔을가. 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자기한테로 왔던 누구진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정과 망치는 찾을 길이 없었다.
요즘 채석장에서는 종종 이런 일들이 생기군 하였다.
정을 벼리던 집게가 없어지고 풀무가 난데없이 고장나는가 하면 메자루를 만들려고 다듬어놓은 물푸레나무묶음이 통채로 없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일때문에 공사는 늦어지고 그토록 화목하게 지내며 서로 돕던 사람들사이에는 흉흉한 소문이 겹쳐들고 서로 말다툼질을 하는 일도 나타나게 되였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운 정돌은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아버지가 북문건설정형을 아뢰러 가느라 자리를 비울 때에만 생기군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이상스러웠다.
여기에는 자기와 아버지를 모해하고 나아가서는 북문축성을 방해하려는 나쁜 계책이 꾸며지고있다는것을 정돌이는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어떤 놈이 이런 못된짓을 한단 말인가. 나라에서는 북방오랑캐무리들이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있다고

하면서 빨리 성을 쌓을데 대하여 벌써 몇번씩이나 지시를 내리였건만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 이는 분명 침략자들과 내통하지 않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다.

정돌은 정신이 점점 말똥말똥해지기 시작하였다.

래일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자기의 생각을 죄다 말씀드리리라 결심하였건만 어쩐지 오늘 저녁이 걱정되였다.

북문을 세울 위치에 날라놓은 다듬은 성돌들을 무너뜨려 골짜기아래로 굴려버린다면 몇달동안 품을 들인 그 모든것이 허사로 될뿐아니라 아버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을것이였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정돌은 이밤을 성돌이 쌓여있는 곳에서 보내기로 하였다.

캄캄한 밤 허둥지둥 북문터가 자리잡을 곳으로 간 정돌이는 날라다놓은 성돌들이 제대로 있는가를 살펴본 후 그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저 멀리 숲속에서는 소쩍새가 《소쩍, 소쩍.》 하고 울고있었다.

이밤따라 소쩍새 울음소리를 들으니 아버지 생각이 더 나는것 같았다.

정돌이가 7살나던 해 어머니 정도 모르고 자란 정돌이를 무릎에 앉히고 소쩍새이야기를 해주시던 아버지…

엄마를 찾아 밤새밤새 울어도 오지 않아 엄마가 날아간 서쪽을 향해 《서쪽, 서쪽.》하고 울다지쳐 마지막에는 《소쩍, 소쩍.》 하고 울다가 죽었다는 불쌍한 새끼소쩍새의 이야기는 왜서인지 정돌이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한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내 힘껏 잘 도와드리리라.》

이때 성돌이 쌓여있는 곳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정돌이는 바싹 정신을 차리고 그쪽에 대고 귀를 강구었다.

삼경이 되였을가말가 한 때인데 갑자기 웃쪽에서 쇠붙이가 돌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섬찍한 생각이 들어 발볌발볌 기여가보니 어떤 놈이 쌓아놓은 성돌밑에 지레대를 들이박고 낑낑 힘을 쓰고있는것이였다.

《앗!》

정돌이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나왔다.

《안된다. 저게 어떤 돌이라구…》

정돌은 주먹만 한 돌멩이를 주어들고 앞으로 달려나가며 그놈을 향해 힘껏 돌을 던졌다.

날아온 돌에 잔등을 얻어맞은 놈은 몸을 돌려 정돌이에게 달려들었다.

아버지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자기에게는 상냥한 웃음을 지으며 인정을 쓰군 하던 바로 그 누구진놈이였다.

《네놈이?》

《그렇다! 이 고려의 애새끼야, 우리 추장어른께서는 곧 수십만 군사를 보내여 이 땅을 먹어치우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그런데 뭐 성을 쌓아 막아보겠다구? 흥, 오늘은 저 성돌도 네놈도 다 벼랑아래로 굴려버릴테다.》

입을 씰룩거리며 살기띤 눈을 번뜩이는 놈의 상통은 흡사 승냥이와도 같았다.

달려드는 누구진놈을 피해 재빠르게 그놈의 허리를 그러안았으나 강약이 부동으로 정돌이는 그만 넘어지고말았다.

넘어지면서도 놈을 그러안은 팔은 놓지 않았다.

《네놈들이 우리의 이 땅을 어째보겠다구? 어림없다, 으응!》

있는 힘을 다해 정돌이는 누구진놈을 안고 벼랑끝으로 한치한치 굴러내려갔다.

누구진놈은 정돌이가 그러잡은 팔에서 벗어나려고 안깐힘을 썼지만 애국으로 끓어오르는 어린 충신의 불볕에 탄 팔뚝에서만은 벗어날수 없었다.

원쑤놈을 껴안은채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면서도 정돌이는 계속 웨쳤다.

《이놈아, 어림없다! 어림없어ー》

그의 부르짖음은 쏴ー 쏴ー 쏟아져내리는 폭포소리와 더불어 천마산과 성거산 저 멀리까지 울려퍼졌다.

날이 밝자 정돌이의 애국적소행은 대흥산성축성공사에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아버지도 오고 대흥산성의 수성장도 왔다.

사람들속에 둘러싸여 조용히 눈을 감고있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두볼로는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자식두, 입술에 부르텄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채로 갔구나!》

천가지 만가지 말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 자리였지만 아버지는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아! 무슨 말을 더할수 있었으랴!

에미가 없는탓에 동냥젖을 구걸해먹이며 길러오면서도 다칠세라 긁힐세라 마음도 많이 써온 아버지!

나라의 기둥감으로 내세우려고 험한 산, 진창길을 다 데리고다니며 보배돌로 키워온 아버지였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온 그 아들이 오늘은 고려의 어린 충신으로, 만사람이 우러르는 어린 영웅으로 우뚝 올라섰으니 곡성이 없은들 누가 탓하랴.

그후 정돌이의 애국적장거는 온 나라에 널리 알려졌으며 수성장의 지시에 따라 13살나이인 정돌의 애국적넋을 영원히 추억하기 위해 북문의 북쪽과 남쪽면의 홍예돌을 다같이 9개로 하기로 했던것을 정돌이의 나이에 맞추어 남쪽면 홍예돌을 13개로 하였으며 가운데 얹은 홍예돌은 《보배돌》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대흥산성 남문과 개성 남대문을 비롯하여 개성에 있는 많은 성문들의 홍예돌은 앞뒤가 꼭같은 개수로 되여있지만 정돌이라는 소년의 애국적소행에 대한 전설로 하여 대흥산성 북문의 앞뒤면 홍예돌 개수가 이채롭게 달라짐으로써 우리 나라 성문축성기술은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굽이굽이 가파롭고 험한 길을 따라 몸소 이곳 대흥산성에도 찾아오시여 우리 인민의 애국의 넋과 우리 선조들의 높은 축성기술이 어려있는 오랜 력사유적인 대흥산성과 그 북문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늘도 대흥산성 북문은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옛날부터 대를 물려가며 지켜지고 전해오는 우리 인민들의 뜨겁고도 열렬한 애국의 넋을 말없이 새겨주고있다.

창바위와 부아봉

리 성 덕

먼 옛날 오관산아래서 많은 장수들이 살고있었다.

천마장수를 첫손에 꼽고 라월장수, 인달장수, 청량장수… 하여간 그 이름을 다 꼽을며리는 없으나 부처의 제자들인 보현, 문수보살의 이름을 딴 보현장수, 문수장수에다가 용암장수, 일광장수, 월광장수 등 모두 세여보면 열두엇쯤 되였다.

이들은 집채같은 바위를 머리우로 쳐들었다가 힘껏 들어메치거나 아름드리나무를 뿌리채 뽑아 산너머로 내던지면서 쓸데없는 힘자랑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다.

외적이? 그게 대체 어떤 놈들이냐, 올테면 오너라. 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족쳐버릴테다.

장수들은 저으기 긴장된 마음으로 날파람을 일으키면서 외적이 쳐들어올 날만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외적이란 겨우 례성강이나 림진강하구가 아니면 혈구(강화) 해안으로 도적고양이처럼 기여들어와서 마을들을 불지르고 재산을 털어가는 왜구의 무리들에 지나지 않았다.

그놈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쫓으면 도망가고 늦추면 또 쳐들어오는 좀도적무리여서 크게 싸워볼나위도 없었다.

장수들은 왜구의 무리들을 몇번 호되게 족쳐버리고는 한동안 조용하기에 그쯤한 놈들때문에 밤낮으로 늘 나가서 지켜서있기도 멋적은 노릇이라고 하면서 마음의 탕개를 늦추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장수들중에서 제일 억센 장수로서 대장수격인 천마장수의 꿈에 풍채좋은 한 로인이 나타났다.

《나는 백두산에서 온 성골장군인 구룡산 산신령 호경대왕이로다. 장수된 몸인 너희들이 조그마한 힘을 믿고 외적을 소홀히 하면 나라와 백성은 누가 지키겠느냐?》

구룡산 산신대왕의 엄한 목소리는 산발을 저렁저렁 울리였다.

《예, 성골장군대왕님의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 죄 실로 무겁기 그지없사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말을 명심해 들을지어다.》

《예, 여쭈어주옵소서.》

《예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한몸을 바쳐싸우는것을 장수된 도리로 여겨왔느니라. 그러니 그대들도 이 나라의 장수된 도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예, 지키겠소이다.》

《그렇다면 그대들모두가 장차 큰 외적이 쳐들어오는것을 막을 천연의 성벽이 되여야 하리로다.》

《어찌하면 천연의 성벽으로 될수 있소이까?》

《오냐. 래일 새벽 인시(4～5시)에 장수들모두가 저 남쪽산비탈(지금의 천마산)에 나가서 몸으로 성벽을 이룬채 드놀지 않고 서있으면 곧 바위가 되고 산이 되면서 천연의 요새가 이루어지리로다. 외적을 막기에 유리한 곳에 자리잡지 않고 제멋대로 흩어져있으면 성벽은커녕 아무데도 쓸모없는 바위나 산봉으로 화할것이니 그때 가서는 천만번 후회해도 달리될수 없을것이로다,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사옵나이다, 그런데 성벽이 되였다가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올수는 있소이까?》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 미련을 두면서 나라를 지켜 천세, 만세를 사는 생을 어찌 저버리리오.》

《예, 명심하겠사옵나이다.》

이리하여 천마장수를 비롯한 장수들은 호경대왕과 약속한 시간인 다음날 새벽 인시에 적들이 쳐들어올수 있는 남쪽산비탈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성벽으로 주런이 늘어섰다.

그런데 몇몇 장수들이 보이지 않았다.

용암장수, 일광장수 그리고 또 누구누구들인데 성격이 칼날같이 날카롭고 말이 적은 천마장수는 여러 말이 없었다.

《나라를 위해 한몸바치는것이 주저된다면 할수 없다. 오라고 빌지는 않을터이니 후회는 하지 말라고 해라.》

사실은 갑자기 련락을 받다보니 어떤 장수는 호경대왕의 말을 흘려듣기도 했고 또 사사로운 일에 붙잡힌 장수도 있었고 피치 못할 일이

있는 장수가 있기도 했었다.

늘 긴창을 메고다니던 긴창장수는 어머니가 급히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지어들고 나서던 참이였는데 갈지말지 망설이던 끝에 제가 설 자리에 긴창을 든든히 꽂아놓고 급히 달려갔다.

얼른 어머니를 보고 돌아서리라 마음먹었지만 그가 떠난 사이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뗑뗑 하늘종이 인시를 알리자 주변의 산들이 드르릉 울리면서 장수들의 몸이 서로 엉겨붙으며 우줄우줄 산봉우리가 일어서고 바위벼랑이 솟아나더니 하늘을 찌를듯싶은 천연의 성벽이 솟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천연요새마냥 천마산줄기가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가고 천마장수가 버티고섰던 그중 제일 높은 곳에 천마봉이 우뚝 일어섰으며 그 주변에 문수봉과 보현봉, 창바위, 청량봉, 라월봉, 인달봉 등이 줄지어 일어섰다.

그리고 그 성벽밖에 용암산, 응봉(매봉), 일광봉, 월광봉 등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일어섰다.

그 모든 봉우리와 바위들은 다 여러 장수가 서있던 그 자리에 장수의 몸이 억센 산봉과 바위로 변하면서 생겨났으나 창바위만은 장수가 자리를 뜬 사이에 그가 세워두고간 긴창이 바위로 굳어져 생긴것이였다.

긴창장수는 다른 장수들처럼 성벽을 이루는데 한몸을 바치지 못한채 성쌓고 남은 돌처럼 혼자 있게 되였다.

아, 나 혼자 남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혼자 남아서 외적은 어떻게 치며 나라와 백성은 어떻게 지킨단 말인가.

앓는 어머니를 찾아 급히 달려갔을 때 어머니가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네가 앓는 어미를 생각한것은 갸륵하고 효성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선후차가 있는 법이다. 나라가 있어야 이 어미도 있는것인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뒤로 미루었으니 너는 평생을 두고 후회해도 그 실책을 씻을수 없을게다. 이 어미도 평생을 두고 조상들앞에 너와 같은 부끄러운 자식을 두었던것을 빌어야겠으나 빈다고 한들 어찌 용서를 바라겠느냐.》

긴창장수는 머리를 싸쥐고 안타까와 가슴을 허비였다.

(일이 이렇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내가 한몸 바치기를 주저한

것도 아닌데 과연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긴창장수는 구룡산에 있는 성골장군 호경대왕의 사당으로 달려갔다.

천마장수의 꿈에 나타나 장수들모두가 천연의 성벽이 되여줄것을 당부했다는 그 호경대왕에게 진심으로 빌면 무슨 수가 나지리라 해서였다.

사당에 달려가 제단앞에 엎드렸으나 호경대왕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리 빌어도 마음속 소원은 풀어주지 않을 모양인지 호경대왕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왕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것이옵니까. 죽느니만 못하오니 벼락이라도 내려 이 목숨을 끊어주옵소서.)

긴창장수는 사흘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눈물속에 엎드려 빌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무렵에 초불을 밝혀놓아 희미한 사당의 제단뒤쪽에서 문득 호경대왕의 모습이 우렷이 보이였다.

《대왕님,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주옵소서. 소인이 한몸 바치기를 주저한것이 아니라 어머님께 약을 지어드리고 오느라 한것이 그만 늦어졌으니 부디 이 몸을 살펴주소이다.》

긴창장수는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엎드려 빌고 또 빌었다.

《듣거라. 세상만사중에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것을 그래 몰랐더란 말이냐. 그대의 어머니도 효성보다 그것을 먼저 바랐던것이고 온 세상이 다 그것을 바랐는데 그대가 그 믿음을 저버렸으니 이 밝은 세상에 어찌 머리를 들고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뿐아니라 그대 몸을 대신하여 일어선 저 창바위는 생겨날 때부터 장수의 몸은 없고 창만 대신 서있었으니 티가 앉은 그런 마음으로는 나라도 바로 지켜낼수 없느니라. 그런탓에 창바위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비바람에 삭아내리고 창날이 무디여지면서 보잘것 없는 보통바위로 변해버릴것이다. 그때 가서 사람들은 모양이 달라진 그 바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것이니라. 저 천마산 여러봉은 나라와 백성들속에 천세만세 남아있을것이지만 그대는 장수로 났던 흔적도 더는 남기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해야 하옵나이까? 한순간의 실수로 선조

들앞에 씻을수 없는 허물을 남긴 이 몸이 속죄할 길도 없다면 어떻게 살겠소이까?》
  긴창장수는 비오듯 흘러내리는 후회의 눈물을 닦지도 못한채 절망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호경대왕은 동정어린 목소리로 타이르듯 말하였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마다 전장에 나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속죄하는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대가 제 넋으로 일떠세우려 했던 저 창바위는 생길 때부터 큰 허물을 안고있으니 어찌하겠느냐. 그것부터 바로잡아 속죄하는것이 이 나라의 장수로 났던 떳떳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예, 지당한 말씀이오이다.》
  《창바위는 지금 도술에 능통한 사람들이 말하는바대로 하면 이곳 산맥의 폐와 간을 찌르고 솟아오르는 형국인즉 그 부족한것들을 보태주고 없앨것은 없애지 않는다면 이 땅이 3재(세가지 재앙 즉 란리, 기근, 전염병 또는 물, 불, 바람에 의한 재난)를 피할수 없다고 한다.
  이 3재를 막으려면 저 창바위에 밤낮으로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나라가 무사태평하고 신하들속에서는 충신이 대를 이어 나타날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그 일을 그대가 맡아한다면 속죄가 될뿐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큰공을 세우는 일로 될것이니라.》
  《그렇다면 소인이 그 일을 맡아 시행하겠소이다. 세상에 태여나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공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어찌 재앙을 남기고가겠소이까. 소인이 한생이 다할 때까지 정성을 다해 등불을 밝혀 나라에 닥쳐올 재앙을 기어이 막고 이 나라 장수된 도리를 떳떳이 다하겠소이다.》
  《그렇게 믿겠노라. 사실 이 나라는 이곳 성거와 천마의 준험한 산발과 아름다운 산천경개의 정기를 받아 이곳에서 일어서서 오늘에 이르렀노라. 장차로 동방의 으뜸가는 문명강국을 일떠세우자면 누구나 다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가지 일이라도 더하고 보태여 저 천마산의 장수들처럼 나라를 지키는 성벽으로 굳어져 이름을 남기고 영원히 사는 그런 한생을 살아야 할것이로다.》
  《대왕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 뜻을 따르겠소이다.》

엎드려있던 긴창장수가 경건한 마음으로 아뢰이고 일어서며 인사를 하려는데 어느새 호경대왕의 모습은 제단에서 사라져버렸다.
그가 서있던 자리에는 초불만이 홀로 타고있었다.
그로부터 한해가까운 시일이 지나갔다.
그동안 긴창장수는 닥쳐들 3재를 막기 위해 창바위옆에 밤낮으로 등불을 밝히기 위한 거처를 만들었다.
속죄의 마음으로 기둥감도 찍어오고 큰 돌을 져날라다가 집도 든든히 지었다.
그가 창바위에 등불을 밝히려고 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숱한 장수들과 군사들이 도와나섰고 암자의 이름도 그를 도와나선 사람들이 정성 성자와 등불 등자를 써서 《성등암》이라고 달아주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등불을 밝히는데 쓸 등기름은 대도호부들에서 직접 맡아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긴창장수는 하루도 번지는 날이 없이 성등암에서 등불을 밝히면서 한생을 살아왔다.
그가 나이 일흔을 넘길 때까지 홀아비로 창바위와 함께 살아오던 어느날 밤에 성거산의 호경대왕이 다시 꿈에 나타났다.
《그대가 한생을 다 바쳐 속죄한 덕에 이 나라는 3재의 화를 별로 받음이 없이 동방의 문명강국으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였도다. 그대의 정성과 노력에 산신들도 모두가 감동하여 더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것인즉 이제는 산을 내려가 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도 되리로다.》
꿈에서 깨여나자 긴창장수는 굽은 허리와 백발의 머리를 흩날리며 창바위앞으로 허청허청 걸어갔다.
수십년간 홰불을 밝히던 대앞에 어푸러져 바위를 치며 눈물을 쏟았다.
그곳은 성등암에서 밤낮으로 등불을 밝히는것으로만으로는 정성이 모자라는듯싶어 큰 돌을 깎아 홰불대를 만들고 그 네귀에 쇠장대를 해박고 홰불을 지피던 곳이였다.
아, 이 높고 험한 바위산꼭대기에서 살면서 한생 길어다 먹은 물은 얼마이고 그동안 산아래에서 지어다 날라먹은 낟알은 그 얼마이며 오고가는 눈비와 비바람, 뢰성벽력을 혼자 겪으며 고독과 외로움속에 지새운 밤과 낮은 또 그 얼마였더냐.

한순간의 실책을 한생을 다 바쳐 속죄하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게 되였은즉 지금 나에게 남은것은 무엇이냐.

몇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 빛없는 여생이 있을뿐이고 가족도 자식도 없으니 이 웬 운명이냐. 아니, 아니야. …

그후 몇년이 지난 어느날 밤, 그냥 성등암을 떠나지 않고 불을 지피며 살고있던 긴창장수는 조용히 한생을 마치고있었다.

한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각 그는 옛 친구장수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다.

《천마장수, 인달장수, 보현, 문수, 라월장수… 자네들은 나라의 성벽으로 굳어져 세상에 영원한 그 이름을 떳떳이 남기였구려. 허지만 나에겐 무엇이 남았단 말이요. 오로지 나라에 닥쳐올 재앙을 막을 한마음으로 평생을 살고나니 뭇사람들에게 하고싶은 말 한마디가 남았을뿐이네. 나라와 백성들앞에 저지른 본의아닌 순간의 실책이라도 한생을 다하여 속죄하여야 하는것이고 그래야 마음 떳떳하다는 그것이네. 이것은 내가 한생을 바쳐 얻은 교훈이지만 지금 이 교훈의 말을 전해줄 사람도 없구만. 그래도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하네.

그 누가 말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아도 세상 변치않을 그 리치야말로 누구나 스스로 깨닫고 교훈삼을것이기때문이네. 나도 한때는 자네들과 같이 힘을 뽐내며 자랑많고 할일 많던 장수였지만 오늘은 늙고 빈 허울만 남아서 그대들을 부러워하고있네. 아, 두번 살수 없기때문에 한생이라 했다는데 누구나 그 한생을 값있게 살아야 하고 후회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말이요.》

이 말을 마치고 긴창장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로부터 수백년세월이 흘러갔다.

천마산의 봉우리들과 성거산의 봉우리들을 련결한 대흥산성이 일떠서고 그후 여러번 외적들이 침입하였으나 이 성은 고려의 수도 개경의 북쪽방위성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긴창장수의 넋이 깃들어있는 창바위도 한동안은 대흥산성의 중요한 방어요새로 널리 이름났으나 성등암도 점차 퇴락하여 허물어지고 홰불대 네면에 든든히 박아놓았던 쇠장대도 언제 없어졌는지 흔적조차 찾을수 없게 되였다.

하늘을 찌르고 섰던 창바위도 점차 비바람에 삭아내리고 벼락에 부서지고 키가 낮아지면서 보통바위로 변해버리고말았다.

옛 문헌들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과 《송도속지》(1802년), 《송도지》(1824년)에서는 다 이 바위이름을 《극암》(창바위)이라고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중경지》(1855년)에서는 《〈극암〉은 속칭 〈부아봉〉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보인다.

《부아봉》(애기봉, 정확히는 애기업은 봉)이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그후에 나온 모든 문헌들에서는 《부아봉 또는 극암이라고 부른다.》하는 식으로 《창바위》라는 이름은 뒤전으로 밀리고 《애기봉》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나오게 되였다.

어찌하여 창바위라는 씩씩하고 힘찬 이름이 점차 애기봉이라는 유약하고 무맥한 이름으로 바뀌였던가.

우선 산의 모양이 달라진것이 이름이 달라진 기본원인이였을것이다.

산의 모양이 우뚝 솟은 날카로운 창의 힘찬 모습으로부터 엄마의 잔등에 업히워가는 애기모양으로 변하였으니 그것을 어떻게 그냥 창바위라고 부를수 있으랴.

이런 산천지형의 변화는 수백년세월의 풍화작용과 지진과 벼락 등의 원인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수 있는 변화인탓에 조금도 부정하거나 의문시할것이 못된다.

또한 시대가 변화된것이 산의 이름이 달라진 하나의 큰 원인이 아닐수 없었다.

《중경지》가 나온 1855년은 리조 철종6년으로서 나라는 극도로 쇠약한 처지에 있었다. 하여 철종, 고종, 순종에 이르기까지의 3대임금들은 도합 50여년을 가까스로 유지해오다가 그나마도 외세의 침략과 간섭으로 나라를 망치고 나라의 이름까지도 잃고말았던것이다.

그러한 때였으니 한 산봉우리의 이름이 변하는것쯤이야 누가 론의에 붙여보았을가부냐.

말에는 그 시대가 반영되며 산천의 이름의 변화에도 그 시대가 비껴있으니 국력이 극도로 쇠락되였던 그런 때에 창바위가 애기봉으로 불리우기 시작한것을 무슨 수로 되돌려세울수 있었단 말이냐.

그러나 우리들을 깊은 생각으로 몰아가는것은 산이름의 변화인것이

아니라 전설속의 일이긴 하지만 긴창장수의 후회많고 불행했던 한생의 이야기이다.

한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큰일을 일시나마 망각했던 순간의 잘못이 그의 한생을 후회로 가득찬 한생으로 만들었으며 수려한 산천에 깃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전설에까지 지극히 아쉬운 흔적을 남기게 하였으니 아, 천만년 교훈을 삼을 이야기라 아니할수 없다.

《대 동 수 경》

《대동수경》은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실학자인 정약용(호는 다산, 1762－1836년)이 우리 나라 중부 이북지방에 흐르는 강하천들에 대하여 쓴 력사지리책이다. 정약용은 강진에 귀양가있는 동안 우리 나라 지리적 상태를 력사적으로 밝힐 목적으로 1814년에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오래동안 필사본으로 전하는 과정에 《조선수경》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지다가 1935－1939년에 《여유당전서》제6집(지리집)에 포함되여《대동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였다.

1963년에 과학원출판사에서 출판한 번역본과 1965년에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여유당전서》지리지편에 포함시켜 출판한 복각본이 있다.

《대동수경》에는 우리 나라 중부 이북지방에 흐르는 6개의 큰 강인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례성강, 림진강들의 발원지와 흘러나가는 곳이 밝혀져있고 그 지류와 류역에 있는 모든 도시, 진과 보루, 부, 군, 현, 리 등의 연혁 및 해당 지방과 관련된 력사적사건, 고적, 전설, 풍속들이 서술되여있다. 《대동수경》은 사회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들을 가지고있으나 우리 나라 강하천들에 대한 자연지리 및 력사지리도서로서 이 부분연구에 참고할만 한 자료를 주고있다.

원 수 천

전 철 호

고려 중엽 천마산성에서 있은 일이다.

춘색이 무르녹는다는 정3월이라지만 박연골안의 새벽바람은 아직 쌀쌀했다.

서문지기집 딸 시은이는 별이 총총한 첫새벽에 물동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방년이 썩 지난 로처녀인 시은이가 꼭두새벽에 물동이를 안고 나선 것은 그가 남달리 부지런해서만은 아니였다.

그는 벌써 여러해째나 춘하추동 신새벽에 샘물을 긷고있는데 거기에는 눈물나는 사연이 있었다.

시은의 아버지는 천마산성의 서문지기로 늙은 사람이였다.

어미잃은 외동딸 시은이를 가엾게 여긴 산성의 군사들이 관음사근방에다 아담한 초가집을 지어주었다.

군사들은 그 집을 가리켜 《서문지기집》이라고 불렀다.

한뉘 서문과 함께 늙어온 시은의 아버지는 몇해전 성문보수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문이였는지 앞을 보지 못했다.

시은은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무진애를 썼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온갖 불행을 마음먹는대로 척척 다스릴수 있다는 큰무당들을 청해다 살풀이를 했었지만 전혀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다음 찾아간데가 칠성골이였다. 칠성골마을에는 박연사람들이 명의라고 하는 늙수그레한 의원이 살고있었다.

그 의원은 시은을 동정하여 약처방과 함께 박연골안에 있는 신선샘을 길어다 눈먼 병자의 두눈을 씻어주면 앞을 볼수 있다는 비방을 알려주었다.

시은도 신선샘을 잘 알고있었다. 옛적에 룡왕이라던지 천마산을 지키는 산신이라던지 하여간 범상치 않은 신선이 즐겨마시던 샘물이래서 신선샘이라고 불리우는 박우물이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

었다.
신선샘물을 삼년석달 하루도 빠짐없이 남먼저 길어다 아버지의 두 눈을 씻어드리면 앞 못 보는 눈을 고칠수 있다는 의원의 말에 시은은 감격했다.
내 기어이 효도를 다해 고생많고 불쌍한 아버지의 눈을 틔워드리리라.
하여 시은은 3년째 하루도 번짐없이 별을 이고 부지런히 샘터를 오가고있었다.
신선샘은 관음사로 내려가는 길옆의 큰 바위아래에 자리잡았는데 그 앞으로는 사시절 맑은 물이 흐르는 넓은 개울이 나지고 거기에 둥근바위, 네모진바위, 뾰족바위들이 널려있어 제법 경치가 볼만 했다.
이즈음 이 길을 걷는 시은의 마음은 전에없이 유쾌하고 홀가분하였다. 이제 석달만 더 이런 걸음을 하면 아버지는 세상만물을 다시 보게 될것이였다.
옛적에 어떤 효자는 부모의 죽음을 몹시 슬퍼한 나머지 병이 나서 죽었다는데 그런 효도를 본받아 기어이 아버지의 눈을 고쳐드릴테다.
이런 생각으로 신선샘을 가까이했는데 문득 앞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
웬 사람이 바로 그 박우물에서 어물거리고있었다.
《게 누구요?》
우렁우렁한 사내의 목소리에 시은은 겁이 나서 목을 움츠렸다.
《누군가 묻질 않소?》
성이 난듯싶은 어조에 시은은 주눅이 들어 대꾸했다.
《저… 서문지기집 딸이오이다.》
《서문지기집?!》
그런 말을 처음 듣는지 사나이는 좀 누그러진 어조로 자기를 소개했다.
《난 새로 온 대정이요.》
대정이란 소리에 시은은 떨리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대정이라면 종9품의 무관으로서 군사 50명으로 무어진 대를 지휘하는 군교였다.
《랑자같은데 새벽길엔 조심하는게 좋소.》 하더니 대정은 무엇인가를 안고 돌아서는것이였다.

가만 보니 물동이같았다.
시은은 남의 사정은 알려고도 안하고 제 먼저 샘물을 떠가는 대정이란 사내가 야속하였다.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처럼 십년 공이 저 사람때문에 허사로 되는것이 아닐가.
손맥이 풀린 시은은 타박타박 박우물로 다가갔다.
박우물에 쭈그리고앉아 샘물을 떠담느라니 며칠전의 일이 생각키웠다.
그날 정오무렵에 아버지의 병구완에 쓸 약초를 캐가지고 개울에 내려가니 처음 보는 사내아이가 빨래를 한답시고 방치질을 하고있었다.
한 열살쯤 돼보이는 애녀석인데 빨래방치질이 제법이였다.
빨래를 해주며 물어보니 새로 온 대정이 자기 아버지라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 애의 아버지는 몇해전에 상처한 홀아비인데 어린 자식을 셋씩이나 거느리고있었다.
그 아들이 따라와서 관음사근처에 지은 집에서 함께 산다는것이였다.
들리는 소문에 새로 온 대정은 개경사람인데 북쪽변방에서 오장으로 있으면서 국경을 범하는 오랑캐와의 싸움을 잘하여 군교로 출세한 군공자였다.
《호－》
시은은 가는 한숨을 내쉬였다.
어쩌면 얄궂게도 하필 홀아비가 군교로 와가지고 남의 공든 탑을 허물려 하는걸가.
시은은 입을 옹다물었다.
래일은 대정보다 더 일찍 새벽바람을 맞을테다.
이튿날 시은은 올빼미새벽에 물동이를 안아들었다.
홀아비 대정이 나타나기 전에 신선샘에 가야 했다.
이제 석달만 더 새벽이슬을 차면 되겠는데 잠을 좀 더 설친들 무슨 대수랴.
종종걸음을 치며 산길을 내리니 샘터가 고요했다.
시은은 기뻐 방실 웃음을 지었다.
(그럼 그럴테지.)
그는 날래게 샘물을 찰랑찰랑 떠가지고 돌아섰다.
다음날에도 그다음날에도 시은은 첫새벽에 깨여일어나 신선샘을 길

어왔다.
홀아비 대정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시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하긴 홀아비 대정이야 제가 먹을 끼식때문에 샘물을 길어가는것이니 이같은 첫새벽에 나타날리 만무였다.
헌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 온 홀아비 대정이 하는품이 오랜 싸움군답다는것이였다.
그가 부자집출신의 다른 군교들과는 달리 솔선 성보수에도 직접 몸을 내대며 일하고 교련에도 참가하니 군사들이 좋아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도 제 손으로 아이들의 끼식을 끓여주고 옷도 기워준다고 하였다.
시은은 어린 자식들을 돌보느라 새벽부터 물을 긷는 홀아비 대정이 측은하였다.
며칠이 지났다.
배 꺼져가는 반달이 청량봉마루에 걸려있는 어뜩새벽에 샘터로 나간 시은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글쎄 이제는 자기를 앞설수 없다고 생각했던 홀아비 대정이 샘터에서 우물거리고있지 않는가.
저 사내는 무슨 한을 품었기에 남의 발등을 밟으려 하는것일가.
이제는 지금껏 뛰여다닌 새벽걸음이 깨진 사발로 되고말것이다. 애오라지 아버지가 앞을 보게 될 그날을 그리며 살아왔는데…
시은이 눈물을 흘리며 서있는데 《거 서문지기집따님이 아니시오?》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은은 남의 일을 망쳐놓은 그가 밉살스러워 대답을 피했다.
《아, 틀림없군.》하며 홀아비 대정은 시은에게 물동이를 내밀었다.
《이걸 받소. 새 물동이요.》
《?!…》
《내 미처 몰랐댔소. 그대의 아버님이 한생 서문파수를 맡아하다가 눈이 멀고… 또 그대가 첫새벽이면 이 신선샘을 길어다 아버님의 두 눈을 씻어드린다는것을 말이요. 그댄 진정 천마산성이 낳은 효녀라고 하겠소.》
시은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부닥쳐 어리둥절하였다.
《그렇지! 내가 이 새 물동이에 첫 샘물을 담아주는 사람이 되겠

소.》
시은은 샘물터에 웅크리고 앉아 물을 떠담는 홀아비 대정을 보고 지금 자기가 꿈을 꾸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홀아비 대정은 앞반석우에 올려놓은 새 물동이에 물을 떠담으면서 우렁우렁 말했다.
《랑자! 전번에 랑자의 사정을 미처 몰라보고 먼저 물을 길어간걸 용서하오. 뒤늦게나마 덜퉁한 내 잘못을 빌고 또 그대 아버님의 병이 꼭 낫기를 바래서 이 물동이를 장만했소.》
시은은 홀아비 대정의 진정에 감동되여 어깨를 떨었다.
《아 참, 이 생각 보지. 내 집 빨래를 해주어 고맙소. 우리 애들은 노상 그대 이야기라오. 자, 물동이를 받소.》
시은은 눈굽을 찍던 옷고름을 내리우고 두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두손으로 물동이를 받아 머리에 인 시은은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사내의 뜨거운 마음이 시은으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이게 하였고 하여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눌수가 없었다.
시은은 머리우에서 물동이가 기울어지는감을 느꼈을 때라야 가슴이 철렁하여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홀아비 대정이 재빨리 손을 뻗쳐 물동이를 안아들었다.
《랑자! 내 생각이 짧은것 같소. 난 새 동이에 첫 샘물을 담아줄 생각은 하면서도 이걸 랑자의 집에다까지 안아다줄념은 못했거던. 자, 날 따라오우.》
시은은 물동이를 안고 씨엉씨엉 앞서 걷는 홀아비 대정을 보자 솟구치는 격정으로 하여 가슴이 막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세상에 남을 제살붙이처럼 여기는 저런 사내도 있단 말인가.
홀아비 대정은 시은네 집 마당에 이르러서야 걸음을 멈추고 시은의 품에 물동이를 안겨주었다.
시은은 이상야릇한 감정으로 해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도 하지 못하였다.
《랑자! 난 오늘 한량없이 기쁘기만 하오.》하더니 홀아비 대정은 씨엉씨엉 오던 길을 되돌아 웃쪽길로 사라졌다.
시은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점도록 웃쪽길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러는 그의 가슴에는 저 사나이를 앞으로 다시 만나보게 될수 있을가 하는 그리움이 서서히 고여올랐다.

며칠후 서문지기집에 경사가 났다. 로처녀로 스러져가는 과년한 딸때문에 근심이 산같던 서문지기집로인에게 중신아비가 찾아온것이였다.

중신아비 노전귀 뜯는다지만 서문지기집에 찾아든 중신아비는 그럴 경황도 미처 없었다.

중신아비가 천마산성에 새로 온 홀아비 대정이 이 집 딸이 마음에 있어 장가들고저 한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서문지기집로인은 마치나 9년동안 계속 내리는 비속에서 해를 바라는듯싶었던 심정이여서 못내 기뻐하였다.

눈먼 사람은 귀가 밝다고 서문지기집로인은 홀아비 대정의 됨됨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잘 알고있었을뿐더러 제집 딸에게 물동이까지 새로 마련해주었다는것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홀아비 대정이 후취장가를 들려 한다면 자기 딸을 그한테 보냈으면 하던 그였다.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는 문득 눈이 보인다고 소리쳤다.

그것이 그날로 온 천마산에 쫘했다.

눈뜬 서문지기집로인을 만나보려 군사들이 다투어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홀아비 대정도 있었다.

며칠후 천마산성이 들썩하게 시은이의 혼례잔치가 크게 벌어졌다.

시은이 의젓하고 듬직한 대정에게 시집가서 깨가 쏟아지게 잘살았음을 더 말해 무엇하랴.

이 일이 있은 후로 사람들은 장님의 눈을 틔워주고 의로운 남녀의 부부인연도 맺어준 신선샘을 가리켜 세상에서 으뜸가는 샘이란 뜻에서 샘터의 바위에다《원수천》(元水泉)이란 글을 쪼아새겼다.

그때부터 천마산성의 사람들은 물론 천마산을 찾아오는 구경군들이 원수천의 샘물을 즐겨마시는 바람이 불었다.

과연 원수천의 샘물은 효험이 신통했다. 속탈을 앓던 병이 뚝 떨어지기도 하였고 과부와 홀아비가 함께 마시면 월하로인의 그 유명한 월로승으로 동여맨듯 부부인연을 맺는 일도 드문하였다.

과연 명산의 령험이 어려있는 으뜸가는 샘물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하여 원수천은 박연의 명소들중의 하나로 이름나게 되였다.

범 사 정

리 완 기

올려다보면 하늘의 은하수가 비껴흐르는듯, 어찌보면 천길의 흰 무지개가 우뢰소리 드높이 깊은 룡소에 날아드는듯 볼수록 그 장쾌함과 웅장함을 더해주는 박연폭포!

천마산의 웅지를 모두 안고 흘러흐르다 그 격정 소리쳐 터치는 폭포의 특유한 절경이 한눈에 안겨오는 범사정!

너는 과연 언제부터 여기에 서있었느냐. …

고려 초엽 박연폭포의 아래마을에 진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있었다.

개경에 나가 미미한 벼슬을 살던 진씨는 아름다운 고향산천이 못내 그리워 마침내는 자기가 살던 박연으로 돌아오고말았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데는 그 어디에 다시 없을 박연폭포를 명화로 그려 세상에 자랑하려는 속마음도 있었기때문이였다.

진씨는 약초를 캐서 말리우고 산열매도 따서 팔아 집안살림을 유지하는 속에서도 짬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던 그림을 늘 그리군 하였다.

이렇게 짬짬이 진씨가 그린 박연폭포와 천마산, 성거산의 경치그림을 쌓아놓으면 키를 넘을것이였다.

진씨는 오로지 아름다운 고향산천을 그림에 담아 자랑하려는 소원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있었다.

아들애도 푸른 소나무처럼 한본새로 살라고 청송이라고 이름지었다.

무더운 여름날 진씨는 화판을 들고 아들과 함께 박연폭포로 올라갔다.

청송이도 자기 키보다 더 큰 지게를 졌다.

땔나무라도 해서 아버지의 그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는 기특한 마음에서였다.

이들은 폭포소리가 골안을 채우는 입구에 들어섰다.

안개구름이 뽀얗게 서린 폭포골의 신기스러운 풍경을 볼 때마다 진씨는 힘이 솟구침을 느꼈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폭포구경이 멋이 있다고 사계절 사람들이 끊기지 않는 박연폭포를 바라보는 진씨의 눈에는 말할수 없는 환희가 어려있었다.

진씨는 룡소앞의 작은 너럭바위에 화판을 내려놓았다.

폭포수에 씻기운 조약돌 하나도 자기의 그림에 들어가있지 않은것이 없어 어느것 하나 무심히 볼수 없는 진씨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무심결에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던 진씨는 흠칫 놀랐다.

센 머리칼들이 많아진것이 눈에 띄우자 진씨의 마음은 웬일인지 서글퍼졌다.

(이러다가 이처럼 아름다운 박연폭포를 한폭도 남기지 못하는게 아닐가?)

위구심에 급해난 진씨는 단단히 마음먹었다.

(래일부터 집안일은 청송이에게라도 맡기고 난 아예 폭포옆에 자리를 잡아야겠어.)

다음날부터 폭포에 올라온 진씨는 박연폭포를 그리는데 온 심혈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고심끝에 그려낸 그림들은 어느 하나도 진씨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진씨는 아들이 날라다주는 밥도 드는둥마는둥 하며 어떻게 하면 박연폭포의 아름다움과 장쾌함, 시원함이 그대로 살아나게 그림을 그리겠는가 하는 생각에만 옴해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있는 청송은 찬을 하나 해도 만정성을 다기울였다.

몸보신에 좋은 단고기장을 비롯해서 토끼곰, 닭곰도 여러번 해주었다.

그림이 마음먹은대로 돼가는 날이면 진씨는 밥을 맛있게 들었고 그림이 잘 안되는 날엔 수저조차 들지 않았다.

은은한 색갈로 저 멀리 천마산과 성거산을 배경으로 흰 물갈기를 뿌리는 박연폭포를 정면으로 그리기도 하고 천마산쪽에서 본 박연폭포를 그리기도 하였지만 어느것 하나 신통치 않았다.

하루하루 날이 지날수록 진씨는 조바심이 났고 걱정이 늘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청송이도 아예 아버지와 같이 자며 시중을 들어주었다.

진씨는 무진 애를 다 썼으나 그림마다 왜 마음에 안 드는지 그 리유를 알수 없었다.

폭포가 비슷하면 좌우절벽이 미타하고 흩날리는 물방울이 살아나면 절벽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무엇인가 빠진것 같은감이 들어 도무지 마음에 차지 않았다.

너무 속을 썩이던 진씨는 그만에야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쓰러지고말았다.

아버지가 쓰러지자 청송은 당황해났다.

몇년전에 몹쓸 병을 만나 돌아간 어머니몫까지 합쳐 애면글면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한 청송이였다.

청송은 아버지의 병을 잘 알고있었다.

박연폭포를 세상에 없는 명화폭으로 남길 묘안을 찾지 못해 애쓰다가 생긴 병이였다.

산삼을 달여 대접하고 곰열도 얻어 약을 쓰면서 청송은 노상 한가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릴가. 꼭 아버지의 손에서 멋진 그림이 나오게 해야겠는데…)

잠결에도 박연폭포를 부르는 아버지를 보며 청송은 어떻게서나 먼저 아버지의 몸부터 추켜세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

약초를 찾아 헤매다 호랑이와 만난적도 있었고 산에서 길을 잃어 허튼 곳에 들어서 밤을 새운적도 있었다.

어느날 이른새벽 아버지의 병에 도움이 될 약처방을 알려고 마을에 내려갔던 청송은 폭포골로 올라오고있었다.

골안입구에서 안개 자욱한 폭포골안을 바라보던 청송은 놀라운 광경에 숨이 헉 막힐 지경이였다.

폭포소리 요란한 골에 안개바다가 쫙악 펼쳐졌는데 그우에서 떼목같은것을 띄우고 웬 사람들이 풍악을 울리며 즐기는것이였다.

훨훨 흩날리는 날개옷을 보아 하늘나라의 신선들이 틀림없었다.

꿈이 아닌가 해서 제 살까지 꼬집어보았으나 생시가 분명한지라 청송은 종주먹을 쥐고 폭포를 향해 냅다 달리였다.

청송이가 오는것을 아는지마는지 신선들은 저들대로 즐겁게 놀고있었다.
폭포골안에 이르니 신선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청송은 급히 아버지에게 다가가《이제 방금 신선할아버지들을 보지 못했나요?》하고 물었다.
도리머리를 젓는 아버지에게 청송은 방금 본 꿈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측은하게 아들을 바라보던 진씨는《네가 요즘 이 아비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더니 헛꿈을 꾼게구나.》하며 눈을 감고말았다.
아무리 생각해야 이른새벽의 일을 그저 덮어버릴수가 없어 신선들이 놀던 쪽으로 눈길을 돌리던 청송의 눈앞에 묘하게 솟은 절벽이 안겨왔다.
(틀림없이 신선들이 놀던 곳이다.)
청송은 절벽우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보았다.
에돌기도 하고 기여오르기도 하며 절벽우에 올라선 청송은 거기에 떨어져있는 화려한 날개깃을 보고 자기가 잘못 본게 아니라는것을 확신했다.
바위우에서 박연폭포를 바라보던 청송은 순간 저도 모르게《야!》환성을 올렸다.
아직까지 박연폭포가 이렇듯 황홀한줄을 몰랐던것이다.
그 기묘함과 상쾌함을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가 없었다.
청송은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가 날개깃을 보여주고 아버지를 부축해서 간난신고끝에 바위우로 올라섰다.
한생 폭포를 보며 그림을 그려온 진씨도 넋을 잃고 중얼거렸다.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자리로구나. 하늘이 네 효성에 감복해서 이자리를 주었구나.》
《아니예요. 아버지, 고향땅을 세상에 빛내이려는 아버지의 그 소원이 하도 절절하니 하늘이 머리를 숙인거예요.》
청송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바위우에서 보는 박연폭포의 절경이 그대로 약이 된듯 힘이 솟구친 진씨는 붓을 찾아들었다.
병이 언제 떨어져나갔는지 진씨는 식욕도 이전대로 늘어 진종일 붓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청송은 아버지를 위해 바위우에 널직한 초막을 지었고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없게 돌계단도 만들고 나무다리도 해놓았다.

그러면서 시간이 있는대로 완성되여가는 아버지의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폭포의 좌우가 척 드러나고 흰 룡이 하늘로 치솟아오르는듯싶은 폭포수! 하늘로 오를듯 솟구쳤다 급기야 아래로 내려꽂히는 폭포수가 흩날리며 뿌리는 안개발은 온 골안에 그대로 은구슬을 가득 채운듯 희한한 광경을 펼쳤는데 해빛에 금구슬, 청구슬, 옥구슬로 반사되는 그 풍경이 또한 말로는 다 표현을 못할 지경이였다.

어느덧 날이 흘러 그리도 바라던 박연폭포그림이 완성되였다.

진씨가 그린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바위우에 올라서서는 과연 명화가 나올만 한 명당자리라고 저저마끔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사람들은 명당자리 바위우에 올라가 폭포를 한눈에 감상하면서 휴식도 하게 앉음터도 만들고 기둥을 세워 지붕도 해씌웠다.

그 모양이 정각 비슷이 되자 모두 현판을 걸자고 하였다.

만경정이요, 폭포정이요 하였지만 모두 신통치 않아하던중 청송이 그 바위를 발견할 때의 이야기를 듣고는 좌상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범사정》이라는 이름을 달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멀리서 보면 안개바다우에 떠있는 떼와 비슷하다고 하여 뜰 범, 떼 사, 집 정자를 골라서《범사정》이라는 현판을 보기 좋게 써붙이였다.

범사정은 이렇게 되여 세상에 태여나게 되였다.

현재의 범사정은 1700년(리조 숙종26년)에 고쳐지은것이다.

범사정에서 진씨가 그렸다던 그림은 세월의 이끼속에 파묻혀 전해지고있지 않지만 박연폭포를 소리높이 자랑하려는 그의 애국의 넋은 범사정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을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다.

박연폭포와 황진이

리 성 덕

리조 중엽쯤 되는 어느해 여름 박연폭포에서는 송도일판에서 제노라하는 량반벼슬아치들과 문인선비들이 모여서 술판을 벌려놓고 시흥을 돋구고있었다.

여러 기생들과 함께 황진이도 이곳에 불려갔었다.

한여름의 불덩이같은 해가 높이 솟아올라 폭포에 빛을 뿌리자 은구슬로 흩어져 물안개를 일으키던 물방울들이 령롱한 무지개빛을 내며 바위벽을 감돌고있었다.

수십길 꼭대기에서 못속으로 굴러떨어지는 장쾌한 물소리는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절승을 자랑하는것은 물빛과 물소리만이 아니였다.

폭포수가 미끄러져내리는 바위절벽은 그대로 한개의 거대한 돌로 이루어져 이른바 거석미를 자랑하고있는데 그 석벽에 누군가가 새겨놓은 글이 또한 운치가 있었다.

폭포를 옹위하듯 량쪽에 솟아있는 천마산과 성거산 역시 웅장하고 산을 이룬 바위들이 모두 골라다놓은듯 모양과 색갈과 앉음새가 절묘했다.

절경에 취하고 시흥에 넘친 량반선비들은 앞을 다투어 시를 읊조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읊어지는것마다가 중국의 이름난 산인 려산을 그대로 옮겨다놓은듯 하다거나 당나라 문인인 리태백의 시 《려산폭포를 바라보며》를 흉내낸것들뿐이였다.

제 나라 경치를 놓고 남의 나라 시를 따서 읊거나 남의 나라 산에 비기여 읊어야 시답다고 하는 그 진부함과 고루함을 참고 보다못하여 황진이는 《량반님들의 시는 시체는 번듯하나 제것이 없고 표현은 현란하나 얼이 없소이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시 한수를 읊기 시작하였다.

한줄기 내물 구렁에 내려꽂혀
백길 룡소에서 물살이 우짖네

하늘의 은하수 꺼꾸로 쏟아진듯
흰 무지개가 비껴드리운듯

물소리 골안에 우뢰를 일으키고
물방울이 공중에 구슬로 흩어지네
려산이 좋다고만 말하지 마오
천마산의 이 폭포 누리에서 제일이라오

읊기를 마치자 량반선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들끼리 수군거리며 고개만 끄덕일뿐이였다.

실로 제 나라 산천과 제 고향의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부심이 폭포의 용용한 흐름처럼 세차게 굽이치는 시였다.

황진이의 《박연폭포》라는 시는 이렇게 창작되여 지금까지 전해오고있다.

예나 지금이나 폭포가 쏟아져내리는 못가 왼쪽에 좀 치우쳐서 큰 너럭바위 한개가 유표하게 자리잡고있다.

이 바위는 떨어지는 폭포를 제일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곳이기에 폭포를 찾는 사람치고 이 바위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어느날 송도장안의 제노라하는 량반선비들이 모여 《비류직하 삼천척 의시은하 락구천》 (곧추 날아 떨어지는 물은 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내리지 않는가 의심된다는 뜻.) 이라는 옛 시인이 쓴 시구를 바위에 새겨 기념하기로 하고 서로 주변의 아름다운 풍치와 시의 뜻에 어울리는 글씨를 고르기 시작하였다.

저마끔 있는 재간을 다 내여 글을 써보았으나 신통한 글씨가 나오지 않았다. 한동이나 되게 갈아놓았던 먹물이 거의 밑창이 나건만 흡족한 글체가 나오지 않자 모두가 맥을 놓고 멍하니 앉아 폭포만 바라보고있었다.

그 모양을 지켜보고있던 황진이가 조용히 나서며 말하였다.

《제 글이 명필은 못되오나 허락하신다면 한번 써볼가 하나이다.》

황진이가 가무뿐아니라 시문과 서예에도 뛰여난 재능을 지니고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지만 량반의 체면에 차마 청하지 못하고있던 참이라 량반선비들은 선뜻 응낙하였다.

바위우에 너저분하게 흩어져있는 크고작은 붓이며 종이따위들을 치

워버리고 한동안 번번한 바위바닥을 들여다보며 서있던 황진이는 확신성있는 동작으로 높이 틀어올린 머리에 꽂혀있는 옥으로 장식한 긴 은비녀를 쑥 뽑아 발아래 내던졌다.
《쟁그랑!》
은비녀가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치렁치렁하고 윤기도는 함치르르한 긴 머리태가 풀어져 앞가슴에 드리워졌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량반선비들은 모두 웬일인가 하여 눈이 휘둥그래졌다.
진이는 오른손으로 침착하게 머리태를 거머쥐더니 주저없이 먹물에 푹 잠그었다.
《아니? 그러니 붓으로 쓰지 않으려나보군. …》
《허— 황모붓으로도 아니되던 글을 머리태로 쓰겠단 말인가?》
량반선비들이 수군수군할 때 진이는 머리태를 잡은 손을 휘둘러 단숨에 룡이 꿈틀대는듯싶은 흘림체로 글을 내리쓰고나서 허리를 폈다.
글쓰기를 마친 진이가 먹물 묻은 머리태끝을 못물에 잠그어 헹구고 있을 때 선비들이 우루루 바위우에 모여들었다.
광초체(몹시 흘려쓰는 초서체)로 내리쓴 14자의 글자는 어찌보면 하나의 글자로 녹아붙은듯도 한데 흐르다 내려감기고 휘돌아 용솟음친 글자획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듯 하였다.
(아, 과시 명필이로다!)
모두가 탄복하고있는데 누군가 한마디 했다.
《동서고금에 다시 없는 명필치로다!》
《글을 머리태로 썼으니 이건 전고에 없는 파격일세.》
《천마산의 박연폭포를 파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제대로 그려낼수가 있겠소. 날아떨어지면서 흩날려내리는 저 폭포의 절경에 꼭 맞는 글씨이니 파격이 제격이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보오.》
먹물이 마르기를 기다려 박연의 이름난 석공들이 흥이 나서 글을 쪼아나갔다.
머리태로 썼기에 붓끝으로 흉내도 낼수 없는 미묘한 글획이 이루어졌는데 그 글획마다에 비껴있는 용솟는 힘과 미세한 정서의 변화까지도 놓칠세라 석공들은 정성과 재간을 다해 정끝을 움직여나갔다.
이리하여 그 글은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때의 그 힘과 느낌을 그대로 전하고있으며 고모담의 이름없던 너럭바위가 《글씨바

위》로 불리우게 되였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의 5월 어느날 박연폭포를 또다시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미 수십여년전에 다녀가신 기억을 더듬으시며 친히 이 바위를 찾으시고 박연폭포에 왔다가 글씨바위도 보고 전설도 듣고 가야 한다시며 동행한 력사학자들과 함께 황진이의 그 글씨가 보이도록 기념사진을 찍으시여 력사에 길이 전할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1960년대말의 무더운 여름철에 박연폭포를 찾으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박연전설도 친히 들려주시였으며 그후 어느해 태양절날에는 전선시찰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곳에 황진이의 무덤이 있겠는데 잘 꾸려서 보존관리할데 대한 은정깊은 말씀을 주시였다. 그후 어느때인가에는 황진이는 16세기 개성의 비천한 가정에서 태여나 곡절많은 한생을 보내면서 력사에 많은 일화를 남긴 녀성이며 당대의 으뜸가는 녀류시인, 미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명월 황진이의 무덤은 개성시 선적리에 새로 꾸려져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그의 한생은 봉건적억압과 신분적질곡속에 이어진 곡절많은 한생이였지만 로동당시대에 와서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사랑속에 재생의 행운을 지닌 자랑스러운 한생으로 빛나고있다.

조선의 명승 박연폭포와 함께《송도3절》로 불리우고있는 황진이가 남긴 시문학유산과 아름다운 일화들은 오늘도 래일도 우리 인민의 귀중한 력사문화유산으로 사랑을 받을것이며 오래도록 전해질것이다.

고 래 바 위

전 광 원

푸른 바다속 산호진주가 춤을 추고 온갖 보석들과 금은붙이들로 장식된 기둥들과 벽 등이 번쩍거리는 룡궁안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앓고있는 룡왕의 병치료를 위해 토끼의 간을 가지러 떠났던 자라의 소식은 해가 넘도록 아주 감감한데 날이 감에 따라 룡왕의 병증세가 점점 심해지기때문이였다.

룡왕은 복닥소동을 피우며 문무백관들을 어전에 불러들였다.
모두 죄지은 모양으로 목들을 움츠리고 서성거리는 신하들앞에서 맥없이 눈을 감고있던 룡왕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대들중에 그래, 이 룡왕을 위해 몸을 내댈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뇨? 자라는 여직 생사무소식이다만 짐을 위해 제 한몸 내대고 험한 뭍으로 떠났거늘 그대들중에도 짐을 위하는자가 수두룩하겠은즉 다시 뭍으로 나가 자라를 데려올자가 있으면 선뜻 나설지어다.》
룡왕의 말이 끝나자 신하들모두가 자라목이 되여 눈만 데룩거리며 서로 눈치만 보는데 두눈을 한쪽에 몰아붙인 가재미가 앞으로 나서더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런 일에서는 몸이 아주 날래고 물속에서도 빠르기로 이름난 칼치가 적임자인줄 아옵니다. 룡왕님을 위한 소인의 마음은 진주와 같사오나 몸이 넙적하여 엎드리기에나 좋고 눈도 너무 어두워서…》 하고 말끝을 얼버무렸다.
화가 독같이 오른 칼치는 물론이요 늘어선 신하들모두가 네밀락내밀락 란장판이 되여버렸다.
노는 꼴들이 하도 가관이라 너무도 기가 막힌 룡왕은 체모고 뭐고 없이 버럭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나를 섬기는 네놈들의 심보를 이제야 알겠노라. 하지만 어떤 놈이든 하나는 가야만 하겠거늘 모두 대가리들을 뽑고 짐을 올려다볼지어다.》
룡왕의 눈길을 피하느라 움츠렸던 목들이 더욱 줄어들뿐 신하들모두가 벙어리에 쥐상이 되여버리자 추상같은 룡왕의 시선이 고래앞에서 멎어섰다.
《너 고래 이놈! 대감벼슬에 앉혀주었으면 몸뚱이값이라도 해야겠거늘 어찌하여 시종 아닌보살뿐이냐. 네가 이번 일을 성사하여 고 깜찍하고 불여우같은 토끼놈의 간만 뽑아온다면 이 룡궁안에서 제일로 으뜸가는 벼슬을 하사하겠으니 전후일을 따져보지 말고 즉시 떠나도록 해라.》
룡왕의 된방망이에 얻어맞은 고래는 더는 변명할 여지조차 없는 처지였지만 자기도 모르게 맥빠진 변명을 내뱉았다.
《저를 그토록 믿어주시는 룡왕님의 은혜에 한목숨 아까울게 바이 없습니다마는 신이 감히 한말씀 올리고싶은것은 제 몸집이 워낙 산악과 같고 둔하기 이를데 없는지라 물에서는 그 무엇도 무서울게 없사오나 뭍에서야 어떻게 땅을 기여다닐수 있으며 작은 눈망울로야 어찌 천리를 내다볼수 있으오리까?》

고래의 말에 룡왕의 얼굴은 시퍼렇다못해 꺼매지기 시작했다.
《네놈이 아직도 횡설수설이냐. 고래로 말한다면 조상부터가 짐승이여서 땅우에서는 제왕이라 온갖 짐승들을 거느렸은즉 지금도 물에 오르면 모두 너를 왕이라 받들며 모여올것이니 토끼의 간을 빼앗은 그 느렁뱅이 자라를 태워오든가 아니면 토끼란 놈만 슬쩍 잡아 번개같이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될것이거니 네 꼭 성공하기를 바랄뿐이노라.》
…
고래가 룡궁을 떠나온지도 수십일이 흘렀다.
동해를 지나고 남해를 거쳐 자라가 간 곳을 여기저기 물으며 서해까지 왔지만 산으로 치면 숲에 떨어진 바늘찾기요, 물로 치면 감탕에 섞인 모래알찾기라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였다.
산에서 잰내비마냥 날고뛰는 토끼란 놈은 잡을수가 없으니 토끼의 행적을 아는 자라를 찾는것만이 상책인데 냄새 잘 맡는 고래로서는 물에 씻겨내려오는 자라의 오줌냄새를 찾는 길밖에는 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또 이 세상에 자라가 어디 한둘뿐인가.
고래는 룡궁의 자라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며 례성강어구에까지 이르렀다.
강을 거슬러 사품치는 물결을 따라 오르던 고래는 기쁨을 금치 못했다.
자라의 냄새를 가려낸것이였다.
용기가 솟아오른 고래는 물길을 거슬러오르기 시작했다.
물소리가 요란스런 어느 한 골안에 이르니 아, 천하에 이런 절경도 있었다더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높은 절벽을 타고 날아내리는데 그 소리는 쾅! 쾅! 골안을 진감하고 흩날리는 물보라는 령롱한 칠색무지개를 펴놓았는데 그 한끝이 하늘나라로 이어져있는듯싶었다.
바위와 절벽은 또 얼마나 기기묘묘하랴!
당장 갈라터지고 금시 깨여질것만 같은 큰 바위들이 자기를 집어삼킬것만 같아 겁이 더럭 났지만 황홀경에 취해버린 고래에게는 무지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보고싶은 욕망이 끓어올랐다.
내려꽂히는 물줄기를 타고 힘차게 몸을 솟구니 큰 몸뚱이가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에 철썩 떨어지는데 아, 여긴 또 무슨 별세상이냐?!
커다란 몸집이 바위우에 떨어질 때에는 정신까지 아찔해졌다.
이게 바로 룡꿈인게다 하며 아픈 몸을 바위에 기대고 한숨을 쉬고

있노라니 그제야 비로소 자라생각이 떠올랐다.
갑자기 아픈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워 《자라야!》하고 크게 소리쳐 부르니 저편 산에서도 《자라야아—》하고 화답을 하는것이였다.
웬놈이 나를 놀리는거냐. 다시한번 소리치려는데 이번엔 《고래대감!》하는 귀익은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고래가 너무 기뻐 눈알을 떼룩거리며 사방을 살피는데 눈앞에서 자라가 불쑥 솟아올랐다.
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살수가 열렸거니…
고래와 자라는 서로가 너무 기뻐 몸을 부벼대며 좋아들 하였다.
《고래대감께서 어인 일로 이 산중에까지 왕림하셨소?》
자라의 물음에 고래는 그간 룡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대강 이야기하였다.
《아니, 그 룡왕님이 여직 살아있단 말이시우?》
《살아있다뿐이겠나. 목청만 나날이 커져서 그 소리가 룡궁을 뒤흔드니 신하들모두가 한시도 기를 펼 날이 없다네.》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 일에 고래대감이 당선되셨소?》
자라가 비양조로 물었다.
《내 이번에 룡왕의 성화를 잠시라도 멀리하고저 겸하여 자라대감을 찾아왔은즉 그대는 나와 함께 산천경개를 마음껏 즐긴 후에 토끼놈을 잡아가지고 룡궁으로 돌아가세.》
자라는 그 짧은목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눈치만 살피다가 《그 이야기는 좀 있다 하고 우선 우리 집부터 가봅시다그려.》 하며 고래를 잡아끌었다.
고래는 눈을 크게 뜨고 의아해서 물었다.
《자네의 집이라니? 그럼 룡궁을 아주 떠났다는 말인가?》
자라는 작은 손으로 고래의 큰 입을 밀막으며 억지다짐으로 그를 이끌었다.
《자, 그러지 말구 우리 집으로 가서 진수성찬을 맛보며 우선 회포부터 풀어봅시다요.》
《자네의 집이 어데인데?》
고래의 물음에 자라는 천마산의 일만가지 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어떤 높은 봉우리를 가리켰다.
고래는 하는수없이 자라를 따라가는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자라는 워낙 걸음걸이가 느리기로 세상에 으뜸인지라 물속에서도 제

자리 자맥질을 해대는데 입은 어데서 그렇게 까졌는지 잠시도 쉬지 않고 청산류수마냥 말을 하였다.

《고래대감, 저기를 좀 보소.》

자라가 가리키는 봉우리쪽을 바라다보니 이상하게 생긴 나무들과 넝쿨들사이로 높고낮은 바위들이 들쑹날쑹 솟아있는데 집채만큼이나 큰 바위는 바람만 불어도 금시 굴러내릴듯 자기를 노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고래는 폭포를 뛰여오를 때 바위에 얻어맞았던지라 금시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자랑많은 자라의 입은 거품처럼 계속 터지기만 했다.

《산이 먼저 생겼는지 물이 먼저 흘렀는지 알수는 없으나 고래대감이 너무도 황홀하여 어리둥절해졌던 곳이 고모담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하수를 타고 삼천자나 뛰여올라 바위에 등허리를 얻어맞고 잠시잠간 쉬던 곳이 바로 박연이라오.》

고래는 자라의 말에 그만 깜짝 놀랐다.

《그럼 자네는 내가 오는것을 말짱 보고있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마중나올 생각을 않고 목청 터지게 불러대서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나?》

《내 고래대감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너무도 기쁘고 반가운지라 죽기내기로 달려왔건만 본시 내 걸음이 느리기로 유명한거야 다 아는거구 그것도 아주 빨리 온다구 온것이요. 내 대감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목터지게 불러댔건만 내 목소리를 박연폭포의 장쾌한 물소리가 삼켜버렸은즉 대감의 작은 눈과 둔탁한 귀로야 어찌 가려들을수 있었겠소.》

고래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래, 자네는 그렇게까지 멀리 볼수 있나? 눈이 참 희한하구만.》

고래는 자라와 함께 물길을 타고 천마산골짜기를 거슬러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서야 어느 세월에 다 가내겠나. 얼른 내 등에 업히게나.》하고 고래가 권하니《그렇게 빨리 가서야 이 좋은 경치를 어찌 다 볼수 있으리오.》하며 오히려 자라쪽이 핀잔이였다.

《우리가 헤염치는 이 물로 말하면 하늘의 이슬과 산의 정기를 모두 모은것이라 사슴의 뿔을 씻고 산삼의 뿌리를 우려낸 보물이여서 천상천하가 모두 보물로 치는것인데 이런 물을 먹으면서 온갖 풀과 나무와 짐승들이 오손도손 살아간다오.》

고래는 이제야 산천의 조화를 알아차린듯 입을 하 벌렸다.
자라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내 실은 토끼에게 속아서 이곳에 왔건만 옥계수의 맑은 물속에서 후회의 눈물을 가뭇없이 씻고나서 룡왕밑에서 다시 살고싶은 마음도 영영 달아나게 되였다오.》
자라의 말에 고래의 생각은 깊어졌다.
무적의 힘장사인 이 고래도 룡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구박과 조롱을 받으며 허리도 못 펴고 살아오지 않았던가!
생각깊은 고래에게 온갖 물고기들이 모여와 여기서 함께 살자고 조르는듯 몸을 간지렵혔다.
고래는 천마산의 달디단 물을 쭉 들이키기 시작했다. 그랬다가 버릇대로 코로 한길이 넘는 분수를 내뿜는데 개울이 당장 넘쳐날듯 하였다.
잠시후 고래는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고래가 눈을 떠보니 자라는 간 곳이 없고 온갖 새소리와 물소리만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내 귀가 좀 잘못되였나 하고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다보니 아슬히 높은 곳에 자라가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고래는 자기의 눈과 귀가 너무도 신기하여 자라를 소리쳐 불러보았다.
《고래대감, 빨리 올라오라구요.》
자라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똑똑히 들리였다.
참으로 신비한 천마산의 조화였다.
고래는 토끼생각도 룡왕생각도 다 잊어버린채 볼수록 아름다운 이 산천에서 만년을 오래오래 살고싶었다.
고래는 자기의 배가 바위우에 올라앉은감을 느끼며 생각에서 깨여났다.
《이보시우, 고래대감. 살갈이 빠른 대감께서 왜 여적 나를 따라오지 못하시우?》
그러나 고래의 큰 몸집은 좁은 골짜기에 끼워져 더는 오도가도 못하게 되고말았다.
《물이 얕아져 더는 갈수가 없네. 난 아무래두 여기서 살아야 할가보이.》
사방을 둘러보면 볼수록 참말로 아름다운 별세상인지라 고래의 마

음은 아주 즐거워졌다.

푸른 산빛이 비껴들어 더더욱 파아란 깊고깊은 물속에서 잉어며 메기 등이 사이좋게 춤을 추는데 산새들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기만 하였다.

고래는 자라가 앉아있는 봉우리우에 대고 소리쳤다.

《여보게! 이 몸이 너무 비둔해놔서 더는 갈수 없으니 자네가 자주 놀러오게나.》

자라가 소리쳐 화답했다.

《그야 물론. 헌데 내 걸음이 하도 답답하니 자주 다녀온대야 한달에 한번이나 되겠나. 바다에서 살던 우리가 예서 이렇게 만났으니 서로 의형제를 맺고 산좋고 물맑은 이 땅에서 천년토록 살아보세나.》

하여 고래는 자라와 함께 아름다운 명산 천마산에서 살게 되였다.

몇천몇만년이 지났는지는 알수 없으나 명승지 박연폭포의 물길을 거슬러오르느라면 관음사 조금 못미쳐서 고래바위가 우뚝 솟아있다.

그 옛날에 고래와 맺은 두터운 우정을 전하는가 대흥사를 지나고 남문을 지나치느라면 높은 봉우리우에 오늘도 앉아있는 자라를 볼수 있으니 그 봉이 바로 자라봉이다.

대흥산성 석각문

대흥산성의 석각문은 대흥사아래 북쪽에 쌓은 축대와 가지런히 있는 두개의 바위돌에 새긴 글을 말한다.

리조 정조7년인 1783년에 성을 보수한 정형을 기록한 석각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월 1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6월 초하루까지 공사를 끝내였는데 본 성벽이 42발이고 성가퀴가 480개이며 조총이 236자루, 관청건물이 204간, 담장이 143간이다. 두개의 돌우에 자세히 기록하여 후세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계묘년 행 관리중군 진산 류진풍이 글을 씀, 감독 이전 첨사 홍치복, 천총 고대겸》

이상의 대흥산성 석각문은 대흥산성의 건설 및 보수력사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있다.

스님의 《룡궁구경》

리 성 덕

고려 충혜왕때 있은 일이라 한다.

이때는 왕이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사냥놀이와 주색으로 세월을 보냈던탓에 나라에 기강이 바로 서지 않고있던 때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장사랑(고려때 종9품의 낮은 문관)벼슬을 하는 영태라는 사람이 광대놀이를 하며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과 함께 룡연(지금의 박연)구경을 왔던적이 있었다.

아직 이른 겨울철이라 양지쪽에는 해빛이 따스하였다.

젊은이들이 룡연을 구경하고 개울을 따라 올라가는데 길가 양지쪽에 자리잡은 농가집 해 잘드는 마루우에 크지 않은 싸리바구니 하나가 놓여있고 일여덟살되는 사내아이들이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지 바구니안을 들여다보며 떠들썩대고있었다.

《저게 뭐냐?》

한 애가 바구니안에서 꿈실거리는 뱀새끼같은 물건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룡의 새끼란다. 다치지 말아, 큰일난다.》

《헹! 그게 어디 룡의 새끼냐? 그저 뱀의 새끼같이 징그러운데…》

《글쎄 모르면 가만있어. 관음굴 스님이 저것을 룡의 새끼라고 하면서 바구니에 고이 넣어두고 기른다지 않니. 며칠전에 우리가 구경을 하자니까 〈룡의 새끼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재앙을 당할것이니 보더라도 조심히 보거라. 룡연에 사는 룡의 어미가 알면 제 새끼를 이렇게 잘 거두어준 은혜를 모를리 있겠느냐. 룡의 새끼를 잘 돌봐주면 너희들에게도 복이 차례질게다. 우리 절에도 큰 복을 내릴게고… 무슨 소원이나 다 이루어준다는 여의주라는 룡의 구슬만 얻으면 룡은 날개가 돋아 하늘로 오르고 사람은 사람마다 평생소원을 다 풀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왜 그만두겠느냐.〉 이러더란 말이다.》

이때 영태가 그 집앞으로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고 다가왔다.

《아니, 그것을 룡의 새끼라구 하더란 말이냐?》

《예, 관음굴 스님이 그랬어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어디 좀 보자.》
영태는 둘러선 아이들을 헤치고 바구니속을 들여다보았다.
보드라운 풀을 정성껏 깔아놓은 바구니 밑바닥에서 한뽐기장의 까맣게 윤기가 도는 새끼뱀 대여섯마리가 꿈실거리고있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머리를 기웃거리고있던 영태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 집이 그 스님네 집이냐?》
《네, 때식때에만 집에 들어오고는 언제나 관음굴에 나가있어요.》
《오냐, 알겠다. 그 스님을 룡궁구경을 시켜야겠구나, 룡을 그렇게 잘 돌보는분에게 룡궁구경을 시키지 않아서야 될말이냐.》
영태는 이렇게 혼자소리로 말하고나서 아이들과 헤여졌다.
영태가 광대패젊은이들에게 그 중을 한번 골려주자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때마침 심심하던 때라 한번 일을 멋지게 꾸며보자고 하였다.
물론 그 중을 한번 골려주려는 장난에 지나지 않는 일일뿐이였지 룡이라면 덮어놓고 믿으며 숭배하는 이 고장사람들을 깨우쳐주려는 뜻에서 그렇게 한것은 아니였다.
그들의 눈에도 뱀의 새끼가 분명한데 그것을 룡의 새끼라고 하면서 혹시나 복이 차례질가 하여 기다리고있는것이 더없이 어리석은 일로 보였던것이다.
약속된 그날이 오자 영태는 웃도리를 홀랑 벗고 온몸에 오색찬란한 물감으로 룡의 비늘을 그리고 밤늦게 남몰래 그 중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였다.
등잔불이 희미한 속에서 《거 누구요?》하는 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태는 창문밖에서 대답하였다.
《나는 룡연에 사는 룡인데 대사는 행여 놀라지 마시오.》
《예, 룡이라니? 아니 원, 이럴수가…》
중은 다급히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창문앞에는 온몸에 번들거리는 비늘이 뒤덮인 룡이 황금색뿔이 삐죽삐죽 돋아난 모자를 쓰고 서있는데 입주위에는 긴 수염까지 드리워져있었다.
중이 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자 룡은 사람들의 눈에 뜨이면 안되

는 까닭에 밖에서 요긴한 말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러자 중은 룡앞에서 절을 한 후 신하가 임금을 맞이하듯이 머리도 들지 못한채 엎드려 말을 듣기 시작했다.
《대사가 내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돌봐준다는 말을 듣고서 고마와서 찾아왔소.》
그러자 중은 머리를 조아리며 《어찌 살생을 금하는것을 계률로 삼는 승려의 직분을 순간이나마 잊을수 있으며 더구나 룡신의 큰 보호와 덕화를 입는 사람으로서 밖에 나온 어린 룡들을 보살피지 않을수 있겠소이까.》하며 감지덕지하여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고마움을 룡왕님께 아뢰였더니 룡왕님의 말씀이 그 스님을 꼭 룡궁으로 모시고오라고 하시였소. 래일모레가 그믐날인데 밤이 깊을 때 내가 다시 와서 대사를 모셔갈것이니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주시오. 남들이 아니볼 때 잠시 문밖으로 나와서 알려서는 안될 룡궁의 기밀을 감히 말하였으니 누구에게도 이 말을 루설하여서는 안될것이요. 그럼 난 그만 가겠소이다.》
이 말을 마치고 룡은 종적을 감추어버리였다.
중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았으나 룡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중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한채 룡궁에 들어가 큰 보물을 얻어오는 그야말로 룡꿈만 꾸었다.
그믐날이 오자 중은 관음굴에 나가 관음보살에게 아침기도를 서둘러 드리고나서 룡궁으로 갈 준비를 갖추었다.
옷주제가 변변치 못하다고 룡왕이 업신여길것 같아서 장농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먹베장삼을 걸치고 머리에는 송낙을 눌러쓰고 벽에다 쪽거울을 걸어놓고 앞뒤 모습을 수십번이나 비쳐보았다.
룡왕에게 인사는 어떻게 할가?!
두루 생각해보다가 승려는 부처님앞에서만 엎드려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아무리 룡왕이라 해도 불교세계의 왕은 아닌 까닭에 두손을 맞잡으며 허리를 간단히 굽히는것으로 인사를 하여야 지체에도 어울리고 위신도 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룡왕이 루추하다고 흉을 보지 않도록 모든 행동거지를 정중히 하려고 쪽거울을 들여다보며 인사련습을 몇번이나 해보았다.
그러느라니 어느새 저녁어스름이 깃들었는지도 몰랐다.

중은 룡왕이 차려주는 룡궁의 산해진미가 가득한 연회상을 받을 때 난생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생각으로 저녁도 굶고 룡궁에 들어갈 시각만을 기다리였다.

밤이 썩 깊어서야 창문을 조심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옳지, 이제야 룡이 나타났구나!)

중은 천천히 거드름을 피우면서 문밖으로 나섰다.

달도 없는 그믐밤인지라 룡의 모습은 똑똑히 보이지 않았다.

《자 대사님, 어서 업히시오.》

룡은 잔등을 내대며 무릎을 꿇고 앉았다.

중은 룡궁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지라 할수없이 룡의 잔등에 업히우지 않을수가 없었다.

《대사께서는 이제 먼길을 가야 하고 또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오니 내 몸을 꼭 잡으시오.》

룡은 나는듯이 어디론가 달려가고있었다.

중은 룡의 미끈거리는 비늘이 있는 몸뚱이를 꼭 붙잡았다.

한참 산길로도 가고 개울가로도 가고 하더니 룡궁으로 가는 길목에 이르렀는지 《이젠 나를 붙잡지 마시오. 이제 눈을 깜박할 동안이면 룡궁에 들어갈것입니다.》하고 룡이 말하였다.

중이 붙잡고있던 손을 풀자 영태는 미련한 중을 룡연의 깊은 물속에 첨벙 던져버리고 자취를 감추었다.

다음순간 중은 룡궁으로 들어가는가보다 했더니 옷은 물에 함뿍 젖고 코와 귀로 물이 쓸어들어와 숨쉴수가 없어 어쩔줄을 몰라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휘도는 물살에 밀려서 룡연폭포아래로 굴러떨어지면 살아남기를 바랄수도 없게 된다.

중은 있는 힘을 다하여 허우적거리며 폭포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위를 붙잡고 저녁밥도 먹지 않아 홀쭉한 배가 불룩해지도록 맹물만 들이키면서 물속을 기여서 겨우 기슭에 붙어 물을 줄줄 흘리며 기여나왔다.

물밖에 나와 살펴보니 룡연의 웃쪽못이였다.

집은 코앞에 있는데 룡이란 놈이 잔등에 업고서 먼길을 빙빙 에돌아온것이 분명하였다.

룡궁으로 가는 꿈에서 깨여나 무릎을 절뚝거리며 엉금엉금 기여서 겨우 집으로 돌아온 중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불을 펴고 누워 끙끙 앓기 시작하였다.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룡연의 룡이라고 자칭한 어떤 놈에게 속히운것이 분명하였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어디에다 하소연할수도 없었다.

그 이튿날 영태네 광대패젊은이들이 중의 집으로 찾아왔다.

《스님, 어디가 편치 않으시오이까?》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누워서 끙끙 앓고있는 중을 보며 젊은이들은 천연스럽게 물었다.

《글쎄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겠나? 룡의 새끼를 성의껏 길러주는데도 룡연의 물귀신이 망녕이 들었는지 나를 이렇게 속여먹네그려.》

《아무래도 그것이 룡의 새끼가 아닌것 같소이다. 아무리 짐승이라해도 제 새끼를 그렇게 길러주는 스님을 그다지도 박대할수가 있겠소이까.》

아무 대답도 없이 끙끙 앓는 소리만 내던 중이 떠듬떠듬 물었다.

《헌데… 임자네들은 룡이 사람모양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나? 그게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일세.》

《그야 스님께서 아시지 룡을 보지도 못한 우리가 그것을 알수가 있나요? 그래도 스님은 룡을 보기까지 하고 또 그 잔등에 업혀서 룡궁문어귀까지 갔다왔으니 참 대단하십니다.》

《아니, 틀림없이 온몸에 룡의 비늘은 번들거렸지만 사람의 모양이고 사람의 말을 하더란 말일세.》

《하하하… 그것 참 아쉽구나! 그 룡을 우리가 맞다들렸더라면 여의주를 내놓지 않고서는 무사히 보내지 않았을텐데… 스님이 너무 마음씨가 고운탓에 그런 액운을 만났소이다.》

그다음날부터 룡의 새끼라고 하던 새끼뱀을 넣어두었던 바구니가 그 집 퇴마루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것은 먼 옛날인 고려 말기에 박연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 룡에 대한 숭배심과 미신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던가를 능히 짐작할수 있게 하고있다.

자연과 사회현상을 어떤 초자연적힘과 그것의 작용에 의한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비과학적이고 미개한 인식의 산물인 미신의 백해무익함을 깨닫게 하는 한토막의 이야기라고 하겠다.

계 절 폭 포

전 광 원

세상만물에 생을 주는 봄은 경치 아름다운 천마산에도 찾아들었다.

그늘진 바위밑에는 아직도 얼음이 녹지 않았는데 벌써 양지쪽엔 이름모를 꽃들이 다문다문 피여있었다.

그 꽃들속에서 한송이의 꽃을 뿌리채로 담쏙 뽑아들고 골안을 따라 천마산으로 오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으니 그가 금천에 사는 쇠웅이라는 총각이였다.

그리 작지 않은 키에 몸에는 담비가죽옷을 얇게 겹쳐입고 손에는 창을 든것으로 보아 사냥군이 분명한데 짐승의 자취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발자욱이 찍힌 길을 따라 걷다가 꽃만 보면 멈춰서서 흥얼거리는 모양이 봄꽃향기에 취한 거동이였다.

절묘한 기암괴석에 반했는지 아니면 주절거리는 물소리를 듣는것인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산을 오르던 쇠웅의 걸음이 들쑹날쑹한 산비탈앞에서 문뜩 멈춰섰다.

《바로 여기다, 여기…》

쇠웅은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며 몇달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았다.

…

그날은 흰눈이 강산같이 내린 날이였다.

설을 며칠 앞둔 이날도 쇠웅은 어깨우에 창을 꼬나들고 사냥길에 나섰다.

언제 어느 시각에 어떤 짐승들과 맞다들어도 순간에 창을 쓸수 있는 자세였다.

어느때인가 창이 무거워 잠시 내리우고 가다가 갑자기 맞다든 맹수앞에서 목숨까지 잃을번 한 일이 있은 후로는 언제 어느때나 이 자세로 사냥길에 나섰다.

짐승의 자취를 찾아 눈덮인 산발을 몇이나 넘었을가, 갑자기 눈앞에 큰 메돼지가 나타났다.

굶주린 메돼지가 눈속을 뚜지며 자기앞으로 다가오는 순간 쇠웅은 재빨리 나무뒤로 몸을 숨기며 그놈의 정수리를 향해 창을 날렸다.

창은 메돼지의 정수리에 정확히 맞았으나 딴딴한 가죽을 뚫지 못하고 그만 튀여나오고말았다. 자기를 발견한 그놈이 꽥 소리를 지르며 날창같은 이발이 달린 주둥이로 받으려드는 찰나 쇠웅은 번개같이 몸을 날려 그놈의 두귀를 움켜잡고 대가리를 언땅에 짓쪼았다.

메돼지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그놈은 더욱 용을 쓰며 날뛰였다.

쇠웅은 메돼지와 한데 엉켜 골짜기로 굴러내려갔다.

찢기고 터지고 찔리우고 마지막기운마저 다 뽑은 쇠웅은 메돼지와 최후의 의지를 겨루고있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승산이 날것 같지 않았다.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은 쇠웅은 메돼지와 자기 몸이 노가지나무에 걸려있다는것을 느꼈을 때 이 나무를 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다.

메돼지도 힘이 진할대로 진했는지라 목을 늘인채로 눈만 껌벅거렸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쇠웅은 노가지나무의 두가지를 엇걸어 있는 힘껏 들입다 조였다.

꽤-액- 하는 비명소리가 산판에 메아리쳤다.

그놈이 용을 쓸적마다 나무뿌리가 움씰거렸으나 드디여 메돼지는 몸을 찔 늘어뜨리고 잠잠해지고말았다.

해는 벌써 서녘으로 기울어가고있었다.

온몸의 힘을 다 뽑은 쇠웅은 메돼지를 눈구뎅이에 묻어둔채 고개너머에서 잃었던 창을 찾아들고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쇠웅은 눈썰매를 끌고 이백근이 실히 잘될 메돼지를 끌어오려고 산으로 올랐다.

메돼지를 묻었던 곳에 이르러 눈을 파헤치던 쇠웅은 그만 깜짝 놀랐다.

메돼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던것이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자욱과 함께 드문히 흘린 피자욱이 동쪽산마루로 뻗어있었다.

창을 찾아들고 다시 와서 메돼지의 멱을 아주 끊어놓지 못한것이 못

내 후회되였다.
쇠웅은 창을 비껴들고 다시 메돼지를 추격해나갔다.
메돼지의 흔적은 눈덮인 산을 넘고 또 넘어 천마산쪽으로 나있었다.
흔적을 따라 천마산에 이르러 골짜기로 들어서는데 분명 사람의 신음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귀를 강구고 소리나는 곳으로 내려가보니 털가죽옷을 입은 한 총각이 피투성이가 된채로 눈속에 쓰러져있는것이 아닌가.
메돼지와 사람의 발자국이 마구 뒤섞여있는것으로 보아 결투를 벌린것이 분명하였다.
쇠웅은 더 생각할새 없이 총각을 둘쳐업었다.
고개를 하나 넘어서니 눈앞에 산막이 하나 보이였다.
발자국은 분명 이 산막집에서부터 시작된것이 분명하였다.
드디여 문턱에까지 이른 쇠웅이 다급히 주인을 찾자 문이 열리더니 총각의 어머니인듯싶은 녀인이 뛰쳐나왔다.
《아니, 네가 이게 웬 일이냐. 으응?》
어머니는 미처 쇠웅에게 인사차릴 경황도 없이 그의 등에 업혀있는 총각을 흔들었다.
《삼홍아, 정신차려. 삼홍아!》
쇠웅이 총각을 아래쪽에 눕히고 더운 물을 뜨려 부엌으로 내려가니 곰열을 찾아든 어머니가 총각의 얼굴에서 피자욱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리였다.
《처녀의 몸으로 사냥, 사냥하더니 끝내…》
쇠웅은 깜짝 놀라 그만 물그릇을 떨굴번 하였다.
(처녀라니, 그럼 이 총각이 사내가 아니란 말인가?!)
쇠웅의 심장은 왜서인지 후두둑후두둑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곰열을 푼 더운 물을 딸의 입에 넣어주자 잠시후 처녀가 기운을 차렸는지 홍조를 띄우더니 드디여 두눈을 바시시 뜨기 시작했다.
정신을 가다듬던 처녀는 그 무엇을 알아차린듯 얼굴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주 신음소리를 내였다.
처녀의 신음소리는 웬일인지 쇠웅이의 가슴속 깊은 곳을 마구 쑤셔놓았다.

쇠웅은 어머니의 어깨너머로 처녀의 모습을 얼핏 넘겨다보았다.
무엇을 말하고싶으나 아픔을 참느라고 꼭 다문 입술, 메돼지와 싸우느라 할퀴우고 피멍이 든 흔적이 드문드문 보이는 동그스름한 얼굴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눈으로 하여 더욱 오돌차보였다.
쇠웅은 못 볼것을 본것처럼 가슴이 뛰놀고 얼굴이 확 달아올라 슬며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갑자기 바람이 확 일더니 나무가지에 쌓였던 눈가루가 쇠웅의 얼굴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하지만 처녀를 업었던 두어깨는 마냥 달아올라 온몸이 화끈거렸다.
이때 눈앞에 산길을 타고 메돼지를 끌고오는 장수같은 로인이 나타났다.
《웬 길손인데 들어가지 않고 문앞에서 얼른거리나? 집이 루추해도 어서 들어가세.》
로인의 어깨에는 활과 전통이 메워져있고 바줄에 묶이운 메돼지의 두눈에는 화살이 박혀있었다.
로인은 끌고온 메돼지를 마당가에 놔둔채 찬바람을 일쿠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쇠웅은 메돼지가 무척 낯익은지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귀는 찢어져 구멍이 뚫려있었고 부러진 송곳이사이로는 피흘린 자욱이 력력했다.
대가리를 만져보니 창에 맞아 툭 불거진 뼈가 손에 느껴졌다.
(내가 잡았던 그 메돼지가?! 그러니 나때문에 저 처녀가?…)
이때 로인이 문을 벌컥 열고 나오면서 쇠웅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보게 젊은이, 정말 고마우이.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쇠웅은 로인의 권고를 만류하며 말했다.
《아니… 저… 저는 빨리 돌아가야 할 몸이오이다.》
그러자 로인은 쇠웅의 어깨를 무작정 떠밀면서 투박하나 진정어린 어조로 말하였다.
《이보게 총각, 저길 좀 보라구, 해가 산말기에 개미허리만큼 걸려있는걸. 원, 고집두 분수가 있지.》
쇠웅은 그날 밤을 뜬눈으로 지새였다.
산골의 긴긴 밤이라지만 꿈같이 지나간 아쉬운 밤이였다.
세사람의 손탁에 의해 너부러진 메돼지를 잡아놓고 로소동락하며 술

을 마시던 그밤 쇠웅이가 온밤 잠 못 든것은 삼홍이의 신음소리때문만이였던가.

이튿날 아침 떠나는 자기를 바래려고 아픈 몸을 일으키고 웃음짓던 처녀의 모습에서 쇠웅은 그때 처음으로 삼홍이의 방긋 벌려진 입을 보았다.

좀 부석부석한듯싶은 정기도는 두눈은 쇠웅에게 그 어떤 진정을 말하는듯 하였으니 쇠웅은 사나이심장으로 그 모든것을 다 읽을수 있었다.

…

그리하여 쇠웅은 오늘 이렇게 제나름의 심장속의 약속을 지키려 천마산으로 들어오는 길이였다.

헤여지던 그날 삼홍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천마산을 내려 성거산 말기까지 따라서며 서운한 마음으로 쇠웅이를 바래주었었다.

절대로 딸을 줄수 없다는 로인의 말에 쇠웅의 몸이 비칠거렸다.

헤여진 그날부터 얼마나 그려보고 또 그려보던 삼홍이였던가.

사냥을 하면서도, 꿈속에서도 헛소리로 불러보던 삼홍이였다.

온몸의 피가 꺼꾸로 솟구치며 사냥군의 기질이 살아올랐다.

《두 어르신께서 정 그렇게 나오신다면 내 기어이 랑자를 업어라도 가겠소이다.》

쇠웅은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다.

《에끼, 이 고현놈 같으니라구. 어른들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말버릇이! 우리 애가 무슨 과부라고 제 맘대로 업어간단 말이냐?

어쨌든 자네와 우리 애는 제비와 기러기야.》

그날 밤 쇠웅은 산막집문밖에서 쪽잠을 잤다.

아니, 잠이 아니라 장밤을 새웠다.

따뜻한 봄을 찾아오는 제비는 과연 누구며 가을에 왔다가 봄이면 떠나는 기러기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럼 나와 삼홍이는 영원히 함께 살수 없는 기러기와 제비란 말인가.

《여보게, 잠은 여기 들어와서 자라구. 아무리해두 잠까지야 밖에서 자게 하겠나?》하며 어머니가 다정히 잡아이끌었으나 쇠웅의 그 고집불통을 어찌 이기리오.

날이 새자 삼홍이의 집이 마주보이는 건넌산바위곁에 귀틀막을 지어놓은 쇠웅은 그날부터 계속 삼홍이네 집만을 지켜보았다.

대끌에서도 삼년이라고 쇠웅이의 굳은 마음은 누구도 흔들수 없었다.

굴러가는 닭알도 세워질 때가 있거늘 처녀의 아버지가 그만에야 쇠웅을 불렀다.

《자네 척 보기엔 량순한것 같은데 성정이 칼날 한가지로구만. 내 마음에 들기는 하다만 자네 소원이 정 그러하다면 한 이태후에 다시 와보게나.》

쇠웅은 절절한 눈빛을 띠고 로인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예로부터 일러왔다지만 하늘이 준 인연으로 우리 마음은 벌써 서로가 잇닿았고 뗼수 없는 정이 온 몸의 마디마다 사무쳤으니 천하의 금옥같은 딸일지라도 부디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백년을 길이길이 원앙처럼 살겠나이다.》

로인은 눈언저리에 감동의 빛을 언듯 띠우더니 다시금 엄한 표정으로 쇠웅에게 말했다.

《우리 애를 사냥길에서 얻은 랑자로만 여기지 않고 귀히 아껴준다면 내 다시 생각해보겠네만 그보다 앞서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면 당장이라도 혼례를 치러주겠네.》

로인의 이 말에 쇠웅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저기 보이는 성거산중턱의 높은 절벽이 보이나?》

로인이 가리키는쪽을 바라보던 쇠웅은 기뻐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까짓 절벽쯤은 백번, 천번도 오를수 있는 쇠웅이였던것이였다.

로인의 말소리가 다시금 울렸다.

《이곳의 경치가 자못 절묘하여 사람이 살아가기가 세상에 이를데없으나 물이 적은것이 흠일세. 저기 성거산절벽에 물이 흘러 아름다운 폭포가 또 하나 생겨난다면 이 산천이 더없이 아름다와질것인즉 자네가 그 일을 감당해준다면 내 딸뿐아니라 집까지 다 통채로 내여줄 생각이네. 그렇게 할수 있겠나?》

쇠웅은 입을 하 벌린채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이거야말로 음지를 양지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재주를 부린다는데 옛말에 있는 은도끼나

금도끼가 있다면 몰라도 창 하나밖에 손에 쥔것이 없는 쇠웅이로서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였다.
풀끝에 앉은 새처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던 쇠웅은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아버님, 제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다음날부터 쇠웅은 절벽우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제 아무리 깊은 땅속이라도 물은 있기마련이니 쇠웅이가 창끝으로 절벽을 내리칠 때마다 성거산골안이 쩌렁—쩌러렁— 울리였다.
그 메아리는 삼홍의 가슴에도 짜릿하게 들려왔다.
벌써 몇달째나 그 소리를 듣고있던 삼홍은 어느날 드디여 아버지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상리치가 엄연한지라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는 평생을 다 바쳐도 오히려 부족함을 아버님께서도 늘 저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았나이까. 소녀 이미 그 사내에게 모든것을 다 바치자고 결심했사오니 아버님께서는 널리 헤아려주시옵소서.》
딸의 눈물어린 진정에 가슴이 짜릿하여 조용히 듣고만있던 로인이 말했다.
《수수대도 아래웃마디가 있거늘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라. 인륜대사를 한번 그르치면 평생의 한이 될터인즉 너는 입다물고 아비가 하라는대로 해라. 이 아비에게도 깊이 생각한바가 있어서 그러는것이거늘 어린 네가 어찌 그것을 다 알수 있겠느냐. 그 총각이 진짜 사내라면 이제 곧 폭포가 쏟아져내릴것이니 그때를 기다려보자꾸나.》
어느덧 절벽을 뚫기 시작한지도 석달하고 십여일이 지나갔다.
절벽우에는 깊은 웅뎅이가 나졌고 쇠웅의 땀이 고였는지 물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날도 쇠웅은 무디여진 창을 바꿔쥐고 바위를 뚫고있었다.
얼굴은 볕에 타서 검실해졌는데 온몸은 물주머니요, 두손바닥은 온통 장알투성이였다.
중낮쯤 되여서 쇠웅이가 창을 내려치는데 펑끗 하고 번개가 일었다.
창끝이 조화를 부리는가 했더니 우르릉— 꽝! 천둥소리에 이어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쇠웅은 비줄기속에서 달아오른 몸을 시원하게 식히며 자기의 귀틀막으로 돌아왔다.
비는 며칠째 멎지 않고 계속 퍼부었다.
온 골안이 물소리로 가득찼다.
장마철이 시작된듯 했다.
그동안 쇠웅은 막에 들어앉아 닳아진 창끝을 다스리며 비가 멎기만을 기다리고있었다.
드디여 비가 멎고 맑은 하늘에 해가 솟아오르자 성거산에 칠색령롱한 무지개가 아름답게 비끼였다.
쇠웅의 간절한 소원을 비껴싣고 무지개는 삼홍의 집쪽으로 뿌리를 내렸다.
맞은편 삼홍의 집에서도 온 식구가 나와서서 성거산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로인의 목소리가 골안에 메아리쳐 들려왔다.
《여보게 사위, 어서 이리로 오게나.》
쇠웅은 제 귀를 의심했다.
삼홍의 아버지가 분명 자기를 사위라고 부른것이였다.
쇠웅은 너무도 기쁜김에 허청거리며 다급히 삼홍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삼홍의 어머니도 마주 달려나와 쇠웅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게, 백날동안 흘린 자네의 땀이 끝내 폭포를 만들고야말았구만!》
쇠웅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졌다.
다만 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이따금씩 자기를 바라보며 정겨운 웃음을 짓고있는 삼홍이만 쳐다볼뿐이였다.
로인이 성거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길 보게나. 폭포가 콸콸 쏟아지고있지 않나!》
쇠웅이 머리를 드니 아, 사랑의 폭포, 인정의 아낌없는 폭포가 온 세상에 대고 소리치고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자네는 창으로 바위가 아니라 하늘에다 구멍을 내고말았네그려, 하하하!…》
삼홍이의 얼굴에도 기쁨과 사랑의 눈물이 가랑가랑 맺혀있었다.
쇠웅의 남아다운 기질을 키워주려고 웅심깊은 마음을 기울인 아

버지!

삼홍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참뜻을 이제야 안듯싶었다.

폭포는 그들의 심장의 터침인양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리며 더욱 세차게 쏟아져내렸다.

《삼홍이!》

쇠웅은 장알박힌 사나이의 손으로 처녀의 부드러운 손을 감싸쥐였다.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나이다.》

마디마디 뜨겁고 정에 젖은 목소리였다.

부끄러워 빨개진 삼홍이의 얼굴너머로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서있었다. …

이때부터 해마다 칠팔월 장마철이면 성거산에 박연폭포와 꼭같은 폭포가 쏟아지니 그 이름을 《계절폭포》라고 부르고있다.

계절폭포에 화답이라도 하듯 관음사 뒤산 삼홍이네가 살았다는 집터 웃골짜기에서도 그보다 좀 작아보이는 계절폭포가 흐르는데 여기에 깃든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을 아는이들은 그 폭포이름을 《삼홍폭포》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관음사 7층석탑

관음사 7층석탑은 개성시 박연리에 있는 관음사의 대웅전앞에 세워져있다.

관음사석탑은 화강석을 다듬어쌓은 4각7층탑으로서 높이는 약 4.5m이다.

기단돌의 크기는 높이가 27㎝이고 길이, 너비가 각각 1.6m이며 웃부분은 원형으로 가공되였다.

관음사 7층석탑은 탑몸을 우로 올라가면서 보기좋게 차례줄임을 주어 경쾌한감을 주고있다.

매층의 지붕돌은 처마를 길게 하고 그끝은 들리우게 하였으며 탑몸의 몸돌에는 아무런 조각도 하지 않았다.

관음사 7층석탑은 고려시기석탑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주는 문화유산이다.

박연등산놀이

리 성 덕

박연은 명승지로도 유명하지만 여러가지 민간풍속들이 많이 전해지는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전해지는 민간풍속들중에는 북성귀(혹은 북성기)라는 등산놀이풍속도 있다.

북성귀는 말그대로 북쪽의 성을 돌아온다는 말로서 개성사람들은 물론이고 개풍, 장단일대의 사람들도 박연폭포탐승을 목표로 하여 떠났다가 대흥산성을 에돌아 돌아오는 왕복 100여리길에 여러날 품을 들여야 하는 등산운동놀이였다.

이 등산놀이가 언제부터 유래되였는가는 지금에 와서 딱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퍽 옛날에도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했고 지금에 와서도 《오랜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하는것을 보면 그 유래가 자못 깊고 오래며 옛적부터 상무기풍을 세우고 몸단련과 운동을 즐겨하던 우리 인민들의 고유한 민족적기질에도 맞는 등산운동놀이라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북성귀는 마을과 부락끼리도 하고 가족, 친척끼리도 하고 량반들인 경우에는 같은 서원, 서당출신이거나 같은 스승문하에 속하거나 같은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들과 유생, 문인들, 서리, 아전들끼리도 하며 계를 뭇고 같은 직업에 매여사는 도공들, 화공들, 여러가지 쟁인바치들, 사당패들, 심지어 투전군들이나 술친구들까지 뜻이 맞고 취미가 맞는 사람들끼리 많아서 30～40명, 적으면 10여명씩 보통 2～3일, 또는 4～5일씩 기간을 정하고 해마다 년례적으로 하는 등산놀이였다.

날씨가 한창 좋을 때는 북성귀행렬이 하루에도 두세패씩 동대문으로 빠지거나 비둘기성재를 넘어 북쪽으로 향한다.

행렬의 차림새도 각양각색이였다.

량반부자들은 사인교에 건듯 올라앉아 전후좌우로 수많은 시중군들

을 거느리였다.
앞에는 잡이군(악기를 잡은 사람) 7～8명이 풍악을 울리며 나가고 그뒤로는 갖가지 음식과 삿자리, 풍막, 술방구리를 지고 인 집군들과 하인들, 노래부르고 술시중을 들 기생들까지 해들거리며 줄레줄레 따라선다. 등산놀이를 자기 집과 가문, 자기 패의 위세를 뽐내고 시위하는 기회로 삼고 한껏 거드름을 피워보는 꼴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떠날 때나 돌아올 때도 젊은 자식들과 친척들, 관하, 문하의 사람들이 멀리까지 쓸어나와서 엎드려 큰절로 맞고 보내면서 분주탕을 벌리군 하였다.
그러나 일반백성들의 북성귀행렬은 차림새도 소박하고 등산놀이 전기간에 오가는 뜨거운 마음과 인정 역시 아름답기 이를데없었다.
늙은이를 존대하고 부모에게 효성하고 이웃, 친척간에 화목하고 서로 돕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풍습으로 점차 굳혀지는것이였다.
백성들이 물론 가마를 타거나 하인을 부리는 일이 있을리는 만무지만 가마에 올라앉아 일산을 받쳐들고 남의 어깨에 실려 산으로 오르내리는것이 무슨 등산놀이라 하겠는가.
백성들의 행렬에서는 나이든 늙은이들은 빈몸에 지팽이정도로 차림새를 간편히 하고 그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자진해서 짐을 지고 나서며 행렬의 흥취를 돋구는 잡이군들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당한 북성귀참가자들로서 스스로 퉁소를 불고 북을 치면서 징을 울리는 일을 맡아서 할뿐이였다.
백성들의 행렬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별이 있고 인륜도덕상 웃사람과 아래사람이 있을뿐 빈부의 차이나 관직의 높낮음 같은것은 셈에도 없기때문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훗훗한 인정만이 뜨겁게 흘러넘치였다.
리조 말엽의 한가위가 지난 어느해 가을날이였다. 계절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파아란 하늘이 높이 들린 속에 야장쟁이들이 모여산다고 해서 무쇠마을이라고도 하는 무시울의 북성귀행렬은 화장사고개를 넘어섰다. 최서방네 량주도 마을사람들과 함께 행렬에 섞여가고있었다.
집을 떠날 때에 보패와 장쇠가 어머니, 아버지시중을 들며 따라가겠다는것을 마다하고 나선 이들이였다. 쉰을 넘긴 나이이건만 아직 건

장한 최서방과 마누라 리씨가 질것을 지고 일것을 이고 먼길에 나섰지만 마을사람들이 모두 살펴주고 도와주기에 어렵지 않게 행렬을 따라가고있었다.

무시울 북성귀행렬은 화장사에서 점심을 치르고 령통사에서 하루밤을 묵으면서 등산준비를 면밀히 갖추었다. 다음날은 로정중에서 제일 가파롭고 험한 천마산 애기봉을 에돌아넘어야 하기때문이였다. 이튿날 아침 무시울사람들은 일찌기 짚신감발을 든든히 하고 이고지는 짐들도 간편히 꾸려가지고 기세를 올리며 등산길을 가고있었다.

하늘을 떠이고 높이 솟은 천험의 천마산줄기와 맞은쪽에 길게 뻗은 성거산줄기를 두팔로 껴안듯이 하고 옛성인 대흥산성이 둘러쳐있었다.

대흥산성의 남문을 통과하면서 살펴보니 인달봉 동쪽에서 쿵챙, 쿵챙 풍물소리가 요란히 울려왔다.

장단고을쪽에서 오는 북성귀행렬이 대흥산성 동문을 바라고 가는 모양이였다.

어느쪽에서 와서 어느 문으로 들어서든지 관계없이 성안으로 들어선 행렬들은 다같이 맑고 시원한 골계수를 따라 내려가면서 대흥사, 관음사를 거쳐 로정의 마감지점인 박연폭포에 이르게 되여있었다.

이 박연폭포야말로 북성귀의 최종목적지이고 이를 보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는 명승지였으니 내 나라, 내 고향자랑으로 가슴을 뜨겁게 태워보는것이 북성귀의 참멋이고 등산놀이에 나설 때 누구나 품는 소원이였다.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고나면 누구나 다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고들 하였으니 북성귀를 해야 죽어서도 극락에 간다는 말이 나돌게 된것도 바로 그때문이였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아직도 험하고 먼 등산길을 헤쳐가야 했다.

무엇보다도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에돌아나가는 안돌이, 지돌이구간을 지나야 했던것이다.

발아래가 수십길 벼랑이라면 머리우에는 하늘에 치닿는 바위벼랑투성이인데 두발아래 놓인 길은 겨우 물동이 하나를 들여놓을만 할뿐이였다.

그래서 부득이 벼랑을 안거나 등지고 모로 서서 게걸음으로 지나는수밖에 없으니 벼랑을 안고도는것을 《안돌이》, 등에 지고 도는것을

《지돌이》라고 부르는것이였다.
빈몸으로도 오금이 저려서 발을 옮길수가 없는데 하물며 짐을 이고 지고 이 벼랑을 돌아나가야 하니 오죽이나 아슬아슬할터인가.
모든 일에서 담이 큰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최서방도 벼랑아래를 한번 흘끔 내려다보고서는 저도 모르게 오금이 지르르 저려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최서방은 내가 언제 이런 겁쟁이가 됐나 하는 생각에 불쑥 화가 치밀어 흥 하고 코방귀를 불고나서 어험! 큰 기침 한번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걱정은 마음 약한 마누라가 과연 저 길을 가낼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마누라가 머리에 인 짐들을 훌쩍 집어내려 자기 등에 지고 《발아래는 보지 말구 나를 따라서우.》한마디하고는 벼랑쪽에 바싹 붙으면서 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나 리씨는 두눈을 꾹 감고 《아이쿠!》소리만 내지를뿐 최서방의 옷자락을 꽉 틀어쥔채 두다리를 덜덜 떨면서 움직일념을 못했다. 먼저 지나간 젊은축들이 깔깔 웃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로 부축해주었다.
《보패 어머니, 용기를 내세요. 천당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겠나요.》
먼저 벼랑길을 지나간 늙은이들도 수염을 내리쓸며 껄껄거렸다.
《허허, 령감님옷자락에만 매달리지 말구 어서 땅에 붙은 발을 떼시우. 염라대왕께로 가겠는지 극락세계로 가겠는지 여기서 결판이 납네다. 두눈을 딱 감구 살살 게걸음을 치시우. 그런다구 웃을 사람도 없으니…》
동네젊은이들과 로인네들이 부추겨주는 말과 우스개소리에 위안을 받으면서 가까스로 벼랑길을 다 지나오자 리씨는 그만에야 휘유—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였다.
《됐시다. 아무렴 그렇겠지. 한창시절에 널뛰기, 그네뛰기에서 해마다 상을 타던 보패 어머니가 그럴수가 없지, 허허… 이젠 힘든 고비는 다 넘겼시다.》
일행은 이렇게 웃고 떠들며 안돌이, 지돌이구간을 지나 평퍼짐한 곳에 삿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쉬면서 다정히 음식을 나누었다.
숨가쁜 등산길을 걸은 뒨지라 모든 음식이 꿀같이 달고 넘긴 음식

들은 다 살로 갈것 같았다.
  일행은 대흥산성 남문을 지나고 대흥사 옛터도 지나 대흥폭포며 청량폭포를 바라보면서 관음사에 들려 관음굴과 석탑이며 대웅전도 돌아보고 하루밤 지낸 후 북성귀로정의 마감이고 절정인 박연폭포를 향해 떠났다.
  드디여 폭포에 이르러 수십길 벼랑으로 곧추 날아떨어지는 폭포수를 아래서 올려다보기도 하고 우에서 내려다보기도 하였으며 범사정에 올라 옆에서 바라보기도 하였다.
  보는 곳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는이의 마음에 따라서 또한 다르게 보이는것이 바로 박연폭포였다.
  장쾌한가 하면 시원스럽고 장엄한가 하면 용맹스럽게도 보이였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확으로 쾅! 쾅! 쏟아져내리는 물소리는 우뢰소리같기도 하고 노한 울부짖음같기도 하며 천군만마가 내달리는 말발굽소리같기도 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를 떠나서 내 나라, 내 고향을 말할수 없듯이 박연의 절경을 떠나서 어찌 북성귀를 말할수 있으랴.
  누군가가 황진이가 지었다는 《박연폭포》라는 시를 읊는 소리가 들리였다.
  남의 나라 명산보다 내 나라 박연폭포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높은 읊조림이 그래 나라사랑, 고향사랑이 아니란 말인가.
  그래 이 큰 자부심과 자랑이 황진이라는 한 녀인의 가슴속에서만 소용돌이친 감정이란 말인가.
  박연폭포에 다녀간 사람이 천이면 천번, 만이면 만번 울렸으리라, 나라사랑으로 천만사람의 심장이 쿵쿵 뜨겁게 울렸으리라!
  오호, 금수강산아, 고향산천아!
  너는 그처럼 아름답기에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낳고 아름다운 풍속을 낳고 영웅도 낳고 애국을 낳아 키우는것이로구나!
  최서방은 말로는 어떻다고 표현할수 없는 깊은 감동속에 하루를 보냈다.
  이래서 사람마다 죽기 전에 이곳을 다녀가야 한다면서 해마다 이런 등산놀이를 하는것을 풍속으로 전해오는것이로구나 하는 깨달음도 생겼다.
  나라사랑, 고향사랑을 키우고 몸단련에 마음단련까지 하는 이 북성

귀야말로 얼마나 좋은것인가.

일행은 저물녘에 귀로에 올라 다시 북문을 지나고 남문을 바라고 골계수를 따라 오르는데 이 구간은 산굽이마다 절경이고 물굽이마다 절승이였다.

대흥사 옛터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이튿날 남문으로 나오니 벌써 한낮때인데 문밖에서부터 마중을 나온 사람들이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남문까지 들어와 마중하는것을 《들이마중》이라고 하고 령통사앞 화담계곡에 있는 서경덕이 학문을 닦던 초당인 서사정까지 마중나오는것을 《내마중》이라고 하였다.

최서방네 무시울사람들이 서사정앞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최서방내외는 보패와 장쇠를 며칠만에 반갑게 만나 홍겨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최서방은 며칠만에 제집 퇴마루에 걸터앉아서 먼지오른 짚신과 행전을 벗어서 털면서 누구에게라없이 말하였다.

《며칠간 푹 쉬였으니 래일부터는 힘을 부쩍 내여 한바탕 벼립질을 해보자꾸나!》

퇴마루에 걸터앉아 종주먹으로 무릎을 다독거리고있던 리씨가 지청구절반으로 대꾸하였다.

《어이구, 죽을 때까지 뼈빠지게 할 그 일이 뭐가 그리 좋아서 눈만 뜨면 그저 일, 일… 벼립질, 벼립질… 신물이 나웨다.》

《허허, 박연폭포구경을 하고 왔는데도 마누라생각은 그저 그대로라니까.

나는 메질소리, 풀무질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 편안치를 않아. 래년 봄갈이에 쓸 보습이며 괭이며 지금부터 벼려내야 이웃마을들에서 농사를 지을게구 농사를 지어야 사람들이 먹구살게 아닌가. 사람이 살아야 나라두 있구 나라가 있어야 그걸 지켜싸우는 영웅장수도 호걸도 더 많이 날것이 아닌가.》

《어이구, 우리 령감님이 북성귀를 하고 오더니 퍽 유식해졌시다요.》

《아무렴, 부뚜막 지키는 마누라 같겠나.》

《그런 말 마시우. 나두 북성귀길을 다녀오고보니 아낙네라구 제집부뚜막 귀한줄만 알면 되는게 아니구 제고장 산천이 귀하고 이웃간에

오가는 정이 귀한줄 먼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옳지, 그 소리 한마디는 참 잘했어. 헌데 그 귀한것을 누가 가꾸고 지켜준다던가. 산신령이나 량반님네들이 한다던가. 우리 백성들이 해야 돼. 빈 말로 하는게 아니구 바루 이 주먹으로 하구 힘으로 하구 일로 해야 해. 그러니 눈만 뜨면 일, 일 할수밖에 없지. 장쇠야, 그렇지 않냐?》

최서방은 지고온 짐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장쇠에게 말머리를 돌렸다.

《옳아요, 아버님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일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답게 살자구 모두 평생을 바쳐 일을 하는것이구요. 그렇지요, 어머니?》

《어이구, 이게 무슨 변이야. 북성귀 한번에 서당문앞에도 못 가본 이 집 남정네들이 다 유식해졌구나!》

리씨가 손벽을 짝짝 치며 웃는데 부엌에서 일하던 보패가 큰소리로 말했다.

《왜 남정네들뿐이예요. 나두 같아요. 아버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호호호… 맞았다. 북성귀라는게 그저 산길을 걸어갔다오는 놀이가 아닌줄 이제야 알겠다, 호호호…》

집안팎이 웃음판으로 되여버렸다.

최서방은 시원하게 세면을 하고나서 얼굴을 베수건으로 슬슬 문대면서 선선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쇠야, 오늘밤은 푹 자구 래일 첫새벽에 우리 집 메질소리로 마을을 깨우자. 알겠냐?》

《알겠어요. 쟁강쟁강, 댕강댕강 그 소리가 종소리보다 더 듣기 좋지요.》

이때 동산에서 늦게 솟은 스무날달이 환히 웃으며 최서방네 마당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하늘도 땅도 사람도 모두 웃는 날이였다.

기가 꺾인 한양부자

전 철 호

세월은 흐르는 물같다더니 박연에 사는 석수쟁이 박서방의 머리에도 어느덧 눈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왕년에 사귀였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송도3절 황진이까지 애젊은 나이에 옛사람으로 되고말았으니 그들을 생각할 때면 아까운 재사들이 먼저 갔다고 가슴을 치는 박서방이였다.

박서방이 박연을 찾아오는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해진것은 시문에 뛰여난 황진이가 고모담의 큰 바위우에 함치르한 머리태로 일필휘지해놓은 옛시 한수를 정으로 쪼아새긴 공으로 해서였다.

활달한 초서체로 글씨바위에 새겨진 글발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혀를 차며 감탄해마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볼 때면 박서방은 석수쟁이가 된 보람을 가슴 뿌듯이 느끼군 하였다.

오늘도 박서방은 아침 일찍 조반상을 물리자 필묵과 바위에 글을 쪼아새기는 쟁기들이 든 망태기를 걸머지고 집을 나섰다. 그의 뒤를 열댓살난 외아들이 말없이 따랐다.

성큼성큼 앞서서 걷는 박서방은 바싹 뒤를 물고 따르느라 종종걸음을 치는 아들애의 발걸음소리에 마음이 흡족해졌다.

늦자식이 곱다더니 그 말이 그른것 같지 않았다.

로총각으로 장가들었던 안해를 졸지에 급병으로 잃고 울화에 못이겨 천마산의 탁발승이 되려다 마음을 돌려먹고 또다시 석수쟁이가 된 그에게 내인복은 없지 않은지 얌전한 랑자가 찾아들었다.

그가 낳은 자식이 내리내리 딸 넷에 끝으로 외아들을 태웠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느덧 열살을 넘어 석공의 재주를 물려받으려 하니 이 아니 대견한 일이 아닌가.

옛말에 전해오기를 자식은 삼십전 천냥이라고 했는데 박서방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코웃음을 쳤다.

그런 말은 다 부자집의 말공부쟁이들이나 할노릇이고 손끝이 닳도록 일해야 먹고 사는 가난한 집사람들에게는 자식이 태우는대로 근면

하게 오륙을 놀리는 법을 물려주면 할바를 다한것이라고 그는 지금껏 여겨왔다.

《아버님! 오늘도 새길 글이 나지겠소이까?》

《글쎄… 모름지기 오늘도 일감이 없지 않을가부다.》

요즘은 여름철이여서 여느때보다 박연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바위에 글을 새겨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많아지기마련이였다.

그러니 남들에겐 이 여름이 어정어정하는 사이에 지나간다는 어정7월이라지만 박서방한테는 농사군들이 가을걷이로 동동거리는 사이에 지나가는 그 동동8월에 비길만 했다.

박서방은 늘 그러했듯 박연폭포의 물이 크게 고여 못을 이룬 고모담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고모담의 큰 바위우에 새겨진 황진이의 달필을 보고 하루일을 떼는것이 그의 습관이였다.

박서방은 오늘따라 황진이의 삐여지게 뛰여난 재주가 생각되여 아들한테 훈시조로 입을 열었다.

《얘야, 우리의 천마산은 송도3절 황진이가 시를 지어 자랑했듯 세상에 보기 드문 명산이니라. 너는 바위에 글을 새기기에 앞서 명산의 아름다움에 흠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마음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명심하겠소이다.》

아들에게 훈시를 하고난 박서방은 오늘의 첫 손님으로 누가 나지겠는지 하는 궁금증으로 하여 어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제발이지 쬐쬐한 사람이 첫 손님으로 나타나지 말아야겠는데…

박연을 찾아오는 구경군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다 글을 새겨주기를 청하지는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글을 새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대개 부자들이 제 맘에 드는 바위돌에다 자기 이름을 새겨달라고 청하는데 품들인데 비해서는 돈이 보잘것 없었다.

어떤 부자들은 백년천년 지워지지 않도록 제 이름을 새겨준 값으로 하루 먹을 쌀을 살만 한 돈조차 내주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린색하기짝이 없는 부자들의 이름을 새기는 이 노릇을

싹 걷어치우고싶었지만 배운 재간이 그뿐이여서 입술을 깨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박서방이 이런 가슴아픈 생각에 묻혀있는데 삼삼오오 구경군들이 줄레줄레 나타났다.
벌써 숱한 구경군들이 박연폭포의 장쾌한 웅자를 둘러싸고있었지만 석수쟁이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박서방이 이러다 공을 치는게 아닐가 하는 조바심이 나서 한자리에서 서성거리는데 벅적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한때의 행렬이 나타났다. 전배후배의 사령떨거지들을 거느리지는 않았지만 하인임즉한 사람들을 한무리 뒤에 단 말 탄자가 거드름스럽게 다가와서 폭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행색은 사모관대한 량반차림은 아니더래도 값진 흑립을 쓰고 비단도포를 쭉 차려입은데다 화려하게 치장을 한 백마까지 탄걸 보면 보통부자가 아닌것 같았다. 이런 부자들이 박연놀이를 기념한다면서 바위들에 제 이름을 새기기 좋아했다.
박연폭포를 경탄의 눈길로 쳐다보던 백마 탄 사람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과시 박연이 명승지란 말 빈말이 아니였군. 정말 볼만 하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질 않소이까. 진작 와봤어야 했을걸 그랬소이다.》
견마잡이군이 고개를 갑삭이며 응수하는 소리였다.
말 탄 사람이 견마잡이군을 굽어보며 벙긋 웃었다.
《임자의 청을 인제야 따른것이 후회되누만. 쬐끄만 송도땅에 뭘 볼만 한게 있겠느냐고 생각한게 잘못이였어.》
박서방이 보건대 견마잡이군도 보통말구종같지 않았다. 값비싼 명주바지저고리를 입고 흔치 않은 흑립까지 쓴걸 보나 말 탄 사람과 스스럼없이 말을 주고받는것을 보나 그의 사환중에서도 으뜸가는 사환군같았다.
견마잡이군이 말 탄 사람을 쳐다보며 여쭈었다.
《주인님! 박연에 왔던김에 보란듯이 주인님의 함자를 명소에 새겨야 할줄 아오이다.》
《내 이름을?!…》
《경상(서울상인)중에서도 손꼽히는 갑부가 주인님이신데… 뭐가

모자라서 시시한 놈들도 제 이름자를 새긴다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소이까.》

말 탄 한성부자는 입을 비죽 내밀더니 궁둥짝을 들썩했다.

《좋아, 당장 석수쟁이를 데려오게.》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일감이 차례지기를 기다리던 박서방은 한성부자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한걸음 나섰다.

《박연석수쟁이 대령했소이다.》

박서방이 얼른 다가가자 견마잡이군은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며 입을 뗐다.

《보아하니 오랜 석수쟁이같은데 글도 명필이겠지?》

박서방은 느슨한 웃음을 지었다.

원래 박서방은 애젊었을 때부터 글 잘 쓰기로 소문이 났다. 그가 쓰는 정자체든 흘림체든 다 사내의 기백이 넘치는 힘찬 글체여서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다.

하기에 바위에 제 이름자를 새기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글을 쓰고 새기는 일을 그에게 전적으로 맡기군 하였다.

박서방은 자신있는 어조로 대꾸했다.

《서당개 삼년에 풍월을 짓는다는데… 그저 분부만 내리시면 마음에 들도록 글을 새겨드리겠소이다.》

《아주 좋아.》하더니 견마잡이군은 우쭐해서 말했다.

《이보라구 석수쟁이, 우리 주인님으로 말한다면 명나라의 연경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크게 장사를 보는 한성의 부자이시네. 이번에도 장사일때문에 연경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내가 여쭈어서 여기루 모셔왔어.

품삯은 넉넉히 주겠으니 그저 주인님의 맘에 들게 글도 멋지게 쓰고 쓴 글이 두드러지도록 잘 새겨달라구.》

《그야 여부가 있소이까.》

한성부자는 폭포주변을 둘러보더니 따지듯 물었다.

《여기에 송상(송도상인)것들의 이름도 새겨져있겠지?》

박서방은 개성장사군들의 이름부터 묻는 그의 속을 알수 없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예, 여러 송상들의 이름도 새겼소이다.》

《음…》하고 신음비슷한 소리를 내던 한성부자가 또다시 물었다.

《그네들의 이름은 어데다 새겼나?》
박서방은 몹시 언짢아하는 한성부자의 기분을 대중할수 없었지만 하여간 손을 들어 대흥골안을 가리켰다.
《저기 저 웃골안으로 올라가서 개울가의 바위돌에다 새겼소이다.》
그러자 한성부자가 갑자기 으하하! 하고 너털웃음을 터치였다. 한창 게걸스럽게 웃고난 한성부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입을 열었다.
《잘했네. 쪼물짝한 송상것들의 이름을 보이지 않는 깊은 골안에다 새긴건 아주 잘한거야.》
박서방은 그제야 한성부자가 개성의 장사군들을 미워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경상들이 장사길에서 날로 세력을 떨치는 송상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다더니 이 사람도 그런 모양이구나.
한성부자는 손을 들어 폭포를 가리켰다.
《석수쟁이, 내 이름은 말일세 저 폭포의 절벽에다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보일수 있도록 대문짝만 하게 새기라구.》
견마잡이군이 박서방의 어깨를 툭 치며 호들갑을 떨어댔다.
《어이구, 이 사람이 횡재하게 되였네.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졌다 그 말일세. 우리 주인님의 분부를 잘 받들면 목돈이 차례질거네.》
박서방은 한성부자나 견마잡이군이 하는 꼴이 역스러워 퉁명스레 대꾸했다.
《저기에 글을 새기려면 천만냥은 내셔야 하오이다.》
그 말에 일시 놀라와하던 한성부자가 코를 불었다.
《흥! 천만냥이면 이따위 산을 열스무개나 살수 있겠다.》
박서방은 분이 울컥 치밀어올랐으나 첫 손님을 노엽히고싶지 않아 목소리를 낮추었다.
《소인의 말뜻은 천만냥을 낸다 해도 저기에다만은 글을 새기지 못한다 그 소리올시다. 나라님들도 저기에다만은 함자를 새기지 않았으니까요.》
말문이 막힌 한성부자는 잠시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고모담의 너럭바위를 가리켰다.

《그럼 저 바위에다 새기라구.》

박서방은 한성부자의 해대는 품이 여간 딱하기만 해서 고개를 저었다.

《저… 그 바위우에도 안되겠소이다.》

견마잡이군이 성이 나서 소리쳤다.

《거긴 또 왜서 안된다는건가?》

《저… 거기엔 송도3절 명월이의 글이 새겨져있기때문이올시다.》

견마잡이군이 발을 탕 구르며 떠들어댔다.

《뭐, 뭐라구? 한갖 기생따위의 글은 새겨넣을수 있으나 우리 주인님은 안된다?! 한번 거래에만도 백만냥을 주무르시는 한성갑부가 그래 송도기생만 못한가 말이야?》

박서방은 돈버러지같은 견마잡이군을 고모담에 콱 처넣고싶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아 겨우 자기를 다잡았다.

《여보시오, 〈공수래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게 정해진 인생리치인줄 한성사람들이 더 잘 알텐데 뭘 그러시오. 재물이란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길수 있겠지만 명인재사들이 남겨놓은 자욱은 그렇지 않수다.

황명월이 같은 시재를 낳은것은 나라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 송도의 큰 자랑인데 그를 욕되게 할수 있소?》

그 말에 한풀 꺾였던지 한성부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일렀다.

《좋아, 내 이름은 황진이의 글이 새겨져있는 바위우가 아니라 여기서 볼수 있게 그 바위 앞쪽에 새기라구. 그것까지야 거절하지 못하겠지?》

박서방은 할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대꾸했다.

《알겠소이다.》

박서방이 너럭바위로 발길을 옮기자 한성부자는 고모담의 모래불에 술상을 차리게 하였다.

이윽고 한성부자네 패거리는 기악을 울리면서 질탕한 먹자판을 벌려놓았다.

박서방의 마음은 쓸쓸하였다.

폭포의 절벽이며 고모담 너럭바위에다 제 이름자를 새겨넣으라고 어거지떼를 부리는 한성부자에게 굴복하여 황진이의 글곁에다 돈버러지

의 이름을 새겨야 하니 기가 막혔다.
생각같아서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고 내려가버리고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별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황진이의 글이 있는 바위에다 돈밖에 모르는 한성부자의 이름을 고스란히 새겨줄수가 없었다.
고약한 한성부자의 이름과 더불어 그자의 기를 꺾을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더듬던 박서방의 눈앞에 불쑥 며칠전에 본 한 젊은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다니며 박연구경을 시켜드린 농사군집 젊은이의 모습이였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응당 이런 바위에 새겨져야 하리.
《됐어!》
박서방은 장알진 두손바닥에 침을 탁 뱉아가지고 쟁기를 틀어잡았다.
이어 돌을 쫏는 박서방의 정질소리가 쉼없이 울렸다.
해는 어느덧 청량봉을 향해 기울어지고있었다.
그동안 질탕한 술판으로 주먹코가 새빨개진 한성부자는 견마잡이군을 뒤에 달고 어기정어기정 글씨바위로 다가왔다.
그래도 대문짝같은 제 이름을 볼줄 알았던 그는 너럭바위의 한가녁에 새겨진 도제 주먹만 한 글을 보고 아부재기를 쳤다.
화가 꼭두까지 치밀은 한성부자는 낯판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박서방에게 삿대질을 해댔다.
《이…이, 괘씸한 늙은이라구야. 언감생심 내 이름자를 벼룩이만 하게 새길수 있단 말이냐?》
한성부자는 거북눈을 치뜨고 제 이름의 맞은켠에 새겨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건 대체 누구 이름이기에 감히 나와 한바위에다 나란히 새겨넣었느냐?》
박서방은 몹시 통쾌하였으나 시치미를 떼고 대꾸했다.
《예, 저쪽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라가 자랑할만 한분의 이름자올시다.》
그 말에 한성부자는 두눈을 꺼벅거렸다.

그는 얼떨떨한김에 헤식은 웃음을 짓기까지 하였다.

《그… 그런가? 그렇다면 진작 그 말부터 했어야지. 대관절 저 이름의 주인은 어떤 명관인가?》

박서방은 짐짓 엄숙한 기색을 지었다.

《저 이름의 주인되는 사람은 풍덕고을에 사시는데 대대로 부자집의 땅을 부치는 작인으로서 며칠전에 늙으신 아버님을 등에 업고와 박연구경을 해드렸소이다.》

《뭐이라구?》

박서방은 굵직한 목대에 지렁이같은 굵은 피줄이 꿈틀거리는 한성부자를 못 본척 하며 제 하고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하였다.

《고려가 갓 세워졌을적에 천마산너머의 오관산기슭의 마을에 사는 문충이란분이 어머니가 늙어가는것을 비탄하여 〈목계가〉라는 노래를 지어불렀다고 하오이다. 그래서 효자 문충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자자한것이 아니겠소이까. 하다면 늙으신 아버지를 자기 등에 업어가지고 그 먼길을 찾아와 박연구경을 해드린 저 이름의 주인은 뭐라고 일러주어야겠소이까? 마땅히 죽백에는 효자라는 그의 이름을 새겨야 할것이고 그 사람의 집앞에다가는 효자문을 큼직하게 세워주어야 할줄로 아오이다.

그런 사람의 이름과 한바위에 나란히 이름이 났으니 정말 기쁘시겠소이다.》

한성부자는 복통이 터져 죽을것 같았지만 박서방의 사리정연한 론리에 기가 꺾여 씨근벌떡거리기만 했다.

한참 씨근벌떡이던 한성부자는 사색이 되여 어쩔줄을 몰라하는 사환군을 잡아먹을듯 한 기상으로 노려보았다.

《에익, 이 밥버러지같은 놈아, 제 주인을 망신시키고싶어 이런델 끌고왔느냐?》

사환군은 사시나무 떨듯 했다. 시에미 역정에 개배때기 찬다고 괜한 사환군에게 화풀이를 해대는 한성부자였다.

독기를 품은 한성부자는 자기를 깨고소해하는듯 한 눈길로 지켜보는 사람들을 보자 발을 쾅 구르며 《송도놈들이란 하나같이 속통이 꼬부라졌다니까.》하더니 허둥지둥 달려가 말우에 기여올랐다.

비둔한 몸을 끌고 말우에 기여오른 한성부자는 결김에 말허벅을 탁 걷어찼다.

그 바람에 놀란 말이 껑충 뛰여올랐다가 네굽을 안고 냅다 내달렸다.

하마트면 말에서 공중제비로 떨어질번 하였던 한성부자의 머리에서 갓이 벗겨져 땅바닥에 나딩굴었다.

맨상투바람으로 꽁지가 빳빳해서 줄행랑을 치는 한성부자를 바라보며 사람들도 박서방도 껄껄 웃어댔다.

돈냥이나 있다고 감히 명소를 욕되게 하지 말어라. 하늘이 굽어본다, 하늘이 …

대흥산성 북문

대흥산성 북문은 개성시 박연리의 박연폭포에서 길을 따라 동남쪽으로 약 200m 올라간 곳에 자리잡고있다.

대흥산성 북문에는 화강석을 잘 다듬어 규모있게 축조한 문축대우에 정면 3간, 측면 1간의 루각이 세워져있다.

큼직큼직한 돌로 쌓은 축대의 복판에는 높이와 너비가 3.7m, 길이가 5.5m인 무지개문길을 냈다.

북문에는 옛날에 성문을 걸었던 성문확구멍과 성문을 멈춰세우던 멈춤돌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루각의 지붕은 합각이며 홑처마에 단익공 중단청인데 장마루란간의 마루는 다락으로 되여있다.

대흥산성 북문은 고려시기 축성기술과 당시 나라방위를 위한 고려인민들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명산에 명필체

전 철 호

리조 중종 말엽에 박연에는 석수쟁이 박서방이 살고있었다.

고려때부터라고 하던지 하여간 여러대를 두고 내려오는 석수쟁이집안에서 태여난 박서방은 이제 서른고개인데 가문의 재주를 알심있게 물려받아 그의 손끝에서 정대가 바람을 일으키면 가지가지 바위돌우에 정바르고 힘있는 필체의 글이 신비롭게 피여났다.

하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해마지 않았다.

날마다 흥바람이 나서 천마산을 오르내리며 천연바위들에 명인재사, 호걸남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름자를 새겨주던 박서방이 벼락을 맞은듯 갑자기 생기를 잃고 하던 일에 싫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갑자기 그렇게도 애착을 느꼈던 석수쟁이의 직분을 싫어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서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불행했던 그 액운을 타고났는지 장가든지 한해만에 안해가 덜컥 잘못된것이였다.

색시없는 세상에서 무슨 락으로 한생을 살아갈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산인이 돼버릴가. 명소에는 암자라고 천마산의 도처 골안마다엔 절당과 암자들이 수두룩했다. 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중이 될수 있었다.

바로 그때 천마산의 고승이라던 지족선사가 송도의 명기 황진이의 치마자락에 녹아났다는 뚜뚜한 소문이 온 천마산에 짜했다.

신선처럼 여겼던 지족선사까지도 음욕에 눈이 어두워 녀색을 가까이했으니 다른 중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세상이 불문임을 깨달은 박서방은 탁발승이 되려 했던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직심스레 자기 하는 일에 애착을 느꼈다.

명산에 멋진 글을 새긴다는 뜻을 새겨안으니 흥바람이 절로 났다.

그는 권세와 재물을 뽐내며 대문짝만 한 글을 새기라고 을러메는 량반부자들한테만은 엄청난 품삯을 요구했다.
그래서 량반부자들은 박서방을 가리켜 《입 큰 불상놈》이라고 시비질했다. 그러나 박서방은 도리여 그런 욕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마땅히 명인의 함자가 크게 새겨져야 하는 명산에다 어찌 소인같은 량반부자들의 이름을 대문짝만 하게 새길수 있단 말인가.
어느해 봄날이였다.
박서방은 아침부터 박연폭포가 쏟아져내리는 고모담앞의 작은 바위에 자리를 잡고 글을 새기고있었다.
해가 한기장쯤 떠올랐는데 북문쪽에서 벅적 끓는 소리가 나더니 한무리의 사람들이 쏟아져나왔다.
《물렀께라 비꼈께라 이전 사또님 행차시다!》하는 벽제소리를 지르는 전배사령들을 앞세운 람여를 탄 량반선비들의 행차였다.
고모담기슭의 모래불에서 박연폭포를 흥이 나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허리를 굽히며 사방으로 흩어져갔다.
박서방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벼슬아치들의 요란한 행차를 바라보았다.
이전 사또님 행차라니 이전에 개성류수를 살았다는 어느 량반자의 행차를 두고 이르는 말일것이였다.
이전에 송도부중에서 으뜸가는 벼슬을 지냈으면 그의 행차도 아직은 허술하지는 않은 법이다.
람여들의 뒤에서 기생들이《지화자!》소리를 련발하며 따르고있었다.
기구있는 벼슬아치들의 요란한 행차를 한두번만 보지 않은 박서방인지라 이전 개성류수의 행차쯤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윽고 이전 개성류수의 행차는 고모담앞에서 멈춰서고 량반부자들이 거드름을 부리며 람여에서 내렸다.
그들이 량허리에 손을 얹고 폭포를 구경하자 박서방은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는 오로지 바위에 글을 새기는 일에 몰두하였다.
박서방이 주위를 감감 잊고 손으로는 정질을 하고 입으로는 돌가루를 후후 부는데 《참 좋은 일을 하시오이다.》하는 웬 녀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등뒤에서 들려왔다.

박서방은 인정이 푹 배인 은방울 굴리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다보았다.
(?!…)
박서방은 그만 꿈만 같아 입을 하 벌리고 두눈만 꺼벅거렸다.
이게 생시일가, 생시라면 세상에 이런 미인도 있는가.
지금껏 박연폭포를 찾아오는 많은 녀인들을 보아왔지만 온 골안이 환하도록 이렇게 눈부신 미녀는 보다 처음이였다.
박서방은 너무도 미모가 빼여지게 잘난 녀인을 보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소녀같은 아녀자의 이름도 새겨줄수 있나이까?》
박서방은 여전히 주눅이 든채 쩔쩔맸다.
《여부가 있소이까. 분부만 하소이다.》 하는 박서방의 얼친 대답에 녀인이 웃으며 《소녀가 한번 롱으로 해본 소리나이다.》하는데 벼슬아치들속에서 석쉼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보게, 명월이! 어서 와서 술을 쳐야지.》
그 소리에 아름다운 녀인이 벼슬아치들쪽을 피뜩 바라보더니 다시 박서방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귀속말로 박서방에게 《소녀가 저 량반님네들을 한번 골려주려고 하오니 잠시 모르쇠를 하시고 제가 하라는대로 움직여주면 고맙겠소이다.》 하더니 나부시 고개를 숙여보이고 돌아섰다.
박서방은 얼빠진듯 치마아래부위에 화려한 장식을 한 붉은색의 홍스란치마를 찰찰 끌며 멀어져가는 녀인의 뒤모습을 멍청히 지켜보았다.
오늘은 혹시 운이 트는 날이 아닐가. 그렇지 않고서야 천하절색이 천한 석수쟁이를 저절로 찾아올수가 있는가.
명월이라면 분명 송도의 명기로 알려진 황진이일것이다. 황진이는 개성만이 아니라 나라에서 손꼽히는 미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서방은 그전같으면 황진이란 이름을 듣고 눈을 흘겼을는지도 모른다.
팔난봉같은 량반선비들과 붙어돌아가며 웃음도 팔고 노래도 파는 기생이라고만 여겼던 황진이를 요즘 송도백성들은 재색을 겸비한 녀중호걸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들은 송도명기 황진이의 앞에서 썩어빠진 량반족속들이 돌아가며

망신을 당하기가 일쑤이니 이 아니 가슴 후련한 일이 아닌가고 기뻐들 하였다.
지족선사만 봐도 그러했다. 자비롭고 점잖은 불문의 신선인체 했던 그의 장삼자락속에는 허위와 탐욕만이 가득차있다는것을 황진이가 날날이 밝혀내지 않았던가.
그 말을 들은 후부터 박서방은 은근히 황진이를 만나기를 기다려왔었다. 한것은 삐여지게 뛰여났다는 그의 자태를 한번 보기도 하고 그보다는 시, 서, 화에 능한 명기의 글발을 받아 바위에 쪼아새기고싶어서였다.
시문에 뛰여난 천하절색의 글을 바위에 아로새긴다면 박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런데 황진이가 부른듯이 찾아와서 거들먹거리는 량반자들을 함께 골려주자고 하니 이런 행운의 기회도 있담. 박서방이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임자! 오늘 어느 누구에게 선참 첫 잔을 치겠나?》 하는 석쉼한 소리가 량반들의 술자리쪽에서 들려왔다.
박서방이 바라다보니 고모담에 차일을 친 모래불우에 만반진수를 차려놓고 둘러앉은 량반자들이 황진이에게 눈길을 모으고있었다.
량반자들의 시샘어린 눈길에 시답지 않은지 황진이가 고개를 외로꼬며 대꾸했다.
《명산구경을 왔으니 응당 명산을 지키는 어르신께 첫 잔을 올리려 하오이다.》
량반자들이 일제히 목을 길게 빼들며 물었다.
《대체 그 어른이 누군고?》
황진이는 놋주발과 술주전자를 손에 들고 아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홍스란치마를 찰찰 끌며 박서방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량반자들에게 바위돌에 정질을 하고있는 박서방을 가리켜보이며 입을 열었다.
《바로 이 어르신이 명산을 가꾸는 귀인인줄 아나이다.》
량반자들이 입을 삐쭉 내미는데 그들속에서 빼빼마른 《모들뜨기》가 낯이 새파래가지고 소리쳤다.
《어－ 술맛 잡친다. 〈입 큰 불상놈〉이 명산을 가꾸는 어른이라고?》
쓴웃음을 지은 황진이가 《모들뜨기》에게 대꾸했다.

《이보세요 이전 리조참판나으리, 아무리 왕후장상일지라도 반드시 세 귀인한테만은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그들이 뉘신지 아시오이까?》

《모들뜨기》는 황진이한테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몰라 곁에 앉은 뚱뚱보를 가리켰다.

《이 애, 그런건 이전에 례조참의를 지낸바 있는 이 어른께서 답변하실게다.》

뚱뚱보는 불에 덴 황소처럼 화들짝 놀라더니 팔을 내저었다.

《명월아, 그런거야 모르는게 없는 네가 이 어른께 잘 일깨워주려무나.》

황진이는 고운 눈을 깜빡이며 크게 말했다.

《그렇다면 소녀가 아뢰겠나이다. 피덩이인 제 몸을 받아준 삼할미와 죽은 부모님께 수의복을 입혀드린분 그리고 자기 이름자를 바위에 새겨주는분, 이 사람들이 바로 임금님일지라도 감히 하대하지 못하는 세 귀인인줄 아나이다.》

말문이 막혀버린 량반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였을적에 황진이는 큼직한 놋주발에 맑은 술을 한가득 찰랑찰랑 부어 박서방에게 내밀었다.

박서방은 량반자들을 제쳐놓고 천한 석수쟁이인 자기가 그것도 황진이 같은 명기가 부어주는 술을 먼저 받는다는것이 어색하여 주춤거렸다.

그러자 황진이가 귀속말로 속삭였다.

《아까 한 언약을 잊으면 안되오이다.》

황진이의 재촉에 박서방은 기운이 나서 놋주발을 받아들었다.

에라, 재기발랄한 황진이가 어련히 일을 알아처리할테니 술이나 마시고보자.

두손으로 놋주발을 받쳐든 박서방은 량반자들이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에 개의치 않고 숭늉마시듯 꿀꺽꿀꺽 술을 들이켰다. 숨한번 쉬지 않고 술을 쭉 들이키고나니 답답하던 속이 탁 트이는듯 가슴이 후련해졌다.

천하절색이 친 술이여서인지 술맛 또한 별맛이였다.

량반자들에게 다가간 황진이가 랑랑한 목소리를 울리였다.

《이제부터는 품계순서로 돌아가며 술을 쳐드리겠나이다.》

한바탕 권주가속에 질탕하게 먹고마신 량반자들은 배를 두드리며 시겨루기를 벌려놓았다.
박서방은 정대질을 멈추고 간절한 눈길로 가야금을 안은 황진이를 바라보았다.
황진이가 그렇게도 시를 잘 짓는다는데 오늘도 그래주었으면…
황진이는 량반자들의 읊조리는 시에 귀를 강구고있는지 박서방쪽으로는 눈길을 주지 않고있었다.
박서방은 량반자들이 읊조리는 시에 귀를 기울였다. 허나 그들의 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안겨오지 않았다. 하긴 량반자들이 읊조리는 시란게 기껏해야 남의 나라 선비들이 지은 시이니 시문에 밝지 못한 박서방이 알아들을리 만무였다.
이윽고 《모들뜨기》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황진이를 불렀다.
《이 애 명월아, 이젠 네 차례가 되였은즉 어디 꾀꼴새목청을 돋구어보려무나.》
그러자 황진이는 마치나 외워두었던듯 류창하게 시를 뽑았다.
황진이가 쏟아놓은 시에 량반자들의 낯이 수수떡처럼 된걸 보아 그의 시가 으뜸임이 틀림없었다.
박서방은 속으로 쾌재를 올렸다.
그럼 그렇겠지, 송도의 명산에 송도의 명기이니 시흥이 어찌 남다르지 않을손가.
박서방은 문득 제 잘난듯 뽐내는 량반자들을 골려주자던 황진이의 말이 생각났다. 맛좋은 술을 놋주발로 가득 마신지라 주기까지 오른 그는 담이 커졌다.
황진이가 뛰여난 명필이라는데 그의 아름다운 글씨를 받아 바위에 새긴다면 글은 온통 저만 잘 쓴다고 우쭐대는 량반자들의 코가 납작해지지 않겠는가.
박서방은 급히 망태기에서 필묵을 꺼내들었다.
때는 바로 이때로다. 황진이가 읊은 시를 써달래서 고모담에서 으뜸가는 저 큰 바위우에 그대로 새겨넣지 못한다면 한생 한이 될것이 아닌가.
마침 황진이가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에 힘을 얻은 박서방은 필묵을 들고 황진이에게 다가갔다.
《저… 한가지 소청이 있는데 방금 읊은 시를 바위우에 써주었으면

하오.》
그 말에 황진이가 놀라와하는데 량반자들은 재미있다는듯 코를 벌름거리며 박서방을 바라보았다.
황진이가 대답대신 고개를 살짝 젓자 박서방은 떼를 쓰다싶이 들이댔다.
《난 글을 받기 전엔 물러가지 않겠소.》
량반자들의 박서방을 비웃는듯싶은 눈길을 느낀 황진이가 가야금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그럼 소녀를 따라오시오이다.》
한손으로 치마를 가벼이 쥐고 고모담의 바위우로 오르는 황진이의 뒤를 박서방은 천천히 따라섰다.
큰 바위우에 올라선 황진이는 박서방이 내준 먹물이 든 벼루에 머리태끝을 푹 잠그며 입을 열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오이다.》하더니 그는 활달한 초서체로 글을 써내려갔다.

비류직하삼천척
…

량반자들이 우르르 밀려와 붓으로는 도저히 흉내낼수도 없는 룡이 꿈틀대는듯싶은 글발에 혀를 차며 놀라와할적에 박서방은 부랴부랴 달려가 정과 망치를 찾아들고 왔다.
그는 보배를 안은듯 황진이가 써놓은 큼직큼직한 글들을 한동안 어루만지더니 잽싸게 정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힘차게 정이 오르내릴 때마다 바위에서 돌가루가 자욱히 피여올랐다.
박서방은 낮에 이어 밤에도 불망치를 켜들고 글을 쪼아박기에 여념이 없었다.
명소에 송도의 명인이 써준 명시인데 어찌 힘이 용솟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여 박연폭포의 큰 바위우에는 송도3절로 이름난 황진이가 머리태를 휘갈겨 썼다는 유명한 글이 후세토록 새겨지게 되였다.
오늘날 그 바위는 《글씨바위》로 불리워지면서 명산과 더불어 천하절색 황진이의 뛰여난 시재가 더 크게 소문나게 되였다.

인달봉전설

리 완 기

단풍이 드는 가을은 사람들의 마음이 저절로 흥그러워지고 마음속 여유도 더해지는 좋은 계절이다.

이 계절을 타서 원통사나 령통사를 거쳐 박연폭포로 향하는 북성귀 등산놀이에 나선 사람들의 행렬이 꼬리를 물고 닥쳤다.

부담마에 올라타서 시중군들도 여럿씩이나 거느리고 저네들의 위세를 시위라도 하듯 뽐내는 량반부자들의 모양들을 보느라면 아니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장관이였다.

꼬리를 물고 닥치는 일행중에 유표나는 행렬이 하나 있었으니 시중군들만 해도 열이 넘었고 부담마만 해도 여러필은 되였다.

그가운데서 눈을 쪼프리고 사방을 둘러보는 작자가 한양에서 손꼽힌다는 권부자였다.

날라리패들이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며 앞에서 나가는 품이 웬만한 대감도 찜쩌먹을 과연 한양부자다운 행렬이였다.

한양장안에서 권부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서해의 곤포를 독차지하다싶이 하여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팔아 돈을 삼태기로 담아들인다는 작자였다.

돈 많은 놈 씀씀이가 없다고 돈쓰는데는 어찌나 린색한지 제집 부엌의 깨진 양푼을 열번은 더 때여쓰게 하는 권부자를 가리켜 사람들은 《곤포부자》라고 야유하군 하였다.

권부자는 성미가 고약하기짝이 없어 두마디안팎에 하인들에게 곤장맛을 보이기가 일쑤였다. 이런 권부자가 이번에 박연폭포를 찾아가고 북성귀 등산에 오르느라 숱한 돈을 뿌린것은 다 쪼간이 있는 일이였다.

달포전에 옹진으로 곤포장사를 떠났던 권부자는 어느 객주집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는 권부자에게 큰 비밀이라도 대주듯 귀가에 대고 소곤소곤거렸다.

그 말인즉 령통사에서 천마산을 타고 대흥산성 남문으로 가면 동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인달봉이라는 높은 봉이 있는데 그우에 모래알만 한 금이 한벌 쭉 깔려있다는것이였다.

젊은이는 믿지 못해하는 권부자를 보고 그 인달봉엔 아직 누구도 올라가보지 못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것을 장담하면서 자기는 매의 발에 찹쌀풀을 발라서 올려보내면 거기에 금알들이 몇알씩 묻어오기에 그걸 잘 안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무리 애를 써도 매가 1년에 한번씩밖에 인달봉우에 더 오르려고 하지 않아 속상하다고 그럴듯하게 엮어대였던것이다.

말우에 앉아 그때 일을 더듬어보는 권부자의 마음속에는 어서빨리 인달봉에 올라가고싶은 생각뿐이였다.

인달봉의 금을 몽땅 가져다가 큼직한 벼슬감투도 쓰고 세상을 한번 호령쳐볼 기분에 권부자의 마음은 붕 떴다.

사람들은 경치구경에 사방을 가리키며 야! 야! 하였지만 권부자의 마음은 인달봉우에만 가있었다.

남문에 이르러 일행은 잠시 쉬기로 하였다.

시중군들은 대흥사며 청량봉, 인달봉을 가리키며 무어라고 계속 말들을 주고받았다.

권부자는 옆에 앉아 쉬는 낯모를 한 로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저 산이 인달봉이 맞는가요?》

《맞수다, 바위세가 어찌나 험하고 묘한지 아직 누구도 올라가보지 못했지요. 나도 여기 토배기여서 젊어서 친구들과 저우에 오를 내기를 했지만 누구도 절반이상 더 오르지 못하고 단념하고말았수다.》

뜻밖의 말상대에 성수가 난듯 말자루를 풀어대는 늙은이를 본척도 않고 권부자는 제 생각에만 옴해있었다.

하인놈을 한두엇쯤 데리고 가봐? 아니야, 그것들이 아무래도 께름해. 황금혹사심이라고 인달봉우에 올라 금을 보면 그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지. 아무렴, 내 혼자 가야 해.

세상이 모두 자기같은줄로만 아는 권부자였다.

하긴 돈줄에 들어서서는 제 마누라에게도 벙어리시늉을 하는 권부자이니 그럴만도 하였다.

권부자는 시중군들에게 자기를 기다리라고 하고는 혼자서 슬며시

인달봉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숲에 들어서서 인달봉을 올려다보는 권부자의 가슴은 어찌나 방망이질을 하는지 심장이 금시 튀여나올것만 같았다.

(저우에 내가 그토록 가지고싶어하던 황금이 쭉 깔려있다지. 남들이 오르지 못했다고 나까지 그러라는 법이야 없지.)

권부자는 인달봉우로 뻗어오른 바위들을 깐깐히 더듬어 살펴보았다.

오른쪽바위홈태기를 타고 두어길 오른 다음에 우에 있는 소나무가지를 리용해서 다음바위에 붙으면 중간까지는 얼마든지 자신이 있어보이였다.

그다음 왼쪽바위모서리에 발을 의지해서 오른쪽바위에 가붙으면 좀 아짜아짜하긴 해도 능히 올라설것 같았다.

황금이라면 하늘꼭대기라도 올라갈 마음인 권부자는 타산이 서자 기운을 내서 바위에 달라붙었다.

안깐힘을 다 쓰며 인달봉 중간을 더 올라선 권부자도 기진맥진하였다.

권부자는 바위에 붙어서서 숨을 돌리며 아래를 굽어보다가 와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까마득하게 밑에 있는 큼직한 바위돌들이 꼭 자기를 기다리는 함정같았던것이다.

아찔해서 눈을 꾹 감았던 권부자는 벼랑우만 쳐다보며 오를 바위를 살펴보았다.

까딱하면 천길나락에 떨어져 뼈도 추리지 못할판이였다.

(금더미에 올라앉기가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못할가.)

이발을 사려문 권부자는 땀을 몇동이 잘되게 뽑고 인달봉우에 올라서서는 그만 정신을 잃고말았다.

한편 시중군들은 권부자를 기다리다못해 사방으로 찾아헤맸으나 권부자를 보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시중군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데 한 옹노군총각이 나타나 하는 말이 사흘전에 인달봉우에서 사람을 하나 보았다는것이였다.

총각의 말인즉 옹노를 돌아보러 다니다 인달봉밑에 이르렀는데 사람의 신짝 하나가 꼭대기에서 떨어져 와뜰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웬 사람이 꼭대기에서 무어라고 중얼대고있었다는것이였다.

총각이 바람결에 얼핏얼핏 들려오는 말을 가만히 새겨보니 그우에 금이 쭉 깔렸는데 자기를 구해주면 크게 생각해주겠으니 도와달라고 중얼대는게 틀림없었다고 말하였다.
총각은 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인달봉우에 금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걸 누가 곧이듣겠소. 우에서 떨군것을 보니 모래알이였지요. 그래서 이크, 내가 사람을 홀려서 잡아먹는 귀신을 만났구나 하고 무작정 달아뺐지요.
얼핏 돌아보니 그 사람이 벼랑우에서 내려오려고 두발을 내렸다올렸다 안달복달을 합디다. 그땐 무섭증에 더 다른 생각을 안했는데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일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수다.》
총각의 말을 듣고 시중군들은 권부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길을 떠나오면서도 잠자리에만 들면 《인달봉, 금, 금…》하고 이상한 잠꼬대를 하던 권부자인데다가 막다른 골목에 빠져서도 모래알을 금덩이라고 하는걸 봐도 틀림이 없는것 같았다.
황금에 환장이 되여 인달봉우에 올라간 권부자의 눈엔 허깨비가 들어 모래도 금덩이로 보이였던것이다.
시중군들은 인달봉주위를 살살이 뒤지다가 인달봉에서 떨어졌다는 권부자의 신짝을 하나 찾아냈다.
평소에도 권부자의 사람됨에 침을 내뱉았던 시중군들이 코웃음을 쳤다.
《주인나리가 곤포장사하러 바다로 간 모양인데 우린 괜히 산에서 고생하고있네.》
이 말을 남기고 시중군들은 돌아가버렸다.
권부자가 인달봉에 오른 소문은 발없는 날개가 돋혀 널리 퍼지였다.
한양 권부자가 인달봉에 금이 있다는 소문에 봉우리에 올랐다가 내려올수 없어 안달복달을 떨다가 어떻게 되였다는 소리에 모두들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사람이 황금에 미치면 나중엔 도깨비가 들어 정신까지 버리게 되고 제 목숨까지도 망치게 된다는것을 알게 하는 옛이야기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인달봉을 가리켜 권부자가 안달복달하던 곳이라 해서 안달봉이라고도 한다.

자라봉전설

김 동 천

서해의 룡궁에서 살던 자라가 룡왕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토끼의 간을 얻어오겠다며 뭍으로 나왔다가 돌아오지 않자 룡궁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룡왕마마, 하해같은 룡왕마마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내 돌아오지조차 않은 자라의 족속들을 모두 릉지처참하고 룡궁에서 내쫓아내여 그 죄가 중함을 만조백관앞에 보여줌이 마땅한줄로 아옵니다.》

상어대감의 살기띤 참소에 좌중은 잠시 술렁임을 멈추고 룡왕의 눈치만 살폈다.

오만상을 찌프리고 쿨럭쿨럭 기침을 해가며 가뜩이나 심사가 뒤틀려있던 룡왕이 사발같이 큰 눈을 데룩거리며 숱진 팔자수염을 푸들푸들 떨었다.

이때였다.

뭍으로 나간 자라의 손자벌되는 자라형제가 누가 부르지도 않았지만 황급히 어전으로 달려나와 넙적 엎드리며 한절반 울음이 섞인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룡왕님, 조부의 죄 일가멸족의 중죄임을 알고있사오나 한번 더 너그러움을 베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 해동국의 천마산에서 난다는 산삼을 구해다 룡왕님의 중병을 반드시 고쳐보겠나이다.》

형자라가 횡설수설하는데 동생자라 역시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예, 예, 그렇소이다. 그 산삼으로 말한다면 만병통치에 장생불로불사약이라 실은 토끼의 간도 그 약초를 뜯어먹은 연고로 그렇듯 효험이 있다 하옵니다. 그러니 직접 그 산삼을 가져다 복용하옵시면 룡왕님의 병은 문제도 안될뿐더러 천년만년 장생불로도 걱정할 일이 아닌줄 아옵니다.》 하고 피둥피둥 살찐 목덜미에 내돋은 땀도 훔치지 못한채 엮어댔다.

우선 살고보자는 그네들의 속심을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이들 형제만큼 병치료와 약물계에 도통한자들도 없는지라 (그까짓놈들의 목

을 친다고 내 병이 당장 나아지는것도 아닌데 불로불사의 그 명약만 얻을수 있다면야…) 하는 생각에 룡왕은 《좋다, 너희 조부의 죄를 따진다면 털끌만큼도 용서 못할 중죄이지만 너희들의 그 충효지심에 감복되는바도 크니 한번만 용서해주노라. 이제 곧 너희들은 차비를 갖추고 떠나되 내 이천년생일때까지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하여 가문의 죄를 씻도록 하라.》하고 룡궁세계에서는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는 대단한 아량을 베풀었다.

《예, 예, 알겠소이다. 그 은혜 황공무지로소이다.》

자라형제는 너무도 감격하여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뒤걸음질로 황급히 어전을 빠져나왔다.

이렇게 되여 이들은 조부가 떠났던 길을 따라 생전처음 물속을 떠나 지상길에 오르게 되였다.

그들은 산삼을 그린 그림말이를 등에 지고 바다로부터 사천강을 거슬러올라 천마산을 향해 가고 또 갔다.

뚱기뚱기, 비척비척…

두 자라는 천마산이 바라보이는 오관산앞 령통골에 먼저 들어섰다.

바다에서 살면서 궁중밖을 떠나본적 없는 자라형제는 땅에 발을 붙인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것이 낯설다기보다는 황홀하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이 길에 나섰는지조차 때때로 잊군 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가존망의 중임을 지닌 저네들의 책임을 서로서로 깨우쳐주며 아쉬운 걸음들을 재촉하군 하였다.

이렇게 일광봉과 월광봉사이로 들어와 마주선것이 옥을 다듬어 둥글둥글 쌓은듯 한 오관산이며 마치도 록부용을 다듬어 꽂은듯싶은 태왕봉, 금신봉, 깃대봉이라 눈뿌리가 모자라 긴 목을 뽑아들고 쳐다보느라 발부리가 걸채여 넘어지기도 일쑤였다.

《히야! 룡궁속의 진주요, 수정이며 산호보석이 아무리 진귀하다 해도 천마산골안의 경치에야 어찌 비길것이냐.》

《옳은 말이요. 세상에 나서 이런 경치는 처음일뿐더러 저런 황홀경에 넋이 다 빠져나가는것만 같수다.》

이런 수작들을 주고받으며 기암기봉들의 절경에 취해 시간 가는줄도 몰랐으니 길은 더욱 더디여만졌고 산삼을 찾는 일은 아예 잊은듯싶었다.

《얘야, 이러다 우리가 두번다시 룡왕님앞에 죄를 짓게 될가부다. 경

치구경은 그만하고 어서 산삼이나 찾자꾸나.》
《예예, 그래야지요.》
형자라의 재촉에 동생자라는 마지못해 여기저기 바위들과 풀숲을 살폈으나 얼마 못 가서 눈길은 자연히 이 산, 저 봉우리의 경치에로 옮겨졌다.
(조부께서 토끼의 간을 가져가지 못한 죄도 죄이거니와 어이하여 룡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렇듯 멋있고 황홀한 절승절경을 두고 답답하고 보잘것 없는 룡궁엔 왜 다시 갈고?!)
동생자라의 마음은 벌써 룡궁을 벗어나고있었다.
그럭저럭 금신봉이 손내밀면 훌 잡힐듯싶은 옆봉우리에까지 다달은 자라들은 숨을 돌리려고 걸음을 멈추었다.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흠뻑 내돋은 땀을 들이며 아래를 내려다보던 동생자라는 깜짝 놀랐다.
눈아래로 굽어보인 산봉우리들의 절승절경은 밑에서 올려다볼 때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 황홀경인데 저 멀리 바다와 함께 일만경치가 발아래 펼쳐졌으니 하늘을 찌를듯싶은 절가함과 천길나락의 아찔함으로 정신이 핑 돌 지경이였다.
《아니 형님, 이거 우리가 극락세계에 들어선게 아닌가요?》
《?!》
《아무리 둘러봐야 여긴 극락세계가 분명해요. 머리우는 하늘이요 발밑은 우리가 지나온 땅세상인데다가 저 멀리로는 우리가 살던 바다까지 보이니 여기야말로 세상절경을 다 합친 곳이 분명하고 신선들이 선녀들과 노닌다는 극락세상이 틀림없는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가 옥황상제가 있다는 〈령소보전〉이라는데까지 가보게 되는것이 아닐가요?》
동생의 끝없는 중얼거림을 듣고있던 형자라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니, 이거 얘 머리가 잘못된게 아니야？)
겁이 덜컥 난 형자라는 동생의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다.
《얘야, 내가 누군지 알겠니?》
형자라의 돌변한 태도와 물음에 어리둥절해진 동생자라는 눈만 껌벅거리며 (이거 나와 함께 온 형님이 분명한데 날보고 누군가고 묻는 거야? 그럼 혹시 하늘나라의 신선이 나를 마중나온게 아니야? 아무렴 그렇지 않구서야 …)
이런 생각을 더듬다가 정히 입을 열었다.
《아하, 알겠소이다. 모색은 신통히 룡궁에서 함께 살던 우리 형님

과 같으나 제 어찌 하늘세상의 자라신선을 몰라보겠나이까? 이렇듯 마중까지 나와주시니 황송하기 그지없소이다.》

《아니? 뭐, 뭐라구? 날보구 자라신선이라구? 난, 난 …》

형자라는 동생의 정신나간듯싶은 행동에 너무도 어이없어 두손으로 앞만 내저을뿐 말을 못했다.

《그럼 신선이 아니면 자라대신이라도 되시겠지요? 이렇듯 극락세계에 와서 나와 같은 족속의 대신어른을 뵈오니 감개가 무량하옵니다.》

동생자라가 이번에는 두손을 모아쥐고 공손히 절까지 하였다.

(아이쿠, 이 동생이 끝내 정신이 나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천마산의 명물인 산삼은 아직 찾지 못했는데 함께 온 동생은 저 모양이니 우리 자라가문은 갈데없이 멸족지화를 당해야 할가보구나.)

형자라는 기가 막혀 동생자라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뜩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젠 나만이라도 이곳을 빠져 산삼을 찾아가지고 룡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간 나도 저 동생처럼 머리가 돌고말거야.)

형자라는 제 흥에 겨워 마치도 자기가 신선이라도 된듯 틀지게 두눈까지 감고 왔다갔다하는 동생자라에게 작별인사도 할 경황이 없이 오던 길을 버리고 옆골짜기로 황급히 사라졌다.

한동안 눈을 감고 옥황상제의 신하가 되여 포악한 상어대감이나 룡왕까지도 발아래로 굽어보며 조소하는 자신을 그려보던 동생자라는 문득 같이 왔던 형자라의 생각이 나서 눈을 번쩍 뜨고 소리쳤다.

《형님, 어데 있어요? 형－니－임!》

형자라를 찾는 동생자라의 목소리는 산울림의 메아리가 되여 멀어져갔건만 형의 대답은커녕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겁이 덜컥 난 동생자라는 형자라를 찾아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으나 자기를 피해 달아난 형이 보일리 만무였다.

(에라, 모르겠다. 극락세계에 왔다가 그냥 돌아갈테냐? 예까지 왔던바엔 옥황상제까지 뵈옵고 일이 잘되면 나라고 왜 신선이 못될것도 없으렷다. 그런데 자라대신은 또 어델 갔을고?)

동생자라는 점점 엉뚱한 생각을 해가며 이번에는 또 있지도 않는 자라대신을 찾기 시작했다.

우로 쳐다보면 푸르청청한 끝간데없이 넓은 하늘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치 구름우에 올라서서 천하를 굽어보는 장쾌한 심정이여서

마음은 마냥 흥겨우나 아찔한 산정에서 떨어지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이제라도 하늘가의 푸른 장막을 헤치며 신선이 나타나 자기를 찾을것만 같아 그는 하늘만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마중나왔던 자라대신은 어델 가고 아무 기별도 없는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 기다리기에 지친 동생자라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슬슬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청신한 숲향기가 코를 한껏 취하게 하였고 어데선가 울려오는 갖가지 새들의 지저귐소리는 하늘나라의 풍악소리처럼 들려와 마음을 둥둥 뜨게 하였다.

그중에서도 머리에 빨간 모자를 쓴 검청색의 희귀한 새 한쌍이 날아예며 《클락, 클락.》하고 우는데 그 소리는 마치도 《극락, 큰락》하는 노래처럼 들려왔다.

피곤이 몰린 동생자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극락은 큰 락이라? 저 극락새의 노래가 참 신통해.》 이렇게 중얼거리다 저도 모르게 꿈의 세계에 들어섰다.

흘러가는 구름우에 발을 올려놓으니 두둥실 동생자라의 몸은 무아경에 든듯 구름과 함께 가볍게 떠서 어데론가 가고있었다.

구름을 타고 눈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둥둥 떠가던 동생자라는 어느덧 옥기둥에 수정란간을 세우고 이름모를 온갖 보석들로 장식된 천궁에 이르렀다.

금빛이 휘황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그윽한 곳에 번쩍이는 옥좌우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옥황상제를 보게 된 동생자라는 넙적 엎드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넌 저 서해룡궁에서 룡왕의 병시중을 들던 자라형제의 동생이 아니냐? 그런데 어이하여 예까지 왔는고?》

옥황상제의 목소리는 사뭇 다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이미 다 알고있으니 어서 털어놓으라는듯 위협조로도 들려왔다.

《예, 저는 룡왕님의 병에 쓸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뭍에 나왔다가 돌아오지 않은 조부의 죄를 씻고저 해동국의 천마산에서만 난다는 신기한 산삼을 구하려 형님과 함께 왔사온데 산천경개의 아름다움과 천하절경의 황홀경에 반하여 그만 함께 왔던 형님을 잃고 헤매이던중 천국의 자라대신의 안내로 극락세계에 들어섰으며 이렇듯 무엄하게도 옥

황님의 앞에까지 이르게 되였나이다.》
동생자라의 어처구니없는 긴 설명을 유심히 듣고있던 옥황상제가 《그래 이제라도 그 명약만 얻으면 다시 룡궁에 가려는고?》 하고 물었다.
《예? 그건 저…》 동생자라는 미처 대답을 못하고 머루알같이 까만 작은 눈만 뱅뱅 굴리였다.
옥황상제는 벌써 그의 마음을 다 안다는듯 빙그레 웃더니 《이제 다시 굳이 룡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너만 반대없다면 의술이 높은 너를 내결에 두고 중히 써줄터이니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다시 물었다.
이제나저제나 자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을 일가족속들과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룡왕의 모습이 엇바뀌여 나타나 한동안 동생자라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까짓거,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그들이야 그들대로 제 운명에 맡겨야지.)
그러지 않아도 룡궁으로 돌아갈 마음은 벌써 시내물에 흘러보낸듯 한쪼각도 남겨두지 않았던 동생자라는 이렇게 생각하고나서 《황공하옵니다. 미천한 이놈을 그렇듯 높이 쓰려 하시니 제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리이까.》 하고 대답하며 지끚게 간지럽히는 생각을 털어버리듯 흠칫 몸을 떨었다.
한편 갑자기 닥쳐온 행운에 마음은 구름보다 더 가벼이 천궁을 날고 신선이 된 자기에게 차례지는 진귀한 옥보석으로 된 상이 눈앞에 무드기 쌓이는 환영이 얼른거리는것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그럼 좋다. 넌 이제 곧 천마산으로 내려가 산삼을 구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라. 명심할것은 그 불로불사약의 삼달(산삼열매) 하나도 떨구지 말고 백뿌리를 캐오되 보름달이 뜰무렵에 천궁준마를 내려보낼터이니 놓치지 말고 올라오도록 하라.》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동생자라는 얼른 속구구를 해보았다.
이달 보름까지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백뿌리나 되는 산삼을 하루새에 어떻게 캐올것인가? 만일 캐오지 못하면 어찌될가?)
이런 근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진저리를 치던 동생자라는 소스라쳐 잠에서 깨여났다.
분명 꿈이였건만 그에게는 그것이 꿈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황급히 등에 지고있던 산삼을 그린 그림말이를 펴놓고 그 생김새를 들여다보니 굵직한 몸통에 토실토실한 살진 뿌리들은 보기에도 흐뭇했고 년수가 새겨진 잔주름을 얹은 삼두(산삼머리)와 그우에 석대의 가지를 뻗치고 그 가지마다 푸른 다섯개의 잎을 따붙인듯 그러안고 불덩이면 불덩이요, 꽃이라면 그대로 꽃과 같은 아름다운 빨간 삼달들을 공작새의 머리깃마냥 사뿐히 이고있는 모습은 과연 보물답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이 명약을 찾아야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행운을 지닐수 있다는 조바심에 작은 눈을 재빨리 굴리는데 갑자기 휘익 바람이 불어오더니 펼쳐놓았던 그림폭을 저 멀리로 휘휘 날려보내는것이였다.

그림폭과 함께 자기의 꿈도 행운도 다 날아가는가싶어 너풀너풀 날아오르는 그림폭을 겨우 잡아쥔 동생자라는 제꺽 발밑에 꾹 눌러 밟고섰다.

그러자 한끝이 밟힌 그림폭이 드르르 벼랑아래로 펄럭펄럭 드리워지더니 아예 바위로 굳어지고마는게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것은 그것을 밟고선 자기의 두발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워지면서 도저히 뗄수 없을뿐더러 점점 맥이 진해가는것이였다.

더는 서있기가 힘들어진 동생자라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렸다.

씩씩 모두숨을 내쉬던 동생자라의 작은 눈이 갑자기 사발만큼 커졌다.

글쎄 그림으로만 보아오던 천마산의 그 산삼이 불쑥 손내미는듯 눈앞에 있는것이 아닌가?

얼핏 보기에도 백여뿌리는 실히 넘을 희한한 삼달들이 큰 봉우리앞에 쭉 깔려있던것이다.

《바로 저것이다. 내 행운, 부귀영화의 뿌리 산삼이다.》

동생자라는 성급한 마음에 손을 내뻗쳤으나 도저히 잡을수가 없었다.

이미 바위로 변한 그림폭 한끝에 붙은 다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떨어지지 않아 갈수 없었던것이다. 아무리 안달복달하며 모지름을 썼으나 점점 기력만 진해갈뿐 허사였다.

(눈앞에 보물을 보면서도 잡아보지도 못하다니. 저옆에 있는 봉우리만 없어도 내 팔이 곧추 펴이면 잡을수 있으련만…)

동생자라는 옆에 있어 산삼까지 팔이 닿지 못하게 하는 봉우리가 너무도 괘씸한지라 피가 나도록 바위를 치고 또 치였다.

이때였다.

《이 천마산의 보물인 산삼을 일가의 생사존망은 안중에 없이 저 하

나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가져가려는 너같은 놈에게는 절대로 줄수 없거니와 너를 그대로 두면 이 천마산의 죄악으로 되겠기에 아예 바위로 굳혀 후세의 교훈으로 새겨주려 하나니 나를 원망말어라.》

천마산우에서 위엄에 찬 우렁우렁한 말소리가 산발을 울리며 들리여왔다.

《뭐라구? 내가 바위로 되고말다니… 절대로 그래선 안되옵니다. 제발 한번만 너그러이…》

동생자라의 작은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땅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머리를 숙였던 그는 그대로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 지금도 일가존망은 안중에도 없이 저 하나의 부귀영화만을 꿈꾸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산삼을 그렸던 자욱이 남아있는 치마처럼 흘러내려 굳어진 바위를 밟고 엎디여있으니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자라봉이라 부르고있다.

나서자란 고향산천과 자기 가정도 사랑할줄 모르고 저 하나를 위해서라면 쉽게 배신의 길을 택하는 그런 속물에게는 그 어떤 행복도, 티끌만 한 자연의 혜택도 차례질수 없음을 알수 있으리로다.

령통사 대각국사비

대각국사 의천이 사망한지 25년이 지난 후인 1125년에 인종왕의 지시로 령통사 앞뜰에 세운 비이다.

높이 4.3m되는 검은색편마암석비는 화강석거북받침에 받들려 서있다.

보상화무늬를 정교하게 새긴 비몸 앞면에는 예서체로《고려국 오관산 대화엄 령통사 증시 대각국사 비명병서》라는 제명과 300여자의 비문이 새겨져있다.

비문은 당시 고려의 대관료학자로서《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이 지었다.

비몸 뒤면에는 의천이 길러낸 160여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지붕돌꾸밈은 우진각지붕형식으로 되였으며 비몸돌과 같은 색의 검은 돌을 다듬어 만들었다.

대각국사비는 그 특이한 형태와 우수하고도 정교한 조각수법으로 하여 조형예술적가치가 큰 국보적유물의 하나로 되고있다.

마 시 령

리 성 덕

박연으로 가는 길에 마시령이라는 높고 험한 고개가 있다.

오관산과 매봉의 두 산사이로 빠지여 인달봉과 라월봉을 바라보며 점점 높아가는 험한 고개길을 톺아오르고나면 사람이고 말이고 다 지치여 쉬여가지 않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곳에 마시령이 있다.

바로 이 고개마루에 언제부터였는지 아담한 삼간초가가 하나 생겨나서 길손들이 마른 목을 추기며 쉬여가는 곳이 되였다.

초가에서는 중년에 난 홀어미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술도 팔고 쉬여가게도 하면서 살고있었다.

푼전이나 벌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까막눈이신세를 면하게 하느라 세해를 기한으로 송도장안에 내보내서 강미(글배워주는 값으로 내는 쌀)를 바치면서 서당훈장에게서 글공부를 하게 하였다.

열일곱에 나는 아들은 인물도 썩 잘난데다가 령리하여 서당공부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잘하였는데 올해가 마지막해였다.

그 애젊은 총각은 홀로 지내는 어머니에게 문안인사도 할겸 강미도 가져가야 하겠기에 자주 집으로 오군 하였다.

그런데 마시령고개길이라는게 길은 험해도 오가는 길손이 그치지 않아 홀어머니가 심부름군을 하나 데리고 살면서도 밥술을 놓지 않고 아들을 서당문앞에라도 보낼수 있게 하였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예로부터 대흥산성안에는 제승당이라는 중군의 지휘처가 있고 항상 수백명의 군사들이 주둔하고있어 북창, 동창, 내창, 승창을 비롯한 식량창고와 화약고와 병기고들이 많았었다.

그때는 이 고개길로 잔등에 부담짐을 진 말들이 그칠새없이 넘나들었는데 말들도 너무도 힘들어 이 고개길에서는 크게 울부짖었다고 해서 고개이름도 《마시령(말 마, 울 시, 고개 령)》이라고 하였다지만 그것이 다 없어진 지금에 와서 젊은이는 집에 오면 깊은 산골이라 볼것도 없고 할일도 없어 무료히 고개를 넘는 길손들만 바라보다가 하루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송도장안으로 떠나군 하였다.

그런데 젊은이가 집에 와있던 어느날이였다.
그날도 퇴마루에서 고개를 넘는 길손들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하늘소를 탄 웬 녀인이 지나가는것이 눈에 뜨이였다.
첫눈에 보기에도 그 자태가 그지없이 아름다왔다.
록의홍상으로 몸을 사뿐 감싼것이 마치도 한떨기의 화려한 꽃송이가 하늘소등에 실려가는듯 하였다.
나이 스무살 될가말가한 한떨기의 활짝 핀 꽃송이같은 녀인이였다.
이런 산골 고개길에서는 보기드문 미인인데다가 행동거지 또한 우아하고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다는듯 사방을 휘둘러보는 그 청아한 자태를 문밖에 나서서 홀린듯이 지켜보고있던 총각서생은 그만 녀인과 눈길이 마주치게 되였다.
그러자 총각은 갑자기 주눅이 들어 눈길을 피하면서 당황해하는데 미모의 녀인은 오히려 얼굴에 방싯 야릇한 웃음까지 머금으며 얼굴을 세세히 살펴보고있었다.
아릿다운 녀인을 태운 서산하늘소가 입으로 단김을 내뿜으며 얄궂게 울부짖자 녀인은 웬일이냐, 어서 가자 하듯이 채찍을 가볍게 날렸다.
녀인은 순식간에 집앞을 그냥 지나쳐갔다.
그러나 젊은이는 눈길을 들어 녀인의 뒤모습을 끝없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안장우에 보기 좋게 부풀어오른 붉은 비단치마자락, 그 치마자락밑에서 하늘소의 걸음에 률동을 맞추어 가볍게 움직이는 탄력있고 풍만한 몸매…
젊은이는 그만 온넋을 다 잃고 녀인의 뒤모습만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누굴가, 저 미인은 도대체 누구일가?! 송도 10만장안이라 하지만 서당방에만 불박혀있은탓에 언제한번 저렇듯 황홀한 녀인을 본적이 없는 젊은이인지라 가슴만 울렁일뿐 눈앞이 캄캄해져 어쩌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잠시후 녀인이 고개를 다 넘어간 다음에야 제 정신이 든 젊은이는 막걸리사발을 들고 앉아서 땀을 들이는 길손들이 들어있는 손님방쪽으로 다가갔다.
《저, 여러분네들, 방금 하늘소를 타고 지나가는 녀인을 보았소이까?》
《보았네. 헌데 그게 어쨌단 말인가. 말이나 하늘소를 타고 이 고개를 넘는 녀인을 처음 보나?》

약초군들인싶은 길손들은 중떠보듯 총각에게 되물었다.
《그런건 아닌데…》
총각은 수집음을 타듯 어물어물하며 대답도 제대로 못하였다.
《허허허… 어디 사는 누군가 묻는 말인가분데 반할만 한 내인이야.》
《…》
《그게 바로 송도의 장안에 떠들썩하게 소문난 명기 황진이일세. 임자가 아직 명월 황진이도 몰라보다니 참 한심도 할세. 송도 사는 사람치고 명월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다구…》
탁배기사발을 들고 옆에 앉아있던 다른 사람이 말참네를 하였다.
《황진이는 얼굴, 몸매도 어여쁘지만 풍류에도 밝아 옛시도 잘 읊조리고 노래 잘하지, 음률 또한 뛰여난데다 계집들이 하는 그짓도 썩 잘한다네. 하하하… 그런즉 어지간한 사내는 범접을 못한다는 명월 황진이일세.》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저 박연폭포에 가까이 있는 지족암의 생불이라고 자처하던 지족선사를 녹여낸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 어디 그뿐인가. 저 탄현문밖에 있는 귀법사 만석선사가 중들의 쫓김을 받으면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저 계집을 업고 막주고개를 달렸다던지… 하여간 그쯤 알고 임자는 그옆에 얼씬할 생각도 말라구.》
총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오지 않고 그날 밤도 그 다음날도 오직 황진이만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백지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다시 문밖에 얼굴을 내밀었다.
황진이를 다시 보지 않고서는 살아내지 못할것 같았던 모양이였다.
만나서는 뭐라 할지도 몰랐으나 그저 보지 않고는 살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황진이가 송도로 반드시 돌아갈터이니 돌아가는 그 모습을 먼발치로나마 한번 꼭 보고싶었다.
왜 보고싶은지는 자신도 딱히 모르면서…
그날 해종일 문밖에 서있었으나 황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해종일 문밖에서 기다리기에 지쳐 열려있는 문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서있는데 한낮때쯤 되였을 때 황진이의 서산하늘소가 마시령에 나타났다.
서산하늘소의 안장을 푹 덮고 부풀어내린 붉은 비단치마자락, 해빛을 가리우느라 큰 삿갓을 눌러써서 얼굴은 반나마 보이지 않고 록색

비단저고리를 곱게 여민 앞섶이 약간 벌어져서 풍만하게 부푼 가슴의 륜곽이 뚜렷이 보여와 젊은이의 눈뿌리를 뽑았다.

총각의 넋은 이미 녀인의 몸을 따라 어디론가 가버렸다.

넋을 잃고 빈 허울만 남은 총각은 저도 모르게 시 한수를 역시 넋없이 중얼거리였다.

심축홍장거
신공독의문
(마음은 아릿다운 몸매를 좇거니와
이 몸은 속절없이 문가에 기대섰네)

그런데 이때 황진이의 서산하늘소가 큰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러자 황진이가 삿갓을 썩 쳐들고 둘러보다가 문에 기대선 젊은 선비를 싱긋 웃으며 바라보았다.

이 고개를 넘어갈 때 낯을 익힌 구면의 순진한 어진 총각서생, 녀인의 앞에서 넋을 잃고 어쩔줄 모르고 서있는 젊은이…

순간 황진이도 문득 시상이 떠올라 랑랑한 소리로 한수 읊조리였다.

려진의아중
첨재일인혼
(하늘소 울부짖기에 내 몸이 무거운가 했더니
또 한사람 그 넋을 더 실은탓이로다)

황진이는 활달한 동작으로 멋스레 채찍을 가볍게 날리였다.

하늘소와 함께 붉은 꽃송이같은 그 황홀한 자태가 총각 눈앞에서 사라져가고있었다.

총각의 넋까지 신고가는 그 하늘소, 황진이의 그 기발한 한시구절은 그냥 귀전에서 맴돌건만 무엇이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안타까왔다.

아, 녀인의 모습이 고개아래로 점점 사라져가자 총각은 아니, 허울만 남은 그의 몸은 봄눈처럼 녹아 땅으로 스며드는듯…

젊은이는 그만 문앞 맨땅우에 넋을 잃고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멀리 고개아래에서 하늘소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한번 들려왔다.

아, 마시령! 네 고개에서 울린 말의 울음소리 그 몇번이드냐!

그 몇번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의 넋을 불살랐더냐!

박연폭포의 절경이 낳은 황진이라는 한 녀인의 아릿다운 자태와 아름다운 시의 세계는 또 하나의 인간절경이였으니 박연폭포도 황진이도 송도의 3절로 불리운것 어찌 우연한 일일가부냐.

황진이에게 넋을 앗기운 젊은 총각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영원히 황진이의 시세계, 황진이의 아름다움의 세계에 잠겨버리고말았다.

이 이야기는 마시령이라는 고개의 이름을 두고 생각하다가 누군가가 기지있는 한자시 한구를 얻어내여 묘미있게 꾸며놓은 한토막의 이야기인듯 하다.

황진이에게 마시령을 읊조린 이러한 한자시유산이 있었다는것은 처음 듣는 소리이고 아무러한 문헌적근거도 없다.

하지만 황진이만이 생각해낼수 있는 기발한 착상의 묘한 한자시 한구를 얻어내여 아름답고 기묘한 련정시의 능수였고 조선의 명승 박연이 낳은 유명한 녀류시인이였던 황진이의 이름을 더욱 빛내이고저 한 또 한사람의 무명시인의 아름다운 문학창조의 세계를 엿볼수 있게 하는 시의 전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두 모 바 위

변 희 철

명소도 많고 이름난 바위들도 많은 천마산에는 두모바위라고 부르는 바위도 있다.

오관산과 천마산의 골짝을 따라 박연으로 가는 길옆에 우뚝 솟아있는 두모바위! 바라보면 마치도 커다란 두부 두모를 가지런히 포개여 얹어놓은것만 같은 이 바위에도 먼 옛날 천마산을 억세게 지켜싸운 두모장수의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민족이 창조한 민족음식 두부.

두부를 좋아하지 않는 조선사람이 어디에 있으련만 어릴 때부터 두모청년이라고 불리우던 두모장수는 남달리 두부를 좋아하였으며 그것도 커다란 두부를 두모씩이나 큰 대접에 한꺼번에 얹어먹기를 좋아하는 특이한 식성을 가지고있었다.

열두살난 때에 총각이 박연으로 넘어갔다가 못가에서 점심을 먹은적이 있었는데 큰 놋대접에 큼직한 모두부 두모를 한꺼번에 엎어들고 넙적한 놋숟가락으로 푹푹 베여내여 널름널름 집어먹는 모양이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였던지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군침들을 꿀꺽 삼키군 하였다.

우묵한 대접안에 남은 큼직한 마지막두부덩어리를 푹 꿰여서 힝하니 들어다 입에 넣어 삼킬 때는 절로 입들을 하 벌리고 다물지 못하였으니 이게 정말 열두살난 총각이 옳긴 옳단 말인가.

보리밥이나마 근근히 이어가는 속에서도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의 밥상우에 어떻게 하나 두부모를 놓아주려고 늘 콩콩 뛰는 걸음을 하였다.

손마를새 없는 어머니의 얼굴은 늘 땀에 젖어있었고 극진한 어머니의 사랑속에서 아들은 나날이 헌헌장부로 자라났다.

그가 산같은 나무짐을 거뿐하게 지고 동리로 들어설 때면 동리조무래기들뿐아니라 녀인들 지어 장정들까지 울담밖에 나와 구경을 하며 장수가 났다고 떠들군 하였다.

그럴수록 어머니는 늘 아들이 몸을 단련하고 힘을 키우는데만 머리를 쓰도록 엄하게 가르치군 하였다.

어릴 때부터 앓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동자질을 해놓을 때도 칭찬이 아니라 《사내가 부엌문턱을 넘나들면 큰일을 못하느니라.》 하고 나무라며 엄하게 훈계하군 하였다.

《세상에 남아로 태여났으면 세가지 큰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힘을 키워 제 한몸을 지켜야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주인이 되여야 하며 나라를 지키는 장수가 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뛰여난 무술을 배워 나라를 지킬줄 알아야 자기 집도 제 한몸도 바로 지킬수 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어라.》

열여섯살나던 해에는 홀로 계실 어머니를 걱정하여 집에서 무술을 닦으려는 아들을 나무라며 큰 장검을 지워 천마산성으로 들여보낸 어머니였다.

세월은 아무일없이 흐르는듯 하였다.

허나 천마산성에서 무술을 닦던 나날 총각은 다 몰랐던 어머니의 사랑을 깨우치며 어엿한 장수로 성장하였다.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두고 차마 떠날수 없어 갑자르던 때 엄하게 나무라시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총각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였던것이다.

《사나이가 집안걱정이나 붙안고 살아서야 어디에 쓰겠느냐.

남아 열여섯이면 어엿한 사나이이거니 사나이답게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마음만을 굳게 가지고 살거라.》

왜오랑캐들이 사방에서 날친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속에 끝내 마음을 진정할길 없는 총각이 집으로 내려왔을 때 그리도 준절히 나무라시던 어머니의 그 가르치심이 필생의 유언으로 남을줄이야…

억대우사나이된 총각의 가슴에서 오늘도 눈물을 퍼내는 그 유언.

《나를 위하는 네 마음은 다 안다. 하지만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여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고나면 어떻게 이 어미에게 효도할수 있단 말이냐. 그래 무엇이 진정으로 엄마를 위한것인지 그리도 모르겠단 말이더냐. …》

가슴속깊이 간직해온 한생의 고귀한 그 무엇이 무너져내리듯이 어머니가 흘리시던 그 눈물, 모진 가난과 고생속에서도 아들앞에서는 단 한번도 보인적 없는 어머니의 눈물앞에서 총각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아! 이 나라를 마음속에 안고사시여 이 나라의 장수가 되기만을 바라고 또 바라오신 사랑하는 어머니! 그래서 그 험한 고생속에서도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주셨으리라!

맹세의 인사를 올리고 다시 천마산으로 들어온 총각의 두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칼을 든 손에서는 장수힘이 솟았다.

온종일 달리고달리여도 힘든줄을 몰랐고 높은 벼랑을 내려뛰여도 무서움을 몰랐다.

그러던 몇달후 총각은 너무도 억울한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였다.

개경지방을 싸다니던 왜오랑캐들이 총각의 집에 들렸다가 두부를 앗는 어머니를 잡아가려고 하였는데 필사적으로 항거하는 어머니를 어쩔수 없게 되자 무작정 칼로 찌르고 달아났던것이다.

총각의 두눈에서는 황황 불이 일었다.

이 쪽발이왜오랑캐놈들… 칼을 번쩍 빼여들고 한낮, 한밤을 펄펄 뛰던 총각이 마음을 진정했을 때 꺼칠해진 얼굴에 전률할만큼 시퍼런 불이 번뜩이는 총각의 눈에서는 철없던 시절의 모습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였다.

…

세월은 흘렀다.

그 나날 총각은 무적의 장수로 자라났다.

왜오랑캐들의 동향을 알아보려고 나갔던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자 기다

리던 총각은 번거로운 마음을 눅잦히며 먼저 령통골을 내려오고있었다.
문득 길아래 큰 바위가 보이였다.
언젠가 박연으로 오르던 길에 걷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봄놀이를 즐긴적이 있는 평퍼짐한 마당에 선 큰 바위였다.
망연히 서서 바라보느라니 두근거리는 가슴속으로 어쩐지 근엄하신 기색의 어머니의 얼굴이 안겨드는것이였다.
(왜 그럴가?!)
꼭 어머니가 무엇인가 자기를 나무라시는것만 같았다.
이때 갑자기 바위아래서 인기척이 들리고 쟁강거리며 칼들이 바위에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야 총각은 두눈을 번쩍 떴다.
전률하도록 섬찍한 저 말소리, 그것은 분명 왜오랑캐들의 말소리였다.
천추의 한을 품고 벼려오던 왜무리들의 지껄임소리였다.
(원쑤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놈들, 잘 만났다!)
총각의 두눈에서는 무서운 불길이 뿜어져나왔다.
이내 스산한 칼싸움이 벌어졌다.
첫 순간에 두놈의 목을 베여냈으나 정신을 차린 왜오랑캐놈들은 어느새 칼을 빼들고 삽시에 그를 에워쌌다.
허나 표범처럼 날고뛰는 총각의 손에서 쉴새없이 번쩍이는 장검이 무서움을 알랴.
여러차례의 밀고 당기며 빠져나오는 싸움끝에 또 세놈의 몸뚱이가 총각의 칼끝에 잘리워졌다.
홀로 남은 두목놈은 가쁜숨을 몰아쉬면서도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총각도 점점 힘이 진해갔다.
한초한초… 아득한 시간이 무겁게 흘러갔다.
이때 갑자기 두목놈이 헉 하고 무릎을 땅에 박으며 풀썩 주저앉자 불시에 장딴지의 힘을 잃어버린 총각도 한순간 비칠거리였다.
허나 총각은 희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마지막힘을 깡그리 가다듬어 힘껏 칼을 날렸다.
쿵— 하는 메아리와 함께 총각도 허공중에 천천히 두팔을 휘저으며 뒤로 넘어졌다.
이름할수 없는 숨막히는 정적이 갑자기 깃들더니 골짜기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산천이 숨을 죽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총각은 아득한 꿈속에 들었다.
…
총각이 큰 바위우에 우뚝 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고있는데 하얀 룡의 모양을 띤 흰구름줄기가 하늘중천에서 천천히 휘돌기 시작하였다.
(룡이 내리는 모양이로구나. 저 룡을 타고 어머니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자.)
이때였다.
《이 땅을 남겨두고 어디로 간다는것이냐?》 하는 웅글은 메아리가 천둥같이 울리더니 흰구름이 쩍 갈라지며 눈부신 백룡이 총각을 향하여 내려꽂히였다.
《앗!》 총각은 저도 모르게 두눈을 꽉 감았다.
거센 폭풍에 총각이 힝하니 날려가는데 무섭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꺼지는듯싶은 굉음이 울리더니 큰 바위가 절반 쭈욱 갈라지며 땅으로 무너져내리는것이였다.
《얘야!》 어디선가 총각을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그 무엇에도 감히 비길수 없게 무게가 느껴지는 저력있는 목소리, 그것은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총각이 슬며시 눈을 떠보니 안개같이 흐릿한 너울이 벗기여지는 속에 새하얀 옷을 정히 입은 어머니가 자기를 굽어보고있는것이 아닌가.
《어머니!》
놀라움과 반가움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가슴에서 터져나왔다.
…
총각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늘 담아주던 큰 두부 두모를 가지런히 포개여얹어놓은것만 같은 큰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것이였다.
대지가 다시한번 부르르 몸을 떨었다.
총각의 끝없이 깊은 잠을 부르르 흔들어깨워주는것이였다.
꿈일가 생시일가. 총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천도 정든 산천 그대로인데 처음 보는 천지진동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있는 천마산의 젊은이들이 똑똑히 보이였다.
함께 무술을 닦던 분명한 그 친구들이였다.
이윽고 총각이 일어서는것을 알아본 친구들이 그를 와 둘러싸고 저

마다 어깨도 흔들어보고 팔도 흔들어보았다.
《살았구만, 살았어.》
《친구들!》 눈물이 글썽해진 총각이 와락 그들을 한아름에 껴안았다.
목메인 순간이 흘러간 뒤 총각이 그들을 밀어내며 흠칫 뒤로 물러섰다.
《제를 지내야겠네.》
총각은 무너져내린 바위돌중에서 한아름되는 넙적한 바위돌을 번쩍 들어 제돌마냥 바로 놓았다.
《두부모를 가져오게.》
큰 대접에 우뚝 솟은 두부 두모가 번듯 올랐다.
그앞에 천마산의 젊은 장수들이 주런이 늘어섰다.
《또다시 이 아들을 살펴주신 어머님, 어머님의 훈계대로 이제는 이 산천이 내 집이 되고 어머니가 되였습니다.》
《우리모두 내 집같은 이 천마산과 내 어머니같으신 어머님을 위해 길이 효성을 다하겠습니다.》
두모장수가 천마산의 젊은 장수들과 함께 큰 바위를 바라보았다.
흰옷을 정히 입은 어머니의 미소짓는 모습이 똑똑히 안겨왔다.
어릴 때부터 늘 밥상우에 놓아주던 하얀 두부 두모가 가슴뭉클하게 안겨들었다.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여 상가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되면 어떻게 어머니에게 효도할수 있단 말이냐. …》
준절하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늘어선 젊은 장수들의 가슴속에 다시금 쩡쩡 메아리쳐들려왔다.
그후 두모장수의 장검은 나라와 백성을 지켜 자비를 모르는 무적의 빛을 내뿜으면서 한놈의 왜오랑캐도 얼씬 못하게 천마산을 지켜냈다.
오늘도 오관산뒤의 령통골을 따라 오르느라면 그 중턱에 누구도 손댄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사랑인듯 웃바위밑에 고임돌까지 든든히 고여있어 두부 두모모양이 분명한 큰 바위가 굴러내리는 일없이 끄떡않고 서있다.
고려 말엽의 학자 리색이 쓴《목은집》에는 두부에 대한 이런 시구절이 있다.

…
나물국 오래동안 먹어 맛없는데
두부가 새로운 맛을 돋구어주네

콩의 원산지인 우리 나라에서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이 창조한 자랑스러운 민족음식 두부.

고려말－리조초에 이르러 두부 만드는 기술이 더욱 높아져 그 맛이 얼마나 좋았던지 세종시절 명나라 임금이 조선사람들이 만든 음식가운데서 두부맛이 제일이라고 여러번 말한 내용이 《리조실록》에도 기록되여있으며 왜나라도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선사람들한테서 두부 만드는 법을 배워서야 왜땅에 두부가 퍼지였다고 한다.

실로 우리 민족의 자랑인 민족음식 두부는 민족의 슬기와 얼을 안고 자라난 두모장수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땅에 영원히 전해질것이다.

천마산 관음사중건비

관음사 축대계단을 오르기 전의 길 왼쪽바위우에 거북받침의 크지 않은 비가 있다.

이것이 천마산 관음사중건비이다.

이 비에는 1660년(리조 현종1년)에 관음사 주지의 청탁에 의하여 화원거사라는 사람이 퇴락한 관음사를 중건한 연혁 등이 씌여져있다.

비명(비에 새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룡궁에 이를 세우고
교화도 숭고하다
시작이 있지 않으면
어찌 마감이 있겠는가
헐어진것이 있지 않으면
어찌 이룩될것이 있겠는가
후에 오늘날이 계승되며는
이 비명을 보고 느낄바있으리

1660년 여름 5월 세움

화원거사가 찬(아름다운 행적을 찬양하는 글)을 하고 문인 서성 박서향이 새김.

현재 천마산 관음사중건비는 비돌이 부식되여 한자의 글자도 알아볼수 없게 되여있다.

며느리떡덩이

변 희 철

먼 옛날 개경장안에 어질고 마음착한 령감님 한분이 로친을 잃고 홀아비로 아들과 함께 살고있었다.

부자가 다 어리숙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착한 위인들이라 령감님은 그리 늙지 않았고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썩 지났으나 장가를 들지 못하였다.

신수가 멀끔한 령감님은 홀로 사는 로친들이 은근히 곁눈질을 하며 마음을 견주어볼 정도로 훤칠한 키에 인품이 있었고 아들도 그만하면 아버지의 절반은 되는 편인데 다같이 고지식한 사람들인지라 하루종일 가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들만 할뿐이였다.

기다리던 복이라고 할가.

극성스러운 중매쟁이 하나가 하루는 집에 찾아와서 대바람에 혼사문제를 꺼내는것이였다.

수룡산너머 깊은 골짝 화전마을에 살림은 몹시 어려우나 이 집사정을 어지간히 아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나이찬 처녀가 있어 잔치라고 따로 차릴것없이 거저 모여 함께 살면 어떻겠는가고 하기에 부자가 다 얼굴을 붉히며 그쪽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참 얼마나 절색으로 고운 처녀가 왔겠는가.

한성장안에서 고르자고 해도 힘들 정도로 물찬 제비같은 처녀였다.

말할수없이 어려운 화전살림이였다지만 한창 피여나는 꽃송이같은 처녀여서인지 뽀얀 살빛에 새까만 눈섭, 반짝이는 반달눈, 도도록한 앵도입술이며 이마부터 코마루까지 이목구비가 빠진데 없는 정이 폭폭 드는 모습이였다.

령감님의 얼굴은 대번에 환해졌고 아들은 너무 좋아 노상 기쁨에 싱글벙글 웃었다.

청승맞은 남정 둘이 말 한마디없이 우두커니 모여앉아있는 괴괴한 굴속만 같이 여겨지던 집안이 활짝 밝아졌다.

동자질솜씨는 또 얼마나 여물었는지…
정말 녀인은 집안의 해빛이였다.
분내까지 이따금 풍기니 그 가슴설레임이란… 고목에 꽃이 폈다고 해야 할지…
사람 사는 맛이 한껏 느껴졌다.
신혼의 나날은 빨리도 흘렀다.
처음 들어설적엔 얌전하게 고개를 숙이고서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던 곰살궂던 녀인도 어느새 어리숙한 때를 말끔 벗었다.
새서방도 제법 야릇한 롱질까지 해대기 시작했다.
남자라고는 처음 보는지라 첫날밤엔 기겁하여 온몸을 부들부들 떨던 새각시도 이제는 간장이 다 녹아흐르도록 새서방을 개올렸다.
뭐, 옥황님의 부마되신분이라느니… 공주님이 천하의 보물을 삼가 드린다느니…
수작들이 정도를 넘어 편지놀음까지 아이들처럼 해갔다.
다 몰랐던 세상을 덜컥 안아보니 하늘이 녹두알만 해졌는지…
멋모르고 덤벼치던 사랑이 느슨히 익어가던 어느날 저녁.
이불속에 들어 꿈같은 하늘세상의 이름을 또 빌어서 요렁조렁한 롱말을 주고받으며 숨을 할싹거리던 순간도 퍼그나 지나자 새서방은 벌렁 드러누워 눈도 못 뜨고있는데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던 새각시의 손이 새서방의 입을 살그머니 벌리였다.
애기처럼 젖꼭지라도 물리려나 하는찰나 새알만 한 매끄러운 덩어리가 들어와 꽉 깨물어보니 쫀득쫀득한게 흰쌀떡이였다.
《엉?!》
새서방의 눈이 번쩍 떠지였다.
꿀꺽 목구멍으로 넘기자 또 한개, 연방 또 두어개 물리여주는데 두 눈을 뜨부럭히 뜨고서 목젖을 늘이며 꿀꺽꿀꺽 삼키고있던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 생각이 들었는지 조용하면서도 정찬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웬거요?》
《잔치떡 빚어달래서 해주었더니 서방님 맛보이라고 몇개 준거예요.》
《아버지는?》
《아유, 새알같은것 몇개인데 그냥 들어요. 나를 위해주느라 요 볼에 우물이 다 생기는데…》

《그래도 아버지에게 먼저 드렸어야지. 다신 그러지 말어. 나야 젊은 놈인데 좀 배고프면 뭘해. 난 당신만 있으면 되여.》
이런 밤이 또 두어번 지나가자 서방의 마음은 잔뜩 불안해졌다.
꼭 누구에게 죄를 짓는것 같고 먹는 떡이 다 가슴에 얹히는것만 같았다.
너무도 고운 색시를 자꾸만 나무랄수는 없고…
허나 아버지는… 한생 고지식하게 살아오신 아버지인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는 매끼 따끈한 진지만 드시였는데 돌아가신 후로는 거친 남정네들의 살림에 부엌동자질에까지 손을 적시던 아버지였다.
죽물이면 죽물, 나물밥이면 나물밥… 언제 한번 마다하지 않고 주는대로, 차례지는대로 그릇을 비우면서도 아무 말씀도 않는 아버님에게… 더우기 며느리를 얻고서는 노상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는것만 같았다.
아, 종일토록 안방에 홀로 계시는 아버님이 혹 이런 일을 눈치라도 채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가… 앞이 다 캄캄해왔다.
서방은 안해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무엇이든 생기면 아버님부터 드리라고 그러면 나도 먹은것처럼 배부르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곱게 웃는 안해의 마음속을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으랴. …
어느날 저녁에는 아예 머리맡에 놓인 떡그릇을 저쪽으로 밀어놓았다.
안해는 뾰로통한채 돌아누웠으나 남편의 정든 손이 팔베개를 해오자 뺑그르 돌아누워 품에 안겼다.
그러면서도 오늘만은 혼자 들라고 또 청하는것이였다.
남편은 아무말없이 안해의 얼굴을 가슴에 쿡 박고 코를 골았다.
이튿날 아침 밥상우에 난데없이 흰떡이 오르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부르더니 《웬떡이냐. 너희들이나 가져다 먹으려무나.》 하고 떡그릇을 내려놓았다.
《아버님, 그런건 잡숴야 해요.》 속절반, 겉절반 서방도 들으라고 하는 대답이였다.
《일없다. 나야 다 늙은 몸인데 젊은 네 서방이 건강해야지. 너도

웬걸 맛보았겠느냐.》
  령감님은 막무가내로 떡그릇을 밀어놓았다.
  그러자 며느리는 저가락을 들어 떡 두개를 냉큼 꿰여올리더니 아이들마냥 시아버지손에 쥐여주었다.
  《아버님, 그럼 요것만이라도 잡수세요.》
  그 모양이 귀여워서인지 《그래, 먹어보자.》하며 령감님은 저가락을 받아들더니 떡을 한개 쪽 뽑아물고 우물거리였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다.
  어느날 새집 짓는 목재를 마련해야 할 일감이 생겨 박연골에 들어간 남편으로부터 달포만에 소식이 왔다.
  새달 초닷새날 아버님과 함께 박연으로 들어오라고…
  령통골을 따라 천마산성 남문으로 오면 거기에서 맞아 박연구경을 실컷 시켜주겠다는것이였다.
  얼마나 기쁘던지, 안해는 남편의 얼굴이 막 보고싶어졌다.
  그러지 않아도 빈방에서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어느새 남편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는지 절로 눈물을 흘리기도 몇번, 가지런히 베고 자던 베개를 꼭 그러안으면 남편의 몸냄새가 물씬 풍겨오는듯 마음마저 사르르 녹아내리던 그였다.
  같이 붙어있는것이 부부라더니 정말 떨어져선 못살겠구나.
  손꼽아기다리던 날이 왔다.
  조금씩 모아온 찹쌀도 두어근 잘되는데다가 보리쌀이나마 얼마간은 있고 고추장이며 이것저것 챙겨넣으니 어느새 한보짐 착실해졌다.
  밤새 이웃집에서 절구를 빌려다가 찰떡까지 쳐놓으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던지, 새알만 하게 곱게 빚어 한접시 고여 시아버지에게 드릴적에는 남편의 얼굴이 눈에 삼삼히 떠올랐다.
  나머지는 다 뭉그리여 참지로 곱게 쌌다.
  그리고는 비단천쪼박으로 다시 싸고…
  그렇지, 편지도 한장 써넣자.
  《옥황님의 부마되실 신선 박오득 전상서.
  지상에 내려와 신기한 보물을 얻었으니 낮이나 밤 어느때든지 오시면 삼가 당신에게만 드리겠나이다.
공주 리씨 올림》
  써놓고보니 웃음이 났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또 떠올랐다.

마음이 짜르르 젖어오고 가슴이 부풀어났다.
래일이면 만나게 된다.
아, 랑군님!
거의 뜬눈으로 밤을 뒤척이다가 얼핏 잠에 들었는데《며늘애야.》하는 부름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려왔다.
《아이구머니.》날이 활짝 밝은것이다.
《내 쉬염쉬염 먼저 갈터이니 천천히 따라오너라.》
《예ㅡ》길게 대답하면서도 부지런히 차비를 했다.
염낭같은 붉은 주머니에 찰떡을 채우니 목까지 그득해졌다.
편지까지 넣어 꽁꽁 싸매는데 서방님의 얼굴이 또 보이였다.
마음껏 경치구경을 하다가 큰 바위우에 나란히 앉아 떡덩어리를 요리조리 손으로 잘라내여 길죽납죽 빚어서 서방님의 입안에 넣어주는 환영이 가슴설레이게 눈에 얼른거렸다.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들었다.
어제 한접시 올리였다지만 따로 싼 덩어리를 보시면…
붉은 떡주머니를 얼른 치마피춤에 넣어두었다.
령통골에 이르자 둥근 해가 머리우에 따스히 떠올랐다.
(아버님이 꽤 멀리 가셨는데…너무 뒤지면 안되지.)
잰걸음을 다그쳤다.
묵직한 떡주머니가 아래배를 툭툭 건드릴 때마다 야릇한 감정에 가슴이 막 설레였다.
구불구불한 길로 중간쯤 오르니 아니, 랑군님이 눈앞에서 환하게 웃고있지 않는가.
둘은 너무 기뻐 어쩔바를 몰라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요? 먼저 떠나셨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버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등성일 넘어오시려나…》
《잠간 쉬며 아버님을 기다릴가?!》
잡아이끄는 남편의 손길에 안해는 말쑥한 두눈을 반짝 마주쳐웃더니 고개를 끄떡했다.
숲은 고요하고 시원하였다.
열뜬 부부가 몸을 꼭 붙이고 들어앉으니 그 뻔한 생각이란…

단숨이 목덜미를 후덥게도 하고 체면을 잊은 손은 가지 않는데가 없었다.

간장이 다 녹는듯싶은 후끈한 애무속에 안해는 그만 괴춤에 들었던 떡주머니가 떨어지는줄도 몰랐다.

갑자기 숲속에서 푸드득 새가 날았다.

안해는 와뜰 놀라 일어섰다.

제꺽 따라일어선 남편이 의젓하게 스적스적 앞을 헤쳐나갔다.

물론 안해의 한손을 꼭 잡아쥐고서…

한무리의 길손들이 우르르 앞을 지나 올라갔다.

(아버님은 어찌된 일이실가?! 아, 저기 오시는구나.)

아들이 반겨 뛰여갔다.

《아버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너도 잘있었느냐?》 자애에 넘친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렸다.

좀 쉬여서 가려는듯이 길옆의 풀숲우에 엉거주춤 주저앉은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다.

《참, 오다가 친구네 집에 들렸더니 막무가내로 떡 몇개를 싸주더구나. 네가 가지고 가거라. 나는 다리가 아파 더 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약초나 좀 찾아보다가 내려가겠으니 며늘애와 함께 며칠 가서 놀다가 넘어오려무나.》

(아차!) 안해는 그때에야 깜짝 놀랐다.

시아버지의 떡이야기를 듣고서야 아래배를 건드리던 묵직한 주머니가 없어진것을 알았던것이다.

그리고 그 놀라움보다 아들, 며느리를 그토록 극진히 생각해주는 시아버지에게 면구스러운 생각이 가득 들었다.

아, 정말 이렇게도 어질고 착하신 아버님을 내 어떻게 대해왔던가.

아이들처럼 철없이… 제 남편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잠간 떨어져도 그리운것이 부부인데 하물며 어머님없이 홀로 계시는 아버님의 마음이야 오죽하실가.)

시집온 나날들의 가지가지의 추억들이 하나하나 생각키워지며 얼굴이 뜨거워났다. 그러면서도 오늘일까지는 차마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아버님, 이 떡은 아버님이 간수하셨다가 잡수십시오.》

《아니다. 나야 이제 친구들도 올터인데 뭐…》

너무도 간곡한 사양에 하는수없이 아들이 받아들려 하자 며느리가 막아나섰다.

《아버님, 이것만은 꼭 아버님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버릇없이 막 대하고 제 남편만 남편이라고 하던 철없는 저를 욕많이 해주십시오.》

어정쩡해하던 시아버지가 감동이 된듯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욕은 무슨 욕을… 내 며느리같은 내인이 어디에 있을라구. 고맙다, 며늘애야. 그럼 네 성의로 알고 내 받아두마.》

시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때였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흰수염을 드리운 도사 한분이 긴 지팽이를 들고 다가오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하는것이였다.

《정말 마음씨 고운 며느리로다. 효자문을 세울 착한 아들, 며느리를 두었으니 길이 복을 받으리로다.》

《고맙소이다, 도사어른.》 시아버지가 즐거이 말을 받았다.

남편도 안해도 도사에게 사례의 인사를 올렸다.

그런데… 머리를 들던 안해의 얼굴이 활딱 붉어졌다.

풍채좋은 도사의 모아쥔 손에 그렇게도 마음 조이던 붉은 떡주머니가 들려있는것이 아닌가.

저러다가 그안의 편지라도 꺼내여들면…

도사가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내가 숲에서 이런것을 주었는데 혹시 로인장의것이 아닌가 해서 돌려주려고 나왔노라.》

《예, 고마운 일이오나 우리의것은 아니올시다.》

령감님이 밀몰아 먼저 말했다.

《도사님, 정말로 우리의것이 아니옵니다.》

덩달아 아들도 웃으며 대답을 했다.

며느리의 얼굴은 더더욱 붉어졌다.

《오냐, 그렇단 말이렷다.》

도사는 천천히 머리를 수그리고 주머니를 쳐들더니 주머니에 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념불비슷하게 중얼거리였다.

《아름다운 산천속에 살면서 착한 마음 후세에 전하고 그 마음 더욱 착해지여라. 복이 내리리로다. 심! 심! 심!》

마음 심자를 천천히 련발할 때 며느리의 가슴은 짜악 죄여져 한줌만 해졌다. 한줌만 한 가슴속에서 심장이 튀여나올듯 세차게 높뛰였다.

도사는 깊숙이 인사를 하고 몇걸음 걸어올라가더니 길옆의 넙적한 바위우에 떡주머니를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바위앞에 도포를 여미고 조용히 앉는것이였다.

끝까지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는 잡도리였다.

거듭되는 사양속에 시아버지를 남겨두고 쫓기우듯 남문을 향해 소로길을 오르는 며느리의 걸음은 막연한 불안으로 자꾸만 후들후들 떨리였다.

그뒤로 도사의 빙그레 웃는 웃음이 아지랑이처럼 그물그물 따라갔다.

줄기차게 쏟아져내리는 박연폭포며 기기묘묘한 바위들, 시원한 담소들이며 아늑한 골안들을 찾아다니면서도 새색시의 마음은 별로 개운하지 못하였다.

자꾸만 넙적한 바위우의 떡주머니가 눈에 선히 떠오르는것이였다.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보면 남편의 이름자를 쉽게 알터인데…

아, 정말 누가 훌쩍 가져가든지 어느 짐승이라도 닁큼 물어갔으면…

며칠후 남문을 나와 령통골을 내려오면서 은근히 그 바위쪽을 쳐다보니 어쩜, 웬일인지 사람들이 몰키여서서 웅성거리고있지 않는가.

얼굴이 확 달아올라 얼른 지나쳐가려다가 힐끗 다시 쳐다보니 이런 정말… 두주먹을 합친것만 하던 떡덩어리가 주머니를 빠져나와 머리통만큼 커졌는데 말랑말랑하면서도 누구도 함부로 뗄수 없게 바위에 딱 달라붙어있는것이였다.

아마도 도사로인이 도술을 편 모양이구나. 감출수록 자루를 삐여져 나오는것이 송곳이라더니 너무도 망신스러워 몰래 치우려고 생각했었더니 떡덩이가 커지게 만들어놓은것이리라.

그후 며느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혀끝의 꿀같은 말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속의 진심을 바쳐 효성을 다하리라.)

며느리는 시어머니도 없이 홀로 계시는 남달리 어질고 마음착한 시아버지에 대해 늘 생각하면서 깊은 관심을 돌려 보살펴주었다.

색다른 음식이 조금 생기여도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아주었고 어쩌다 시아버지의 친구되는 로인네들이 찾아올적에는 수수한 나

물찬이나마 정히 차리여 술 한잔 받쳐올리니 복받을 며느리라고 누구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동리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칭찬과 함께 궁한 살림들에도 여러가지 보탬을 해주려고 마음들을 쓰게 되였다.

세월은 흘러 시아버지가 돌아간 후에도 며느리는 늘 그 떡덩이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생일제사때면 떡 한그릇을 빚어 제사상에 올려놓군 하였다.

그때마다 인자하고 너그럽던 시아버지의 얼굴이 우렷이 떠오르면서 마음은 밝게 가벼워지군 하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사후에는 집안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씻은듯이 병이 낫거나 무엇인가 작정한 일들이 마음먹은대로 하나같이 잘되여서 며느리는 아마도 그 떡덩이가 시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귀중히 여기여서 복을 내린것이라고 믿게 되였다.

어느날 밤 꿈속에 떡덩이바위앞에 조용히 섰는데 그 바위속에서 웅글은 목소리로 어느날 박연 어느 골에 가면 어떤 모양의 풀이 있는데 그 뿌리를 몇뿌리 캐여서 둘이 달여먹으라고 일러주는것이였다.

하도 이상한 꿈이여서 남편과 함께 그 장소에 찾아가보니 백년묵은 산삼이 다섯뿌리씩이나 감추어져있는것이 아닌가.

때때로 이따금 꿈에 그 바위가 나타나 그들내외를 박연으로 불러주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귀한 약초들을 얻거나 어느날에는 노루까지 한마리 거저 얻게 되여 늘 박연의 산천과 정든 인연을 맺고살았다.

그후 두내외는 원앙새처럼 다정하게 아흔살이 넘도록 장수하다가 한날한시에 함께 돌아갔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름이 넘도록 커지였던 떡덩이가 세월의 눈비와 바람에 마르고 조글조글 터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바위로 굳어져버렸다고 한다.

…

오늘도 천마산성의 남문으로 올라가느라면 길옆의 넙적한 바위우에 말라 트고 갈라지면서 껍질이 다 일어난, 신통히도 커다란 떡덩이같은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며느리떡덩이》라고 부른다.

절승의 이 강산은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 더더욱 아름답게 변모되고있다.

까마귀바위

변 희 철

찌는듯싶은 복중이였다.

지글지글 내려쬐는 폭양에 령통골안의 록음방초가 휘주근히 시들어 가던 어느날.

이고 지고 부채들을 흔들고… 주렁주렁 매달린 아이들까지 거느린 한무리의 사람들이 천마산성의 남문을 거쳐 박연을 향해 밀려가고있었다.

그뒤를 멀찍이에서 너울을 뒤집어쓴 애젊은 녀인이 어머니인듯싶은 나많은이와 함께 걷고있었다.

시집을 간지 두달도 못되여 덜컥 남편을 잃고 갓 스물에 초년과부가 되여 본가집으로 돌아온지도 벌써 석달째나 되는지라 해빛만 가리우느라고 한게 아니라 제 얼굴을 남에게 보이기가 싫어서 너울을 뒤집어 썼는지도 모른다.

출가외인이 되돌아왔으니 제집이라도 좋은 일이 무엇이 있으랴.

더우기 아래동생들이 주런한 그로서는 한편으로는 민망스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팔자가 저주스럽기 그지없었다.

하필이면 무슨 팔자이기에 스무살청상과부란 말이 내게 씌워진단 말인가.

시집이라고 가서 남편재미라는것은 볼새도 없이 과부벙거지만 덜컥 쓰고 왔으니 생각할수록 맹랑하고 속에서 빠작빠작 기름이 타끓었다.

그래도 처녀시절 동리아근에서는 두번째손가락에만 꼽아도 입을 비죽거릴 정도로 인물 곱다고 소문난 앵두입술이며 그윽한 반달눈이며 동실한 얼굴에 아직도 이쁨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로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궁합이며 사주팔자며 신수를 다 보아도 길한 복이 온다고 하여 얼굴도 보지 않고 시집을 갔더니 이 모양이 되였다.

그 점쟁이들, 신수쟁이들이란게 하나도 믿을것이 못되였다.

하나같이 뻔한 수작들이다.

이제는 남편이란 사람의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한창 부풀어오르는 꽃망울을 다쳐놓았으니 활짝 피여나는 꽃잎을 어떻게 다시 오무릴수 있단 말인가.
허나 동리에서는 쩍하면 쉬쉬거렸다.
어쩌다가 우물가에서 웃음기만 조금 보여도 한여름의 고인물에 올챙이 끓듯 소문을 내돌리는 바람에 이제는 문밖에 얼씬하기도 막 무서울 지경이였다.
그렇다고 땀이 질질 흐르는 한여름철에 그것도 훌떡 옷을 벗고서 장밤 찬물속에 들어앉아있어도 식지 않을 더운 피 끓는 몸을 가지고 무더운 이 복중을 어떻게 집안에서만 구겨박혀 보낼수 있으랴.
아버지는 이마살을 찌프리지만 그래도 엄마는 딸의 심정을 알아주었다.
하기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얼마간 준비를 갖추어 남들의 눈이 많은 이른새벽이 아니라 우정 비지땀이 흐르는 정오를 타서 모녀가 박연으로 떠난 길이였다.
얼굴 아는 사람만 없으면 박연골안 어느 구석에라도 들어박혀 며칠이고 나오지 않으리라.
너무도 숨막힌 한낮이여선지 소로길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 안했다.
할딱고개를 멀리 두고 조심조심 남문으로 가는 길을 오르는데 참 맹랑하기란 오줌은 왜 이리 마려웁냐. 어머니가 야단법석을 떨었다.
숲에 들어가 잘못 오줌을 누다가 배암의 새끼라도 낳으면 어쩔려느냐고…
그럼 길우라고 풀숲이 아니란 말이야?!
숲에 들어가 번듯한 바위우에 올라앉아 누면 될텐데.
바짝 마른 바위우에서도 그것이 아무렴 살아있을가.
드러난 살을 할퀴는 잡관목을 헤치며 발볌발볌 숲으로 들어서는데 이건 또 무언가. 비죽비죽한 줄기를 내여뻗친 빼빼마른 나무가지우에 대낮에도 웬 까마귀가 올라앉아 그냥 자기를 내려다보며 《까욱.》, 《꽈우욱.》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과부.》, 《과부.》 하고 놀리여대는것 같았다.
(저 망할 놈의 까마구새끼, 귀신이나 콱 물어갈게지. 내가 과부인줄 어떻게 알고 저따위 수작질이람.)

그러고보니 《과부.》, 《과부.》 하는 그놈의 상통이 꼭 그 점쟁이들의 상통과 어쩌면 그리도 신통한지…

언제는 정말 궁합이 꼭 맞는다며 요설을 떨더니 덜커덕 생과부가 되여 돌아오자 오금이 저리게 바람을 일쿠면서 녀자가 살이 세다느니, 얼굴은 반반한데 아흔아홉발 여우꼬리그림자가 비꼈다느니 하며 별의별 흉흉한 말을 다 돌리던 점쟁이, 무당년들의 비죽비죽한 주둥이 같았다.

저따위 흉측한 까마귀가 내려다본다고 내 볼장을 못 보랴.

바삐 치마를 걷어올리고 《쏴—》오줌을 누는데 저 흉물스런 까마귀가 또 무엇을 안다고 《알구말구.》,《알구말구.》하며 소리소리 질러댔다.

돌멩이라도 맞춤한것이 있으면 콱 쥐여뿌리련만…

이때였다.

별안간 바로 옆의 잡관목숲그늘속에서 핑— 활시위소리가 들려왔다.

나무가지우에 앉아 녀인을 골려주던 괘씸한 까마귀놈이 화살에 정통 맞은듯 푸드득거리며 떨어졌다.

《에그머니!》

젊은 녀인은 얼굴이 홍당무우처럼 되여 치마를 활딱 내리우고 얼른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운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후둑후둑 세차게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했다.

누군가 숲에 숨어 나를 지켜보고있는게 아니야?!

얼마쯤 지나 진정이 좀 되여서 가리운 두손짬으로 가재미눈을 해가지고 곁눈질해보니 미끈한 젊은이 한사람이 우뚝 서있는것이였다.

젊은이는 녀인쪽을 바라보며 싱긋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더니 《고현놈같으니, 네가 알면 무엇을 안다고 그래.》하며 죽은 까마귀에게 나지막히 욕을 했다.

《야 이놈아, 산좋고 물좋은 이 산천에야 선녀나 선남뿐이지 과부란 웬 당치않은 소리냐? 이놈, 그러니 죽어 싸지.》

젊은 과부의 가슴속에 살랑살랑 봄바람이 일었다.

(나를 보고 선녀라고…그럼 저는 선남?!)

얹힌것처럼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히 열리는듯싶었다.

얼마나 고마운 말인가, 얼마나 좋은 말인가.
녀인이 얼굴을 가리운 두손을 살그머니 내리우자 젊은이도 이쪽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는데 참 인상깊은 얼굴이였다.
도덕있는 젊은이인지라 먼저 스적스적 숲을 헤치고 나가더니 먼발치에서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마주갔다.
딸이 들어간 숲에서 난데없이 나오는 자기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에게 젊은이는 우선우선하고 시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어머니, 박연골에 들어가시는 길이면 말벗삼아 함께 가십시다.》
그러고는 산천경개를 둘러보며 연신 부채질을 해댔다.
나갈가?… 젊은 녀인은 망설이였다. 외간남자를 대하기가 부끄러웠다.
보내라고 할가?… 그러자 그 인상깊은 웃는 얼굴이 쩌릿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허나 내가 어떤 녀자인줄 알게 된다면 쓴외보듯 할거야.)
딸의 마음을 알아주는듯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어이구 덥다. 엎어진김에 쉬여가랬다구 좀 앉았다 가야겠다.》
어머니는 제 먼저 그늘아래 주저앉았다.
《그런데 거기선 어디에서 사시우?》
《살기는 금천서 사는데 두루 볼일이 있어 개경장안에 왔다가 박연구경이나 하고 가려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어머니와 젊은이가 그늘에 앉아 주고받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젊은이는 어느새 자기 속을 말짱 드러내놓았다.
…
금천서 멀지 않은 골짜기에 손바닥만 한 부대기밭을 부치며 초가이영이나마 쓰고 살던 그가 철들어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마저 장가를 들자 이붓어미손에 얹혀살다가 륙촌벌되는 누이네 집에 온지는 일년이 조금 넘었다.
어머니 없는 설음이 철이 들었다고 쉽게 가시여지랴.
아버지는 딱히 이렇다저렇다 말을 할수가 없어 아들의 눈치만 살피는데 데리고 들어온 딸자식이 셋씩이나 되는 이붓엄마도 아직은 젊은지라 서로가 다 서먹서먹한 판이였다.
코흘리개들과 함께 어울릴수가 없어 이 집, 저 집 친구들 집을 들락날락하다보니 점점 더 면구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훌쩍 집을 나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어릴 때 함께 집에

서 자란적있는 륙촌누이네 집을 찾아왔는데 구차한 살림살이는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매부라는 사람이 하도 마음이 무던하여 그럭저럭 지금까지는 얹혀있는중이였다.

그래도 어릴 때에 어머니가 붙들어두고 극성스럽게 달구치여서 천자문이나마 좀 외운데다가 활 한바탕은 휘두를줄 알아 여기저기서 친구들을 사귀며 뜨내기로 살긴 살아왔지만 점점 더 귀찮게만 여겨지는 인생살이였다.

살림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누이마저 나서서 장안에서 고기를 파는 어떤 집에 좀 부실한 딸이 있는데 거기에 데릴사위로라도 들어가 밥술이라도 얻어먹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들쑤셨다.

푼전에 팔려 마음에도 없는 장가를 갈바에야 어느 절에라도 들어가 불목하니가 되는 편이 낫지. 에라, 박연에라도 들어가 실컷 산천구경이나 해보자.

이렇게 몇번 박연에 들어와보니 쾅! 쾅! 쏟아져내리는 박연폭포에 가슴이 다 열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 푸른 숲, 흰 바위, 맑고 시원한 골짝물, 푸른 하늘, 아름다운 이 산천…

아, 정말이지 여기에 내가 살 곳이 그렇게도 없겠는가.

만시름 다 잊고 선녀들이 내려왔다는 이 아름다운 박연의 산천속에 보금자리를 정하고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차올랐다.

젊은이는 결심하였다.

구차스러운 곁방살이를 버리고 박연으로 들어가 살자.

자그마한 초막이라도 하나 짓고 가을이면 밤도 따고 도토리도 줏고 또 봄철에는 약초도 캐고 산나물도 뜯으며…

벌써 선남이 다된듯싶었다.

《제 뼈를 놀리는게 상책이지요. 아, 이 세상에 사람이 태여날제야 살라고 나왔겠지 아무렴 죽으라고 나왔겠습니까. 누가 무엇이라 해도 나도 이 산의 임자다 하고 목을 뻗대고 살아야겠습니다.》

젊은 녀인은 옷고름을 가져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군 했다.

꼭 자기와 같이 기구한 저 운명…

(아니, 내가 왜 이럴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부드럽고 편안해졌다.
그래, 숨막히는 비난속에 구겨박히여 살것이 뭐야. 내 홀로라도 내 힘을 믿고 살자, 나도 살수 있어.
새힘이 막 솟구치였다.　가슴이 크게 열리였다.
어쩐지 인상깊은 그 젊은이의 얼굴이 어디선가 꼭 본것만 같고 가까운 사람으로만 느껴졌다.
(우물가에서 한번 본것 같기도 한데…　참, 륙촌누이네 집이 우리 동리에서 멀지 않다고 했지.)
한편 어머니도 목이 짜악 잠기여 말이 없었다.
조롱조롱 매달린 동생들때문에 아직 채 자라지도 못한 딸을 점쟁이들에게 속히워 몇푼 안되는 돈을 받아들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혼처에 막무가내로 시집보낸 어제날이 방불하게 되살아났다.
(사람을 보았어야지. 그따위 점쟁이들이 우리 집에 무슨 복을 가져다주겠다고…)
삶의 귀중함을 가슴 메이게 안겨주는 맑고 푸른 산천이 가슴을 확 열어주는듯싶었다.
아름다운 산천이 짓눌렸던 가슴들에 환희로운 새삶의 꿈을 깊이 깃들게 해주었다.
이윽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다.
어머니는 마치도 사위된 사람과 함께 가는듯 허물없이 우스개소리도 주고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걸음을 다그쳤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젊은 녀인도 어머니의 뒤에서 떨어질세라 잰걸음으로 그들의 꼬리를 총총히 따라갔다.
남문우에 올라서니 우중충한 련봉들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깊은 골짜기안으로 멀리 대흥사의 고색짙은 모습이 아득히 내려다보이였다.
그들은 인달봉옆의 아늑한 공지에서 시원한 그늘아래 싸들고온 점심밥을 활짝 펼쳐놓았다.
어머니들이란… 이럴줄을 미리 예견이라도 했던듯 작은 술방구리 하나를 꺼내놓더니 젊은이앞에 놓은 작은 술잔에 술을 한잔 쳐주라고 딸에게 이르는것이였다.
아이… 참, 못이기는척 하며 딸은 찰랑찰랑 넘치도록 술방구리를 기울이였다.
한잔 또 한잔… 술기운이 훈훈하게 몸에 퍼지자 젊은이가 움쭉 몸

을 일으켰다.

한참 멀리를 응시하던 젊은이의 입에서 구성지고 은은한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자기의 마음속을 하소하는것만 같은 절절한 노래소리.

야릇한 애수가 구슬픈 노래가락을 타고 같은 마음을 모으는 가슴속으로 목메이게 퍼지여갔다.

젊은 녀인의 가슴에도 구슬픈 애수가 축축히 젖어들더니 아름다운 눈가에 맑은 눈물이 가득히 고여올라 두볼로 줄져내리였다.

눈물겨웁게 꿈속에서 그리던 그리운 강남의 새봄, 정말로 가고싶고 맞고싶은 새봄이였다.

어머니도 연신 눈굽을 찍었다.

절로 감동에 젖은 젊은이는 아직도 멀리를 응시하며 긴 노래가락을 뽑아가는데 웬걸 꼭같은 마음들인지라 자못 엄숙하게 사나이다운 그 눈가에도 물기가 번쩍거렸다.

《그래그래, 제비도 아름다운 이 산천에 깃을 들이러 찾아오는데 왜 자네들이 깃들일 곳이 없겠나.》

갈린 어머니의 목소리가 후드득 가슴을 두드리자 높뛰는 숨결을 울뚝 삼키던 젊은이는 천천히 제자리에 와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앞에 술을 한잔 부어올렸다.

《어머님, 제 맨주먹뿐입니다만 딸을 저에게 맡기시면 아름다운 이 박연에서 새생활을 보란듯이 꾸려보겠습니다. 승낙해주시오이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감격의 파도가 굽실 흘러넘치였다.

《왜 자네가 맨주먹뿐이겠나.

자기를 믿는 큰 힘이 있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데야… 내 자네의 어머니도 되여주지. 누가 뭐라든지 이 아름다운 산천속에서 어디 한번 선녀, 선남이 되여 잘살아보라구.》

눈물에 젖은 웃음들이 불깃하게 상기된 얼굴들에 한껏 봄빛들을 피워올렸다.

시원한 한줄기의 바람이 불어 숲을 흔들어주며 한껏 달아오른 가슴들을 차분히 식혀주었다.

남문으로 들어왔던 그들은 며칠후 북문으로 나갔다.

아름다운 박연골안에 새삶의 작은 보금자리를 꾸리고 부지런히 숲

을 가꾸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여갔다.

아름다운 산천속에선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기마련이다.

그때 아무렇게나 부리를 놀린 덕에 화살에 맞아 나무에서 떨어진 까마귀가 남문으로 오르는 길옆에 자그마한 바위로 굳어졌는데 큰 부리아래의 앙바틈한 목에는 그때에 면바로 맞았던 활촉자리가 아직도 깊이 패워져있다.

관 음 사

관음사는 대흥산성안 청량봉냥떠러지중턱에 자리잡은 절간이다.

관음사의 력사는 970년(고려 광종21년) 법인국사라는 승려에 의하여 자연석굴안에 관음보살상 한쌍을 앉혀놓고 《관음굴》이라고 부른 때부터 시작되였다.

그후 1393년에 크게 확장하였으며 그후 여러차례 보수를 거듭하였다.

원래는 5채의 건물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대웅전, 승방, 7층석탑 1기와 관음굴이 남아있을뿐이다.

대웅전은 우진각지붕으로 되였으며 단청은 외부에 중단청, 내부에 금단청을 하였다.

대웅전안에는 아미타불앉은상과 그 좌우에 두 협시보살상(관음보살립상, 세지보살립상)이 안치되였으며 불상들우에 17포로 된 두층짜리 닫집을 설치하였다.

섬세하게 짜올린 닫집은 하나의 공예품이라 할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대웅전은 문짝조각이 우수하며 특히 뒤면의 문짝은 통나무에 련꽃을 뚫러새긴것인데 이것을 새긴 운나라는 소년에 대한 눈물겨운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관음굴안에 안치된 회백색대리석 관음보살상은 조형예술적으로 매우 우수한 예술작품이다.

지금의 건물은 리조 중엽에 다시 지은것이나 기발한 건축수법은 고려식건축양식을 많이 따른것으로서 우리 나라 옛 건물이 가지는 특징을 잘 갖춘 우수한 건축유산이다.

참개구리바위

전 철 호

옛날도 아득히 먼 옛날 례성강중류의 개구리동네인 와산마을에는 홀엄마개구리를 모신 참개구리총각이 살고있었다.

패가몰락한 벼슬아치집안의 자손인 참개구리총각은 자나깨나 한가지 뜻을 성취하려는 마음뿐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 고향마을정도가 아니라 온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큰 벼슬감투를 뒤집어쓰는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망조가 든 집안의 생계를 부지하느라 발끝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엄마개구리의 힘겨운 정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올챙이도 아니고 꼬리달린 어린 개구리도 아닌 다 자란 참개구리로서 기골이 튼튼하고 장대한 젊은 아들이 별로 하는 일없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벼슬자리나 탐내는것을 본 엄마개구리는 이렇게 타일렀다.

《얘야, 제발 벼슬만은 욕심내지 말아라. 벼슬길이란데가 남을 물어메치지 않으면 제가 쓰러지는 험한데고 또 심술사나운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면 남의 재물을 앗아내려 무고한 개구리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는 정말 무서운데란다.

네 아버지도 젊은 혈기에 벼슬길에 나섰다가 그런 싸움판에 말려들어 단명했으니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라.》

그러자 참개구리총각은 도리여 우쭐해서 대꾸질했다.

《엄마, 그런 말 마시라요. 아버지가 제 명을 다 못살고 벼슬길에서 잘못된것은 자기 수완이 모자랐기때문이예요. 왜 남한테 맞나요? 남이 때릴 눈치가 보이면 먼저 방망이를 사정없이 휘둘러 상대를 때려눕혀야 했어요.

사내로 세상에 났다가 업수임을 당하여 남한테 뜯기우다 죽는다면 그게 무슨 보람이겠어요. 난 기어이 벼슬을 해도 왕후장상이 되여 개구리세상을 맘껏 다스리겠어요. 그때 가서 고생 많은 엄마를 실컷 호강시켜주겠으니 내 일에 참견하지 마시라요.》

엄마개구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몸을 떨었다.

《에그, 너 어쩌면 마음이 그다지도 모질어졌느냐. 벼슬길에 오르기 전부터 남을 해칠 생각부터 하고있으니 그러다 집안이 망하겠다.》

참개구리총각은 엄마개구리의 말을 귀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흥! 나 아니면 남인 이 세상에서 엄마처럼 어질면 못난이로 손가락질을 당해요. 난 용력도 있고 사내싸게 잘 생긴데다 세상리치도 알만큼 알고 통도 크니 얼마든지 남들을 디디고 올라 높은 벼슬을 차지할수 있어요.》

허나 벼슬길에 오른다는것이 떡 먹듯 쉬운 일이 아니였다. 과거장에 나가면 갈데 없는 락방이였고 권세있는 벼슬아치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때면 만나주지조차 않았다.

참개구리총각은 뒤늦게야 그게 다 제 손에 든 재물이 없어서임을 깨달았다. 그는 코아래 진상을 떠나서는 과거급제도 권세줄도 잡을수 없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렇다고 벼슬길을 호락호락 단념할 참개구리총각이 아니였다. 벼슬세상이 냥돈도 없는 자기를 박대할수록 기어코 벼슬감투를 뒤집어써야 하겠다는 야심으로 이를 갈았다.

어떻게 해야 벼슬뜻을 이룰수 있을가.

참개구리총각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있는데 문득 이런 소문이 들려왔다.

와산마을에서 동남으로 한 백리쯤 가면 산수풍경이 삐여지게 잘난 아름다운 령통골이 있고 그 골안에 오관산이란 신령스런 산이 솟아있다. 까마득한 옛적에 하늘나라 천궁에서 내려온 다섯 신선이 령통골이 하도 아름다운 고장이여서 그 산에서 놀다가 그만 벗어놓고 돌아간 다섯개의 쓰개가 바위로 굳어져있는데 바로 그 산에다 빌면 누구나 소원을 이룰수 있다는것이였다.

그 소문에 참개구리총각의 귀가 번쩍 띄였다.

아, 죽을수가 닥치면 살수가 생긴다더니… 당장 달려가 고관대작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오관산의 다섯쓰개바위에 빌테다. 그러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으뜸가는 관모가 차례질지 어이 알랴.

높은 벼슬자리에 올라서 떵떵 큰소릴 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제모습을 그려보던 참개구리총각은 무릎을 쳤다.

왜 오관산에 빌기만 하겠는가. 이왕이면 오관산의 다섯쓰개바위중에서 제일 멋지고 령험한 쓰개바위를 집으로 떠옮겨놓으면 개구리세상에서 제일 높은 벼슬자리는 후세토록 참개구리가문의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남들이 또 오관산에 빌어서 벼슬뜻을 이룰수 없게 될터이니 이거야말로 일거량득이 아닐수 없으렷다.

어벌뚝지가 형편없이 커진 참개구리총각은 제발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엄마개구리의 일깨움은 들은척도 않고 집을 나섰다.

내 기어이 오관산의 쓰개바위를 떠옮겨다놓고 천하를 호령하며 잘 살아볼테다.

한달만에 천마산에 이른 참개구리는 어리둥절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난생처음 보는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서였다.

아, 이 세상에 이다지도 멋들어진 산천경개가 있단 말인가.

산봉우리는 산봉우리대로, 산릉선은 산릉선대로 바위며 골안들이 하나같이 아직은 본적 없는 형형색색의 기묘한 생김을 이루었고 골안을 적시는 골물은 옥구슬같은데 산을 단장한 록음 또한 너무도 수려하여 넋이 나갈 지경이였다.

그야말로 산도 좋고 물도 좋으며 초목도 좋은 명산이 아닐수 없었다.

참개구리는 새로운 욕심이 꿈틀거렸다. 이런데다 궁궐같은 집을 지어놓고 숱한 심부름군을 두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참개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서라, 아직은 일생대사라는 큰 일감이 앞에 있는데… 하여 걸음을 재촉하여 천마산의 마루에 올라선 참개구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눈이 부시였다.

사방이 어찌나도 탁 트이게 안겨오는지 마치나 옥황상제의 대궐이 있다는 하늘나라에 올라온 심정이였다.

둘러볼수록 산천은 고운 비단필에 아름다운 수를 놓은듯 하고 저 멀리 서해는 팔을 뻗치면 금시라도 손에 닿을듯싶었다.

발치앞으로 굽어보이는 이름없는 골안으로는 은하수인양 한줄기 골물이 요리조리 굽이치는데 보이는것마다 기암이요, 희한한 경치여서 야! 야! 하는 감탄이 연해연방 터져나왔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손금처럼 보이는 앞골안너머의 산은 더욱 빼여지게 기묘했다. 쓰개처럼 생긴 다섯개의 큰 바위들이 산마루에 둥실둥실 솟구쳐있는 산이였다.

참개구리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도 그 산이 오관산임을 알아보았다.

눈망울이 멀쩡한데야 아무리 한번도 본적 없더래도 신통하게 쓰개모양의 다섯바위가 있는 산이 오관산임을 어찌 가려보지 못하겠는가.

드디여 오관산을 가까이 했다는 흥분으로 참개구리는 부르짖었다.
《오관산아! 나에게 제일 높은 관모를 내여주렴.》
그에 화답하듯 갑자기 덩지 큰 두꺼비가 불쑥 나타나서 공손하게 물었다.
《넌 어데서 오는 참개구리니?》
참개구리는 잔뜩 오만상을 찡그렸다.
어쩌면 올챙이처럼 온몸이 두툴두툴하게 못난 두꺼비가 의젓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닐가. 개구리망신을 다 시키면서…
참개구리는 마깝지 않아하는 태도로 퉁명스레 대꾸했다.
《넌 별걸 다 묻는구나. 보아하니 너 예서 사는것 같은데 저 앞산이 오관산이 맞겠지?》
두꺼비는 자기를 깔보며 하대하는 태도에 개의치 않는지 여전히 공손했다.
《응, 오관산이 맞아.》
《그렇겠지. 저 산에 빌면 소원성취를 한다는게 적실하니?》
두꺼비는 벙긋 웃었다.
《그럼, 누구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하게 빌면 령험하신 오관산신이 그 소원을 들어준단다.》
참개구리는 씩 웃으며 코를 불었다.
《흥! 이 쫌보리같은 작자라구야. 뭐 말라빠져 죽을 깨끗한 마음 같은 소릴 해? 그건 다 검은 심보를 가리우려 꾸며낸 비단보자기같은 수작이야. 그건 그렇고 난 말이다, 저 오관산이 큼직한 벼슬자릴 내여주길 바래서 왔단 말이다.》하더니 참개구리는 오관산을 가리켰다.
《두꺼비 넌 힘깨나 써보이는데 날 좀 도와야겠어. 난 저 산에서 제일 큰 쓰개바위를 아예 내 집으로 떠옮겨놓고 빌자는거야.》
두꺼비는 깜짝 놀라 뒤걸음을 쳤다.
어쩜 세상에 잘 생긴 용모와는 달리 욕심이 땅두께같이 심보사나운 개구리도 있을가.
사실 두꺼비는 참개구리와 4촌쯤되는 진짜두꺼비가 아니였다. 그는 오관산과 천마산을 오가며 명산을 돌보는 산신이였다.
두꺼비면 두꺼비, 새면 새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양새를 바꿀수 있는 일흔두가지 둔갑술을 가지고있을뿐더러 그보다 두곱이나 많은 비상한 재주까지 갖춘 산신은 날마다 명산구경을 오는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명산의 아름다움이 손상되지 않도록 살피고있었다.

두꺼비는 오관산의 쓰개바위까지 떠옮겨가겠다는 참개구리의 말이 진심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금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입을 열었다.

《참개구리야, 여기의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니 저기 오관산의 쓰개바위들이 작은것 같지만 거기에 가서 보면 고래등같이 큰데 그걸 무슨 힘으로 떠옮겨가겠니?》

참개구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떠벌이였다.

《난 너와 친척이라면 친척이기에 털어놓고 말해주는거다. 내 힘이 모자라서 쓰개바위를 떠옮겨가지 못할수도 있겠지. 그러면 난 먼저 소원풀이부터 한 다음 저 쓰개바위들을 다 허물어치울테야. 그래야 다른 놈이 내뒤를 따라 벼슬뜻을 이루지 못할게 아니냐.》

두꺼비는 아연실색하였다.

악하다 악하다 해도 이 참개구리처럼 악한 놈이 또 어데 있으랴. 이거야말로 먹기 싫은 밥에 재나 뿌리지 하는 그것을 식은죽먹기처럼 여기는 악한자들도 감히 엄두내지 못할짓이였다.

참개구리는 울창한 로송들사이로 뜀박질을 하며 웨쳤다.

《빨리 날 따르라.》

로송들사이로 껑충껑충 뜀질을 하면서 참개구리의 뒤를 아무말없이 따르는 두꺼비의 생각은 착잡하였다.

지금껏 명산을 지키는 산신노릇을 하면서 참개구리처럼 심보가 고약스러운 놈은 보다 처음이였다.

명산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일지라도 해치려는자는 그가 누구이든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중임을 맡은 산신으로서 참개구리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하겠는가. 호되게 꾸짖어서 제 살던 고장으로 되돌려보낼가. 아니면 수십대의 곤장을 되우 쳐가지고 먼곳의 정배살이로 쫓아버릴가.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그 어떤 중한 벌을 준다고 해도 명산을 해치고저 하는 참개구리를 징벌하기에는 부족한것 같았다.

벌써 앞서가는 참개구리는 천마산의 중턱을 내리고있었다.

이제 얼마쯤 더 내려가면 집채같은 너럭바위들이 제멋대로 나딩구는 그사이로 구슬같은 골물이 흘러내리는 개울이 나질것이였다.

온통 속통이 악꾸러기인 참개구리의 더러운 몸뚱이가 맑은 물을 더럽히기 전에 맞춤한 벌을 내려야 했다.

급히 참개구리를 따라 뜀질을 하던 두꺼비는 마침내 알맞춤한 벌이

무엇인지 생각해냈다.

저 하나의 출세와 부귀를 위하고저 명산의 아름다움까지 감히 해치려드는 참개구리같은자들의 죄는 마땅히 누구나 다 알아보고 자기를 경계할수 있도록 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자면 저아래의 개울을 따라 나있는 오솔길로 찾아드는 구경군들이 다 잘 볼수 있는 자리에다 죄많은 참개구리를 후세토록 굳혀놓아야 한다.

두꺼비가 산신으로서 가지고있는 백마흔네가지 재주들중에는 죄를 진자를 바위로 둔갑시켜놓는 비방도 있었다.

골아래의 개울에 거의 다달은 참개구리가 다시 뜀질을 하려고 고개를 숙인채 몸을 움츠린 순간 두꺼비는 벼락치듯 재주주머니를 흔들었다.

그러자 삽시에 하늘에서 지심을 치는 번개가 번쩍 일더니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골안을 뒤흔들었다. 그와 동시에 산릉선의 나무아래에서 입을 억문 참개구리가 억대바위로 굳어졌다.

억대바위로 굳어져버린 참개구리를 한동안 지켜보던 두꺼비는 보라매로 변하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나래를 쳤다.

그때로부터 참개구리는 수수천년 그 한자리에 큰 바위로 굳어져서 명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풀 한대, 돌 하나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함을 벌받은 자세로 일깨워주고있다.

박연4담

박연폭포를 지나서 대흥골로 흘러내리는 개울을 따라 오르느라면 4개의 못이 나지는데 이를 《박연4담》이라고 한다.

《천마산 관음사중건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쓴 화원거사의 찬(남의 아름다운 행적, 글씨나 그림을 찬양하는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옥같은 골짜기가 십리요, 금같은 절벽이 천향(天向)이며 기, 마, 구, 룡의 4담이 서로 련결되여있다.》

기담(妓潭), 마담(馬潭), 구담(龜潭), 룡담(龍潭) 으로 된 4담은 못이면서 동시에 폭포의 경치도 함께 갖추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져내리면서 이루어놓은 물확이 못으로 되였기때문이다.

4담은 그 어느것이나 맑고도 깊으면서도 옥같이 파아란 물이 고여있어서 예로부터 박연의 여러 명소들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명소로 일러오고있다.

과녁바위와 하늘문

김 동 천

대흥산성 남문을 지나 령통사쪽으로 얼마간 내려오느라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구멍이 펑하니 뚫려있는 바위가 보인다.

동쪽에는 자라봉이 솟아있고 남쪽으로는 오관산이 마주서고 북쪽으로는 천마산골을 등지고 박연유람도로 길옆에 서있는 이 구멍뚫린 바위에도 기이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말에다 화살묶음을 가득 싣고 전통을 멘 젊은이가 대흥산성 남문을 향해 골똘한 생각에 잠겨 가고있었다.

어제 중낮쯤 되여서인가 큰 바위를 과녁으로 삼고 젊은이가 활쏘기훈련을 하고있을 때 문득 허연 수염발을 길게 드리운 신선인듯싶은 로인이 바위우에 소리없이 나타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하는것이였다.

《그대의 활쏘는 솜씨가 참으로 비범하오. 여기 오관산으로 말하면 삼한지맥의 기운이 용솟고 맑은 물 흐르며 앞으로는 큰 강과 잇닿은 바다가 있으니 여기에 하늘의 기운까지 합쳐지면 천하의 으뜸으로 될것은 물론이요 꾸준하게 인내성을 다하여 도를 닦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이 땅에 성인이 나타날결세.》

백발로인의 이 말에 젊은이는 놀라며 《하늘과 땅의 기운을 합친단 말이오이까?》 하고 물었다.

《그렇네. 저기 보이는 하늘문만 연다면 하늘의 기운이 내려온다네.》

신선로인은 젊은이가 활쏘기과녁을 세워둔 곳의 우에 있는 큰 바위를 가리켰다.

로인이 가리키는 바위를 바라보니 과연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있는 바위가 신통히도 문처럼 안겨왔다.

《저 하늘문을 과녁으로 삼고 화살 3만대를 쏘게. 그러면 알도리가 있을결세.》

신선로인은 이렇게 말하며 빙그레 웃었다.

《예? 3만대의 활이요?》

《그렇네. 그러나 그 3만대중 단 한대의 살도 빗나가면 안된다네.》
이렇게 말을 마친 신선로인은 긴 수염발을 내리쓸었다. 그러자 흰 안개가 그를 감싸안더니 가뭇없이 하늘로 사라지는것이였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신선로인의 말을 생각하며 젊은이는 산 두굽이를 돌아 활터에 이르렀다.
활에 살을 메운 그는 과녁으로 삼은 하늘문을 향해 힘있게 시위를 당겼다 놓았다. 첫 화살은 《핑ㅡ》소리를 내며 날아가 과녁바위중심에 맞았다.
그러나 화살은 바위에 박히지 못하고 툭 튀여났다.
《핑ㅡ 핑ㅡ》
무수한 화살들이 과녁바위의 한곳을 향해 날고 또 날았다.
한대의 화살이라도 빗나갈세라 신경을 도사리고 쏘고 또 쏘느라 눈부리가 다 아픈데다가 준비해왔던 화살을 다 날리느라 어깨가 뻐근하고 장알박힌 손가락마저 부르틀 정도가 되였다.
날이 어두워서야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온몸이 잦아드는듯 했으나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화살로 바위를 뚫을수 있을가?)
이 궁리, 저 궁리 해가던 젊은이는 활도 더 크고 센것으로 바꾸었고 밤을 새워가며 활촉도 더 뾰족하게 갈았다.
새날이 푸름히 밝아올무렵에 일을 끝낸 젊은이는 준비한 화살들을 전부 활터로 날라갔다.
(물방울도 쉽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다 했거늘 어찌 활로 바위를 뚫지 못하랴. 3만대가 아니라 3천만대를 쏘아서라도 내 기어이 저 하늘문을 열고야말리라.)
활을 꽉 틀어쥐고 과녁바위를 노려보는 젊은이의 얼굴은 떠오르기 시작한 붉은 태양의 해빛과 어울려 타는듯 상기되였다. 이윽고 활터에서는 화살 날리는 소리가 힘있게 쉼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활쏘는데 집중하느라 점심을 먹는것마저 잊어버린 젊은이는 한번도 쉬지 않고 시위를 당기고 또 당기였다.
그러느라니 몸은 온통 땀으로 푹 젖었고 옷은 쥐여짜면 땀이 뚝뚝 떨어질듯 물주머니가 되고말았다.
아무리 굳은 바위라 할지라도 수천, 수만의 활촉에 맞은 자리는 점

점 깊이 패여져 이제는 화살의 절반만큼이나 들어가 박히군 하였다.
화살이 구멍을 내는지 젊은이의 정신이 구멍을 뚫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구멍은 점점 깊어갔다.
과녁바위의 한점을 겨누어 노려보는 젊은이의 눈길은 그대로 바위를 녹여낼듯 이글거리는데 이제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그의 손만이 규칙적으로 화살을 찾아쥐고 오르내릴뿐이였다.
(이제 정말 하늘문이 열리게 될가?)
젊은이는 드디여 마지막화살을 뽑아 활에 메우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상상해보았다. 바위가 갈라지며 흰구름이 뭉게뭉게 솜뭉치 흘러내리듯 쓸어드는 광경이였다.
과녁바위를 바라보는 젊은이의 눈빛에는 반드시 하늘문이 열릴것이라는 믿음이 어리였고 그 마음을 안고 《피유-》하고 화살이 날았다.
그러나 3만대의 화살도 끝내 바위를 뚫지 못하고말았다.
순간 화살을 쏘면 하늘문이 열릴것이라고 믿었던 기대가 허물어지자 젊은이는 그만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감을 느끼며 물먹은 담처럼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어김없이 3만대를 다 쏘았지만 어이하여 하늘문은 열리지 않을가?)
안타까운 생각을 더듬던 젊은이는 밤을 새운데다가 긴장마저 풀린지라 바위에 기댄채 솔곳이 잠들고말았다.
…흰구름이 둥실둥실 떠도는 속에 흰 수염발을 날리며 신선로인이 젊은이를 향해 다가오면서 말하였다.
《그대가 쏜 3만대의 화살이 어김없이 한자리를 맞혔으니 참으로 비범한 솜씨로다. 내가 3만대의 화살을 쏘라고 한것은 정말로 하늘문을 열수 있겠는지 그대의 신념과 의지를 시험해본것이니 너무 락심하지 말거라. 실지 저 하늘문을 열자면 하늘나라의 쇠활과 쇠화살이 있어야 하느니라. 기어이 하늘문을 열겠다는 그대의 열의와 굳센 정신력에 탄복하여 하늘나라의 쇠활과 쇠화살을 주려 하니 그것으로 하늘문을 열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며 신선로인은 구름속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들더니 젊은이에게 내미는것이였다.
《야! 쇠활, 쇠화살!》
젊은이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탄성을 터치며 신선로인이 주는것을 받으려고 두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나 신선로인은 구름속으로 사라지고 쇠활과 쇠화살 석대는 너울너울 춤추듯 공중으로 날아갔다. 젊은이는 허공으로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석대의 화살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다가 그만 꿈에서 깨고말았다.

잠에서 깨여나 몹시 아쉬운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글쎄 자기가 기대여 잠들었던 바위우에 룡무늬가 새겨지고 오색령롱한 빛을 뿌리는 활집이 놓여있고 그속에 쇠화살 석대가 들어있는것이 아닌가.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 젊은이는 두눈을 마구 비비기도 하고 제 팔을 꼬집어보기도 하다가 꿈속에서처럼 또 화살이 날아갈가봐 벌떡 일어나 활집을 와락 그러안았다.

《야! 이것이 방금 꿈에서 신선로인이 나에게 주던 그 쇠화살이로구나. 그러니 이젠 하늘문을 열수 있겠구나. 그런데 쇠활은… 하늘나라의 쇠활이 있어야 쇠화살도 쓸게 아닌가?》

젊은이가 이렇게 중얼거리는데 《그대의 활이면 하늘나라의 쇠활도 능히 대신할수 있으리로다.》 하는 신선로인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내 활이 쇠활을 대신하다니? 그러니 이 화살만 있으면 나의 이 활로도 하늘문을 열수 있다는 말이 아닌가?!)

신기한듯 자기의 활도 바라보고 또 쇠화살 석대가 들어있는 룡무늬 활집도 기쁨에 겨워 바라보던 젊은이는 거기에 씌여진 글에 주의가 미쳐 눈길을 모았다.

《쇠화살 석대로 하늘문은 능히 열수 있으나 하늘의 기운과 접하게 되면 그대는 곧 죽을것이로다.》

(뭐? 죽는다구?)

활집을 든 젊은이의 두손이 차츰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화살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어디론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두려움도 생겨났다.

나서자란 이 땅을 빛내일 성인이 태여나게 된다니 기어이 저 하늘문을 열고싶었으나 정든 고향산천과 자애깊은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들이며 화목하고 다정한 이웃들과도 영영 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창나이의 젊은 청춘이 아깝고 서글프기만 하였다.

젊은이는 난생처음 헤여날길 없는 괴로움에 빠지고말았다.

쇠화살 석대를 쏘아버리고 죽고마는가 아니면 나서자란 이 땅이 아름다움으로 이름 높은 명승지로 길이 남을뿐아니라 나라와 겨레가 강성하여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대성인의 땅으로 빛나게 하는것이 옳은것인가.

이제라도 하늘문 열기를 포기한다면 살수는 있을것이다. 하다면…

아니다, 내 기어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길에 열백번이라도 이 몸을 기꺼이 바치리라. 이 땅의 사내대장부로 태여나 한줌의 흙이 되고 한알의 모래가 되여서라도 아름다운 고향땅을 지키는 성돌로만 굳어진다면 무슨 한이 있으랴!

마음속으로 생각을 굳혀갈수록 죽음앞에서 순간이나마 주저했던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드디여 거인의 숭엄한 기상을 안고 젊은이는 천천히 활을 들어올렸다.

힘껏 활줄을 잡아당기던 그의 엄지손가락이 펴이자 《피－ 잉－》 하는 소리와 함께 쇠화살이 과녁바위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다.

첫번째 쇠화살이 《쿵－》소리를 내며 바위를 뚫고 깊숙이 박히였다.

그러자 지르릉－ 딛고선 땅이 흔들리고 잠잠하던 골안에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두번째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다시 바위를 겨눈 젊은이는 바람이 부는것을 타산하여 더 힘껏 당겼다 놓았다.

《쉬－익》하고 날아간 화살은 첫번째 화살을 밀어내고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바위에 구멍을 냈다.

그러자 그 구멍으로 거센 바람이 쏠어나오더니 주변의 나무들을 마구 흔들어대며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서있기도 몹시 힘들고 마구 불어치는 세찬 바람에 숨쉬기가 다 어려웠으나 세번째 화살을 메우고 주저없이 온몸의 힘을 다하여 한껏 당기였다.

어찌나 힘을 주었던지 팔뚝에서는 《으드득!》 소리가 났고 땀이 철철 흐르는 얼굴은 갓 부어놓은 구리가마마냥 벌겋게 달아올라 번들거렸다.

(이제 이 마지막화살을 날리면… 아! 아름다운 이 땅이여, 백성들이여! 부디 이 나라를 빛내일 대성인을 맞이하여 천세만세 강성하시라!)

《피드득－》 세번째 화살은 미친듯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받아 죽음앞에서도 굴함없는 젊은이의 마음인양 힘차게 날아갔다. 화살은 이미 났던 구멍을 통과해나가며 더 크게 구멍을 냈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짜르릉－ 》 하는 요란한 천둥소리가 터져나왔다.

휑하니 넓어진 구멍으로 폭풍이 불어쳐나오며 땅이 세차게 흔들리더니 오관산이 통채로 무너지듯 큰 바위들이 쩍쩍 갈라터져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와당탕! 탕! 탕! 쿵!》

(드디여 하늘문이 열렸구나!)

젊은이는 너무도 세찬 소리에 정신을 잃고 그만 쓰러지고말았다.

얼마나 지났을가. … 바람이 멎더니 하얀 안개바다가 하늘문을 통해 골안으로 서서히 스며들었다가 다시금 걷히자 주위가 환해지고 하늘은 비가 온 뒤처럼 푸르청청 맑아졌다.

이때였다.

죽은듯이 정신을 잃고있는 젊은이에게 신선로인이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왔다.

신선로인은 젊은이의 입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장생불사약 세방울을 떨구어주었다.

기울인 호로병에서 장생불사약이 방울방울 떨어질 때마다 창백해졌던 젊은이의 얼굴에 홍조가 비끼고 화기가 돌더니 《푸－》 하는 소리와 함께 숨도 열리는것이였다.

잠시후 젊은이는 신기하게도 몸을 몇번 뒤척이더니 마치 한잠이라도 자고난듯 눈을 비비며 거뿐히 일어났다.

빙그레 웃고있는 신선로인을 알아본 젊은이는 자기를 살려준 그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숙여 절을 하였다.

《젊은시절 한때의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한몸의 부귀와 영달을 바람이 없이 제 목숨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그대의 충정이 실로 갸륵하도다. 그래서 그대에게 영원히 이 땅을 지키라고 장생불사약을 주기로 하였느니라.》

《고맙소이다.》 젊은이는 진심으로 머리숙여 그에게 다시 절을 하였다.

《이제 때가 되면 백성들모두가 바라는대로 큰뜻을 품은 성인이 반드시 나타나 이 땅을 동방의 문명강국으로 이끌게 될터인즉 그대는 하늘이 주는 이 천리준마를 타고 아름다운 고향땅을 억세게 다지도록 하라.》

말을 마치고난 신선로인은 흰 수염발을 날리며 다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볍게 날아올랐다.

(알겠나이다. 제 기꺼이 나라와 백성을 굳게굳게 지키는 성벽이 되고 장검이 되겠나이다.)

이때 어데선가 《오호홍-》 하는 천리준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화살로 구멍을 낸 하늘문마저 쩍 터갈라져 있는데 그앞에 상서로운 기운이 돌고있는 큼직한 바위우에 준마가 서서 발굽을 구르며 주인을 찾듯이 투레질을 하고있었다.
한달음에 달려간 젊은이는 나는듯이 준마의 등에 올라 힘차게 박차를 가했다.
그를 태운 준마는 눈깜빡할 사이에 산정을 달려 천마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이르렀다.
저 멀리 시원하게 트인 바다며 기기묘묘한 첩첩층암들을 둘러보며 젊은이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아름다운 강토여! 슬기롭고 용감한 이 나라의 백성들이여! 내 그대의 아들답게 이 땅을 목숨바쳐 지키는 성돌이 되고 장검이 되리라.)
그의 장한 마음을 알았다는듯 준마도 고개를 주억거리며 발굽으로 바위를 굴렀다.
그때로부터 젊은이는 나라와 고향을 지키는 싸움마다에서 언제나 무적장수의 용맹을 떨쳤다고 한다.

천마산과 리규보

고려시기의 이름있는 문인이였던 리규보(1169－1241년)의 첫 이름은 인저이며 자는 춘경이라 했고 백운산인, 백운거사 등의 호를 썼다.
7살때 아버지를 따라 고려의 서울인 개경에 와서 청소년시절을 보냈다.
《해좌칠현》에 속한 진보적문인들의 영향밑에 당대 현실을 비판적으로 대한 그는 과거에 급제한 후에도 벼슬을 단념하고 천마산에 들어와 은거하면서 문학창작에 전념하였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서사시《동명왕편》은 26살때에, 장시《천보영사》는 27살때에, 《삼백운시》는 28살때에 모두 천마산에서 창작하였으며 시 《천마산》(1), (2), (3), (4)와 《박연폭》이라는 시도 다 천마산에서 창작한것이다.
리규보의 문집 《동국리상국집》에는 2천여수의 시와 700여편의 산문작품이 실려있다.
천마산은 고려시기를 대표하는 뛰여난 문인이며 중세유물론철학자인 리규보의 모습을 생동하게 간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유명하다.

천마산의 삼포동

김 현 우

고구려 장수왕시기에 있은 일이였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빛에 만물은 즐거움에 잠겼는데 숲속의 오솔길로는 부러진 창대를 지팡이삼은 세명의 군사가 서로 의지해서 가까스로 걸어가고있었다.

전장터에서 부상당하여 쓰러져있다가 철수하는 부대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였던것이다.

싸움터에 널려있던 주검속에서 뒤늦게야 정신을 차리고 기여나온 이들은 힘을 가다듬어 한걸음, 두걸음 옮겨디디며 부대를 찾아가는 길이였다.

세 군사는 기력을 다하여 걸었으나 세 강과 령을 넘어 어떤 커다란 수림의 중턱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만에야 쓰러지고말았다.

이들은 일석이, 이석이, 삼석이라고 불리우는 삼형제군사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쑤셔대는 상처의 아픔을 참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밀림속의 자그마한 공지였는데 하늘은 아름드리 참나무잎새들로 가리워졌어도 땅에는 음지에 사는 풀들이 떨기떨기 무리를 이루고있었다.

칡이나 도라지, 더덕 같은것이라도 있으면 캐먹으려고 아까부터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막내 삼석이가 무엇을 보았는지 저 혼자 한탄조로 중얼거리였다.

《이게 무슨 풀이야? 새빨간 열매를 달고있으니 보기에는 곱다만 버섯도 고운것은 독이 있다니 너도 사람 먹을게 아닌가보구나. 젠장!》

그 소리에 일석이와 이석이도 삼석이에게로 다가갔다.

정말로 아지는 셋인데 잎은 손가락처럼 다섯으로 펼쳐진 속에 그가운데서 줄기가 솟아나 새빨간 열매들을 달고있는것이 보기에도 무척 고왔다.

그 풀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웬 독초가 이렇게 무리지어 자랄가 하고 생각하던 일석이는 그만에야 깜짝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 풀들이 자그마한 공지에 줄을 맞추어 자라고있었던것이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사람의 손에 의해 가꾸어졌다면 독은 물론 없을것이고 먹을수도 있지 않을가?)

옆에 있던 이석이가 형의 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듯 이렇게 말하였다.
《형님, 사람이 가꾸는 풀같은데 먹어도 일없지 않을가요?》
《글쎄 그런것 같기는 하다만 주인이 있는 물건을 승인없이 어찌 다친단 말이냐?》
두 형이 주고받는 말을 엿들은 삼석이 무턱대고 한뿌리 뽑아들었다.
《엉, 이건 또 무에야? 이게 꼭 사람을 닮았네.》
삼석이 쳐든 뿌리는 신통히도 사람과 같이 머리와 몸통, 팔다리가 있고 수염까지 휘늘어져있었다.
삼석은 보기에도 막 먹음직스러웠던지 꿀꺽 군침을 삼키며 또 입을 열었다.
《형님들, 독초든 약초든 나는 배가 고파 더는 참지 못하겠소. 독초라면 내가 먼저 죽을테니 형님들은 좀 참으시오.》
와작와작 소리를 내며 그 뿌리를 씹어먹으면서도 무어라고 중얼중얼하던 삼석이 문득 입놀림을 멈추었다.
《아니, 이게 무슨 향기요?》
아직까지 맡아본적이 없는 기이한 향내가 풍기는데 그것이 이들 삼형제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것은 물론이요 즐거운 기분까지 가져다주었다.
그것은 바로 삼석이가 먹고있는 풀뿌리에서 풍기는것이였다.
《형님들, 세상에 둘도 없는 참 별맛이요. 이게 혹시 신선들이 먹는다는 신선초는 아닐가요?》
그러나 형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풀뿌리를 와락 뽑아 씹기만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초기를 만난데다가 기이한 향내까지 맡았으니 주인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말았던것이다.
한뿌리, 두뿌리, 세뿌리…
네번째 뿌리를 또 캐려고 헤덤비는 삼석이의 손을 붙잡으며 맏형이 말하였다.
《주인이 있는 물건에 너무 많이 손을 대였구나. 이젠 그만하고 주인이 나타나면 사정을 말하고 벌을 받자.》
삼석이도 내밀었던 손을 움츠리며 형의 말에 호응했다.
《옳은 말이야요. 형님 말대로 벌을 받게 되면 내가 볼기를 내대겠소. 그런데 이거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한 삼석은 주인이 보이지 않나 하여 앞에 있는 바위우로 껑충 뛰여올랐다.
순간 일석이와 이석이는 깜짝 놀랐다.
상처가 심해 움찍하기도 힘들어하던 삼석이가 세길이 넘는 바위우

에 훌쩍 뛰여올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는것이 아닌가! 일석은 이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삼석이에게 일렀다.

《셋째야, 그곳이 높으니 조심해서 내려오너라.》

그러나 삼석은 그 말을 들은듯만듯 가볍게 내려서는데 응당 나야 할 쿵! 소리마저 없었다.

《네가 올라갔던 저 높은 바위를 보아라.》

이석의 말을 듣고 바위를 바라본 삼석은 그만에야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아니, 내가 저기에 올라갔던게 사실이요? 원, 이런 변이라구야…》

삼형제는 그제서야 자기들이 캐먹은 그 풀뿌리들에 신기한 조화와 비밀이 숨어있음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제일 큰것을 캐먹은 삼석의 얼굴은 탁배기 한동이나 마신듯이 불깃불깃해졌다.

《형님, 울기가 치미는게 이거 왜 이럴가요?》

이렇게 말한 삼석은 옆에 있는 큰 바위돌을 넝큼 들어 휘익— 내던졌다. 어방없이 큰 바위돌이 멀리로 가볍게 날아갔다.

일석이, 이석이의 얼굴에도 울기가 차올랐다. 치밀어오르는 기운을 참을길없어 팔다리를 굽혔다폈다하고 몸통도 비틀어대며 주체하지 못하던 삼형제는 솟구치는 열에 취하여 그만에야 네활개를 쭉 편채 잠들고말았다. 엊저녁은 아픔을 참을수 없어 신음속에 잠들었던 그들이 지금은 그 고통을 어데다 벗어버렸는지 배심좋게 드렁드렁 코까지 골고있었다.

몇시간을 잤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일석이가 눈을 떠보니 자기들 삼형제가 어떤 초막에 누워있는것이 아닌가?!

상처에는 어떤 알지 못할 얄팍한것이 감겨져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네가 캐먹었던 풀뿌리의 향기가 진하게 나고있었다.

누군가가 그 풀뿌리를 캐서 즙을 내여 상처에 바르고 싸맨것이 분명하였다.

하다면 우리들을 초막에 눕히고 치료해준이는 누굴가. …

살풋이 열려져있는 초막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밤하늘의 별바다가 유정하게 안겨오는데 하늘의 중심을 타고 흐르는 삼태성이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야, 정말 멋있구나. 멋있어!》

일석이가 터뜨리는 격정에 이석이, 삼석이도 벌떡벌떡 깨여 일어

나앉았다.
삼석이는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어제치며 곧장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때 일석이가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띄여보고 삼석이를 붙잡았다.
초막밖의 마당 한켠에서 하얀 수염을 길게 드리운 어떤 로인이 네모난 돌상우에 랭수 한사발을 정히 떠놓고 삼태성이 기우는 서쪽하늘을 향하여 절을 하며 무엇이라 말하고있었던것이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무슨 주문같기도 하였다.
《인삼별신마마이시여! 약소하오나 먼 밤길에 저의 지성이 담긴 이 랭수라도 들고 가시옵소서. 부루시리, 달시리로 꺼져가던 우리의 세 군사가 이제는 완전히 소생했사옵니다. 이게 모두 삼태성별신마마님의 덕택이오니 감사의 큰절을 드리려 하옵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난것이 부루시리, 달시리라는것의 덕이란 말인가?! 로인이 인삼별신마마요 삼태성별신마마요 하는것을 보면 저 하늘의 삼태성이 인삼의 하늘신이라는 소리인즉 인삼을 두고 부루시리라 하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런데 자기들이 소생한것은 로인이 키운듯싶은 부루시리밭에서 그것을 승인없이 캐먹어서 그렇게 된것인데 도적놈이라고 벌을 줄 대신에 오히려 하늘에 대고 감사하다고 하니 도무지 어인 일인지 알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겨레와 국토의 통일위업에 나선 고구려군사들을 아껴주고 위해주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다는 생각뿐이였다.
하면서도 아무리해도 풀수 없는 의문은 자기들에게서 감사를 받아야 할 부루시리의 주인인 로인이 오히려 하늘의 별신에게 고맙다고 하는 그것이였다.
로인의 제가 끝나자 삼형제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로인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다음 일석이가 자기들의 심정을 죄다 아뢰였다.
《로인장님 덕분에 저희들이 소생하였사옵니다. 이렇듯 귀한 천하보물 부루시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인어른의 승인도 없이 캐먹은 저희들은 도적이나 같사오니 사정없이 물볼기를 친대도 다른 한이 없을것이옵나이다.》
로인이 세 젊은이들을 일으켜세웠다.
《내 나이 지금 백하고도 스물이 지났는데 이게 다 전수이 인삼 저 부루시리의 덕이라네. 먼 옛날 단군성왕때부터 예서 삼을 키워왔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이 골안도 삼포골이라 한다네.
부루시리라 하는건 인삼을 옛적부터 불러온 소리인데 달시리(종자

삼) 역시 그렇다네.
그때부터 오늘까지 수천년 지났고 내 또한 여기서 지금껏 살았는데 젊은이들처럼 부상당한 군사들이 삼발에 와서 쓰러진 일은 한번도 없었으니 이건 분명 저 하늘의 인삼신인 삼태성별신마마께서 자네들을 구해주시려고 데려다가 숨겨주신것이라네.
삼태성별신마마는 인삼의 하늘신으로서 인삼의 자래우기만 돌보는게 아니라 그것을 써서 죽어가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늙은이에게는 젊음이 넘쳐나게 하는 령험도 가지고계신다네.》
그러면서 로인은 별신마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며 제 먼저 큰절을 하는것이였다.
삼형제군사는 로인과 인삼의 하늘신인 삼태성을 향하여 큰절을 경건히 드리였다.
어느덧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초막이 있는 산기슭에서는 장쾌한 폭포가 쏟아져내리는데 그앞으로 보이는것은 푸른 수림과는 대조되는 새하얀 바위산이였다.
여러가지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로 이루어진 바위산의 중심에 별나게도 높고높은 뾰족봉이 보이였다.
뾰족봉을 바라보던 삼석은 동터오는 하늘을 배경으로 아아히 치솟아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그 봉우에 웬 사람이 서있는듯싶어 너무도 놀라와 입을 하 벌리고 두 형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다.
원, 날새도 깃을 펴기 힘든 저 바위우에 우뚝하니 서있는 저 사람은 누구이며 도대체 무엇때문에 하늘중천에 올라가 서있을가?!
놀라운 눈으로 바위우를 바라보는 삼형제군사의 어깨를 다정히 어루만지며 로인이 말하였다.
《세상에 우리 나라밖에 없는 불로장수의 보물이름을 왜 삼(3)이라고 하는지 아나?》
두 형들은 서로 바라보기만 할뿐인데 역시 성미 급한 삼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게 아마 이 불로초를 먹으면 남들보다 세배나 되는 힘을 더 쓰기때문이 아니오이까?》
로인은 그 말에 허허 웃고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닐세. 그게 뭔고 하니 인삼이 하늘의 정기, 땅의 정기, 사람의 정기를 모두 합쳐 가지고있는 신비한 풀이기때문일세. 그래서 〈3재〉, 〈3령〉의 뜻을 가진 보물중의 보물로 일러주는것이라네. 자네들이 바라보던 하늘높이 치솟은 저 바위를 보게.》

세 군사는 바위우로 눈길을 돌렸다.

이제는 날이 다 밝아 그것이 더욱 똑똑히 보이였다.

이번에도 역시 삼석이가 먼저 소리쳤다.

《야! 저 바위꼭대기에 서있는것이 사람인줄 알았더니 사람 비슷한 인삼이로구나.》

하늘을 향해 꽂아넣은 날카로운 창처럼 솟아있는 바위우에 거연히 서있는 사람모양은 분명 자기들이 캐먹은 인삼의 모습그대로였다.

로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3재〉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는것이고 〈3령〉이란 하늘신, 땅신, 사람신을 가리키는 말이네.

이 인삼이야말로 3재, 3령을 다 갖추었으니 삼(3)이라 부를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기에 저 옛날 단군성왕께서도 그렇게 부르셨다고 지금껏 전해오고있는거라네.》

로인은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은실같은 수염을 내리쓸며 계속하였다.

《인삼의 하늘정기는 아름다운 밤하늘의 삼태성님에게서 받고 땅의 정기는 우리의 눈앞에 높이 솟은 저 인삼바위에서 받으며 사람의 정기는 그것을 가꾸는 우리에게서 받는다네. 바로 이것이 인삼이 천, 지, 인을 겸비한 삼(3)이라고 부르는 의미라 할수 있네.》

…삼형제군사는 부대를 찾을 길도 묘연한데다가 마음속으로부터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물인 인삼을 가꾸고 자래우는 일을 해보려는 희망이 터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어 로인과 함께 삼밭에 남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삼십여년이 지나갔다.

깊은 산중의 삼형제 옛 군사들이 이제는 누구나 함부로 덤빌수 없는 름름한 장수들로 자라났으며 오구구 뛰여다니던 그들의 자식들도 당당한 대장부라 부를만 하게쯤 되였다.

이무렵 남쪽땅에서는 또다시 전란이 시작되였다.

세명의 옛 군사들은 자기 아들들의 어깨우에 활과 전통을 메우고 세필의 말바리마다에는 삼백근씩의 인삼들을 각각 싣고 고구려군의 군영을 찾아갔다.

그들은 전장터에서 부상을 당했다가 인삼을 먹고 살아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가지고온 인삼을 삼만여명의 군사들에게 세뿌리씩 골고루 먹이였다.

인삼의 신비한 약효로 더더욱 용기백배한 고구려군은 전투마다에서 계속 승리하였으며 드디여 인차 한성을 해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천마산기슭에 자리잡은 삼포동에는 인삼과 관련한 이야기와 지형지물이 지금도 수많이 남아있다.

삼포동, 채삼동, 삼포교는 물론이거니와 삼포동골짜기에는 오늘도 인삼바위가 변함없이 높이 솟아있어 등산객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나라 인삼재배의 반만년력사와 그것을 창조하고 경제문화생활과 의학분야에 널리 응용한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자랑은 오늘도 세상에 빛나고있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는 개성고려인삼의 조국인 우리 나라의 인삼재배가 다른 곳도 아닌 바로 개성의 명산 천마산기슭에서 시작되였으니 박연과 같은 명승, 절경의 산천에서만이 세상을 놀래우는 명약도 특산물도 생겨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개성암유적

개성암은 성거봉에 있던 암자인데 석벽에 새겨진 개성암(열 개, 성인 성, 암자 암)이라는 글자의 뜻으로 보아 평나산으로 불리우던 산이 성거산(성인이 살던 산)으로 불리우게 된 사실을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그로부터 유래된 암자로 추측할수 있다.

암자의 건립년대는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수 없다.

사찰관계의 옛 문헌들에 남아있는 토막기록들을 보면 1868년에 암자가 전부 타버려 그 다음해에 일허선사가 중건하였고 1907년에 라한전을 중건하였으며 1932년에 승려 109명이 찰사(승방과 기타 부속건물)를 중건하였다고 하였는데 그후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알수 없다.

현재 그 터자리와 함께 성거산 거의 정점가까이에 있던 암자까지 오르는 급한 경사면에 자연돌로 된 계단돌들과 일부 건물의 기초돌흔적이 남아있을뿐이다.

그리고 개성암뒤에 있는 바위절벽아래 약 10m 되는 곳에 수조(승려들과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목욕재계하는데 쓰던 물통)가 있는데 그 규격은 약 60×100㎝정도이며 깊이는 약 60㎝정도이다.

수조가 세멘트로 만들어진것을 보면 근대에 만들어져 리용되던것으로 보인다.

개성암 웃쪽으로 성거산의 거의 정점에 이르는 곳에 무너진 자연굴유적이 있다.

굴앞에 쌓여진 돌짬으로 사람이 겨우 드나들수 있는데 잡석과 가랑잎에 덮여있는 굴안의 사방 넓이는 4～5보정도 된다.

앞으로 박연지구의 력사연구와 고려태조 왕건의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는데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주는 력사유적으로 될수 있다.

오 관 산

리 선 복

령통사 북쪽에는 오관산이라고 부르는 아름답고 기묘한 산이 솟아 있다.

그 이름은 마치도 관(모자)처럼 생긴 5개의 봉우리가 형제처럼 나란히 섰다 하여 유래된 말이다.

그런데 이 산을 좀 멀리에서 보면 다섯개의 봉우리전체가 또 하나의 돌삿갓이나 투구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로부터 명산은 명인을 낳고 명인이 있어 명산 또한 더욱 아름답고 그 이름도 높아지는것이니 이 오관산이야말로 그 이름이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의 시조 왕건의 선조들이 살던 곳으로서 신비스러운 이야기들도 수많이 깃들어있는 곳이다.

먼 옛날 건강이 허락치 않아 왕위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동생은 또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준것으로 하여 태상왕으로 존경받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왕위를 넘겨주고나서 복잡다단한 궁중에서 사는것보다 산좋고 물좋은 아름다운 산천에 몸을 맡기고 여생을 즐겁고 태평스럽게 보내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이것은 한갖 자신의 안락만을 위한 사사로운 일이지 나라와 백성을 위한 미거는 아니였다.

그래서 그는 향촌에 나가서 살되 나라를 지키고 부강하게 하기 위한 기틀을 보충하고 정사를 도우려 마음먹고 나라의 천문지리를 총괄해보는 태사령을 불렀다.

태사령이 대령하자 태상왕은 자못 절절하게 말을 했다.

《경이야말로 나와 한생을 같이했은즉 내 무엇을 감추리요. 내 이제는 복잡다단한 궁성을 떠나 산좋고 물좋고 아늑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저 하니 민가에서 과히 멀지 않은 명소를 잡아 자그마한 별궁이나 하나 지었으면 하노라.》

《태왕마마, 분부대로 하오리다.》
태사령은 태상왕의 령을 받고 우선 온 나라 각지에 풍수를 조사하도록 관리들을 파견하였다.
얼마후 파견되였던 관리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받은 태사령이 태상왕에게 그 내용을 아뢰였다.
《태왕마마, 소신들이 알아본데 의하면 별궁터로서는 부소갑 북쪽 30여리쯤에 있는 아늑한 골짜기이상 다른데는 없는줄로 아뢰옵나이다.》
《그 아늑한 골짜기란 대체 어떤 곳인고?》
《예, 그곳으로 말하면 산수가 수려하여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저 극락세계와 직접 통해있다 하온데 좌청룡, 우백호, 후현무, 전주작 등 사방수호신이 력력하옵고 북동쪽으로는 이 세상 일만경치를 한눈에 볼수 있는 천마산정으로부터 극락세계를 련상케 하는 극락봉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산봉우리들이 정말로 기기묘묘하기가 짝이 없다 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기기묘묘한 산봉우리들이 서리서리 감돌아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맑은 물이 사시장철 흘러넘치는데 그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온 골안을 가득 채우고있다 하오니 천하엔 다시 없는 명궁터인줄 아옵나이다.》
《허허, 그대의 말을 들어볼진대 과시 절세의 명소라 하겠은즉 선남, 선녀도 능히 살수 있을 곳이로다.》
《어찌 선남, 선녀뿐이겠소이까? 동, 서로는 일광봉, 월광봉이 마주 솟았는데 일광봉은 해뜨는 아침풍경의 더없는 아름다움을 실었다면 월광봉은 달뜨는 저녁풍경의 유정함을 이루어서 해와 달도 내려와 즐겁게 노닐다 가는 곳이어니 태왕마마께서 거처하시기엔 더없는 명승인줄로 아옵나이다.》
이렇게 되여 태상왕은 이 신비로운 명소에 별궁을 하나 짓도록 하고 거기서 살게 되였다.
내려와본즉 과시 태사령의 말에 거짓이란 하나도 없었다.
산천경개의 수려함은 오히려 태사령의 말보다 더한듯싶은데다 맑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하늘땅에 가득차 나날이 젊어지는것만 같았다.
이때 태상왕에게는 옥같이 아름다운 귀동녀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시집갈 때가 지나게 되였다.
그런데 공주 역시 이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명승에 반하여 이곳을 떠

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태상왕은 궁성안의 지체높은 사대부의 자제들보다는 시골에 묻혀있는 영웅호걸, 현인재사들을 찾아내서 그들속에서 부마감을 택하리라 마음먹고 방을 돌렸다.
방이 나돌자 각곳에서 영웅호걸이라 자칭하는 문인재사들은 물론 무사출신의 총각들까지도 수많이 모여왔다.
그러나 태상왕은 신하들에게 그 많은중에서도 학식과 인격이 뛰여나고 지략이 출중한 재사 다섯명만 추려내면 그다음엔 자기가 직접 보고 그속에서 한명을 부마로 택하겠노라 하였다.
신하들은 며칠만에 다섯명을 추려내고 그들로 하여금 한날한시에 태상왕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였다.
이들은 모두 태상왕의 첫눈에 들기 위하여 있는 힘껏 화려한 의관차림을 하고 늘씬한 준마들을 타고 별궁앞으로 모여들었다.
높직한 룡상에 위엄있게 자리잡은 태상왕은 태왕후와 공주는 구슬문발을 늘이고 한쪽에서 몰래 부마간택으로 뽑혀온 영웅남아들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하되 태상왕은 그들모두에게 쓰고온 관(모자)은 대궐밖에 벗어놓고 들어오도록 엄한 령을 내렸다.
《예로부터 갓이나 관은 아이가 어른이 되고 또 벼슬품계에 따라 그 모양과 장식에서도 엄연한 차이가 있었거늘 그대들은 아직 머리도 얹지 못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 몸들이거늘 어찌 그처럼 화려한 관을 함부로 만들어쓰고 룡상앞에 감히 떳떳이 나선단 말이뇨?》
태상왕은 이렇게 추상같이 호령한 후 한사람씩 어전으로 불러들이였다.
제일먼저 덕물현 갑부의 맏아들 최황이 황홀하리만치 사치한 옷차림으로 룡상앞에 대령하였다.
태상왕은 돈이 많고 걸치레가 번드르한 사람은 대체로 실속이 없음을 잘 아는고로 그의 식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부터 알고싶었다.
그래서 이미 신하들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다 들었으나 얼굴에 일부러 위엄기를 띠고 어려운 문자를 섞어가며 점잖게 물었다.
《그대의 풍신의장을 보니 공후장상의 자손이 분명커늘 부친지사와 명함이 무엇인고?》
《…》

최황은 태상왕이 묻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수 없어 어안이 벙벙하여 대답을 할수 없었다.

(풍신의장이요 공후장상, 부친지사란 대관절 무슨 뜻인가?)

몸이 좋고 잘 생기고 돈만 많으면 부마가 될줄 알았는데 이런 괴상한 물음을 받고보니 눈앞이 캄캄해지며 온몸은 모닥불을 뒤집어쓴것처럼 화끈거렸다.

그러나 다시한번 용기를 내여 입을 열려는데 태상왕의 노기어린 목소리가 대청을 들었다놓았다.

《어째서 함구무언인고?》

《예, 풍신의장을 보면 공후장상이나 부친지사와 명합이 없사오니 함구무언이로소이다.》

최황은 그래도 그다지 무식한편은 아닌지라 이리저리 얼버무려 그럴듯하게 꾸며댔으나 태상왕은 심사가 편안치 않아 엄하게 꾸짖었다.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놈이로다. 괘씸하기란! 부친지사는 혹 없을런지 모르나 명합이 없다 함이 어인 당치않은 소리인고? 저놈이 짐을 우습게 보고 우롱코저 하니 즉시 하옥시키고 되게 치도록 하라.》

《예이-》금오관원은 길게 대답하고는 덕물현 갑부의 맏아들 최황을 옥에 가두도록 하였다.

그러자 문발속에서 이 광경을 보고있던 태왕후가 한마디 여쭈었다.

《태왕마마, 그 젊은이인즉 인물은 특출하지 못하고 문장과 재주 또한 부족하나 풍채가 좋고 몸이 든든하니 장차 영웅장부가 될지 어이 알리이까. 방금전의 실책은 본심이 아니옵고 도덕과 학식을 겸비하지 못하여 당한 일인지라 가석히 여기시고 과히 하대치 말았으면 하옵나이다.》

《허허, 그대는 언제나 너무 관후한게 탈이로다. 내 깊이 생각하고 편안히 처리하리로다.》

다음으로 어전에 대령한 사람은 정주에서 손꼽히는 류현이란 선비였다.

그는 어전에 엎드리자마자 랑랑한 목소리로 《태왕마마, 황공무지로소이다. 정주 백면서생 류현이 태왕마마께 삼가 문안드리옵나이다.》 하고 정중한 례의를 표하였다.

태상왕이 본즉 옥같은 얼굴이며 신선같은 풍채에 행동거지와 말하는 품이 아름다울뿐아니라 공손하면서도 례의가 있는지라 대번에 마

음이 동하였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옛 력사와 인륜도덕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르는것이 없었다.

태상왕은 이때까지 젊은 서생들도 많이 만나면서 공주의 배필을 물색하던중 이만큼 뛰여난 재사는 처음 대하는듯싶었다.

다만 풍채가 아련하기만 하고 크지는 못한데다 용력 또한 부족해보이는것이 눈에 걸리여 태왕후의 의견을 듣고저 문발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그런데 우선 당사자인 공주가 머리를 숙인채 이마살을 찡그리고 까딱도 하지 않고있으니 이것은 곧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태왕후 역시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태왕후는 원체 사내란 몸이 크고 풍채가 좋으며 힘과 담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이 선비는 문장은 뛰여나지만 몸이 체소하고 마음이 약하며 지나치게 말재간만 좋은것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였다.

그래서 태상왕 역시 마음이 흔들리여 돌아가서 다음조처가 있을 때를 기다리라 하고는 돌려보내였다.

다음으로는 굴압현(강음)의 선비와 장단현의 선비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굴압현의 선비는 어찌나 글씨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며 손재간이 좋은지 한번 보면 만들지 못하는것이 없어 벽에다 큰 나무를 그려붙이면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다가는 부딪쳐 떨어지므로 집안에 앉아서도 꿩이나 새들을 손쉽게 잡기도 한다는 사람이였다.

그리고 장단현의 선비는 나이는 많지 않아도 의술이 능하여 능히 죽었던 사람도 되살리는 재간을 가지였지만 공주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 다섯번째 차례로는 우잠땅(금천)의 장억근이라는 무사였다.

장억근의 아버지는 나라를 위한 싸움마당에서 종횡무진으로 적들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된 소문난 장수였다.

어린 억근이를 키우며 이제나저제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그의 어머니는 남편 대신 그 장검만 집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고생고생하다가 마침내는 병석에 눕고말았다.

그러나 장억근은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하는 한편 아버지의 대를 이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수가 될 결심을 품고 깊은 산골로 들어와 이름난 도사에게서 직심스레 무술을 배웠다.

그런데 방금전까지만 해도 대기하고있던 장억근이 온데간데없이 보이지 않아 모두들 안달이 나서 어쩔줄을 몰라하는데《쾅!》하고 지축을 울리는듯싶은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인차 장억근이 나타났다.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온몸이 땀에 젖었는데 이마에서는 주먹같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별궁의 우두머리 환관이 괴이한 생각이 들어 얼굴을 붉히며 꾸짖었다.

《무엄하도다. 전후사는 따로 알것이어니 급히 대령하라는 상교가 불같은즉 지체함이 없이 어전에 현신하라.》

환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억근은 대궐문을 지나 어전에 엎드리였다.

그가 들어오는 바람에 한줄기 거센 바람이 일어남과 함께 불쾌한 땀내가 룡상앞에까지 풍겨왔다.

태상왕은 이마살을 찡그렸으나 문발속 공주의 두눈에서는 영채가 피여올랐다.

태상왕이 자세히 보니 몸집은 마치도 큰 산이 내려앉은듯 웅장한데 호랑이얼굴의 봉의 눈에서는 불길이 황황 일고 온몸은 땀으로 푹 물젖어있었다.

태상왕의 나이 아직은 환갑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몸이 크고 씩씩한 장부는 보기가 난생처음이였다.

태상왕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레이고 한편으로는 흡족하여 만족스런 웃음까지 싣으며 물어보았다.

《그대야말로 이 세상엔 더없을 영웅장부감이로다. 우선 주소성명을 밝히고 온몸이 땀으로 들뜬 사유부터 들어보자.》

《예, 우잠산중의 필부 장억근이 태상왕마마께 머리숙여 아뢰옵나이다. 제 본시 예순근이 남는 장창을 항시 가지고 다니였었는데 태왕마마의 어지를 받고 급히 오는통에 지니지 못하와 제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에 잠간 갔다오다나니 이렇듯 몸이 어지러워졌사오매 궁궐의 법도를 어긴 죄 달게 받겠사옵나이다.》

《허허허, 그대야말로 문무겸전의 영웅장부가 틀림없도다. 남달리 크고 뛰여난 재주로 능히 만사람을 당할 용맹이 있을뿐더러 문장

과 인격 또한 출중하고 례의 또한 공손검박하니 과시 공주의 백세연분이로다.》

《태왕마마, 황공무지로소이다. 하오나 소인이 아직은 한갖 필부일뿐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태평성대를 이룰만 한 그런 신통한 계책이 없사와 티끌만 한 공적도 세우지 못했사오니 태왕마마의 은총이 과한줄 아옵나이다.》

태상왕이 듣고보니 사리는 정연하나 감히 어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함은 심히 불충무례하게 느껴졌다.

《그대의 뜻인즉 과히 사리에 어긋나지는 않으나 어명을 거역함은 백성된 도리가 아니노라.》

《태왕마마, 황공하오나 소인이 태왕마마의 령을 감히 거역함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고 공주마마와 인연을 맺어 부마가 됨이 신하의 충성된 도리가 아닌줄 아옵기때문이옵나이다.

그리고 소인이 용력도 뛰여나지 못한데다가 아직은 병법과 무예에도 숙달되지 못하였사오니 바라옵건대 문무재덕을 다 갖추고 나라앞에 큰 공을 세운 다음에라야 혼례를 치르도록 하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진정에 넘치면서도 절절하고도 약간 갈린듯싶은 웅글은 장억근의 말소리는 밖에서 대기하고있는 다른 네사람들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일이 이쯤되자 태상왕도 더이상 고집할수 없을뿐더러 제가 은근히 바라고있던 심정이라 이에 감복되여 태왕후를 바라보았다.

태왕후 역시 마음이 몹시 감동되였다.

《태왕마마, 무사의 마음인즉 우로는 하늘의 뜻에 부합되고 아래로는 백성된 도리가 분명커늘 그의 소원대로 일정한 말미를 주었으면 지당할줄로 아옵니다.》

《음, 그대의 뜻인즉 곧 짐의 뜻이로다.》

이어 우두머리 환관을 찾은 태상왕은 부마간택으로 뽑혀온 다섯명의 재사들을 모두 어전에 대령케 하고는 근엄한 낯빛으로 위엄있게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그대들을 대면한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정의 마음과 재능을 알고저 한것이로되 저 우잠땅의 장억근이야말로 영웅장부

의 기상이 력력할뿐더러 그 충정된 마음 또한 뛰여나거늘 그대들이 다 같이 본받고 따라야 할줄로 아노라. 하지만 그 역시 지금까지는 충정이 마음에 불과할뿐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공훈은 세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모두들 돌아가 나라를 문명케 하고 강대하게 만들며 재주와 덕망을 베풀고 건강과 장생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각자들의 결심을 실현하고 무르익히도록 하라. 그러하되 반드시 충효를 겸비하고 공손검박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각자가 자기의 큰뜻을 이룩하고 혁혁한 위훈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하오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이룩한 그대들의 업적을 길이길이 빛내고저 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땅에 그대들의 관을 높이 세워 후손만대 영원히 전하도록 하리로다.》

태상왕의 어명이 떨어지자 이들모두는 장억근이와 같이 나라와 백성에게 충성다할 굳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구슬문발속에서 장억근의 풍채를 보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마음에 감동된 공주 역시 장억근을 마음속깊이 열렬히 사모하면서 제자신도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일에 모든 힘을 다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이로부터 몇해가 지나갔다.

이 기간 장억근은 산속깊이 들어가 병법과 무예를 완전히 숙달하였고 다른 재사들도 역시 자기들의 재간을 숙달하고 무르익혀나갔다.

정주선비 류현은 마을마다 글방을 차려놓고 문인재사들을 키우는 사업에 열중하였고 최황은 집재산만을 늘이려던 욕심을 버리고 나라의 장래에 대비하여 농사도 꾸준히 하면서 나라방비에 필요한것들을 만들고 꾸리는 일에 정열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다른 두 선비들 역시 자기자신들의 재능을 더한층 무르익히는 한편 동료들을 묶어세워 그들 모두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옳게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무렵 나라의 북방지대에서는 오랑캐놈들의 국경침입이 빈번해지더니 결국에는 수십만대군을 몰아 우리 나라 깊이까지 쳐들어오고야말았다.

조정에서는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오랑캐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계책을 론의하고 온 나라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성전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호소하였다.

그러나 실지 적들과 직접 맞서 싸움을 지휘할만 한 마땅한 장수가 없어 걱정을 하고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상왕은 왕에게 글월을 띄워 무사 장억근을 천거하고 그의 나라위한 충정과 뛰여난 용력과 무술에 대하여 보증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장억근은 궁성으로 들어가 임금을 알현하게 되였다.

《상감마마! 소장이 비록 불민하오나 군사를 맡겨주신다면 북방오랑캐들을 모조리 쳐없애고 나라와 백성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볼가 하옵나이다.》

왕이 보니 과연 태상왕이 천거한 그대로인지라 마음이 흡족하여 대신들을 바라보니 그들도 역시 마음은 동하나 아직까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명장수인지라 머리만 기우뚱거릴뿐이였다.

드디여 한 대신이 누구에게라 없는 어조로 조심히 입을 열었다.

《북방대군을 소멸함은 맨주먹으로 호랑이나 잡는것과는 견줄바 없는 일이어늘 심사숙고하는것이 어떠하올는지…》

이 말에 치미는 분기를 애써 누르며 장억근이 대답하였다.

《예로부터 나라를 지킴은 국사중에서도 첫째가는 국사라 하였거늘 소장이 어찌 심사숙고치 않으리이까. 소장이 만약 국사를 그르친다면 이 머리를 베여 국법이 엄정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자 만조백관모두가 장억근의 충정과 담기넘친 용맹에 감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드디여 왕은 장억근을 북평대원수로 임명하고 군사 10여만과 부월을 주어 북방오랑캐들을 물리치게 하였다.

장억근은 그동안 터득한 기묘한 병법들과 군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싸움마다에서 승전을 거듭하였으며 이로 하여 10만군사들의 신망을 모으고있었다.

이때 태상왕의 딸인 공주 역시 자기가 사모하는 청년장수의 뒤를 따라 남복을 하고 전장터에서 자기의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놈들과의 마지막싸움에서 북평대원수 장억근과 공주는 자신들의 마음과 마음을 다 합쳐 적장놈을 쓰러뜨리고 놈들의 100여리에 널려져있던 군막을 모조리 짓부셔버려 북방오랑캐놈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승전고를 높이 울리며 개선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나라에서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장억근에게는 외적을 물리치는데서 세운 특출한 공으로 하여 특등선무공신칭호를 주고 나라의 군사를 총괄하는 높은 벼슬과 함께 황금쇄자갑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이번 북방오랑캐들을 쳐물리치는 성전에 량곡 1만석을 제공한 덕물현갑부 최황과 글방을 차려놓고 수많은 문인재사들을 키워낸 류현 그리고 창검과 화살을 비롯한 수많은 병쟁기들을 만들어 전장에 보내고 자기가 키운 수백명의 의원들을 데리고 용약 싸움에 떨쳐나서 큰 공훈을 세운 다른 두명의 재사들에게도 공로에 따라 큰 상과 벼슬을 내리였다.

장억근은 그후 공주와 백년가약을 맺고 나라를 지키고 무사들을 키우는 일에 한생을 바쳤다.

후에 나라에서는 북방오랑캐들을 평정하는데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다섯명의 재사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별궁 북쪽산록에 제일먼저 장억근의 황금투구관을 높이 세우고 뒤이어 다른 네명의 관도 나란히 세워주었으니 이것이 곧 문, 무, 재, 덕, 수를 상징한 5개의 관으로 되여 오관산전설로 오늘까지도 그대로 전해지고있는것이다.

나라위한 애국충정의 뜻을 담고 거연히 서있는 오관산은 오늘도 말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애국으로 달구어주고있다.

범 사 정

박연폭포를 마주서서 오른쪽 높은 언덕에 자리잡고있는 정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범사정에 오르면 폭포의 장쾌한 모습이 제일 잘 보인다고 하시면서 몸소 폭포를 부감하시였다.

정자의 크기는 정면 2간(4.55m), 옆면 2간(3.6m)이며 넓이는 16.4㎡이다.

화강석을 다듬어세운 주추돌의 높이는 1.61m이고 그우에 세운 나무기둥은 높이가 69㎝, 직경이 23㎝인 두리기둥이다.

지붕은 합각식이며 바둑마루에 고미천정이다.

량옆과 뒤면에는 란간을 둘렀다.

처마밑에는《범사정》(뜰 범, 떼목 사, 정자 정)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건립년대는 자세치 않으나 지금의 건물은 1700년(숙종26년)에 고쳐지은것이다.

천마장수와 쌍북바위

김 동 천

령통사가 있는 오관산으로 들어가느라면 일광봉과 대치하고 천마산과 오관산의 관문처럼 우뚝 솟아있는 월광봉마루에 커다란 두개의 북바위가 지금이라도 둥둥 소리를 낼듯 수천년의 이끼를 방석처럼 깔고 오관산과 천마산을 마주하고있다.

먼 옛날 이곳 마을에 장대한 기골로 해서 힘과 용맹에서 당할자 없고 무술에도 능하며 품성 또한 대바르고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천마산과 자기들을 지켜주는 장수가 되여달라는 뜻에서 이름보다 천마장수라고 즐겨 불러주었다.

마을의 월광봉에는 언제부터인지 대대로 내려오는 신기한 두개의 북이 있었는데 하나는 외적이 밀려들면 저절로 둥— 둥— 소리를 두번씩 울렸고 다른 하나는 마을과 나라에 큰 경사가 나면 둥— 둥— 둥— 세번씩 울리군 하였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두번씩 거듭하여 울리는 북소리를 듣고는 외적의 침입을 알고 적과 싸울 준비를 단단히 갖추었기때문에 싸워서는 언제나 이기군 하였으며 세번씩 거듭 울리는 북소리를 듣고는 앞으로 있게 될 경사를 예측하며 기뻐들 하군 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바로 이 두개의 북을 천마장수에게 맡기고 마을의 행복을 지켜주기 바랐다.

그 마음을 안고 천마장수는 비오는 날이나 눈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나 가림없이 북들이 있는 월광봉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끊임없이 련마했으며 오관산의 여러 마을을 노린 원쑤들이 달려들 때면 선참으로 달려나가 무서운 용맹으로 놈들을 무찔러버리군 하였다.

그러던 천마장수도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웃마을에서 인물곱고 마음씨 또한 아름다운 처녀를 배필로 정하고 그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며 다음해에는 떡돌같은 아들까지 보게 되였다.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되자 천마장수의 마음의 탕개도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했다.

외적이 침입하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는 북이 있어 언제나 승전을 거듭하여온 천마장수인지라 이즈음에는 낮이나 밤이나 멈춘적 없던 월광봉에 대한 순찰도 생각이 나면 하였으며 마을 지경밖 고개들에 대한 파수도 그만두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무서운 천마장수와 신기한 북이 있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한동안 즘즘해있던 왜구무리가 또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도적고양이처럼 뭍에 기여올랐다.

여러번 기여들었다가 혼쌀이 날대로 난 놈들은 이번에는 미리 렴탐군을 들여보내여 신기한 북이 어디에 있으며 저희들무리가 어느곳까지 기여들면 그 북이 소리를 낸다는것까지 낱낱이 알아내게 하였다.

그래서 두목놈은 북소리가 날수 있는 곳까지 와서는 도적무리들을 멈춰세우고 렴탐나갔던 놈을 불러들였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천마장수의 그 신기한 북이 소리를 낸다지? 그래, 그 북이 소리를 내지 않게 하자면 무슨 수가 없겠느냐?》

두목놈의 물음에 살기가 번뜩이는 쭉 째진 눈에 뾰족한 턱을 가진 교활하게 생긴 렴탐군놈이 잠시 눈알을 굴리더니 《저 북을 울리지 않게 하는 수는 없는거구… 내가 한 둬놈 데리고 북을 하나 지고가서 우리들이 쳐들어올 때 북소리가 나면 거기에 맞추어 북을 한번씩 더 두드려 마을놈들과 천마장수를 속여보겠소이다. 그러면 놈들은 저들의 경사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며 좋아할것이니 그 방비가 없는 틈을 리용한다면야… 헤헤헤…》하며 두목놈의 비위를 맞추었다.

《음, 그게 그럴듯하다. 헌데 그 북이 있는데까지 몰래 갈수 있겠느냐?》

《예, 예. 제 이번에 그곳에 가서 렴탐한데 의하면 북은 큰 무리가 달려들 때라야 소리를 내고 한둘이 움직일 때는 소리를 내지 않소이다. 그리고 천마장수이하 마을놈들은 그 신기한 북만 믿고 파수며 순찰도 다 거두었기때문에 이번에 나도 들키지 않고 들어가 다 알아낼수 있었소이다.》

《좋다. 천마장수 그놈이 그러는 틈을 놓치지 말구 마을을 타구앉아 이 나라의 명물로 여긴다는 천마산 산삼을 기어이 차지해야 한다. 야, 넌 당장 북이 있는데로 가서 준비가 되면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라. 알았는가? 빨리 떠나라.》

《하잇!》

렴탐군놈이 사라지자 두목놈은 흡족한 마음으로 오락가락하며 허리에 찬 칼을 절컥거렸다.

(드디여 오관산, 천마산일대의 유명한 산삼과 재물을 내 마음대로 거두어들일 시각이 오는가부다.)

달도 구름에 가리워 사위가 어둑해졌을 때였다.

이따금 마을에서는 컹컹 짖어대는 개들의 잠에 설친 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쏴— 하고 나무잎들을 스치는 소음이 들려올뿐 고요했다.

천마장수는 사랑하는 안해와 즐거운 저녁상을 물리고나서 잠든 귀여운 아들애를 한동안 다독이며 애무해주다가 장검을 들고 일어섰다.

《아니, 이밤에 어델 또 가시나이까?》

안해의 근심어린 물음에 천마장수는 빙그레 웃으며 《오늘 바람도 쏘일겸 장쇠로인에게 부탁했던 은장도를 가져오려구. 래일이 우리 애의 생일이라 기념으로 줄 장도칼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쯤은 다 됐을거요.》라고 말하였다.

《래일 아침에 다녀와도 늦지 않을텐데 꼭 이밤에… 그럼 얼른 다녀오시와요. 기다리겠나이다.》

살뜰한 안해의 걱정에 먼저 자라고 이른 천마장수는 고개너머에 있는 대장쟁이 장쇠로인의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한편 어둠을 헤치며 커다란 북을 둘러멘 세놈의 왜도적들이 월광봉의 숲을 헤치며 북터로 기여들고있었다.

혹시나 북이 울릴가봐 속이 한줌만 해진 놈들은 떨려오는 몸을 겨우 진정해가며 밤사냥 나선 도적고양이마냥 살금살금 다가들었다.

《오이, 일없다. 북이나 떼무리가 달려와야 소리를 내는것이니 마음 놓으라. 자, 빨리…》

북의 약점을 알고있는 렴탐군놈이 제법 훈시질까지 해가며 재촉했다.

드디여 북터에 이른 놈들은 지고온 북을 내려놓고 남쪽을 향해 부시로 번쩍번쩍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잠시후 저 멀리 남쪽에 있는 봉우리에서도 번쩍번쩍 부시치는 불빛이 보여왔다.

이제나저제나 렴탐군놈에게서 소식이 오기만 애타게 기다리고있던 두목놈은 그 불빛을 보자 《야, 사이또가 보내는 신호가 틀림없는가?》 하고 믿어지지 않는듯 옆의 놈에게 소리쳤다.

《하, 옳소이다. 사이또가 보내는 신호가 분명하오이다.》
부하놈들이 신이 나서 하는 대답에 두목놈은 《좋다. 야, 모두 내령을 들으라. 저 오관산의 정기를 꺾을 시각은 눈앞에 왔다. 이제 천마장수의 북소리가 울린다 해도 겁을 먹지 말고 계속 공격하라. 천지신명이 우릴 도와 북을 세번 울려줄것이니 이는 우리의 승전고로 될것이다, 알겠는가?》하고 호기있게 소리쳤다.
《하잇!》
왜도적무리들은 일제히 합창하며 칼을 뽑아들었다.
살기가 뻗치는 칼들은 구름사이로 사라졌다나타났다하는 달빛을 받을 때마다 이리떼의 눈빛처럼 번쩍거렸다.
《출동하랏!》
두목놈의 호령이 떨어지자 그 이리떼의 눈빛들이 먹이를 찾아 떠나듯 골을 메우며 령통골을 향해 흘러갔다.
이 숨막히는 광경을 보지 않으려는듯 달도 인차 구름속으로 꺼져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고요를 깨뜨리며 월광봉에서 북소리가 둥― 둥― 둥― 울렸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세번째 북소리는 이상하게도 박력이 약해보였다.
이때 장쇠로인이 주는 방금 벼리여서인지 생신한감이 안겨오는 청룡을 새겨넣은 은장도를 받아들고 흡족한 마음으로 로인의 솜씨를 칭찬하던 천마장수는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니, 저게 웬 북소린가? 엉? 하나, 둘, 셋. 이런, 마을에 경사가 나려나보네, 하하하!》
제 흥에 겨워 떠드는 장쇠로인의 말을 막으며 천마장수는 《아니오이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소이까? 북소리는 세번 울리나 마지막 북소리는 약해보이는게 하나의 북소리같질 않소이다.》 하고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음, 그러고보니 정말 이상하구만. 아직까지 북이 저렇게 울려본적이 없었는데…》
《전 어서 마을로 가봐야겠소이다.》
천마장수는 장쇠로인에게 은장도를 잘 만들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곧 마을을 향해 달려갔다.

한편 마을사람들의 심정도 같았다.

그것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비록 소리는 고르롭지 못했으나 두번씩 울리는 북소리보다 세번씩 울리는 북소리를 더 기다려왔기때문에 오는 기쁨이 선차요 다음은 하나의 북에서 울리는것 같지 않은 북소리가 안겨주는 불안이 후차였다.

그러니 사람들은 울려오는 북소리가 무엇을 예고하는지 알수 없어 어리둥절해하며 제나름의 생각과 주장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었다.

《북소리가 참으로 이상하지 않소? 아직까지 저렇듯 고르롭지 않게 울려본적이 없었는데…》

《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한가. 그럼 저 월광봉의 북을 누가 두드리기라도 한단 말인가.》

《옳수다. 어쨌든 세번 울린거야 사실인거구. 그러니 마을의 경사는 경사로되 아마 작은 경사이겠지. 참, 래일이 천마장수네 아들애의 돌이 되는 날이 아니요.》

《거 모르는 소리, 아무렴 천마장수 아들애의 돌이라구 저 월광봉의 북까지 울리겠나, 원. …》

사람들은 서로 제 생각이 옳다고 싱갱이질하며 월광봉의 북터쪽만 바라보았다.

《그럴것없이 천마장수에게 가서 물어보자구. 아직까지 천마장수가 쟁기를 들고 나서지 않는것을 보면 적정은 아닌가보이.》

한사람이 이렇게 말하자 《옳소. 그럼 천마장수에게 가보자구요.》 하고 사람들이 호응했다.

사람들의 물결이 월광봉산기슭에 있는 천마장수의 집으로 술렁거리며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투닥투닥 누군가 뛰여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고함소리가 터졌다.

《큰일났소, 큰일이. 왜… 왜도적들이…》

그 사람은 숨이 턱에 닿은듯 말도 크게 못하고 헐떡거리기만 하였다.

《뭐? 왜도적들이?》

드디여 그 웨침 한마디에 사람들의 근심과 불안은 현실로 뒤바꾸어졌다.

《그런데 왜 월광봉의 북은 두번이 아니라 세번씩 울렸나 말이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였다.

《언제 그런 시빌 가를 경황이 됐소? 빨리 병쟁기를 갖추고 놈들을 막아야지.》

의문을 채 풀지 못한채 아직도 월광봉만 쳐다보고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버럭 소리치며 제먼저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듯 그 사람도 허둥지둥 자기 집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뒤였다.

벌써 마을에 들이닥친 왜구의 무리가 맞다드는 집들마다에 불을 지르며 눈앞에 얼른거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찍어넘기고있었다.

천마장수가 일광봉뒤 골짜기를 넘어섰을 때 마을에서는 벌써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도적무리들의 살기띤 고함소리가 어지럽게 울리고있었다.

한편 북터에서 월광봉의 북소리를 흉내내며 제놈들의 북을 치고있던 렵탐군놈의 패거리들도 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자 《오이, 오이, 우리도 빨리 내려가 한몫 보자.》 하며 선불맞은 메돼지떼마냥 산에서 내려오다가 산기슭의 첫 집에 무작정 뛰여들었다.

아들의 생일음식을 만드느라 부엌일에 여념이 없던 천마장수의 안해도 이상한 북소리를 들으며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집떠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있는데 갑자기 마을에서 악악대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얼마후에는 쿵― 쿵― 소리와 함께 부엌문이 벌컥 열리는것이였다.

문소리에 놀라며 혹시 기다리던 남편이 들어서는가 하여 마주나가던 그는 깜짝 놀랐다. 글쎄 칼을 뽑아든 왜도적 세놈이 자기를 노려보고있는것이 아닌가. 불이 켜있는 부엌문을 벌컥 열고 뛰여든 렵탐군놈은 뜻밖에도 아름다운 천마장수의 안해를 보자 순간에 입이 헤 벌어졌다.

《요시,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이 나에게 차례졌는가? 히히히.》

놈은 제가 먼저 재미를 보고 두목놈에게 섬겨바쳐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녀인에게 달려들었다. 천마장수의 안해는 분별을 잃고 정신없이 자기 허리를 그러안으며 저고리앞섶을 헤치려드는 놈을 있는 힘껏 떠박질렀다.

뜻밖의 저항에 두어걸음 물러섰던 렵탐군놈은 《칙쇼!》하고 내뱉고는 돌아선 천마장수 안해의 허리를 다시 그러안으려 했다.

이때였다.

재빨리 식칼을 집어든 천마장수의 안해는 자기를 다시 안으려고 헤덤비는 놈의 배허벅을 힘껏 내찔렀다.

《허－억.》 하는 김빠지는 소리를 내지르며 놈은 그 자리에 풀썩 꼬꾸라졌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있던 다른 두놈이 눈에 살기를 뻗치고 칼을 휘둘러대며 부엌으로 뛰여들었다.
식칼을 높이 추켜들었던 천마장수 안해의 손이 이번에는 주저없이 자기의 가슴을 내리찔렀다.
놈들에게 치욕을 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름다운 녀인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마을사람들은 달려든 왜도적들과 맞서 창검을 들었지만 싸움준비를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벌리는 싸움이여서 수적으로 우세한 놈들에게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였다.
분노의 칼을 비껴든 천마장수가 살륙에 미쳐돌아가는 도적무리들을 사정없이 족쳐대기 시작했다.
천마장수의 장검이 번뜩이는 곳마다에서 놈들의 단말마적인 비명이 터져오르고 꼭지 떨어진 호박처럼 도적놈들의 대가리들이 툴렁툴렁 떨어져나갔다. 천마장수의 용맹에 힘을 얻은 마을사람들도 그와 힘을 합쳐 적들을 무자비하게 무찔러댔다. 천마장수와 마을사람들의 무서운 기상에 기가 질린 두목놈은 몇몇 살아남은 놈들과 함께 황급히 뺑소니를 치고말았다.
놈들이 쫓겨가자 천마장수는 불타는 마을을 돌아보았다.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들과 그들을 애타게 부르며 땅을 치는 녀인들과 아이들! 그들의 절규는 자기를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은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는것처럼 아프게 느껴왔다.
뼈아픈 자책속에 허둥지둥 자기 집에 들어서던 천마장수는 그만 우뚝 굳어졌다.
피흐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자기를 부르는듯 한손을 앞으로 뻗치고 숨진 안해의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울분에 찬 심장은 금시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여보－》
천마장수의 비분에 찬 목소리가 노성처럼 터져나왔다.
《여보게,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였나? 엉?》
마을의 좌상로인이 비분에 이를 가는 천마장수의 손을 부여잡고 물었다.

《좌상어른,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저 북만 믿고 원쑤와 싸울 방비를 소홀히 했던 제가 어리석었소이다. 아무리 신기하고 훌륭한것이 있다 해도 그것이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는것보다 못하다는것을 제미처 몰랐소이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떠는 천마장수의 눈에서는 사나이의 속죄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나오며 피에 절은 땅에 스며들었다.

피와 눈물로 새긴 너무도 값비싼 교훈이였다.

그후 천마장수는 신기한 북만 믿고 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당한 피맺힌 원한과 교훈을 명심하고 왜적이 쳐들어올 길목마다를 빈틈없이 지키며 신호체계를 세우는 등 만단의 준비를 세워놓았다.

그리하여 얼마후 오관산을 노리고 다시 교활한 수를 쓰며 기여들던 왜도적무리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족쳐버리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월광봉의 두개의 북은 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아예 바위로 굳어지고말았다고 한다.

대흥산성 남문에서 동남쪽으로 멀리 보이는 극락봉을 에돌아 령통사로 들어오는 길옆에도 북바위라고 부르는 웅장한 바위가 반석우에 우뚝 솟아있다.

이 바위는 모두가 다 바라보면서 피로 새겨진 쌍북바위의 교훈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천마장수가 올려놓은것이라고 한다.

송도8경

자하심승—자하동에 있는 안화사로 불공을 드리러 중들이 모여드는 풍경.
청교송객—청교(동쪽교외)에서 떠나가는 나그네를 바래워주는 풍경.
북산연우—북산(송악산과 오관산일대)의 안개비 내리는 풍경.
서강풍설—서강(례성강)의 겨울철 얼음판우를 휩쓰는 눈보라풍경.
백악청운—백악(당시 장단에 있던 큰 산)의 맑고도 깨끗한 흰구름.
황교만조—황교(오정문밖에 있던 다리)에 비쳐드는 저녁노을풍경.
장단석벽—장단의 바위절벽풍경.
박연폭포—박연폭포의 장쾌한 모습.

《송도8경》에 대해서는 고려시기 문인인 리제현(1287—1367년)이 자기의 시작품에서 처음으로 노래하였다.

령통사와 대각국사 의천

리 성 덕

만월대 대궐의 인예태후(고려 문종왕의 왕후)가 거처하고있는 내전마당으로 어린 궁녀가 황급히 뛰여들어서면서 아뢰였다.

《태후마마, 의천스님의 종적이 없어졌다고 하옵니다.》

《뭐라구?》

흰 종이를 바른 쌍미닫이가 열리면서 인예태후가 다급히 퇴마루로 나왔다.

《좀 자세히 아뢰거라.》

《쇤네는 그이상 자세한것은 모르옵니다. 저자보러 갔다오는데 대궐문밖에서 웬 스님이 쇤네를 보더니 다짜고짜로 의천스님의 종적이 없어졌으니 태후마마께 꼭 여쭈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러면 너는 이제 당장 달려가서 령통사 주지를 불러오너라. 혼자 가기 꺼리면 내전별감 한사람과 함께 갔다오너라, 얼른!》

《알겠사와요.》

어린 궁녀가 마당에서 나가자 인예태후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퇴마루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종적이 없어졌다는 의천은 그의 아들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글읽기를 즐겨하여서 두해전에 사망한 부왕 문종도 극진히 사랑하였고 어머니인 인예태후 자기 역시 여러 왕자들중에서 남달리 사랑하는 자식이였다.

불교가 국교로 널리 장려되던 이 시절에 왕족이나 량반가문의 자식들중에서 한두명씩 중으로 되게 하는것을 부처를 공양하는것으로 여기면서 다들 그렇게 하고있던 때였다.

의천이가 중이 된것은 문종19년인 1065년 4월이였다.

본래 그의 이름은 왕후인데 의천이라는 자로써 널리 알려지고있었다.

어느날 문종은 왕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중에서 누가 능히 승려가 되여 부처를 공양하고 공덕을 닦겠느냐?》하고 물었다.

이때 11살나던 넷째왕자 의천이가 《제가 중이 되여 불도를 닦을 뜻을 품고있사오니 부왕께서 령만 내리신다면 그대로 하겠나이다.》하고 대답하였다.

문종왕은 만족하여 고개를 크게 끄덕이였다.

《네가 원래 글읽기를 좋아하고 성정이 침착하고 총명하니 불도를 성실히 닦아 부처를 길이 공양할터인즉 왕실에 부끄러움이 없을줄로 믿는다.》

이리하여 의천은 령통골에 있는 경덕국사를 따라 령통사로 가게 되였다.

대궐밖 영천사에서 머리를 깎고 몸에 걸쳤던 비단옷과 갖신을 벗어버리고 먹베장삼에 짚신을 바꾸어신고 절문앞에서 가족들과 헤여졌다. 그때 의천은 어머니 리씨의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았다.

둘째형 계천과 셋째형 천상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불도를 잘 닦고 건강히 지내라고 거듭 당부했고 마음 약한 맏형은 눈물이 글썽하여 손목을 놓을줄 몰랐었다.

령통사에 들어간 후 의천은 경덕국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경을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한창 장난에 빠질 나이였지만 종일 승방에 붙박혀 불경을 읽었고 밤은 밤대로 등불밑에서 책을 읽으며 늦도록 잠자리에 들줄을 몰랐다.

어느날 경덕국사는 의천과 함께 륙환장을 짚고 절밖으로 나가 소풍삼아 개울을 따라 내려가다가 령통다리우에 올라섰다.

오래간만에 절밖으로 나온 의천은 북쪽의 우뚝한 산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갓을 엎어놓은듯싶은 우뚝한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가 다섯이라고 하여 예로부터 오관산이라 불리우는 그 산의 희고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과 울창한 숲이 계곡으로 구을러내리는 개울과 조화되여 한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답게 보여왔다.

다리밑 이끼오른 큰 바위에 새긴 《오관산 령통동문》이라는 글자가 그윽한 경치를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령통골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윽히 살펴보던 경덕국사가 의천에게 나직이 물었다.

《그래, 그동안 무엇을 읽었나이까?》
《예, 화엄경을 읽었소이다.》
《다 읽었나이까?》
《구역(옛날 번역) 60권과 신역(새로 한 번역) 80권을 다 읽었나이다.》
《그래 화엄경이란 어떤 경이더이까?》
의천은 생각을 더듬으며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화엄경은 석가모니께서 보리수아래서 도를 깨달으신 후 37일간 해인삼매(불교의 정신적수양의 높은 경지)에 들어 비로사나불로 화한 후에 설교한 경이옵나이다.》
경덕국사는 만족한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면 경에 담긴 뜻을 요약하여 대답해보사이다.》
《예.》
의천은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그 대답을 듣고있던 경덕국사의 얼굴에는 저으기 놀라와하는 표정이 어려있었다.
아직 10대 초엽의 소년이 한해도 넘기지 않은 동안에 화엄경의 내용을 이 정도로 명석하게 리해한다는것은 흔히 볼수 없는 일이였던것이다.
평생 숱한 제자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경우를 당해본적이 없었던 경덕국사는 의천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수 없었다.
대궐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던 철없는 소년이려니 하였던 생각을 버려야 하였다.
의천에게서는 장차 불도를 깊이 섭렵하여 불가에 큰 흔적을 남길 학승(학자중)다운 체모가 자리잡혀가는것을 분명 가늠할수가 있었던것이다.
국사는 근엄한 목소리에 큰 기대와 사랑을 담아 차근차근 가르쳐주었다.
《이제부터는 경과 함께 률(계률)과 론(불경을 해설한 리론)을 함께 읽어 불도를 폭넓게 섭렵하기에 힘쓰시오이다. 》
《명심하겠소이다.》
이러한 나날들이 1년, 2년 아니, 10년으로 이어졌다.

열세살나는 해에《우세승통》이라는 호를 받았고 스무살을 넘기자 불교의 범위를 벗어나 유교경전들까지 독파하는데 이르렀고 나이 서른을 가까이할무렵에 이르러서는 국내의 이름난 학승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천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부왕의 생존때부터 여러번 송나라에 가서 불교의 각 종파의 유명한 학승들을 만나 학술론의를 마음껏 해보고싶었으나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고있다가 맏형에 이어 둘째형 계천이 왕위를 잇자 의천은 송나라에 갔다올것을 다시 청드렸으나 역시 허락을 얻지 못했다.

인예태후 역시 벌써 나이 서른을 넘긴데다가 스무해나마 불도를 닦아온 아들을 그냥 품에 끼고있기는 어려우리라는것을 예감하였지만 그래도 의천이가 송나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미련이 있어 령통사 주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한낮이 기울어서야 령통사 주지가 내전마루아래 들어섰다.

《태후마마, 황송하오나 의천스님이 자리를 뜬줄도 모르고있다가 빈 승방에 써놓고간 서찰 한장이 있기에 삼가 받들고 왔소이다.》

주지는 소매속에서 종이 한장을 꺼내여 두손으로 들어바치였다.

읽기를 마친 태후는 손에 들었던 편지를 맥없이 떨어뜨리였다.

의천은 끝내 송나라로 가는 그 나라 상인 림녕의 배를 타고 승천포를 떠난것이였다.

…

1년 2개월이 지나서 의천이 돌아왔다.

왕(선종)과 태후가 련을 타고 포구로 나왔다.

성대한 환영의식이 끝난 후 의천은 왕과 태후앞에 이르러 가사자락을 여미고 두손을 합장하며 인사하였다.

《태후마마와 성상께 삼가 문안드리옵니다.》

《오냐, 돌아왔구나!》

태후는 의천의 손을 부여잡고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다.

의천보다 한살우인 젊은 왕은 친형답게 얼굴에 반가운 웃음을 담고 《그동안 태후마마께서 크게 걱정하였는데 무사히 돌아왔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요.》하고 말하였다.

《기별없이 다녀온 불효불충한 소승을 질책해주옵소서.》

의천이 거듭 사죄하자 왕의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허허… 속세를 떠난 사람이 불효는 무엇이고 불충은 또 무엇이

요?》

《아니옵니다. 아무리 불가의 몸이라 해도 부모가 없고 나라없는 승이 어디 있사오며 효를 모르고 충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나이까. 이번에 송나라황제가 소승을 국빈으로 맞아주고 그 나라 학승들이 모두 소승을 존대하여준것도 다 우리 나라가 굳건하고 문물이 빛나고 인물이 뛰여난 덕인줄 아옵니다. 소승이 이번에 불경과 경서를 얼마간 구입하여왔사오니 그것을 삼가 나라에 바치고자 하옵나이다.》

의천은 수천권의 책이 든 나무궤짝들을 십여대의 소달구지에 실어 개경으로 들여보냈다.

《상감께서 허락하시면 소승은 저 불경들을 정리하여 새로 간행하려고 하옵니다. 우리 고려는 이미 8만대장경을 가지고있는 자랑높은 나라이온데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계속 불경을 간행하는 소임을 맡았으면 하옵니다.》

《교장도감을 흥왕사에 두면 어떠하오? 흥왕사는 대궐에서 멀지 않을뿐더러 나라에서 제일 큰 사찰이니 마땅히 그 일을 맡아하는데 부족됨이 없을줄 아오.》

《소승은 상감의 뜻을 따르겠소이다.》

《허허. … 조서를 내릴터이니 흥왕사 주지가 되여 그 일을 총찰하도록 하오.》

이리하여 의천은 어명으로 흥왕사 주지가 되여 불경간행에 정력을 다 바쳤다. 후날 그 책을 《고려속장경》이라고 불렀다.

문종왕이 재위 36년만에 65살로 사망한 후 웬일인지 나라와 왕실에는 재앙이 겹치고 조정이 불안해지더니 흉년이 계속되여 온 나라에 기근이 가시지 않았다.

임신년인 1092년 3월 개경의 도성에서 큰 화재가 나서 민가 640여호가 불타고 의천의 아홉째동생과 여덟째동생이 죽은 후 일곱째동생이 아직 어린 나이에 또 죽었으며 9월에는 어머니인 인예태후가 서경순례중에 객지에서 사망하였다.

맏형(순종)이 왕위를 이은지 3개월만에 죽더니 둘째형(선종) 역시 태후가 사망한지 이태후인 갑술(1094)년 5월에 또 사망하였다.

그러자 11살나는 어린 왕자(헌종)가 왕위에 올랐는데 사숙태후 리씨가 일시 섭정을 하는 기회에 리자의일당이 반란을 일으켜 정국이 소

란스러워졌다.
의천의 셋째형인 계림공이 반란을 진압하였지만 그 역시 서슬푸른 눈길로 왕위를 넘겨다보고있었다.
나어린 헌종은 왕위를 넘겨받은지 겨우 5개월만에 삼촌인 계림공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의 등쌀에 치여 14살 어린 나이에 죽고 말았다.
병자(1096)년 10월에 계림공은 고려 15대임금(숙종)으로 즉위하였는데 이것은 왕좌를 둘러싼 골육상쟁의 피투성이 싸움끝에 이루어진 일이였다.
아, 그 왕좌라는게 대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다지도 모질게 만드는것일가.
속세의 헛된 욕망에 허덕이는 그들모두가 의천에게는 형제들이고 조카들이고 살붙이들이였다. 고해(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들모두가 불법의 구원을 받아야 할 중생들이였다.
개경장안은 온통 기근과 부역에 허덕이는 백성들로 차넘쳤고 대궐은 권력과 재부에 환장한 왕족과 관리들로 차넘치고있었다.
이 번거로운 속세를 피해가고싶었고 아니, 수치스러운 왕실가까이에서 한치라도 멀어지고싶어 산수유람이라는 구실로 의천은 개경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송나라에 함께 갔던 제자 수개를 데리고 행장을 간소하게 꾸린 다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남쪽을 향해 허둥지둥 길을 떠났다.
낮이면 걷고 밤이면 산속 절간이나 민가에 들려 쉬기도 하면서 걷고 또 걸었다.
걸으면서 세상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천태종의 깊은 세계를 재삼 음미해보기도 했다.
어느날 길가의 나무그늘에 앉아 땀을 들이는데 일곱살되나마나한 계집애와 겨우 열살 잡혔을가말가하는 사내아이가 손목을 잡고 타박타박 걸어오는것이 보이였다.
몸에 걸친 옷은 람루하고 얼굴에는 지치고 굶주린 기색이 확연하였다.
《애들아, 이리 와서 좀 쉬여가려무나.》
그러자 아이들은 두말없이 나무그늘에 들어서며 《스님, 고맙소이다.》하고 옆에 와앉았다. 보아하니 오누이인듯 하였다.

《너희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어디라고 정한데가 없소이다.》
《스님네는 어디까지 가시와요?》
《우리 역시 정한데가 없구나.》
의천은 류랑걸식하는 아이들인줄 이내 짐작하였다. 기근에 시달리다못해 고향을 버리고 살길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이 산과 들에 하얗게 널려있는 때이니 아이들이라고 달리 될수 없었던것이다.
《부모들은 계시지 않느냐? 》
《지난 봄에 돌아가셨소이다.》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내우로 형, 누이가 모두 열이옵고 이 애가 막내동생이와요.》
《그러니 열두남매로구나!》
어쩌면 나와 꼭같을가 하는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형제 열두남매중에서 남자는 몇이고 녀자는 몇이냐?》
《네, 남자가 열이옵고 녀자가 둘이와요.》
(역시 나와 꼭같구나!)
의천은 웬일인지 길가에서 만난 이 애들이 남같지 않게 생각되였다.
자기 형제들중 열번째동생쯤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 형제들은 모두 건재해있느냐? 》
《네, 수자리 살러도 가고 부역에도 가있지만 그래도 모두 죽지 않고…》
《음, 다행이로구나, 이 흉년에. … 그런데 네 이름은 어떻게 부르느냐?》
《막동이예요, 진막동이.》
의천은 막동의 얼굴을 다정히 살피며 한숨을 내쉬였다. 퍽 굶주린 기색이 보였으나 줄것이 없으니 안타까왔다.
문득 수개의 바랑에 말린 솔잎으로 만든 미시가루가 들어있는 생각이 났다.
의천은 수개의 바랑을 헤치고 미시가루를 여러 숟가락 떠내여 아이들앞에 놓아주었다.
《이게 우리들 길량식인데 맛이나 좀 바라. 쌀가루가 섞였으니 얼마간 요기는 될게다.》
두 아이가 미시가루를 먹는 동안 의천은 이 아이들 열두남매는 다

건재해서 있는데 자기들 열두남매는 어찌하여 겨우 넷밖에 남지 못했을가 하고 생각하였다.

굶주린것도 아니요, 헐벗은것은 더욱 아니였으되 대궐에서 호의호식하였지만 무엇인가 모자랐던것이 분명했다.

《스님, 잘 먹었사와요.》

사내아이가 허리를 깊이 굽혀 고맙다고 절을 하는 순간 헌 옷섶에 간수하였던 작은 능금 두알이 굴러나 땅바닥에 떨어졌다.

사내아이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굴러가는 능금을 얼른 집어들고 스님들쪽을 민망하게 바라보았다.

《허허… 먹음직스러운 능금인데 어찌하여 먹지 않고 가지고 다니느냐?》

의천이 이렇게 묻자 아이는 울먹이면서 대답하였다.

《스님, 죄송하와요. 부역에 나가 고생하는 형님에게 가져다주려고 간수했어요. 이 애가 먹고싶다고 울며 떼를 썼지만 오빠한테 가져다줘야 오빠가 죽지 않는다고 겨우 달랬어요. 먹으면 능금 두알에 배가 부르겠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으니 형제들이 서로 위해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능금 두알을 꽉 움켜쥔 사내아이의 부들부들 떠는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의천은 웬일인지 목이 꽉 메여왔다. 먼지 오른 막동이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고 그들과 헤여져 걸으면서도 의천의 가슴은 그 애들 생각으로 가득찼다.

저 애들 열두형제는 저렇듯 사랑과 인정으로 얽혀있기에 굶주림과 고역속에서도 건재해있는것이 아닐가.

인정과 사랑이 있어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것이니 인정과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열두남매에게는 이것이 없었다. 서로 물고뜯으며 권세를 탐내는 피투성이싸움을 벌리는 사이에 사람다운것은 점차 사라져가고 나중에는 사람자체가 사멸하기에 이른것이다.

참인정이 있고 참사랑이 있는 저들, 굶주리고 천대받는 사람들속에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것이 아닐가?

스무해나마 학문을 닦으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이 엄청난 사실을 산수유람 달포어간에 흉년든 길가에서 느끼게 된 의천의 심정은 놀

라움과 경탄으로 가득찼다.
어느덧 추풍령을 넘어 합천지경에 들어섰다.
합천 해인사에는 의천의 제자들도 몇명 있었다.
의천은 해인사의 남문인 홍하문으로 들어선 후 다시는 절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다.
몇달이 지나도록 승방속에서 독서와 사색에 묻혀있으면서 현실속에서 느끼고 배운것과 불경을 간행하면서 정립체계화한 천태종교리를 재음미하고있었다.
이때 개경에서는 착공한지 8년만에 국청사가 드디여 완공되였다.
왕족들과 외척들의 반란음모를 과감히 평정하고 어린 조카대신 룡상에 앉은 왕 숙종은 멀리 해인사에 가서 은거하고있는 동생 의천을 어명으로 불러다 국청사 주지로 임명하였다.
어명을 거역할수 없어 의천은 드디여 해인사문밖으로 나와 흥왕사에서 간행한 4 700여권의 경서(《고려속장경》)들을 국청사에 비치하고 본격적으로 천태종 교학강의를 시작하였다.
그의 교학강의를 들으려고 개경은 물론 지방에서도 많은 학승들이 모여왔다.
그리하여 1097년 우리 나라 천태종은 드디여 공인된 하나의 뚜렷한 불교종파로 이룩되였다.
어느날 의천이 국청사문을 나서는데 문밖에서 앉아 기다리고있던 한 소년이 얼른 일어서며 절을 하는것이였다.
《스님께 문안드리옵나이다. 막동이와요.》
《음? 막동이라니?!》
의천은 놀라운 눈길로 소년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몇해전 남쪽유람의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소년이였다.
《네가 어찌된 일이냐? 그동안 무고히 지냈느냐, 너동생 그 애도 잘 지내느냐?》
《고마우신 스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그 애도 스님께 절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소이다.》
《오냐, 고맙다. 너의 가슴속에서 넘쳐나는 그 인정세계가 세상에서 제일 크고 귀한것인줄 내 네게서 배워 알았구나!》
《원, 스님두… 저같은것에게서 배우다니요? 그때 스님께서 주시던

솔잎미시가루를 잊지 못해 우리 형제들이 솔꽃가루를 모아보내서 가지고왔어요.》
막동이가 괴나리보짐속에서 꺼내놓은 베개통만 한 버들고리뚜껑을 열어보니 마른 풀잎으로 정성껏 싼 노란 솔꽃가루가 소담하게 담겨져있었다.
그만한 량의 꽃가루를 모으려면 소바리에 실을만 한 솔꽃을 털어야 했으리라는 짐작이 갔지만 그 솔꽃가루는 결코 량으로는 그 의미를 헤아릴수 없는 그런 귀한것이였다.
그것은 꽃가루이기 전에 인정이고 아름다움이고 참다움이였다.
이것이 사람의 실상이 아니고 무엇이랴.
천태종불교에서는 제법실상(세상만물이 다 갖추고있다는 본체)을 중시하고있다.
천태종의 제법실상론을 깊이 탐구하고 체계화한 의천은 사람의 실상이 이토록 아름답고 참답고 선한것인줄 미처 관심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 참다운 실상이 없을 때 사람은 사람다와질수 없고 세상은 세상다와질수 없을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사람우에 설것이 과연 무엇이며 사람보다 더 귀중한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이냐.
의천은 다 해진 옷을 걸친 나어린 막동이앞에서 이렇듯 인간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느끼게 되는것이 무척 놀랍게만 생각되였다.
40평생에 자기가 대해온 사람들속에는 황제와 임금도 있고 고관대작들과 량반부자들, 지식의 탑을 높이 쌓은 학승과 유학자들, 스승을 깍듯이 따르는 총명한 제자들, 대궐에서 고이 자란 꽃같이 아름다운 미인들도 많았다.
그들에게서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아름답고 선하고 뜨거운 인정의 세계를 뜻하지 않은 나어린 아이에게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천시하는 그런 비천한 집안의 아이에게서 느끼였던것이다.
이 순간의 놀라움과 희열은 부처가 도를 깨치는 순간에 느꼈다는 그 무슨 법열에나 비길수 있을는지…
이때 막동이가 의천의 생각을 깨뜨릴가보아 저어하면서 조용히 말했다.
《수자리 살러 나가있는 우리 맏형님도 나라방비가 굳건해야 우선

나라가 편안하고 농사도 잘되고 만사가 흥한다고 했소이다.》
《오냐, 그렇구말구. 옳은 말이다. 나라가 편안치 못하여 만사가 흥하지 못하면 어찌 불법인들 흥할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로부터 세상에 나라사랑이란 말이 생겨났고 나라사랑을 사람의 첫째가는 도리로 여겨온것이다.》
막동이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였다.
《그러면 스님, 건강하시여 오래도록 불도를 닦으시오이다!》
《오냐, 고맙다. 너를 평생 잊지 않으마. 국청사가 아니면 령통사로 찾아오너라.》
의천은 막동의 모습이 고개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에 그린듯이 서서 조용히 념불을 외웠다.
이해 여름 의천은 정력에 넘쳐 천태종연구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리하여 주옥같은 《석원사림》25권과 《신편제종교장총록》3권, 《원종문류》22권, 《성유식론단과》 그리고 20여권에 달하는 자기 문집을 비롯한 수백여권의 저서들을 집필간행하였다.
그의 저서들은 송나라와 료나라, 왜 등에 수많이 수출류포되였다.
그리하여 고려 천태종의 학술적지위가 확고히 공인되였으며 의천은 고려 천태종의 시조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의천의 사망후 어느날 숙종왕은 의천의 시호(죽은 후 생전의 업적을 평가하여 주는 이름)를 정하기 위하여 어전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의천을 국사로 추존하고 〈대각〉(세상진리를 크게 깨달았다는 뜻)이라는 시호를 주려고 하니 경들의 뜻은 어떠하오?》
중서문하성의 문하시중이 아뢰였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대각〉이란 부처라는 말과 같은데 부처의 이름을 외람되게 쓰는것은 의천스님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옵나이다.》
왕은 그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의천이 이루어놓은 업적으로 보나 불법수양의 경지로 보나 마땅히 〈대각〉이라고 할만 하다고 생각하노라.》
이때 정당문학 리오가 아뢰였다.
《의천스님은 재주와 덕행이 모두 우수하여 그 이름이 송나라, 료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져있으니 어찌 국사로 추존하지 않을수 있겠소이까.

뿐더러 의천스님은 비록 왕자이지만 출가한 승려이니 례법대로 하면 복(상복입는 기간)이 없으나 국사로 추존하려 하는만큼 복을 입지 않을수 없다고 보오이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왕이하 신하들이 모두 검은 모자에 소복을 입고 3일간 조회를 중지하고 왕이 친히 의천의 제자들에게 조문을 보내고 부의를 후하게 주었으며 동시에 책명(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문)을 내려 의천에게 《대각국사》라는 시호를 추증하였다.

의천이 사망한지 25년이 지난 후 당시 왕이였던 인종의 지시로 령통사 앞뜰에 대각국사 의천의 비를 세웠다.

그 비는 지금도 남아 우리 나라 천태종불교의 시조인 그의 업적많은 한생을 돌이켜보게 하고있으며 령통사를 우리 나라 천태종의 성지로 세상에 널리 빛내이게 하고있다.

황진이(1516-?)

16세기 전반기의 재능있는 녀류시인, 별명은 진랑이고 호는 명월이다.

개성에서 기생의 딸로 태여난 황진이는 천한 신분에 매이여 한생 기생살이를 하였으나 뛰여난 용모와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당대의 으뜸가는 녀류시인, 예술가로 알려졌다.

황진이는 화담 서경덕과 개성의 명승 박연폭포와 더불어《송도3절》(개성의 뛰여난 세가지)로 자부하였다.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으나 대부분이 없어지고 현재 시조 6수와 한시 4수가 전해지고있다.

박연폭포가 떨어지는 고모담의 못가에 있는 큰 바위우에 황진이가 머리태로 휘갈겨썼다고 전해오는 광초체의 한자시가 아직도 남아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명월 황진이의 묘가 개성시 선적리에 새롭게 꾸려졌다.

오관산 목계가

리 성 덕

예로부터 이름난 산으로 불리우는 오관산의 바로 밑에 남쪽을 향해 솟아있는 그리 높지 않은 계봉(닭봉우리)이라 불리우는 봉우리가 하나 솟아있다.

이 봉우리기슭에 문충이라는 젊은이가 홀로 계시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었다.

문충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남달리 지극한 사람이였다.

계봉에 있는 집으로부터 개경까지는 30여리남짓한데 그는 개경의 한 관청에서 낮은 벼슬살이를 하면서 매일 이른아침에 집을 떠났다가 일을 마치고는 저녁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자식의 고을살이에 지장될세라 어머니는 부지런히 집일을 돌보면서도 닭도 치고 터밭도 가꾸는 등 여러가지로 가사에 힘쓰고있었다.

문충은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일은 그의 뜻대로 쉬이 되지 않았다. 빨래도 해야 하고 닭도 기르는 등 여러가지 잡다한 일로 하여 어머니는 언제한번 편히 쉬지 못하고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자면 서둘러서라도 어머니의 일손을 덜어줄 안해를 맞아와야 했었다.

그런데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고 본인 당자가 장가를 들겠다고 설레발을 치며 매파를 보낸다는것도 인륜에 없는 일 같아서 주저주저하던 끝에 할수없이 한동네에 사는 어떤 늙은이를 찾아갔다.

《저… 할머니, 차마 못할 부탁인줄 알면서도 이렇게 할수없이… 한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왔소이다.》

문충은 힘들게 겨우 말꼭지를 떼였다.

《아니, 한동네에 살면서 못할 부탁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어서 시원히 말하게나, 어서!》

하여 문충은 떠듬거리며 혼자 살고계시는 어머님을 편히 모시려면 아무래도 안해를 맞아와야 하겠는데 제 손으로는 못할 일이여서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이마에 내돋는 땀방울을 훔치며 겨우 말하였다.

《원, 사람두… 그런 길한 일을 그다지도 어렵게 말을 하다니… 난 또 무슨 흉한 일이여서 그러는가 했구먼. 젊은이같이 어질고 참한 신랑감이라면야 온 마을이 나서서 서로 도울것이구 딸가진 집들에서는

저저마다 혼사를 하려고 나설터이니 조금도 념려말구 기다리라구.》
동네 안늙은이는 오히려 제편에서 흥을 돋구며 기뻐하였다.
며칠후 인물 곱고 마음씨 고운데다가 가풍 또한 나무랄데없는 집안의 처녀를 데리고 동네 안늙은이가 찾아왔다.
문충은 우선 자기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야 하므로 자기는 처녀를 보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먼저 보이도록 하였다.
어머니 역시 나무랄데없는 며느리감을 마다할리 만무였다.
그리하여 혼례를 치르고 며느리가 되고 안해가 될 녀인을 온 마을의 축복속에 꽃가마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다.
신혼 첫날밤 문충은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더 잘 모셔달라는것을 새색시에게 거듭거듭 일러주고나서 이튿날부터 마음을 푹 놓고 이전이나 다름없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늦게야 돌아오군 하였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안타까운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 색시가 제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주는가 하는 그것이였고 그보다 더한것은 자기의 마음이 점점 어머니보다 안해에게로만 쏠리는 바로 그것이였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를 위한다는노릇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로 되였으니 이 무슨 불효막심한짓이냐?!
안해의 잘못도 아니요 어머니의 잘못은 더더구나 아닌, 자기의 마음이 이전처럼 어머니에게가 아니라 자기 안해에게로만 쏠린데 그 원인이 있었다.
문충은 여러날 남에게 말못할 집안사정을 두고 혼자 마음을 썩이다가 마침내 동네의 좌상로인을 찾아갔다. 젊어서 한때는 나라에서 문인재사들을 키워내는 국자감에서도 벼슬을 한바 있는 식자가 있는 늙은이로서 세상경난도 풍부하여 동네뿐아니라 린근에서도 인망을 모으고있는 늙은이였다.
문충이 자기 집안일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조언을 청하자 좌상로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흰 수염을 천천히 내려쓸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래, 자네가 장가를 들어 안해를 맞아들이고 화목하게 사는데 그게 무슨 근심거리란 말인가?》
《예, 제가 이전에는 어머니 한분만을 잘 돌보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였는데 이제는 안해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니 자연히 제 마음이 매일같이 어머니에게서 멀어지는것 같아 걱정이 되옵니다.》
《자네야말로 보기 드문 효자일세. 효도란 모든 도덕의 근본일세. 효도가 무엇이겠나? 그것은 저를 낳아준 부모에게 한생토록 바치는 자식의 도리를 말하는것일세. 그 효도가 충성을 낳고 안해와 자식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낳는걸세. 그러니 효가 없는 사람이 나라를 어떻

게 받들며 부모처자는 어떻게 사랑할수 있겠나? 자네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순간이나마 식어져서 안해나 자식에게로 옮겨갈가보아 걱정인데 효도와 사랑이라는게 다 한줄기에 피는 꽃이 아니겠나.

예로부터 효도할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충신, 영웅이 나본적이 없었고 효도할줄 모르는 사람이 처자를 옳바로 거둔적이 없는걸루 나는 알고있네.

그러니 자네가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끝까지 변치 말고 지켜나간다면 안해에 대한 사랑도 꽃피고 가정도 화목해질것인즉 그러면 장차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도 뭔가 큰일을 할것이니 걱정일랑 말게.》

문충은 무엇인가 깨달음을 느끼면서 좌상로인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나서 다시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변치 않고 간직하자면 어찌해야 하겠나이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받들고 효성을 다하는데서 사람마다 큰 차이는 없을것이네만 거기에 무슨 따로 정해진것이 있겠나?

서로가 사는 형편과 생활방식도 다를터이니 어찌 한가지 방법으로 될수 있겠나 그 말일세. 내 생각엔 잘살고 못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낳아키워준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진정을 쏟아부으면 될것이라고 보네. 부모와 자기 가정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지닐 때에라야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도 자기를 내댈수 있는게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만 자네는 어떨는지? 내 말을 알아듣겠나?》

《예, 잘 알아들었소이다. 좌상로인님의 말씀을 깊이깊이 명심하겠소이다.》

좌상로인의 진심어린 그 말에 문충은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며 좌상로인에게 자기의 진심이 담긴 술을 부어드리였다.

집에 돌아와서도 문충은 어떻게 하면 좌상로인의 말대로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잊지 않고 살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그러다가 어느날 새벽에 문득 밖에서 《꼬끼요－》하고 우렁차게 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였다.

순간 무엇인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첫새벽에 어김없이 우는 새벽닭처럼 나도 하루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효도만 생각하자, 그러면 순간도 효도를 잊지 않고 살게 될것이 아닌가, 그러자면…

다음날부터 문충은 단단한 나무를 골라 다듬어서 닭의 모습을 부지런히 깎기 시작하였다.

나무로 깎은 닭이 다되자 알뜰히 다듬고 고운 색갈을 먹이여서 집으로 들며날며 볼수 있게 홰대우에 높이 걸어놓았다. …

그후부터 문충과 그 안해는 아침 일찌기 일어나서부터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할 생각을 순간도 잊지 않고 어머니를 더 잘 모시였다.

어머니에 대한 문충의 효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냈으면 나무닭에 대한 노래가 퍼지고 또 퍼져 고려의 정사를 기록한 《고려사 악지》에까지 실리였겠는가.

나무로 아로새긴 작은 닭 한마리
홰대우에 가져다 얹어놓았네
그 닭이 꼬끼요 홰치며 울 때까지
어머님 길이길이 사시옵소서

부모에 대한 효도가 구절마다 넘치는 이 노래는 물론 문충이 지은 원문은 아니고 고려시기 대문장가였던 익재 리제현이 한시로 옮겨놓은것을 번역한것이다.

문충에 대한 이야기는 비록 길지 않아도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간직하면서 전해져내려오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도와 나라에 대한 끝없는 충정의 일단을 소박하게 펼쳐보이고있어 보는이들의 마음을 조용히 달구어주고있다.

의천(1055-1101년)

우리 나라 천태종불교의 시조로서 이름은 후고 자는 의천이며 시호는 대각국사이다.

문종왕의 넷째아들이며 어머니는 인예태후이다.

1065년 11살때 중이 되여 13살때에는 우세승통으로 되였다.

1085년 4월 31살때에 송나라에 갔다가 1086년에 귀국하여 송나라에서 가져온 불경과 경서 1천여권을 나라에 바쳤다.

그는 흥왕사 주지로 있으면서 그곳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고려속장경》(4 769권)을 간행하였다.

1097년 개경에 국청사가 새로 세워지자 그곳의 주지가 되여 그동안 연구완성한 천태종교학을 처음으로 강론하여 이때에야 비로소 우리 나라에서 천태종불교가 창시되였다.

1101년 10월 5일 개경의 총지사에서 사망하였다.

의천이 쓴 책으로는 《신편제종교장총록》(3권), 《원종문류》(22권), 《석원사림》(25권), 《대각국사집》(23권) 등이 있다.

의천이 사망한 후 그에게 《대각국사》라는 시호를 주었으며 1125년에 인종(고려17대왕)의 지시에 따라 령통사에 그의 비를 세웠다.

시 루 봉

전 철 호

먼 옛날옛적 오관산의 령통골마을에는 일찌기 량친부모를 다 잃은 오누이가 살고있었다.

오빠의 이름은 억쇠이고 누이동생은 은하라고 부르는 오누이였다.

오누이도 그렇고 령통골마을사람들이 속이 새까맣게 타서 근심을 놓지 못하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벌써 수십년째 땅을 태우는 왕가물로 하여 기근이 드는것이였다.

이 마을뿐아니라 천마산의 사방 백리일판이 무서운 가물로 하여 시들어가고있었다.

그게 다 천마산에 검은룡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난때문이였다.

집채같은 몸뚱이에 황소도 단숨에 집어삼킬 굉장히 큰 아가리를 가진 검은룡은 하늘나라 천궁에서 후궁파수장을 하다가 선녀들의 방을 침범한 죄를 짓고 땅의 나라로 도망쳐온 불한당이였다.

그놈의 먹성은 별나게 구름을 좋아하였는데 바다쪽에서 밀려드는 구름들을 보는 족족 삼켜버리군 하였다.

하여 풍요하던 천마산일대가 삽시에 모래사막으로 변해갔다.

검은룡이 어찌나 게걸스레 구름들을 먹어치우는지 그렇게도 경치좋던 천마산의 골물이 다 말라버려서 장쾌하게 지심치던 천척폭포까지 자취를 감추었다.

심보가 몹시도 모질어빠진 억척보두같은 검은룡을 보다못해 이 고장 사람들이 손에 병쟁기를 들고 나섰다.

허나 그놈의 괴력이 어찌나 드센지 보통사람의 힘으로는 대적할수 없었다.

그놈을 몰아내려다가 도리여 잘못된 사람들속에는 억쇠의 아버지도 있었다.

억쇠의 아버지는 상씨름군이고 무술에도 뛰여난 힘장사였지만 검은룡과의 싸움에서 쓰러지고말았다.

검은룡이 칼에 맞아 떨어진 제 모가지를 다시 붙이는 괴상한 재주가 없었더라면 그때 이 고장에는 단비가 쏟아져내렸을것이였다.

억쇠의 아버지가 휘두르는 보배로운 칼인 룡천검에 면바로 얻어맞은 검은룡은 선지피를 뿜었고 그놈의 모가지는 땅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놈은 인차 그 모가지를 제자리에 붙여놓고 불기둥을 내뿜었다.

삽시에 쏟아져나오는 세찬 불기둥에 맞은 억쇠의 아버지는 그만 잘못되였다.
골수에 사무친 원한도 풀고 태를 묻은 고장을 기어이 되살리려는 비장한 뜻을 품은 억쇠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련마했다.
세상에 아버지만 한 자식이 없다지만 강심을 먹고 달라붙는다면 아버지처럼 힘장수가 될것이 아닌가.
십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산판을 오르내리며 무술을 익힌 억쇠는 어느덧 름름한 젊은이가 되였다.
마을로인들은 장검을 휘두르는 억쇠를 볼 때면 그의 아버지를 보는것만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억쇠의 장검은 아버지가 쓰던것인데 기장이 다섯자를 넘는데다 무려 쉰근이나 나가는 큰 칼이여서 웬만 한 힘장사가 아니고서는 쓸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억쇠의 아버지는 룡천검을 틀어잡으면 쉬지 않고 만번이나 휘둘러 비발치듯 날아드는 화살을 한개도 놓침없이 막아냈다는것이였다.
오늘은 억쇠가 그 검으로 검술을 펼치는데 마을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의 환생이 아닌가고 눈을 비비기까지 하였다.
이만하면 검은룡과 싸울수 있지 않을가 하는 배심이 든 억쇠는 봄이 오자 집을 나섰다.
(어떻게 하나 봄씨붙임전으로 검은룡을 쳐부셔 올해에는 기어이 풍년을 안아오리라!)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속에 천마산으로 오른 억쇠는 룡천검을 비껴들고 검은룡을 찾아다녔다.
보름나마 온 산판을 참빗질을 하듯 샅샅이 훑었지만 검은룡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근간에 검은룡은 천마산에만 머물지 않고있었다.
백리일판의 구름만으로는 성차지 않는 검은룡은 부아악(삼각산)너머의 먼 남쪽일대에까지 세력을 뻗치였다.
하는수없이 억쇠는 빈손으로 천마산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억쇠는 어떻게 해야 검은룡의 행처를 찾아낼수 있을가 하고 고심하였다.
억쇠가 여러날째 고심을 하고있는데 은하가 문득 손벽을 쳤다.
《오빠! 시루떡이야기가 생각나요?》
《시루떡이야기?!…》하던 억쇠도 손벽을 쳤다.
왜 그 생각을 까맣게 잊고있었을가. …
늙은이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검은룡은 비구름을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류별나게 시루떡을 좋아한다는것이였다. 그놈은 시루떡이라면 오

금을 못쓰는데 그 냄새를 백리밖에서도 맡고 달려들어 집어삼키기때문에 사람들은 맛있는 시루떡을 해먹을수 없다는것이였다.

억쇠는 마을사람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자면 령통골의 동켠에 제일 높고 두드러지게 솟아있는 동산으로 올라가 시루떡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동산은 오관산처럼 바위산은 아니고 생긴 모양이 둥실하여 검은룡과 싸우기에도 적합해보였다.

헌데 골치거리는 은하였다.

은하가 음식을 짓는 일은 아녀자가 할일이라면서 한사코 따라나섰던것이다.

억쇠는 그와 가타부타하다가는 마을에 소문만 낼것 같아 시루에 불을 지피면 내려가야 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가 따라나서는것을 허락하였다.

《허, 일낙천금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소리로구나.》

억쇠의 말에 은하가 대꾸했다.

《한번 승낙하는것이 천금같이 무겁고 귀중하여 사내들이 내리는 허락을 일낙천금이라 하지만 우리 내인들에게도 일낙천금이 있으니 난 어머님이 물려주신 반지를 팔아 떡쌀을 마련하겠어요. 오빠도 딴 생각이 없겠지요?》

그 말에 억쇠는 할말이 없었다.

은하는 가보로 전해오는 금반지를 팔아 떡쌀을 사들였다.

만단의 차비를 갖춘 오누이는 이른새벽에 동산마루에 올랐다.

해가 떠오르자 억쇠는 펑퍼짐한 자리를 골라 아궁을 만들고 그우에 반섬들이 큰 시루를 올려놓았다.

은하가 시루에 떡쌀을 안치고 아궁에 불을 지폈다.

《자, 이젠 언약한대루 내려가주렴. 어서!》

억쇠가 두눈을 딱 부릅뜨고 떠미는 바람에 은하는 쫓겨내려가지 않을수 없었다.

은하가 내려가자 억쇠는 사방 하늘을 둘러보았다.

이제 시루에서 김이 서려올라오면 구수한 시루떡냄새가 퍼져나갈것이고 그러면 검은룡이 하늘을 타고 질풍같이 달려들것이였다.

코끼리몸집만 한 대가리를 가진 검은룡은 목에 두터운 비늘이 촘촘히 나서 웬만 한 장검으로는 금자리밖에 내지 못한다고 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터럭일지라도 단칼에 두동강을 낼수 있고 쇠줄도 단숨에 자를수 있는 룡천검을 틀어잡은 억쇠의 배심은 든든하였다.

열번 갈아서 들지 않는 도끼가 없다고 보검중의 보검인 룡천검을 며칠토록 갈았으니 치는대로 베여질것이다.

아버지가 그러했던것처럼 기어이 이 칼로 검은룡의 목을 치고 또 칠것이다.
억쇠가 이를 가는데 시루에서 더운 김이 서려올랐다.
(아, 때가 되였구나.)
억쇠는 이미 봐두었던 시루에서 얼마가량 떨어져있는 홈채기에 몸을 숨겼다.
괴력을 가진 검은룡과 싸워이기자면 머리를 써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다.
이제 검은룡이 나타나 정신없이 시루떡을 집어삼킬 때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놈의 목을 치리라.
윙—윙—
갑자기 남쪽하늘에서 일진광풍이 몰아쳐왔다.
검은룡이 움직일 때면 일어나는 세찬 바람이였다.
과연 남쪽하늘에서 먹장구름같은 형체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쿵! 하고 지축을 울리는 둔중한 굉음이 울렸다.
억쇠는 숨을 잔뜩 죽이고 검은룡을 노려보았다.
집채같은 몸뚱이를 뚱기적거리며 시루로 다가간 검은룡은 그앞에 웅크리고앉았다.
그놈의 대가리에서는 양푼같은 두눈알이 디룩대고 소대가리만큼 큰 코가 벌름거렸다.
이윽고 검은룡은 정각의 기둥같은 앞다리로 시루를 번쩍 안아들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억쇠는 비호같이 뛰쳐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칼 받아라!—》
억쇠가 힘껏 내려치는 룡천검이 면바로 검은룡의 목을 쳤다. 불의에 날아든 룡천검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검은룡의 목이 툴렁 떨어지면서 대줄기같은 피가 사방으로 뿜어나갔다.
어찌나 피가 세차게 내뿜는지 온몸에 피칠갑을 당한 억쇠는 얼결에 뒤걸음을 쳤다.
《아차!》
억쇠가 순간을 놓친것을 후회하며 황급히 검을 휘두르려 하는데 검은룡의 아가리에서 아름드리불줄기가 거세차게 뿜어나왔다.
《앗!》
불줄기에 얻어맞은 억쇠는 비명을 지르며 산비탈로 굴러떨어졌다. 그의 온몸에서는 불이 일고있었다.
《오빠!》
산을 내리지 않고 몰래 나무숲에 숨어있던 은하가 달려나와 정신잃

고 쓰러진 억쇠의 옷에 달린 불을 비벼끄기 시작했다.
은하가 아니였다면 억쇠는 영낙없이 불에 타죽었을것이였다.
한껏 불줄기를 토하고난 검은룡은 시루떡을 집어삼키고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에야 정신을 차린 억쇠는 구들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
불에 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에 난 상처가 아파서였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치면서 밝혀낸 검은룡의 재주를 소홀히 하다니…
검은룡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련속 칼탕을 쳤더라면… 이게 다 아직도 마음의 탕개를 바로 조이지 못한탓이다. 다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하리라.
억쇠가 구들을 치며 이를 사려물적에 은하는 자기 할바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있었다.
여러날이 흘러갔다.
억쇠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지루하여 이를 갈았다.
날마다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하기 그지없었다.
검은룡이 이해에는 더 지독스레 날치는지 어느 마을이나 할것없이 우물까지 말라버려 밭을 갈고 씨는 뿌렸어도 곡식이 움터나오기는 코집부터 글렀으니 더는 살래야 살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 정든 고향산천을 너도나도 떠나가고있다는것이였다.
그야말로 한순간, 한순간이 천금맞잡이인 때에 허리부러진 장수꼴이 되였으니 이런 통분한 일이 어데 있는가.
며칠이 지나자 은하의 지극한 보살핌이 있어 억쇠는 드디여 자리에서 일어설수 있었다.
오누이는 이른새벽 또다시 동산으로 올랐다.
동산에 오른 은하에게는 이전과 다른 보짐이 또 있었으니 이제 그 속에 든 물건이 어떤 조화를 부릴는지는 아직은 알수 없었다.
이윽고 아궁에는 불이 일고 시루로는 더운 김이 뿜어올랐다.
홈채기에 몸을 숨긴 오누이는 손에 땀을 쥐고 검은룡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
전번에 혼쌀난 검은룡이 또다시 나타날는지…
공연한 근심이였다.
좀 있어 지축을 울리는 둔중한 소리가 울리고 검은룡이 육중한 몸집을 드러냈다.
그놈은 천연스럽게 시루로 다가갔다. 검은룡은 천하에 자기를 당할자 없음을 뽐내려는듯 둔한 몸뚱이를 퍼더버리고앉아 시루를 덥석 안아들었다.
그러기를 기다렸던 억쇠가 룡천검을 비껴들고 달려나갔다.
《야－앗!》

단칼에 검은룡의 굵은 목이 썩둑 베여졌다.
억쇠는 숨돌릴 틈이 없이 재차 칼을 추켜들고 검은룡의 떨어진 대가리를 더 힘껏 내리쳤다.
그런데 이 무슨 변괴인가.
억쇠가 휘둘러대는 칼은 검은룡의 대가리에로가 아니라 허공에서 휘파람소리를 내고있는것이 아닌가?!
땅바닥에 나떨어졌던 검은룡의 대가리가 서서히 솟구쳐오르는것을 본 억쇠는 미칠것만 같았다.
억쇠가 몸부림을 치는데 은하가 보짐속에서 움켜쥔것을 피를 뿜는 검은룡의 모가지에 내뿌리며 야무지게 웨쳐댔다.
《이놈아, 이걸 받아라!》
연방 은하의 손이 비수날듯 보짐속에서 웬 물건을 움켜내여 서서히 솟구쳐오르는 검은룡의 모가지에 내뿌렸다.
그것은 먼지같은 재가루였다.
억쇠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뽀얀 재가루가 뿌려진 검은룡의 모가지에서 내뿜던 선지피가 피딱지로 굳어져버리더니 모가지가 인차 땅바닥에 툴렁 떨어졌다.
그러자 집채같던 검은룡의 몸뚱이가 물거품처럼 스러지더니 이내 형체마저 없어지고말았다.
그 순간 놀라운 천지조화가 일어났다.
어데서 밀려왔는지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비가 쏟아졌다.
그야말로 단비이고 약비였다.
약비는 령통골마을뿐아니라 천마산에도 아니, 온 천지를 적시고있었다.
오누이는 서로 두손을 마주잡고 온몸을 푹 적시는 단비를 환희롭게 쳐다보았다.
한나절동안 땅을 보기 좋게 적신 하늘에서 둥근 해가 머리를 내밀었다. 이어 오색령롱한 무지개가 령통골마을의 상공에다 허궁다리를 놓았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억쇠와 은하가 검은룡을 쳐부신 동산에서는 더운 김이 무럭무럭 하늘로 서려올랐다.
그 모습은 마치도 시루에서 김이 서려올라오는듯싶었다.
그해 령통골마을뿐아니라 그 일대 모든 마을들에 지금껏 찾아볼수 없었던 큰 풍년인 어거리풍년이 찾아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해마다 단비가 내리고나면 다른 산들과 달리 령통골마을의 동산에서는 더운 김이 하늘로 모락모락 피여오르는것이였다.
마을사람들은 그 조화는 억쇠네 오누이가 검은룡을 쳐부시느라 시루떡을 찐 그 기운이 어려있기때문이라면서 그 산을 시루봉이라고 불렀다.

오늘도 시루봉에서는 단비가 내린 후 인차 더운 김이 하늘로 솟구쳐오르는 류다른 풍경을 찾아볼수 있다.

대 흥 산 성

고려시기에 쌓은 돌성으로서 일명 천마산성, 성거산성이라고도 한다.

대흥산성의 처음 축성년대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있다.

지금 있는 산성은 1676년(숙종2년)에 고쳐쌓은것이다.

대흥산성은 비교적 넓고도 깊은 대흥골을 둘러싸고있는 해발 762m에 달하는 천마산과 성거산을 리용하여 그와 잇닿은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련결하여 쌓은 천험의 요새이다.

성벽의 길이는 약 10.1㎞ 이고 높이는 평균 3～5m이며 평평한 곳과 골짜기를 넘어서는 곳은 6～8m이다.

성안의 넓이는 대략 580만㎡로서 우리 나라 산성들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한다.

산성에는 북문, 남문, 동문, 서문, 소동문, 소서문 등 6개의 큰 문이 있는데 현재 북문에만 문루가 남아있고 기타 성문들에는 돌로 쌓은 무지개형의 통로만 남아있다.(소동문만은 무지개형이 아니라 네모형으로 되여있다.)

이밖에도 산성에는 4개의 암문이 있어 모두 10개의 문이 설치되여있다.

산성에는 장대가 3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것은 영청대이다.

영청대는 산성의 기본장대로서 산성안의 중심위치에 있었는데 그 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성안에는 지휘관의 관청이였던 제승당터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승당은 평시에는 중군(무관벼슬)이 틀고앉아 성안의 군무를 보고 일단 사변이 생기면 개성류수가 군대를 이끌고 산성으로 들어와 일을 보던 곳이였다.

산성안에는 또한 북창, 동창, 내창, 승창 등 4개의 식량창고와 무기고, 화약고도 있었다.

성안에는 고려시기에 지은 관음사, 대흥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절과 암자들이 있었다.

리조시기 대흥산성에는 450여명의 군사들이 항시적으로 주둔하여 성을 방비하였다고 한다.

대흥산성은 고려시기는 물론 그 이후시기에도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에 리용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박내성의병부대가, 19세기말－20세기초에는 김수민의병부대가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반일의병투쟁을 벌렸다.

장수바위

김 정 철

오관산의 마가갑마을에 사는 로총각 강충은 아침해가 뜨기 바쁘게 장검을 들고 월광봉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집채같은 바위앞에 마주섰다.

회색빛을 머금은 무쇠같이 단단한 둥그런 바위앞에 마주선 강충은 저으기 떨리는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다.

오늘은 새로 벼린 장검으로 수박같이 생긴 저 바위를 단칼에 자를수 있겠는지…

이전같으면 단숨에 바위돌을 깨리라는 불같은 마음에서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며 달려나갔을 그였지만 오늘은 눈앞에 떠오르는것이 있어 못박힌듯 한자리에 서있기만 하고있는것이였다.

강충의 눈에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이제는 이미 고인이 된 아버지 호경이였다.

그때가 아마도 10여년전의 어느 여름날일것이였다. 열살난 강충은 평나산으로 산짐승잡이를 가는 아버지의 일행을 따라가던 길에 바로 이 자리에서 쉬여가게 되였다.

어린 강충은 짧은 쉴참에마저 친구들과 함께 장검을 뽑아들고 검술을 련마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아버진 다들 〈성골장군〉이라 부르는 장사이신데 어이하여 틈만 있으면 무술을 하나이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검을 휘두르고난 아버지는 이마에 난 땀방울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걸 생각하는걸 보니 마음이 다 컸구나. 얘야,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나라가 무사할 때일지라도 앞으로 외란이 닥쳐올수 있음을 내다보고 군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단다.》

아버지는 머루알같이 새까만 두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강충의 등을 두드리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하물며 나라가 무사한 시절에도 군력을 키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외적들이 우리 사는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며 불집을 일으키려고 하

는 때에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누구나 무술을 잘 닦아야 나라를 굳게 지켜낼수 있단다.》

어린 강충은 아버지의 말뜻을 다는 알수 없었지만 자기도 장사가 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가 없었다.

《아버지! 난 언제 가면 아버지와 같은 장사가 될수 있나요?》

그 물음에 껄껄 웃고난 아버지는 개울건너의 웅장한 바위돌을 가리켰다.

《네가 장검으로 저 바위를 베는 때이면 아마 뛰여난 장수가 될게다.》

그때 강충은 아버지가 롱말을 한다고 생각했었다.

아무리 천하장사일지라도 저런 큰 바위돌을 어이 칼로 쳐서 깰수 있으랴.

나이가 들면서 강충은 아버지가 그때 결코 롱말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았다.

바로 저 바위돌을 칼로 쳐서 베여낼만 한 힘을 키워야 나라를 지키는 용맹한 장수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마가갑마을로 이사를 해온 강충은 날마다 험한 산판을 뛰여달리며 검쓰기를 익히였다.

이제는 키꼴이 억대우같은 미남자로 자란 그는 벌써 수십차례나 바위돌을 자르려고 무진 애를 써왔지만 그때마다 어찌된탓인지 바위돌을 내리치는 장검의 칼날이 모두 뚝뚝 부러져나갔다.

장수가 되려면 무엇보다 보검을 가져야 한다는데 이런 칼로야 무슨 일을 치겠는가.

그래서 칼을 벼려준 대장쟁이로인을 찾아가 하소연했더니 로인은 물론 칼도 보배로와야 하지만 그못지 않게 검술을 다져야 한다고 일깨워주는것이였다.

강충은 또다시 검술을 다지기에 힘썼다. 이미 오랜 무사들에게서 검술을 배울만큼 배운 그는 이번에는 천마산에 들어가 홀로 특이한 검술을 터득하였다.

수풀속에 도사린 뱀이 불의에 먹이를 집어삼키는 모습이며 사나운 새매가 하늘에서 꿩을 향해 쏜살같이 내리꽂는 모습, 산중의 왕인 호랑이가 밀림속을 뛰쳐나오며 먹이감의 멱을 단통에 물어제끼는것과 같은 수십가지나 되는 산중세상의 먹고 먹히우는 모습들을 본따서 자기

나름의 검술동작을 익히고나니 어느새 로총각이 되고말았다.
기어이 아버지의 뜻대로 바위돌을 칼로 쪼개고서야 장가를 들겠다는것이 그의 결심이였다.
그러나 만사가 다 제 뜻대로 되지 않는게 세상리치인것 같았다.
한다하는 검객이 되였노라고 자처하는 강충이였지만 그동안 몇번이나 칼을 휘둘렀으나 매번 바위가 쪼개지기는커녕 이전처럼 칼자루만 남고말았다.
칼자루만 남은 칼들이 어떤 칼이였던가.
사실 그 칼들은 보통칼이 아니였다.
아버지에게서 적지 않은 재산을 물려받은 강충은 어느 마을 누구한테 좋은 칼이 있다고 하면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들였다.
그 칼들이 다 못쓰게 되고말았으니 강충은 애가 타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강충이 칼때문에 고심하고있는데 서강(례성강)의 영안촌(오늘의 개성시 남포리)에 사는 아버지의 친구되는 로인이 좋은 쇠를 가져다주었다.
그 쇠로 말하면 가문에 장수가 나거들랑 장검을 벼려주라고 조상때부터 물려오는 그 집의 가보나 같은것이였다.
그 쇠를 가지고 대장쟁이로인을 찾아갔더니 로인이 몹시 놀라와하였다.
《이런 쇠는 실로 보기 드문 강쇠일세. 옛말에 의하면 나라에 장수감이 태여나면 하늘에서 좋은 쇠돌을 내려보내준다더니만 이 쇠가 바로 그런 쇠돌에서 뽑아낸 쇠인것 같네.》
대장쟁이로인은 평생 배워온 재주를 다해 수백번이나 쇠를 단련하여 장검을 벼려주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장검을 강충에게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네 마을의 돌산인 시루봉에서 옛적에 두 오누이가 보배로운 룡천검으로 비구름을 모조리 집어삼키던 못된 검은 룡의 목을 쳤다는데 이 칼도 그 칼에 못지 않을걸세.》
강충은 지금도 대장쟁이로인의 그 말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아 배심이 든든해졌다.
검은 룡의 목을 쳤다는 룡천검과도 같은 보검이 있는데야 이번에는 저 바위돌이 쪼개지지 않고 견딜수 있으랴.

검자루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은 강충은 허리를 숙이며 바위를 노려보았다.
검술중의 검술을 론한다면 강충은 자기가 터득한 특기검술인 수풀속을 나는듯이 뛰쳐나오는 호랑이의 동작을 본따 만든 비호검법을 제일로 쳤다.
온몸의 힘을 칼끝에 모은 강충은 맹호처럼 뛰쳐나가며 비호검법으로 바위를 내리쳤다.
장검이 바위를 호되게 내리치는 벅찬 느낌이 전신에 퍼져들자 강충은 갑자기 눈앞이 뿌예졌다.
뿌예진 눈앞에서 바위가 쩍 갈라지는것이 얼른거렸다.
강충은 너무 기뻐 환성을 지르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목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그대신 두줄기 눈물이 얼굴에서 주르르 흘러내렸다.
진짜사내는 기쁠 때 눈물이 난다더니…
팔굽으로 눈물을 닦으니 뿌옇던 눈앞이 다시 밝아졌다.
(?!)
강충은 기가 막혀 불한숨을 내뿜었다.
바위돌은 쩍 갈라진것이 아니고 생생한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칼도 생생한 그대로인데 바위에는 칼로 친 흠집이 크게 남아있는것이였다.
아! 그러니 환각이였단 말인가.
강충은 울컥 분기가 치밀어올라 정신없이 장검을 휘둘렀다. 무수한 칼질에 바위는 흠집은 났을망정 끄떡없었다.
맥이 빠진 강충은 풀썩 바위돌우에 주저앉고말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강충은 도저히 잠에 들수가 없었다. 무수한 칼질에도 조금도 상하지 않는 좋은 장검을 가지고서도 바위돌을 쪼개지 못했으니 돌아가신 아버지앞에 면목이 없었던것이다.
자기 재주가 부족함을 한탄하던 그는 자정이 퍼그나 지나서야 겨우 풋잠에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얘야!》 하는 너무도 귀에 익은 아버지의 부름소리에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난 강충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님!》
문가에 늙은 아버지가 서있는데 그의 눈에 측은해하는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였고 아버지의 두눈이 다시 엄해졌다.
《네가 낮에 바위를 치는걸 내 지켜보았다. 너는 검술은 아는데 검을 쓰는 마음이 설익어 바위를 깨지 못했니라.》
강충은 놀라 부르짖었다.
《아버님! 검을 쓰는 마음이란 무슨 뜻이오이까?》
늙은 아버지의 눈길이 부드러워졌다.
《허, 독불장군이란 말을 아느냐? 제아무리 뛰여난 무사라고 해도 혼자서는 아무 일도 칠수 없느니라. 출중한 검객일수록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뜻을 같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있는 법이다. 이게 바로 검을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거다.》
《아!―》하고 신음소리를 내던 강충은 입술을 깨물었다.
왜 진작 마을사람들과 힘을 합쳐 바위를 깰 마음을 바로 가지질 못했을가.
아버지가 바위를 깨는 장수가 되라는 뜻은 마을사람들과 합심하여 무술을 닦아 앞으로 닥쳐올 외란에 대처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아버님! 알겠소이다.》하던 강충은 어리둥절해졌다.
텅 빈 방만 안겨왔기때문이였다. 꿈이였던것이다.
강충은 가슴을 붙안고 후회를 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가르침을 주셨겠는가.
사실이 그러했다.
강충은 마을사람들과 힘을 합치라는 여러 사람들의 충고도 새겨듣지 않았었다.
지난해뿐아니라 올해에는 검을 벼리라며 집안의 가보로 전해오던 좋은 쇠까지 들고 찾아왔던 영안촌로인이 그런 충고를 했었다.
영안촌로인이 어떤 귀인인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만이 아닌 그는 강충의 가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였다.
강충의 아버지는 생전에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는 언약을 한터였다.
또 마을의 좌상로인도 그런 충고를 했었다.
하지만 강충은 제 홀로 바위를 깨고 이름을 날리려는 야심에서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날이 밝자 강충은 그길로 좌상로인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그의 말을 들은 좌상로인은 즉시 마을의 젊은이들을 붙여주었다.
그날부터 강충은 마을의 젊은이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낮에 이어 밤에도 무술을 련마했다.
그러는 속에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이 왔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였다.
이날 오전 온 마을이 바위돌앞에 모여들었다. 멀리에서는 영안촌로인이 구치의라고 부르는 딸까지 데리고 찾아왔다.
구치의가 바로 강충의 약혼녀였다.
허연 수염을 펄펄 날리는 좌상로인이 지팽이를 쳐들자 강충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마을사람들앞으로 나와섰다.
좌상로인이 그들을 향해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늘은 자네들이 저 바위돌을 칼로 베여야 하는 날일세. 자네들은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나라사람모두가 지켜본다고 생각을 가져야겠네. 자네들이 틀어잡은 장검마다에 나라와 백성의 안녕이 담겨있다는걸 명심한다면 반드시 저 바위를 베고야말걸세. 자, 그럼 시작을 하라구.》
강충이 먼저 보검을 비껴들자 그를 따라 마을의 젊은이들이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바위를 베는 무술을 련마해온 그들은 한사람의 몸에 여러 사람의 힘과 마음을 모아줄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다.
과연 저 젊은이들이 억년반석으로 굳어져있는 바위를 쪼갤수 있겠는지…
모두의 시선들이 강충에게 쏠려있었다.
자기의 뒤를 믿음직하게 둘러싸고있는 동료들을 뜻깊은 눈길로 둘러보고난 강충이 드디여 힘껏 땅을 찼다.
그가 비호같이 몸을 날려 바위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가자 그의 동료들은 칼을 높이 추켜들고 일제히 소리를 웨쳤다.
《야—앗!》
동료들의 고함소리가 천둥마냥 지동을 치는 순간 바위우에 뛰여오른 강충은 비호검법으로 바위를 내리쳤다.
《얏!》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도, 바위우에서도 섬광이 번쩍 일더니 잇달아 구름안개인양 자욱한 먼지기둥이 타래쳐올랐다.

이어 쩌그럭 하는 아츠럽고 둔탁한 소리가 길게 울리면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토록 엄청나게 큰 바위돌이 두쪽으로 쩍 갈라지는것이였다. 쩍 갈라진 그 바위우에 강충이 보검을 두손에 받쳐들고 서있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환성을 올렸다.

와— 와—

발까지 구르며 환성을 터치는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는 강충의 두눈에 눈물이 글썽하였다.

아, 이젠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달라붙으면 하늘도 이긴다는 말의 참뜻을 알겠구나.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한사람의 뚝심만으로는 제대로 되는게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지키는 중대사야 더 말해 무엇하랴.

자기 사는 향토를 지키려는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진 저 사람들의 정신이 바로 그 무엇도 당할수 없는 무한대한 힘으로 되여 억년 굳은 바위를 잘라낼수 있게 하였구나.

이렇게 되여 강충은 칼로 바위를 자른 장수가 될수 있었으며 마을사람들은 강충이 자른 바위를 가리켜 장수바위라고 부르면서 모두가 합심하여 무술을 닦기에 더욱 힘썼다.

장수바위라는 이름은 후세에도 그대로 전해져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로 뭉친 힘만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할수 있음을 일깨워주고있다.

우리 나라 3대명폭

개성시 천마산의 박연폭포
높이 37m 너비 1.5m

강원도 금강산의 구룡폭포
높이 74m 너비 4m 길이 84m

남강원도 설악산의 대승폭포
높이 100m

극 락 봉

리 선 복

개성 동대문에서 북쪽으로 20여리 가면 절묘한 산봉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오르는듯 련련히 솟아있어 일명 용암산이라고도 부르는 아름답고 기묘한 봉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극락봉이다.

아득히 먼 옛날 극락봉기슭에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군들이 살고있었다.

이들은 서로서로 도와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한편 이처럼 산좋고 물맑은 자기들의 고장을 저세상에 있다는 극락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꾸릴 한마음으로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바위돌 하나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가꾸고있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들의 소원을 이루는데서도 애로가 점점 심해졌고 아름답고 기묘한 산천에도 차츰 때가 끼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 극락봉 서남쪽 산록에 있는 둥근 원통같은 큰 바위우에서 고이고 흘러넘치며 흐르는 극락수라고 부르는 샘물때문이였다.

이 샘물을 마시고 극락봉에 올라 하느님께 치성을 드리면 온갖 잡병과 근심이 사라지고 온몸에 새힘이 솟아 파파로인들도 젊은 시절의 즐거움을 한껏 맛볼수 있다는 소문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주변은 물론 멀리에까지 퍼져가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게 되였다.

게다가 이 마을사람들자체도 그런 사람들의 풍에 말려들어 하느님께 치성이나 드리면서 저네들의 생업인 농사에는 낯을 적게 돌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의 한영이라는 사람을 비롯한 근실한 사람들은 죽어서 극락세계로 갈것이 아니라 살아서 극락세계를 꾸리고 맛보아야 하며 그러자면 농사 지을 새땅을 더 많이 늘이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

다고 하면서 직심스레 일하였다.

하지만 땅이나 많이 늘인다고 해서 낟알이 그만큼 많아지는것도 결코 아니였다.

해마다 찔레꽃이 한창 피는 봄철이면 가물이 들어 애써 심은 곡식들이 시들고 등성이의 높은 밭들에서는 곡식들이 타죽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날 한영은 온종일 타들어가는 곡식에 물을 주고 달밤에도 나와 물을 주다가 잠시 쉬는 참에 깜박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웬 백발로인이 용암산 깊은 골에서 흐르는 개울을 타고내려와 《허허, 농사를 짓노라 이렇듯 애쓰는것을 보니 그대들이야말로 참으로 갸륵하도다. 하지만 머리우에 이고있는 물을 두고 어째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 물을 힘들게 길어오는고?》 하고는 다시 산기슭을 따라 내려온 개울로 총총히 사라졌다.

꿈에서 깨여난 한영은 그제서야 깨도가 되여 그 백발로인이 가리켜주던 곳으로 가보았다.

아니나다를가 그가 오관산길을 따라 가보니 과연 조금만 품을 들여 물길을 째면 높은데서 흐르는 물을 능히 조밭이나 보리밭에까지 댈수가 있었다.

한영은 그 즉시로 마을로 돌아와 깊이 잠든 처남을 깨웠다.

《형님, 내 이자 신기한 꿈을 꾸었수다.》

이 말에 한영의 손우처남은 놀라서 물었다.

《어떤 꿈이게 이 밤중에 야단인가?》

《아, 글쎄 내 방금까지 저 조밭에 물을 주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웬 백발로인이 나타나 〈어찌 머리우의 물을 두고 저 멀리 아래서 힘들게 물을 길어오는가.〉 하고 사라지지 않겠소. 그래 깨여나 그가 간 길을 따라가보니 과연 저 등마루너머로 흐르는 물을 이쪽으로 쉬이 돌릴수가 있더란 말이요.》

《그래?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군.》

《아, 그렇지 않구요. 내 그래서 형님도 좀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수다.》

《그런 일이라면야 밤중이라고 마다하겠나.》

이렇게 되여 이들은 다시 산기슭을 따라 등너머 개울까지 가보았다.

《과연 자네 생각이 옳네그려. 래일부터라도 우리 일판을 크게 벌려보세나.》

《예, 그렇게 하자구요.》

한영은 다음날부터 마을사람들을 휘동해서 물길을 파기 시작했다.

이무렵 정주고을에는 정주의 제일가는 갑부인 권부만이라는자가 있었다.

재산도 정주땅에서 제일인데다 권세 또한 고을원 못지 않지만 어언간 그의 나이 칠순을 눈앞에 둔지라 이제는 정력이 쇠잔해져 숱한 소실들을 두고도 재미를 보지 못하는것이 큰 한이였다.

이럴즈음에 극락봉에서 흘러넘친다는 약수가 사그라진 풍정을 되살려준다는 희한한 소문을 듣게 되였다.

이 소문을 들은 권가놈은 즉시 제가 가장 총애하는 소실 한명과 여러명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극락봉으로 향하였다.

한생을 정주벌에서 살면서 맑은 날 북쪽지경을 바라보면 부소산과 화장산사이로 마치도 새파랗게 날이 선 장창 하나가 하늘높이 아아히 솟았기에 가보고싶은 충동을 여러번 느꼈었는데 정작 와보니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극락봉이였다.

서로 다투어가며 솟는듯싶은 높고낮은 산봉우리들과 옥같은 맑은 물이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골짜기와 계곡들은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절승절경인데 여기서 흘러넘치는 극락수는 향기 그윽하여 한모금 마시기 전부터 정력을 북돋아주는듯 했다.

권가놈은 북받치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 허세도 체면도 다 줴버리고 흘러내리는 물을 미친듯이 들이켰다.

과연 듣던바대로 풍정이 막 솟구쳐오르는것만 같아 놈은 하인들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뭣들 하고있는거냐? 저 반석우에 당장 차일을 치고 자리를 깔아라.》

권가놈의 벼락같은 호령에 하인들은 반석우에 구멍도 제대로 뚫지 못한채 기둥을 세우고 차일을 친 후 자리를 깔아놓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듯 서로 눈알만 굴릴뿐이였다.

《예끼, 이 눈망울 없는것들! 빨리 내려가 룡봉탕이랑 어서 끓이지 못할가.》

하인들은 또다시 분주탕을 피우며 바위밑으로 내려와 솥을 걸고 맑고맑은 극락수에 잉어와 닭 그리고 산삼까지 넣은 룡봉탕을 끓이고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느라 산나무를 마구 찍어가며 불을 피우기 시작

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온 산판을 뒤덮었다.
밭으로 흘러들 물길을 파다가 이것을 발견한 한영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삽이며 곡괭이를 비롯한 연장들을 둘러메고 뛰여가며 소리쳤다.
《야, 이놈들아! 네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놈들이기에 이따위짓들을 하는거냐. 당장 불들을 꺼라. 이 사등뼈를 분질러놀 놈들아.》
《이놈들! 불을 끄지 않겠거든 정갱이를 부러뜨릴테다!》
얼굴마다에 당장 일을 낼듯싶은 험한 기상을 하고 소리치며 달려드는 마을사람들앞에 권가놈의 하인들은 기가 푹 죽어 두손만 싹싹 빌뿐이였다.
이때 차일안에서 애어린 소실을 끼고 한창 재미를 보던 권가놈이 두눈이 화등잔만 해가지고 한쪽손은 괴춤을 움켜잡은채 뛰여나오며 호통쳤다.
《이놈들! 감히 뉘앞이라고 이 야단들이냐, 야단이. 썩 물러가지들 못할가?》
암만 봐도 달려온 사람들이라는게 모두가 머리엔 막수건을 질끈 동인 상놈들이라 권가놈은 함지배를 쑥 내밀면서 위세를 부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한영은 지펴논 불들을 모조리 끄고 솥들을 다 들어내라고 마을사람들을 신칙했다.
마을사람들은 한영의 말대로 여기저기 지펴놓은 불을 모조리 끄고 솥들을 다 들어냈다.
한영이 다른 두사람을 데리고 또 차일이 있는데로 올라가며 말했다.
《저 차일도 당장 걷어치우게.》
두사람은 지체없이 뛰여올라가 차일자락을 잡아제꼈다.
그러자 그안에서는 애어린 소실이 새파래서 바들바들 떨며 어쩔줄을 몰라하고있었다.
《흥, 다 늙은 주제에 그래두 새파란것만 찾구… 에이, 더럽다. 퉤! 퉤!》
권가놈은 함지배를 내밀며 위세를 부리면 수그러들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하여 도도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체면까지 깎이우며 빌붙기도 싫은지라 《아, 아, 여보

게들. 거 너무 이러지들 말게나. 내, 내가…》하고 얼버무리기만 하였다.

한영은 상대가 그래도 늙은이인지라 례의를 차려 점잖게 물었다.

《우리는 이 마을 주인들이온데 어른은 대관절 어디서 온 뉘시오이까?》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에는 헌 수건을 질끈 동여맸을망정 훤칠한 키에 혈색좋은 얼굴이며 그 몸가짐과 말하는 품이 당당하고 도고했다.

한영앞에서 권가놈은 제놈의 장끼로 여기는 능갈치는 수법을 써보려고 오그랑수를 부렸다.

《허허, 이보게 젊은이. 내 정주에서는 그래도 한다하는 사람인데 임자들이 이 산천을 하두 잘 꾸렸다기에 유람차로 온 길일세. 헌데 저 하인놈들이 처음이라 모르구 생나무 몇대를 찍었기로서니 이 울창한 수림속에서 그게 무슨 그리 큰일이겠나. 내 그 값은 후히 생각해줄터이니 과히 박대말고 이 늙은것의 체면을 좀 봐주게나. 흠! 흠!》

한영은 비록 나이는 많지 않아도 이 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수많이 대상해왔기에 대뜸 권가놈의 흉측한 속통을 꿰뚫어볼수 있었다.

한영은 정정당당하고 사리정연한 말로 단호히 권가놈의 수작을 물리쳐버렸다.

《어른이 정주고을에서는 어떨는지는 모르겠사오나 우리같은 필부도 다 아는것도 모르고 명승의 산에 와서 산나무를 마구 찍어땠으니 이 어찌 나라법도 눈에 없는 해괴한 행실을 마구다지로 할수 있겠소이까. 그러니 용서받지 못할줄 그리 아시고 바삐 돌아가심이 좋을듯 하오이다. 그리고 저 차일 등속들은 다 압수품들이오니 가져갈 생각일랑 아예 마시오이다.》

그리고는 압수한 물건들을 사람들의 등에 지워가지고 마을로 내려갔다.

(야, 이 괘씸한 놈들! 네놈들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고 무사할상싶으냐, 이놈들! 어디 두고보자. 이 미련한것들!)

권가놈은 골통속에서 이렇듯 분기가 치밀었으나 차마 입밖에 내지는 못한채 비실비실 달아나고말았다.

그러나 중이 고기맛을 들이면 빈대까지 잡아먹는다고 극락봉의 극락수맛을 한번 본 권가놈이 쉽게 물러날리는 만무했다.

놈은 집으로 돌아간 다음날부터 하인들을 시켜 극락수를 퍼가더니 얼

마후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속에 슬그머니 끼여 뻐젓이 또 나타났다.
권부만이 퍼뜨린 소문이 발을 달고 나래가 돋혀 그후부터는 평범한 백성들보다도 권세높은 량반부자놈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이들은 치성을 드리고 병을 고치려는것보다 한때의 환락과 유흥놀이로 찾아오군 하였다.

그러다나니 한영을 비롯한 이곳 사람들이 아무리 말리고 통제를 해도 나무는 점차 성글어지고 아름다운 명소들에도 때가 앉기 시작했다.

…

세월은 덧없이 흘러 한영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고 정주고을의 권가놈도 이미 저세상사람이 되고말았다.

한영에게는 아들형제가 있었으니 맏아들은 한정이고 둘째아들은 한성이였다.

그들 역시 아버지와 같이 농사일을 직심스레 하면서 고향산천을 지극히 사랑하며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바위돌 하나라도 아끼고 귀중히 여기였다.

그러던 어느날 권가놈의 아들놈을 비롯한 부자놈들이 극락봉으로 몰려들어 진탕치듯 놀아대다가 산불을 일으켰다.

소슬한 가을바람을 타고 치솟는 불길을 끄느라 마을사람들과 정신없이 돌아치던 한영은 불탄 나무가 넘어지면서 지친 몸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바람에 쓰러져 심한 화상과 함께 머리에 타박상을 입게 되였다.

이날 한영이뿐아니라 다른 세사람도 화상을 입었다.

한영의 처 리씨와 두 아들은 물론 온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뇌타박과 화상에 좋다는 약과 약초들을 뜯어 지성껏 치료했으나 별로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한영의 두 아들은 화상에 좋은 오소리기름을 얻기 위해 극락봉중턱까지 올라가 오소리사냥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갑자기 건들바람에 매지구름이 몰려오면서 번개불이 번쩍이고 우뢰가 울더니 이어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비를 그으려고 좀 아래로 내려와 큰바위밑에 몸을 웅츠리고 있었다.

이때 한영의 처 리씨는 두 아들이 산중에서 그것도 여름철이 아닌 쌀쌀한 가을날에 찬비를 맞고있을것을 생각하니 애가 끓다못해 재가 되는듯싶었다.

《거참, 고생이 막심하겠는걸. 이렇게 비가 쏟아질줄 알았으면 우장이라도 가지고 가게 할걸.》

매부의 병문안을 위해 왔던 오라버니의 말에 리씨가 응수했다.

《글쎄 말이웨다. 한여름도 아닌 때에, 쯧쯧.… 내 이제라도 우장을 가지고 마중을 갈가봐요.》

《그래? 그럼 같이 가세나.》

이렇게 되여 리씨는 오라버니와 함께 우장을 들고 극락봉으로 향했다.

이때 큰 바위밑에서 비를 긋던 한정과 한성은 깜박 잠이 들었는데 신통히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였다.

《그대들이 산을 위해 애쓰는것을 보니 이 산의 산신령인 내 마음 참으로 감개무량하거니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려는 그 정성 또한 실로 갸륵하거니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저 극락봉 맨끝에 오르면 하늘가에서만 사는 천주화라는 붉은 꽃이 펴있을것인즉 그것을 뜯어다 달여먹이고 그 즙을 상처에 바르면 즉시로 효험을 보리로다.》

말을 마친 산신령이 바람처럼 사라진 후 이들은 너무 좋아 어쩔줄 모르다가 문뜩 깨여보니 꿈이였다.

두 형제가 너무도 꼭같은 꿈을 한시에 꾼것이 하도 이상스러워 어리둥절해있는데 어디선가 어머니와 외삼촌의 부름소리가 다정히 들려왔다.

《한정아! 한성아!》

《얘들아, 내가 왔다. 외삼촌이다.》

사정없이 내리쏟는 사나운 비속을 헤치고 아들들이 걱정되여 우장을 들고온 어머니와 외삼촌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은 더더욱 후더워졌다.

《어머니!》

《외삼촌!》

자기들의 어깨우에 우장을 씌워주며 이제는 그만 내려가자는 어머니에게 한정이가 말하였다.

《가다니요? 우린 아직 오소리를 잡지 못했사와요. 그리고 저 극락봉 맨꼭대기 바위우에서 피는 천주화라는 신비한 꽃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님의 병과 상처에 더없이 좋다 하오이다.》

한정이 이렇게 꿈에서 산신령이 대준 말을 하자 한성이도 자기도 방

금 그런 꿈을 꾸었다며 꼭 그것을 뜯어가지고 가겠노라고 하는것이였다.
《허허, 너희들의 그 지극한 효성이야 누가 따르겠니? 헌데 한갖 꿈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한정이와 한성이의 말에 외삼촌도 감심은 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며 빨리 내려가자고 하였다.
《외삼촌! 허지만 우리 형제의 꿈이 어찌 이처럼 똑같을수가 있겠소이까? 이는 분명 아버님을 위해 하늘이 주는 복이거니 우린 어떻게 하나 그 천주화를 뜯어가지고 내려가겠나이다.》
《얘들아, 꿈이 결코 허망하게만 볼것은 아니다만 저 극락봉꼭대기는 꽃은커녕 풀 한포기도 자라지 못하는 돌바위인데 거기서 무슨 꽃이 핀다고 그러느냐?》
어머니도 외삼촌의 말에 긍정하며 설사 간다 해도 맑게 개인 날에도 오르기 힘든 아찔한 바위끝에 지금같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때에 어떻게 가겠느냐고 한사코 말리였으나 아버지를 위하는 두 형제의 마음을 도저히 돌려세울수가 없었다.
푸른 섬광이 번쩍이며 하늘을 헤가르고 뢰성벽력이 터져나자 산봉우리전체가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무시무시한 속에서도 두 형제는 한치한치 극락봉꼭대기를 향하여 톺아올라갔다.
쏟아져내리는 폭우는 어찌나 세찬지 아찔한 바위전체가 폭포수를 방불케 했으나 그래도 한정과 한성은 서로 이끌고 버티고 떠밀면서 거의 정점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십여길만 오르면 될것 같은데 불쑥 삐여져나온 뾰족바위가 앞을 막았다.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며 애를 써도 도저히 올라갈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야, 이거 더이상 오를수가 없구나.》
《글쎄요. 비만 오지 않아도 좋겠는데…》
《아니, 야, 저게 뭐냐?》
형의 다급한 소리에 한성이 우를 쳐다보니 팔뚝같이 굵다란 구렝이가 무시무시한 대가리를 쳐들고있는것이 눈에 뜨이였다.
한정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으악! 소리를 내지르며 밑에서 자기를 받쳐주고있는 동생을 불안고 굴러떨어졌다. 얼마를 굴러내렸는지…
어찌나 혼이 났던지 이제는 더 오를 용기가 나지 않은 두 형제는 한

동안 넋을 잃은채로 발밑의 허공만 바라볼뿐 더 다른 말을 못하였다.
(이젠 어떻게 할것인가? 그냥 내려가야 하는가… 아니, 아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는 길이 부모에 대한 효도이자 이 산천을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았던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천주화를 꺾으리라!)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두 형제는 하나의 생각으로 합쳐졌고 그러니 자연 온몸에 힘이 생기는듯싶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범의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우리 한번 더 힘을 내자요.》
《음, 그러자꾸나.》
이렇게 힘을 내며 다시 산봉우리를 올려다보는 순간 푸른빛이 하늘을 헤가르고 비쳐오며 산봉우리를 해빛같이 밝혀주는데 자세히 보니 그 괴상한 구렝이대가리같은것이 다름아닌 삐죽이 나온 돌부리였다.
《야, 성아! 됐다, 됐어, 수가 생겼단 말이야.》
《예?! 아하, 형님. 알만 해요. 그러니 저 돌부리를 리용해서 오르자는거지요?》
이들은 지체없이 동여맸던 허리띠를 풀어 올가미를 만들어 돌부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올가미가 정확히 돌부리에 걸리였다.
《야!》
환성이라도 지르고싶은 심정이였으나 아직은 참고 재빨리 뾰족바위를 넘어 극락봉정수리까지 단숨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천주화는 고사하고 풀 한대 볼수 없는 완전히 반반한 바위가 아닌가!
밑을 내려다보니 천야만야 아슬아슬한 절벽이였다.
가슴이 무너져내린듯 너무도 맥이 빠져 이들은 그만에야 풀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들이 산봉우리끝에 오르자마자 쏟아지던 비가 뚝 멎으며 한줄기의 해빛이 따뜻이 비쳐들더니 동남풍이 멎을 때마다 서북쪽에서 싱그러운 향내가 코를 찌르며 안겨오는것이였다.
아니, 이런 희한한 일이라구야!

약간 우묵진 바위우에 돋아난 이끼들이 따뜻한 해빛을 받아 움씰움씰 자라오르며 줄기마다 새빨간 꽃망울을 맺더니 이내 방실 웃기라도 하듯 활짝 피여나는것이였다.

그때마다 싱그러운 향내가 코를 찌르며 안겨왔다.

《야!》

《야!》

두 형제는 환성을 울리며 부둥켜안았다.

《이것이 바로 천주화로구나!》

《옳아요. 우리들의 정성을 하늘도 알아주었나봐요.》

두 형제가 천주화를 정히 캐서 저고리에 싸쥐고 뾰족바위앞에 이르니 또 이제는 내려가는것이 난사였다.

올라올 때처럼 하자 해도 천주화를 싼 저고리때문에 그것도 안되는 일이였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그런 가위에 잠시 멈추었던 폭우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며 하늘땅을 통채로 뒤흔들고있었다.

쾅! 짜르릉— 쾅!쾅! 짜르릉—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산봉우리에서 굴러떨어져 뼈도 못 추릴것이고… 그렇다면 천주화는 고사하고 아름다운 이 땅을 더 잘 가꾸고싶어하시는 아버님의 병도 고쳐드리지 못하게 된다.

아! 이를 정녕 어찌해야 하는가?!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이렇게 된바에는 저 바위를 발로 차서 굴러떨어뜨리는게 어때요? 그러면 천주화도 무사하고 우리가 내려갈 길도 열리지 않겠나요?》

《이 땅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그런 죄될 일을 우리가 어찌 한단 말이냐? 이 산천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바위돌 하나라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이 땅을 빛내이자는것이 아버님의 뜻임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좀더 좋은 궁리를 해보자꾸나.》

이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뢰성벽력이 하늘땅을 진동하더니 그 요란한 바위가 쩍 갈라져 떨어지다가 어느 한곳에 뚝 멎어섰다.

눈깜박할 사이에 일어난 천지조화였다.

아마도 이들형제의 부모를 위하고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통했는지도 몰랐다. 바위가 떨어져나간데를 보니 경사가 느릿하고 또

올라올 때 가파롭던 절벽에도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홈이 패여져 내려오기가 한결 헐하였다.

이 큰 바위가 갈라져 넘어지면서 약수가 흘러나오던것을 완전히 막아버려 흘러넘치던 극락수는 종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극락수의 종적이 없어지니 량반부자들이나 호색난봉군들이 다시는 극락봉으로 찾아오지 않았다.

한영이와 함께 화상을 입은 다른 세사람도 한정과 한성이 그토록 애써 가져온 천주화를 약으로 쓰고 병이 씻은듯이 나아졌다.

마을사람들은 가물에 타던 논밭들에 물을 끌어대여 농사도 더 잘 짓고 극락봉일대를 더 잘 가꾸고 관리하여 마침내 고향산천을 풍요하고 살기 좋은 송도의 제일가는 명승지로 세상에 소문나게 하였다.

자기들이 사는 고장을 제 손으로 더없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꾸리려는 애국의 이 마음은 대를 이어 우리 인민모두의 한마음으로 오늘까지도 전해져오고있으니 보다 더 아름다울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 할수 있을것이다.

령 통 사

오관산 남쪽 령통골에 있는 고려시기의 절이다.

령통골의 본래 이름은 《마가갑》으로서 《큰 골짜기》라는 뜻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마가갑은 성골장군 호경, 강충, 보육, 작제건 등 왕건(고려태조)의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였다.

918년 고려를 세우고 왕이 된 왕건은 자기의 증조할아버지인 보육이 짓고 쓰고살던 암자를 《숭복원》이란 이름을 가진 왕실전용의 절로 만들었다.

그후 숭복원은 크게 확장되고 절이름도 령통사로 고쳐졌다.

령통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11세기 불교의 한 교파인 《천태종》의 시조로 알려진 대각국사 의천이 이곳에서 다년간 불교학설을 연구한 사정과 관련된다.

령통사는 리조시기에 없어졌다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90(2001)년에 옛모습그대로 복원되였다.

지금 령통사에는 새로 복원된 절건물들과 본래부터 있던 대각국사비, 3층돌탑 2기, 5층돌탑 1기, 당간지주(불교행사때 기발대를 세우던 지지대)가 있다.

중미정이야기

변 희 철

드디여 임금의 령이 내렸다.

임금을 등대고 백성들에 대한 갖은 수탈을 일삼던 고관대작들과 환관들의 죄행을 고발하자 간관들의 건의를 받아든 임금은 이런 조서를 내리였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해야 나라가 편안한것이다. 요사이 토목역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견딜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다가 지금 환관들이 사사로이 집을 지으면서 저마다 더 사치하고 화려하게 꾸리려 한다니 해당 관청에서는 이와 같은 공사를 일체 중지하도록 하라.》

장쇠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몰랐다.

사모쓴 도적놈이라는 비난 같은것에는 한눈도 꿈쩍 않고 산수좋은 자리라며 집을 빼앗고 무언가 조금만 색다르게 여겨져도 나라님께 진상한다면서 막무가내로 빼앗아가고 별의별 공출을 다 들씌우던 관리들의 이지러진 낯짝들이 보이는듯싶었다.

환관들을 끼고서 승벽내기로 별채들을 달아가며 절간들을 확장하고 석탑이며 석등이며 이채로운 경개를 꾸린다고 기암괴석들을 모아들이고 련못을 만들며 정각을 짓던 중들도 한풀 기가 꺾였으리라.

어디라구, 하늘같은 나라님의 령인데야…

장쇠는 안해의 얼굴도 그려보았다.

그것도 신혼생활 몇달만에 집을 나와서인지 그리운 젊은 안해의 모습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제 저 《중미정》이라는 현판을 내건 정각만 완성되면 임금의 령이 내렸으니 공사를 거둘지도 모를 일이였다.

현화사의 동서 량원 중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사치스러운 경쟁을 벌리는 억지공사였다.

남쪽릉선아래 정각을 짓고 초가이영을 지어놓아서 꼭 어느 강변의 다락같다고 여겼더니 아니나다를가 또 내물이 흐르는 골짝을 높이 막

고 큰 못을 만들어놓는다는것이였다.

그 주변에 키높은 갈대가 우거지고 물오리가 유유히 헤엽칠 때 련을 심고 배들을 띄워 미동들이 바줄을 끌며 배노래를 부르는 강호의 경치를 그대로 꾸민다는것이였다.

정말 부처를 모시는 절간마저 사치스럽고 화려한 유흥장이 되여 질탕한 풍악을 높이 울릴 작정인 모양이였다.

게다가 수덕궁과 천녕전을 세운 의종왕이 또 민가 50여채를 털어내고 태평정을 요란하게 지은 때로부터 왕궁에서 시작된 별궁짓는 풍이 온 개경장안을 휩쓸었다.

벼슬아치들이 저마다 새집들을 마련하고 별채들을 짓거나 경치좋은 곳에 못가를 꾸리고 왕을 청하여 주색을 일삼으니 절간의 중들도 승벽내기로 유흥놀이를 시작했다.

봄날의 연등회로부터 가을의 팔관회는 물론 새해초부터 봉은사로 행한 임금의 행차가 가을의 현화사로 이어져 무수한 절간들을 오락가락하며 절탕한 풍악을 울리고 더 사치스럽고 더 화려하고 더 멋스러운 놀이를 찾아 유흥소동을 벌리고있었다.

년중 여러번 왕을 청하여 큰 놀이판을 벌리군 하던 현화사의 중들이 《중미정》이라는 정각을 짓고 큰 못을 꾸리기 시작한것도 그 풍에 휘말려서였다.

원래 정각만 짓고말줄 알았는데 잡도리가 달랐다.

환관들까지 임금을 모실 곳이라느니 하면서 포졸들을 내밀어 시달릴대로 시달려온 부역군들이 움쩍도 못하게 하고있었다.

가만히 보니 공사를 중단할 기미가 아니였다.

찌뿌둥히 흐린 하늘처럼 납덩이를 안은듯 마음이 무거워났다.

무엇보다 근심스러운것은 량식이였다.

지금껏 부역을 다니면서는 이럭저럭 집에서 보태주는것과 구제미로 그리고 대리부역도 지면서 그런대로 이어왔는데 올해는 그럴 형편이 못되였다.

거듭되는 흉년으로 벌써 굶어죽는 사람이 태반인데다가 창고는 다 털어내여 텅텅 비다싶이 되여 환관들도 어디 더 파먹을데가 없다고 아우성이였다.

좌상어른이 주지에게 찾아가 사정을 해보았으나 아예 통하지도 않았다.

올해중에 무조건 완공해야 한다는 으름장뿐이였다.
이제는 동리장정들이나 좌상로인을 비롯한 사람들 보기가 정말 면구스럽기 짝이 없었다.
장쇠의 집안사정을 너무도 뻔히 알고있었지만 그렇다고 계속 남의 장정 한사람을 여기 한술, 저기 한술 덜어내여 먹여살릴수야 없지 않는가.
모두들 다른 생각 말라고 위안을 해주지만 그럴수록 더 면구스러웠다.
정말 고마운 마을사람들, 인정많은 좌상어른…
불쑥 안해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할가, 산나물을 뜯으러… 하긴 오늘은 올수도 있을법도 한데…)
그리운 마음이 뭉클 솟아올랐다.
어떻게 만난 안해이던가.
막스럽게 생긴데다가 알짜 맨주먹뿐인 빈털터리 장쇠에게야 너무도 과남한 녀인이지.
각박한 살림에 량부모를 일찍 잃고 얼굴까지 박색이여서 시집도 못가고 늙어왔다지만 웬걸, 큼직한 눈에 너부죽한 얼굴, 좀 투박스러운듯 해도 인정이 가득 차넘치는 젊은 녀인은 장쇠에게 있어서 하늘이나 다름없었다.
꿈같은 몇달동안에 그들은 일생의 정을 이었다.
생각만 해도 절로 가슴두근거리는 꿈같은 신혼의 밤.
아무리 막스러운 인생이래도 피가 끓는 젊음이요, 한창 물이 오르는 봄철인생인지라 늦은 성례에 더 불이 붙어서인지 안해와 한순간만 떨어져도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군 하였다.
둘이 붙어앉아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어도 싫지 않겠는데 살풋이 미소를 머금은 안해의 입술은 통 열릴줄을 몰랐다.
밥술을 넘길 때나 박속같은 이가 하얗게 보이거나 꼭 몇번씩이나 물어보아서야 빙그레 입술을 열고 웃군 하는 안해의 과묵함은 막 속이 탈 지경이였다.
아, 그날은 또 어떠했던가.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다 어질어질해왔다.
한창 여물어가는 신혼의 나날을 즐기던 장쇠가 여느때없이 일찍 나무짐을 해가지고 산을 내린 어느날이였다.

소리없이 부엌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려는데 《어마나!》 하는 새된 소리가 터지는 속에 어, 이런… 눈부시게 하얗고 뭉실뭉실한 젖은 몸을 드러내놓은채 흑진주처럼 새까맣고 반짝이는 젖은 머리칼을 허리노리까지 함함히 드리운 웬 녀인이 부엌 몽당바닥에서 목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서는게 아닌가.

장쇠는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다리가 다 후들후들 떨리였다.

어리뻥한 정신으로 두눈을 항 뜨고서 내가 지금 정녕 보고있는것인지 의식도 못하는 새에 안해가 무슨 하얀 보같은것을 들쓰고 방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이윽고 정신이 드는 장쇠의 가슴엔 뿌듯한 무엇이 가득히 차올라 숨쉬기도 힘들었다.

엉거주춤 방안으로 들어섰으나 장쇠는 감히 안해의 몸에 손을 댈 생각도 못하였다.

발깃하게 상기된 안해의 두볼을 반쯤 가리우며 봉긋한 가슴으로 늘어내린 새까맣고 윤기나는 함함한 머리채에서는 싱싱한 젊음이 물씬 풍겨나는데 마치도 하늘의 선녀나 보는듯이 더없이 신성하게까지 느껴졌다.

흑진주같이 아름다운 안해의 머리채에 장쇠는 아예 반해버리고말았다.

정이란 참으로 이상한것이였다.

누구는 얼굴에 반하고 누구는 마음씨에 반하고…

눈이며 입술이며 성격이며 지어는 한낮동안 투닥거리다가도 한밤중의 멋스러운 정사에 반해서 산다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아마도 인간끼리는 서로 취할 점이 있어서 그것을 구심점으로 인정세계의 희로애락의 감정의 바다를 헤쳐가는 모양이였다.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들이 맞붙어 숨결을 높이고 열을 올리고나자 어쩐지 흐뭇해지는 마음으로 벌렁 드러누운 장쇠는 힘살이 울툭불툭한 자기의 팔에 살풋이 고개를 기대인 정말로 아름답고 소중한 안해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의 머리채는 정말 선녀들도 보면 부러워 울고가겠소. 이게 정녕 비렁뱅이 장쇠의 안해가 옳은가 말이요?》

안해는 장쇠의 단단한 가슴에 달아오른 두볼을 따듯이 대이며 속삭였다.

《그럼 누구의것이겠어요. 머리채도 그렇고 내 몸도 모두 당신의것

이지…》

…

갑자기 흉물스러운 이웃동리 소거간군놈의 상통이 또 떠올랐다.

녀자라면 절구통에 치마를 씌워놓아도 그러안을 호색광, 중놈을 끼고서 온갖 못된짓을 다하며 녀인들을 꼬여내고 롱락하는 그 간사한 낯짝이 떠오르자 왜 그런지 마음이 불안해왔다.

언젠가 마을앞을 지나치다가 쪽진 안해의 머리채를 들여다보고 시부럭거리며 수작을 걸다가 동네아낙네들에게 된욕을 처먹은 놈이 또 어쩌지 않는지…

(이놈, 어쩌기만 해보아라. 사등뼈를 분질러놓을테다.) 하고 장쇠는 괜히 윽벼르기까지 하군 하였다.

벌써 바깥석축이 거의 올라서고있었다.

부지런히 삽질을 해대는데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임자, 저기를 보게. 새각시가 왔네.》

동리의 좌상로인은 부부생활을 몇달도 못해보고 몇년째 부역장에 끌려나와있는 장쇠의 형편이 가슴아파서인지 아직도 안해만 보면 새각시라고 불렀다.

길 건너편 산비탈아래에 임을 인 안해가 서있었다.

아마 산나물을 많이 해온 모양이였다.

남의 식량을 축내는것이 민망스러워 늘 찌뿌둥한 얼굴로 있는 남편이 마음에 걸리여 종주먹을 부르쥐고 뛰여다니나 안해인들 무슨 용빼는 수가 있으랴.

장정들도 굶어죽는 판에 낟알 한톨 구한다는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였다.

어느덧 사람들이 쟁기를 둘러메고 웅기중기 떼를 지어 언덕이며 골짝으로 흩어져갔다.

점심참이 다된 모양이였다.

《새각시도 함께 데리고오게, 뭘 먹을것이 있겠는지…》

좌상로인이 어깨를 떠밀며 다정히 말했다.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와락 솟구쳤다.

왜 그런지 마음이 서글퍼졌다.

안해 하나 건사 못하는 이 주제…

늘 동리어른들이며 장정들의 식량에 산나물을 곁들여먹는 자기자신

의 신세가 생각되면서 얼굴이 다 달아올랐다.
터벅터벅 마주 내려가는 장쇠의 가슴속엔 금방 깃들이던 짜릿한 향수대신에 딱히 무엇이라 찍을수 없는 울분과 애수와 불만의 회오리가 갈마들면서 얼굴표정마저 무거워졌다.
《이리 따라오우.》
내려가던 걸음 그대로 퉁명스런 말을 던지고 안해의 팔소매를 잡아이끌었다.
잠간이라도 이렇게 만나라도 보는 기쁨에 가랑가랑 눈물마저 맺히던 안해의 큰 눈이 어리둥절 더 커지더니 어두운 그늘이 얼굴을 확 덮었다.
입을 내리우며 몇걸음 따라서던 안해의 가슴에 알알한 련민의 정이 불안스럽게 요동쳤다.
《이제는 여기 오지 마우. 그까짓 풀나물이 뭐이여. 내 꾹 참고 견디여내겠으니 이제 공사만 끝나면 부지런히 나무랑 해서 어르신들을 한번 청해야겠어. 당신까지 수모받는것 같아서 막 가슴이 터질것 같아.》
안해는 고개를 수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쇠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돌아보니 두손을 감아쥐고서 고개를 숙인채로 울고있는것이 아닌가.
숙여진 고개밑에서 눈물이 툴렁툴렁 떨어지는데도 외마디울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있었다.
장쇠의 가슴이 아프게 죄여들었다.
《됐어, 그만해.》 갈린 목소리로 위안을 해주며 장쇠가 어깨에 팔을 얹어 껴안아주자 안해는 그제야 정신이 든듯 말했다.
《저, 이거 변변치 않은 음식을 얼마간 준비해왔으니 좌상아버님이랑 신세진 사람들과 함께 드세요.》
《엉?!》
함지를 씌운 보를 펼쳐들던 장쇠의 눈이 둥그래졌다.
기름기 도는 주먹같은 조밥덩어리들이 수두룩한데 함지안의 한옆에는 먹음직스러운 산채볶음이며 무침들이 무둑무둑 쌓여있지 않는가. 게다가 콩을 비벼놓은 양념장까지 가운데 박혀있었다.
상당한 음식이였다.
이런 때 《임자, 오느라고 수고했네.》 하는 좌상로인의 목소리가

울리고 주렁주렁 장정들이 들이닥쳤다.
아마 무슨 곡절을 알아차린듯 장쇠의 안해에게 점심을 갈라먹일 생각으로 우르르 넘어오는 모양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음식을 무둑히 담은 나무함지가 눈앞에 보이자 그들도 우뚝우뚝 멈춰섰다.
《아니, 이런…》
놀라와하는 눈길들이 허공중에서 부딪쳤다.
《아버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저의 주인을 위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 준비해왔으니 함께 들어주시와요.》
상기된 얼굴로 애원하는듯싶은 눈길을 보내는 녀인을 바라보면서 좌상로인도 한순간 당황해했다.
서발막대를 휘둘러도 거칠것이 없는 풀막이나 다름없는 집아닌 집에서 무슨 쌀이 있다고 밥을 지어오고 찬을 무쳐왔을가?!
혹시?!…
일시에 눈빛이 긴장해지며 모두들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장쇠의 가슴에서는 울컥 울분이 솟구쳐올랐다.
아, 아무리 목구멍이 포도청이기로서니 어떻게 안해가 그런짓을 할수 있는가.
혹시 그 소거간군 그놈의 꼬임에…
불시에 랭랭한 침묵이 서리자 무엇인가를 짐작한듯 안해가 갑자르며 한걸음 나섰다.
그리고 흰 머리수건을 벗어내리는데… 장쇠는 깜짝 놀랐다.
안해가 흰 머리수건을 쓴것도 처음 보는것이지만 이건 또 뭔가.
그처럼 함함하고 흑진주같이 윤기나던 안해의 머리채가 뭉청 잘리워 없어진것이 아닌가.
잘리운 가위자국이 력력한 안해의 머리가 왈칵 설음을 퍼내며 아프게 안겨왔다.
《못생긴 저를 누가 가까이 대해줄것이며 옹졸한 내 성격으로는 남의것을 훔칠 용기도 없습니다. 단지 저의 남편을 극진히 위해주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진정을 다할 도리가 없어 머리채를 팔아 마련해온것이니 다른 생각을 마시고 어서 음식들을 달게 드시와요. 내 머리야 또 자라겠는데… 그래도 이번엔 정말 다행이와요.》
모두들 깜짝 놀랐다.

장쇠의 큰 눈에서 좌르르 주먹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이런 안해를 의심하다니…
이 못난 놈, 안해 하나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의심까지 한단 말이냐, 이 미물같은 놈아!
억수로 터지는 울음이 바위같은 장쇠의 가슴을 텅텅 울리고있었다.
《임자, 용하이.》
더 말을 맺지 못하고 갈린 목소리로 주글주글한 두볼을 눈물로 적시며 좌상로인이 안해의 머리를 허둥지둥 더듬어보았다.
《꼭 이리해야 그녀의 속이 편하드란 말인가.》
장정들이 갈퀴같은 주먹들을 들어 눈물을 씻었다.
목들이 꽈악 잠기여 누구 하나 위로의 말 한마디 꺼내놓지 못하였다.
얼마나 마음씨 갸륵한 이 나라의 녀인들인가.
늘 남편들을 부역에 내보내고 집안의 진일, 마른일을 가냘픈 어깨우에 다 떠메고서도 더 진정을 보이지 못하여 마음 썩이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 억센 이 나라 녀인들!
이 나라를 받드는것이 백성일진대 그 백성을 받드는것은 분명 이 나라의 녀인들이라 하리로다!
장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릿한 구름이 갈라지며 파란 하늘이 상쾌히 보이였다.
임금을 하늘이라 여겼지…
아니, 아니야, 저 흐릿한 구름들이 임금이고 환관들이고 중놈들이야, 파란 하늘을 가리우고있는 시꺼먼 그림자가 바로 그것이야.
점점 더 크게 열리는 파란 하늘에 안해의 얼굴이 둥실 떠올랐다.
파란 하늘은 이 세상을 밝게 안고있는 안해이고 녀인들이였다.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우리 녀인들이였다.
그들속에서 장쇠부부도 몇년동안 맨주먹을 가지고 살아오는것이 아닌가.
바위벼랑을 씻어내리는 현화사골짝에 황혼이 아름답게 비끼였다.
강호의 경치를 그대로 흉내낸 갈대숲 우거진 못가가 펼쳐지고 그 기슭엔 초가이영을 해씌운 중미정이 세워졌다.
다락배우에선 의종왕의 취흥이 무르익어가고 바줄로 배를 끄는 미동들의 애처로운 배노래가 흥에 들뜬 중들의 어깨너머로 날리여가던 때도 어느덧 지나고…

사치와 향락의 복닥구름을 일으키던 왕의 행차도 굶주려 쓰러지는 백성들의 원망어린 눈길에 쫓기워선가 반정의 칼날에 끊어져버렸건만. 하여 새 왕조가 태여났어도 사치와 향락의 그 흐름은 멈춘적이 없었으며 또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적은 더우기 없었다.

허나 그 모진 세월속에서도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한없이 깨끗한 녀인들의 마음에 받들리여 그 맑은 빛을 흐릴줄 모르고 세세년년 이어오는 이 나라의 아름다운 미풍량속…

언제나 부모를 위하고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하고 이웃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효성과 충정의 이야기는 녀인들의 달비에도 뜨겁게 깃들어있어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대고 높이 자랑하고있는것이다.

서도민요 《박연폭포》

일명《개성난봉가》라고도 한다.

가사에서 일정한 시대적제약성이 나타나고있으나 락천적이며 밝은 정서를 담은 서도민요의 하나로서 오늘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널리 불리우고있다.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범사정으로 련실 감돌아든다
(후렴)
에헹 에헹 에헤야 에헤 에루화 좋구좋아
어허럼마 지여라 절승경개로다

만월대의 옛 터전에 밝은 달이 둥실 솟아
박연의 명승지가 에루화 더욱 좋아
(후렴)

폭포락수가 콸콸 절벽이 깨지면 깨졌지
우리네 마음이야 다시 변할소냐
(후렴)

현화사이야기

정 일 복

고려시기의 이름난 절 현화사는 1018년에 당시 왕 현종이 자기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특별히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세련된 돌조각솜씨와 웅건한 형태미로 하여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 간주되고있는 현화사 7층돌탑과 현화사비는 부모에게 바치는 자식의 효성보다는 봉건통치계급의 추악한 권력야망과 그로 인해 빚어진 비극적인 력사적사실에 대하여 더 깊은 내용을 전해주고있다.

981년 7월에 고려 제5대왕 경종이 25살의 한창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푸르른 송악산 소나무숲의 청신함을 밀어내며 만월대의 궁궐안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향불내가 애통과 절망의 울음소리에 뒤섞여 회경전지붕우를 감돌 때 그속에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두 녀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경종이후 력사의 주인공으로, 증견자로 등장한 황보씨형제였다.

한어머니의 배속에서 태여나 한임금을 남편으로 섬기며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던 두자매, 헌애왕후와 그의 동생 헌정왕후의 마음은 비통하기에 앞서 앞날에 대한 우려와 인생에 대한 상실감으로 하여 마냥 착잡하기만 하였다.

그래도 언니인 헌애왕후에게는 품에 안은 왕자가 있었다.

주색으로 녹아버린 골육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형편에서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 경종왕이 끌어안고 들여다보며 쓰다듬던 아들이였다.

하기에 지금 헌애왕후는 마치도 아들의 운명을 놓고 마음을 도사리는듯 두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입귀에 주름이 잡히도록 꼭 다문 작은 입이 푸른색으로 변해가고있었다.

허나 그의 동생 헌정왕후는 차례진 운명의 야속함에 찢어지는듯싶은 마음을 가다듬을수 없었다.

한창 피여나는 20대꽃나이의 싱싱한 모습에 너무도 일찌기 찬서리가 들씌워졌으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느덧 장례가 끝나고 경종의 사촌동생인 왕치(제6대왕)가 왕위에 오르니 선대왕의 왕후들이였던 헌애왕후와 헌정왕후형제는 궁을 떠나 제각기 조용한 삶의 터를 잡게 되였다.

대궐에서 나와 왕륜사 남쪽에 자리잡은 크지 않은 저택의 독수공방에 들어앉은 헌정왕후 황보씨는 10년세월 쓸쓸한 고독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젊음을 애달프게 흘려보내고있었다.

큼직한 청동거울에 나날이 초췌해지는 자기 모습을 비쳐볼 때마다 그는 애간장이 마르도록 이성의 정을 그리워하는 자기 마음속을 혹시 그 누가 들여다보지 않는가 하여 겁에 질린 눈길로 방안을 휘둘러보군 하였다.

어느날에는 꿈속에서 자기가 높은 령에 올라앉아 소변을 보자 그것이 흘러내려 온 나라에 넘치고 마침내 은으로 변하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하고 유능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꿈풀이를 시켰더니 《아들을 낳으면 왕이 되여 한 나라를 가지게 되리라.》라는 대답이 나왔을 때 《나는 이미 과부로 되였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라고 당황해서 웨치다싶이 말하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을 덮어감추듯 저고리앞섶을 더 바싹 여미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감출수 없는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삶의 애달픔이요 가리울수록 더욱 강렬해지는것이 따뜻한 애정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였다.

꿈풀이가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이였다.

사람의 마음을 심란케 하며 락엽이 떨어져날리는 가을날에 좀체로 바깥출입이 없던 황보씨는 그 무엇에 이끌리듯 방문턱을 넘어서 마루우에 나섰다가 그만에야 담장을 마주대고있다싶이한 옆집마당에서 이쪽을 넘겨다보고 서있는 사나이와 눈길이 마주치게 되였다.

《에그머니나.》 외마디비명을 내지르며 뒤걸음치려 했지만 황보씨의 눈길은 그 사나이의 눈길에 붙잡혀 뗄수 없었고 두발은 얼어붙은듯 마루장우에서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 사나이는 태조왕 왕건의 아들인 왕욱이였다.

특별한 벼슬이 없이 지내고있던 왕욱도 홀몸인지라 오래전부터 궁궐에서 나와 옆집에 거처하고있는 황보씨의 아름다운 자태에 끌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태조대왕의 피줄을 이어받아 건장하고 번듯한 용모를 가진 사나이

에게 눈길이 끌리는 순간에 황보씨의 마음은 통채로 마당가 오동나무에서 떨어지는 큼직한 잎사귀에 실려 옆집담장을 넘어가고말았다.
때늦은 봄을 맞이한 그들의 사랑은 열렬하고 뜨거웠다.
서로의 갈망과 애정이 붙는 불에 끼얹은 기름이 되여 바싹 마른 섶나무에 지핀 불길이 더 황황 타오르도록 하였으니 지엄한 규범과 국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두 남녀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날이 흘러 막달에 접어든 황보씨의 몸을 두고 하인들의 눈길은 곱지 않았고 드디여 어느날 대낮에 한방에 든 왕실일족들의 어지러운 행실을 폭로하려고 작정한 왕욱의 집 종이 마당가에 풋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르니 때아닌 화재에 놀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조정의 문무백관들은 물론 왕 성종까지 그 사실을 알게 되였다.
그 시각 왕욱의 품에 안겨 앞날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을 안고 달콤한 사랑에 잠겨있던 황보씨는 너무도 놀라고 부끄러워 둘러싸고있는 사람들을 헤치고 뛰쳐나와 자기 집으로 달려가던중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여 집앞의 버드나무가지를 부여잡고 태질하였다.
불의에 들이닥친 엄청난 정신적충격에 그만 배속의 태아가 발버둥질을 시작했던지 버드나무아래서 해산한 황보씨는 아들을 낳은 즉시에 운명하고말았다.
성종왕은 세인의 눈이 있고 봉건국가의 법도가 있는지라 할수없이 숙부벌 되는 왕욱을 먼곳에 류배보내고 아이는 유모를 정해 거두어 기르도록 어명을 내렸다.
그때가 성종11년(992년) 7월이였다.
아이이름은 왕순, 자는 안세로서 12살때에 대량원군으로 책봉되였다.
4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류배지에서 운명하여 졸지에 부모없는 고아로 되여버린 대량원군은 서슬푸른 죽음의 칼날이 자기에게로 서서히 다가오고있는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997년 10월에 경종왕의 아들 왕송이 제7대왕(목종)으로 왕위에 오르자 그의 어머니인 헌애왕후(대량원군의 이모)는 왕태후로서 대궐에 들어앉아 섭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혈육이라는 피줄이 오히려 죽음의 독약으로 되여 대량원군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는 이모의 권력야망실현에 방해군으로 되여버리고말았다.
18살이나 되는 아들 목종왕의 정사를 보좌한다고 하면서 한사코 시작된 어머니의 섭정은 중이 고기맛을 들이면 빈대까지 잡아먹는다고

왕의 나이가 스무살이 훨씬 넘었어도 끝날줄 몰랐다.
나라의 권력을 한손에 틀어쥐고 궁궐안에서 제일 화려한 궁전인 천추전에 들어앉아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천추태후》라고 불렀다.
천추태후가 지금 천추전의 화려하고 드넓은 안방에 도사리고앉아 앙심을 품고 윽벼르는 사람은 아들의 옥좌를 넘겨다보는 세도량반도 아니고 정변음모로 왕을 폐위시키려는 반역자도 아닌 천만뜻밖에도 솜털이 보시시한 홍안의 나어린 소년, 자기 혈육이나 다름이 없는 조카 대량원군이였다.
천추태후에게는 그가 바로 다음왕위를 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삼사사어른을 모셔와라.》
시종들은 천추태후가 불러들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
그것은 그가 그토록 높은 관직에 앉아있는 인물이여서가 아니라 거룩한 국모이고 나라의 실권자인 천추태후가 제일로 믿고 총애하는 남편 아닌 남편이기때문이였다.
우복야를 겸하는 삼사사 김치양은 천추태후의 외켠친척벌되는 사나이였다.
원래부터 성정이 간교하고 광신적인 그는 머리털을 깎고 가짜중으로 변신하여 밤낮으로 천추전에 드나들면서 녀인을 유혹하고 구슬리며 온갖 추행을 일삼아 결국은 천추태후와 그사이에 아들까지 태여나게 되였다.
《그대가 조처하여 하루빨리 대량원군을 속세에서 사라지도록 해야하겠소.》
《아니, 부모도 없는 어린것이 무슨 일을 치겠다고…》
《그대는 그가 후날에 우리 아들의 왕위계승에 방해군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보지 못하셨소?》
《아하!》
그제야 김치양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실 얼굴생김새가 준수하고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글쓰기를 즐기고 머리가 총명한 대량원군을 두고 사람들은 지금 정사를 집어던지고 유흥에 빠진 무능력한 목종 대신에 섭정의 도움이 없이 정치를 펴나갈 재목이라고 지목하고있었다.
천만뜻밖에도 당장 궁을 떠나 절간으로 가 중이 되라는 명을 받은

대량원군은 자기가 무엇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 중노릇을 해야 하는지 리해할수가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니 달려가 하소연할데도 없는데다가 언제 봐도 야릇하게 웃는 얼굴에 살기와 적의가 넘치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모의 무시무시한 인상에서는 믿음과 인정미를 느낄수가 없었던것이다.

다음날로 대량원군은 개경성밖을 나서서 멀리 삼각산 신혈사의 중으로 되였다.

절간의 중들은 대량원군을 나이를 초월하여 존중하고 어렵게 대하며 끔찍이 위해주었다.

그가 신혈사에 들어온 날 밤에 절의 주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한밤중에 하늘의 큰 별 하나가 절간마당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자욱한 안개속에서 뜻밖에도 엄청나게 큰 룡 한마리가 꿈틀거리면서 기상을 떨치다가 홀연 사람으로 변한것이 바로 아침에 절에 도착한 대량원군의 모습이였던것이다.

주지이하 모든 중들은 이것을 신비하게 여기며 앞날에 도래할 큰 사변을 예언하였고 이 소문은 날개달린것처럼 온 나라에 퍼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신혈소군》이라고 불렀다.

그 기이한 사실을 전해들은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이를 갈며 안절부절못했다.

하루는 뜻밖에도 신혈사에 왕궁의 궁녀일행이 들이닥쳤다.

《왕태후께서는 도성을 멀리 떠나 깊은 산중에 들어계시는 대량원군나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있사옵니다. 밤낮으로 근심걱정하던 끝에 이렇게 갖가지 음식을 보내셨사옵니다.》

대량원군은 10여년세월 왕궁에 함께 있던 친척들의 모습이 되살아나 반가움의 눈물부터 흘리면서 진귀한 왕궁음식들을 주위의 승려들에게 권하였다.

《대량원군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오이다. 손님을 바래주고 음식을 들어도 늦지는 않을터인데… 나무아미타불!》

무거운 시선을 땅우에 던지며 념주를 매만지던 주지는 념불하듯 중얼거리며 그의 행동을 제지시켰다.

웃음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초리로 대량원군을 지켜보다가 홱 낯색이 변하며 발걸음을 돌린 궁녀일행이 산을 내려 저 멀리 사라졌을때 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음식들을 들지 말고 멀리 던지도록 하여라.》

승려들은 땅에 내려앉은 까마귀와 참새들이 음식들에 주둥이를 대자마자 날개를 퍼덕거리며 뻣뻣하게 죽어자빠지는것을 보는 순간 모두가 눈을 홉뜨며 심장이 전률함을 느꼈다.

드디여 대량원군은 모든것을 깨달았다.

천추태후는 다정한 살붙이가 아니라 자기를 해치려고 날뛰는 악독한 살인마였다.

천천히 돌아서는 그의 입에서 글귀가 흘러나왔다.

백운봉에서 흘러내리는 한줄기의 물
만경창파 멀고먼 바다로 향하누나
바위밑을 스며흐르는 물 적다고 하지 말라
룡궁에 도달할 날 그리 멀지 않으리

지금은 비록 고독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지만 마음속깊이 묻어둔 그 뜻을 기어이 이루려는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렬해지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두달이 채 못된 어느날 저녁이였다.

갑자기 두세명의 건장한 사나이들이 절간에 들이닥쳐 대량원군을 뵙자고 청하는것이였다.

자기들은 어린시절의 옛친구들인데 산천유람중에 하루밤 같이 지내며 회포나 풀고자 한다는것이였다.

늙은 주지가 부처를 모신 본당의 지하실에 대량원군을 숨기고나서 딱 잘라맸다.

《소군이 외출이 많아 그 행처를 우리도 알바 없으며 돌아오는 기일도 짐작할수 없어 만나기는 어려울것이니 단념하고 가던 길이나 계속 가는것이 좋으리다.》

천추태후가 보낸 칼 찬 살인자들인 어린시절의 친구들은 대량원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한채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대량원군의 목숨을 해하려는 천추태후의 음모가 더욱 깊어감과 함께 온 나라를 도탄에로 끌고가는 그의 악행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도 하늘땅에 차고넘쳤다.

어느날 절밖으로 나갔던 주지가 책을 읽고있는 대량원군의 앞으로 달려들어와 황급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조정에서 란이 터졌다고 하오이다. 서경의 군사들이 수도로 쳐들어와 김치양의 반역음모를 진압하고 수많은 역신들을 처리하였다고 하옵니다.

그와 함께 왕을 폐하고 대량원군나리를 후사로 선정하였다고 하오이다.》

언제인가 주지는 대량원군이 꿈에서 닭울음소리와 다듬이질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즉석에서 이렇게 해몽하였다.

《닭울음소리는 끄끼요 하고 다듬이질소리는 어근당어근당하니 이 꿈은 왕위에 오를 징조이오이다.》

즉 《끄끼요-》 하는 닭울음소리를 《고귀위-》라는 말마디로 해석하면 높을 고, 귀할 귀, 자리 위로서 높고 귀한 자리라는 뜻이요, 《어근당-》 하는 다듬이질소리는 모실 어, 가까울 근, 마땅할 당이니 꿈의 주인공이 룡상에 오를 날이 가까왔다는것이였다.

이런 생각을 더듬는 주지의 얼굴에는 경건한 감정이 비껴있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듯 대량원군은 몸가짐을 가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붓을 들어 시 한수를 종이우에 휘갈겼다.

약포에 도사리고앉은 작고작은 저 배암
온몸에 붉은 무늬 찬란히 번쩍이네
언제나 꽃밭에만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하루아침에 룡되기란 어렵지 않으려니

약초밭에 숨어사는 작은 존재와 같은 자기자신의 모습에 비겨 큰 사변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웅심깊은 속생각을 남김없이 그려낸 시였다.

그가 붓끝을 종이우에서 채 떼기도 전에 갑자기 절간마당이 소란스러워지더니《대량원군을 모시러 온 행차요!》 하는 웨침소리가 방안으로 날아들었다.

그들은 수도에서 파견되여온 황보유의, 김응인을 비롯한 량반대신들이였다.

그보다 앞서 천추태후를 디딤돌로 하여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고 친척들과 추종자들을 나라의 요직에 수많이 끌어들여 지반을 닦아온 김치양과 그 일당의 왕권탈취가 현실로 눈앞에 닥쳐온 속에 더는 옥좌를 지탱해나갈 의욕을 잃고 병에 걸린 왕은 서경에 있는 서북

면도순검사 강조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 왕궁을 지키도록 명을 내렸다.

그와 함께 중추원사 최항, 급사중 채충순을 은밀히 불러 의논하고 신하들을 급히 신혈사에 보내여 대량원군 왕순을 맞아다가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한편 어명을 받들어 5천여명의 정예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올라오던 강조는 간신무리의 흉계소식을 듣고 드디여 정변을 일으켰다.

수도에 입성한 강조는 김치양과 그의 아들, 합문사인 유행간 등 그 일당들을 처단하고 거란에 사대하며 나라의 국력은 아랑곳하지 않은 무능하고 부화방탕한 왕 목종을 페위시켜 천추태후와 함께 왕궁에서 내보냈다.

페왕 목종은 류배지인 적성(장풍)으로 가던중 죽고말았다.

이리하여 1009년 2월에 신하들의 환호속에 연총전에서 왕위에 오른 17살의 대량원군이 바로 고려 제8대왕 현종이였다.

현종이 왕위에 올라 무엇보다 중요시한것은 비명에 돌아간 부모들의 령혼을 위로하고 잘 모시는것이였다.

하여 1017년 수도의 동쪽 깊은 산속의 경치좋은 금신봉중턱 남향에 자리잡은 건릉에 사수현(경상남도 사천)으로 귀양갔다가 996년 그곳에서 죽은 아버지 왕욱의 유해를 이장하였고 바로 그아래에 어머니 헌정왕후 황보씨의 무덤인 원릉을 만들었다.

그리고 1018년부터 1023년까지 건릉과 원릉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수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웅장화려한 건축물들과 돌탑, 비석, 당간지주, 돌다리 등 우수한 돌구조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사찰을 일떠세우고 부모들이 만시름을 잊고 평온하게 잠들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감을 현, 될 화, 절 사자를 써서 《현화사》라고 이름지었으며《왕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여 현화사를 창건하였다.》는 내용을 아로새긴 호화로운 룡틀임으로 조각한 현화사비를 세웠다.

그러나 현종의 갸륵한 효성은 력대봉건통치배들에게 여지없이 우롱당하였고 력사에 비극적인 자취만을 남기였다.

부패타락한 고려의 왕들은 너도나도 뛰여난 산천경개로 소문이 자자한 현화사주변에 정각들과 못을 건설하여 이곳을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유흥터로 전락시켰으며 현화사의 중미정부역장에서는 백성들의 피땀으로 엮어진 《중미정의 눈물》이라는 가슴아픈 일화가 고려력사의 한페지에 기록되여 오늘까지 전해져오고있다.

할딱고개

정 일 복

하루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울창한 나무숲의 그림자가 동쪽으로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오관산아래 령통골의 서북쪽산골짜기로 걸음을 재촉하는 나이지숙한 녀인이 있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풀먹인 치마자락이 와삭와삭 소리가 날 지경으로 발걸음을 다그치기 시작하였다.

경사급한 골짜기의 저끝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녀인의 두눈에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마음이 어려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활딱 붉어지는 얼굴에 이상야릇한 웃음까지 피워올리는것이였다.

녀인은 지금 날개라도 있다면 당장이라도 훨훨 날아가고싶은 심정뿐이였다.

오래간만에 산을 내려 찾아간 딸네 집에서 하루밤도 지내지 않고 딸, 사위는 물론 외손녀의 손까지 뿌리치며 돌따선 그에게는 딸자식에게조차 차마 말할수 없는 그만의 절박한 사정이 있는것이다.

(령감님과 어떻게 하루밤이라도 떨어질수 있단 말인가.)

한시도 이 마음을 놔주지 않는 령감님의 뭉클한 애정에 대한 그리움, 그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뒤로 미루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는 말 못할 사정인것이다.

생각만 해도 온몸이 순간에 불덩이처럼 확 달아오르고 마음을 흥그럽게 해주는 령감님과의 즐거운 잠자리였다.

사실 얼마전까지만도 구새먹은 나무등걸처럼 몸과 마음이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던 령감님이였다.

저녁이면 하루일의 피곤도 깊은 잠을 불러오지 못하는지 밤깊도록 고콜불밑에서 삿자리를 결기도 하고 뙤창너머 저 멀리 밝은 달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군 하는 령감이였다.

령감님이 그럴수록 오히려 애달픈것은 로친네쪽이였다.

썰렁한 잠자리에서 허전한 마음으로 (아마도 독수공방의 설음이란 이런것인가부다.) 하며 이리저리 뒤척이는새면 어느새 새벽닭이 울군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령감님의 신상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다.
얼굴빛이 점차 불깃불깃해지기 시작하더니 재를 뿌린듯싶던 머리칼에서 윤기가 느껴지고 뿌옇던 눈빛에서 황황 등불이 타오르는것이였다.
그와 함께 저녁밥상을 물리기 바쁘게 고콜불을 훅 불어끄고 마누라의 몸을 손더듬질하며 다정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하더니 곧 맹렬하게 돌진해들어오는것이였다.
《에그머니나, 이 무슨 망측한…》
하면서도 마누라는 한없이 즐겁기만 하였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기쁨을 다시 맛보는 순간은 감회가 새롭기 그지없어 눈물이 핑 돌고 이것이 정녕 생시인가싶어 자기 넙적다리를 꼬집어보기까지 하였던것이다.
(양춘이 다시 찾아와 고목에 꽃이 핀다더니 그 말은 정녕 우리 령감님을 두고 하는 소린가부다.)
령감님의 용력은 천마산의 웅건한 산악과 같고 아름드리 참나무를 뻗쳐세운듯 드세차기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러니 어찌 하루도 빠짐없이 거쿨진 체구로 지그시 눌러대며 마누라를 하늘나라의 요지경속으로 이끌어가는 령감님과 단 하루밤이라도 떨어져지낼수 있단 말인가. 령감님의 능청스럽게 내려다보는 부리부리한 두눈과 애기주먹같이 큼직한 코, 애무의 정이 한껏 어려있는 두툼한 입술을 눈앞에 그려보느라니 갑자기 짜릿한 쾌감이 온몸으로 찌르르 퍼져가면서 가슴이 활랑거리고 숨이 막 차올랐다.
하여 마치도 하늘땅을 가로막듯이 높이 치솟아있는 높고 험한 산고개에 접어드는 녀인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하루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던 령감님은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높은 령마루를 올려다보더니 그만에야 대문밖으로 달려나오고말았다.
아무리 불같은 마음과 산악같은 용력이 솟구친들 그것을 받아줄 마누라가 없는데야 그 모든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한달음에 령마루로 달려올라가 저 멀리 딸네 집 따뜻한 아래목에 편안히 누워있을 마누라를 소리쳐 불러올 기상으로 고개길에 접어든 령감님의 마음 또한 황급하기만 하였다.
령감님에게는 아직 마누라에게 말하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정력에 넘쳐 사내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된 신기한 비방이였다.

얼마전에 산발을 타며 버섯을 따던 그가 천마산 막바지 깊은 골바닥에서 잠시 쉬고있을 때였다.

한무리의 노루가 물가에 내려와 맑은 물을 마시며 노니는 모습을 지켜보던 령감님은 그만 놀라운 광경앞에서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되였다.

노루무리를 거느린 한마리의 수컷이 여러마리의 암컷들과 차례로 사랑놀음을 벌리는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럴수가…)

그런데 더욱 이상한것은 한참동안이나 서로 온몸을 비비면서 한차례의 일을 끝낸 수컷이 지친 몸으로 껑충껑충 산기슭으로 달려가더니 한곳에서 푸르싱싱 자라는 풀잎을 한참 뜯어먹고 다시 기력을 돋구어 또 다른 암컷과 애정을 나누는것이였다.

이렇게 이상한 풀잎을 먹어가며 한마리 또 한마리 모든 암컷들을 다 휘둘러댄 수컷이 그만에야 할일을 다한듯 뿔돋은 머리를 자랑스럽게 쳐들고 자기 무리를 몰아 산속으로 사라졌다.

령감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산기슭으로 달려가보니 그것은 평시에 무심히 스쳐지나던 이름없는 풀이였다.

(이 풀이 수컷으로 하여금 저토록 용을 쓰게 만든단 말인가?!)

나이를 먹어감과 함께 기력이 쇠진하여 마누라곁에 가본지가 언제인지 생각조차 희미한 그였다.

하기에 령감님에게는 초가을에 한창 독이 올라 검푸른 색을 띤 그 풀이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령물로 여겨졌고 그날부터 씁쓸한 맛이 느껴지는 잎사귀를 달게 뜯어먹었다.

집에 가지고가서는 시치미를 뚝 떼며 《허리가 시큰한데 좋다누만.》하고 마누라에게 안겨주어 진하게 달인 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어느날 이른새벽 잠자리에서 령감님은 갑자기 두다리사이에 맥없이 늘어져있던것이 불끈 살아움직이는감을 느꼈다. 두손으로 그것을 움켜잡은 령감님은 숨결이 느껴지는 큼직한 연장을 희열에 넘쳐 쓸어만지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제는 됐구나!)

마치도 얼굴이 보름달같은 처녀를 안해로 맞아들인 혼례식 첫날밤 두눈을 살풋이 내리깔고 신방에 든 새색시의 저고리고름을 헤덤비며 풀어제끼던 20대의 청춘으로 환생한듯싶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며 가파롭고 험한 고개길을 힘차게 톺아오르는 령감님이 입안소리로 웅얼거렸다.

《하필 이렇게 급할 때에 집을 떠날건 뭐람. …》

마누라의 선한 얼굴을 그려보느라니 몸이 막 달아오르고 숨이 가빠져 떡 벌어진 동가슴만이 풀무질하듯 세차게 들먹거렸다.

아마도 마음속 흥분이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지 헐떡이던 숨소리가 헉헉하는 모두숨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할딱할딱 겨우 숨을 내쉬는 판이였다.

령감님이 이럴진대 마누라의 심정이야 오죽하랴.

땀줄기가 젖가슴짬으로 흘러내렸지만 아랑곳없이 종다리를 휘감는 치마자락을 무릎우로 걷어올린채 달려가는 녀인의 눈앞에는 오직 령감님의 미더운 모습만이 얼른거렸다.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령감님의 애정에 몸을 맡길 때야말로 모든 시름을 다 잊고 행복의 무아경속에 잠기는 순간이였다.

애정에 대한 끓어오르는 갈망으로 마음만 앞설뿐 도무지 길이 축나지 않는것 같아 허둥대는 녀인의 입에서는 씩씩 몰아쉬던 모두숨이 이제는 턱에 닿아 할딱할딱하는 가냘픈 숨소리로 변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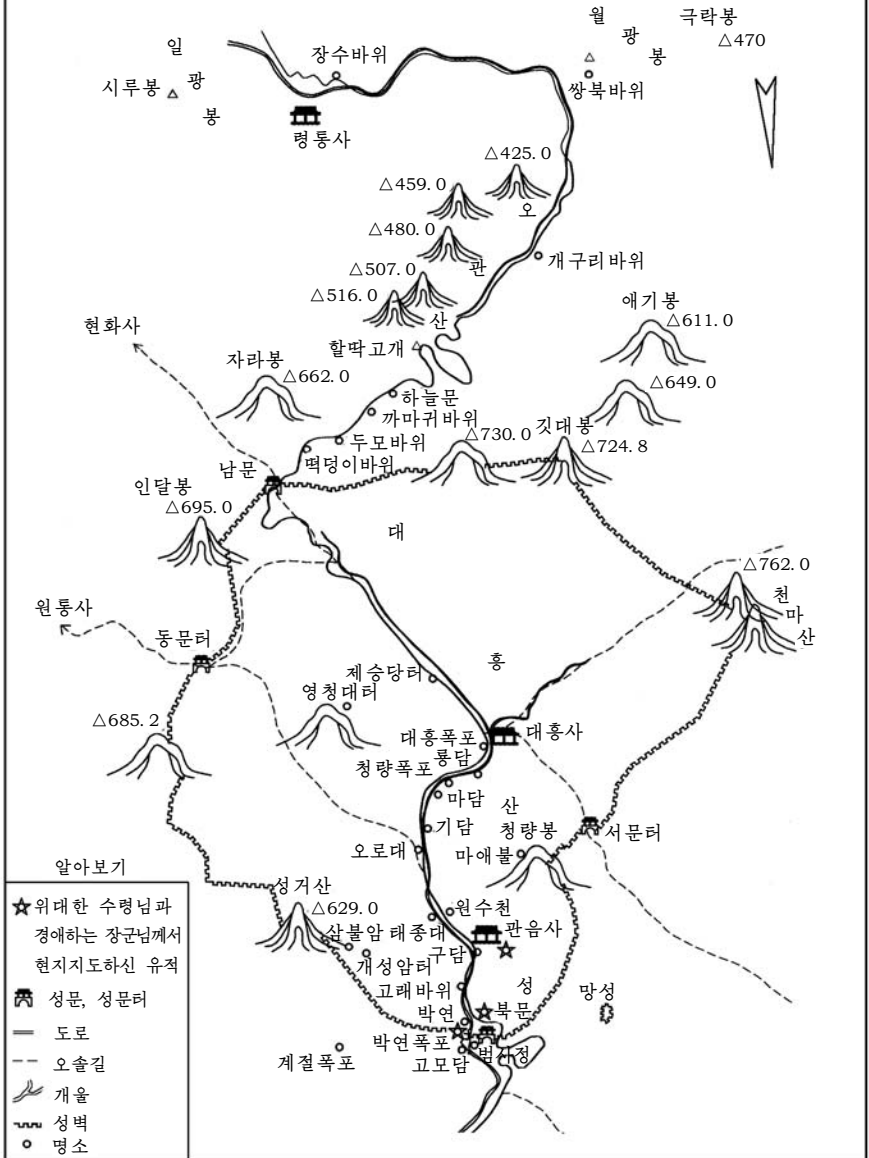
이렇게 높은 고개마루를 사이에 두고 량쪽에서 경사급한 고개길을 톺아오르며 뜨거운 애정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는 령감님과 마누라의 마음이야말로 그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인가.

하기에 령감님과 마누라가 약속이나 한듯이 고개마루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할… 할… 할딱, 할… 할… 할딱…》하는 외마디소리뿐이였다.

할딱, 할딱하는 숨소리와 더불어 부부간의 뜨거운 정을 나누는 모습앞에서 둥근 보름달도 구름뒤로 슬며시 숨어들고 솨솨 설레이던 나무숲도 급기야 소리를 죽이는데 초가을의 미풍만이 애정으로 달아오른 몸들을 식혀주려는듯 고요히 설레고있었다.

그때로부터 령통사가 자리잡은 령통골에서 대흥산성 남문으로 오르는 길 중간에 자리잡고있는 높고 험한 고개를 가리켜 그토록 부부간의 애정을 그리워하는 령감님과 마누라의 할딱이는 숨소리가 깃들었다고 하여 《할딱고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령감님의 정력을 돋구어주는데서 그처럼 비상한 효력을 나타낸 이름없는 풀은 한줄기에 세개의 가지와 매 가지에 세개씩 아홉개의 입사귀가 붙어있다고 하여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며 음양의 생성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음양곽》이라고도 부르는 귀한 약초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오죽했으면 항간에서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팔팔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여 《팔팔이》라고도 하겠는가.

박연—령통사 유람도로주변의 명승유적안내도
일
광
봉
시루봉
장수바위
령통사
월
광
봉
극락봉
△470
쌍북바위
△425.0
△459.0
오
△480.0
관
개구리바위
△507.0
△516.0
산
애기봉
△611.0
현화사
할딱고개
자라봉
△662.0
△649.0
하늘문
까마귀바위
△730.0
짓대봉
△724.8
두모바위
떡덩이바위
남문
인달봉
△695.0
대
△762.0
천
마
산
원통사
동문터
흥
제승당터
영청대터
△685.2
대흥폭포
대흥사
룡담
청량폭포
마담
산
기담
청량봉
서문터
오로대
마애불
알아보기
성거산
△629.0
원수천
삼불암
태종대
관음사
개성암터
구담
고래바위
성
망성
박연
북문
박연폭포
범사정
계절폭포
고모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유적
성문, 성문터
도로
오솔길
개울
성벽
명소

박연전설

집 필	리성덕, 리중필, 김정민 외 15명
편 집	리 원 희
표 지	류명구, 정윤철, 김수남
편 성	리 설 희
교 정	김 연 옥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2월 10일
발 행	주체101(2012)년 2월 15일

ㄱ－16589　　값 160원

ISBN 978－9946－22－468－8